

신학적 강해의 대가 데이비스 박사의
전선지서 주해 시리즈 5



사무엘하 주해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시는 이



저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
역자 이창배

키 드 바로 주경 연구소

2 SAMUEL

Out of Every Adversity

By

Dale Ralph Davis

Translated by

Chang Bae Lee

ISBN 978-1-84550-270-6

© Dale Ralph Davis

First published in 1999 (ISBN 978-1-85792-335-3)

Reprinted in 2001, 2004, 2007, 2009, 2010, 2013 and 2018

in the 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Series

by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Ltd.,

Geanies House, Fearn, Ross-shire, IV20 1TW, Great Britain

www.christianfocus.com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Chang Bae Lee

저자 소개

데일 랄프 데이비스(Dale Ralph Davis)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콜럼비아에 위치한 제일 장로 교회 목사였고 그 이전에는 해티스버그에 있는 우드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였다. 그는 전에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전에 성경 핵심 주석(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시리즈 가운데 **여호수아**(ISBN 978-1-84550-137-2), **사사기**(ISBN 978-1-84550-138-9), **사무엘상**(ISBN 978-1-85792-516-6), **열왕기상**(ISBN 978-1-84550-251-5), **열왕기하**(ISBN 978-1-84550096-2)에 대한 주석도 썼다.

역자 소개

이창배 목사는 국제대학교 영어영문과(B.A.),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M.E.), 총회신학연구원(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M.A., Ph.D.)를 졸업했다. 역자는 한국에서 총회신학연구원, 개혁신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에서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Evangelia University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다. 역자는 엘리스 알 브로츠만의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와 데일 랄프 데이비스의 **구약 내러티브, 어떻게 분석하고 강해할 것인가?** 그리고 **여호수아 주해와 사사기 주해와 사무엘상 주해**를 번역하였고, **룻기 원문주석, 십계명 주해, 이사야 53 장 주해,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교본, 아람어 문법**을 썼다.

목차 (Contents)

서문

(Preface)	vi
역자 서문 (Translator's Preface)	vii
약자 (Abbreviations)	ix
서론 (Introduction)	x

제 1 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삼하 1-8 장, A Man After God's Own Heart)

1. 왕국의 원리들 (삼하 1:1-16 Kingdom Principles)	2
2. 슬픈 노래 (삼하 1:17-27 Good Grief)	8
3. 두 왕국의 이야기 (삼하 2:1-11 A Tale of Two Kingdoms)	17
4. 약속이 지배한다 (삼하 2:12-3:39 Promise Rules)	25
5. 사람의 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삼하 4:1-12 The Gore of Man Does Not Work the Righteousness of God)	35
6. 왕국 콜라주 (삼하 5:1-25 Kingdom Collage)	44
7.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희열 (삼하 6:1-23 The Terror and Ecstasy of God)	56
8.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삼하 7:1-17 Getting to Know the Covenant God)	67
9.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앉고 서라 (삼하 7:18-29 Sit Down and Stand on God's Promise)	79
10. 왕국의 도래 (삼하 8 장 The Coming of the Kingdom)	89

제 2 부 하나님의 채찍 아래 있는 종 (삼하 9-20 장, A Servant Under God's Rod)

11. 언약을 들어올려라 (삼하 9 장 Up With Covenant!)	97
12. 외교상의 어리석음 (삼하 10 장 Foreign Folly)	105
13. 육과 혈 (삼하 11 장 Flesh and Blood)	114
14.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 (삼하 12 장 Grace Greater Than All Our Sin)	123
15. 모든 가족 (삼하 13 장 All in the Family)	136
16. 조작자들 (삼하 14 장 Manipulators)	147
17. 정치와 신앙 (삼하 15 장 Politics and Faith)	157

18. 내 원수들 앞에서 (삼하 16 장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167
19. 그분의 나라는 실패할 수 없다 (삼하 17 장 His Kingdom Cannot Fail)	178
20. 슬픈 승리 (삼하 18:1-19:8 The Sad Triumph)	190
21. 환영받는 환궁일까 (삼하 19:9-43 Welcome Home – Maybe)	204
22. 깜짝 놀랄 일들이 아니다 (삼하 20 장 No Surprises)	213
제 3 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왕국 (삼하 21-24 장, A Kingdom in God's Hand)	
23. 언약 파기의 대가 (삼하 21:1-14 The Cost of Covenant-breaking)	224
24. 크면 클수록 더 힘들게 넘어진다 (삼하 21:15-22 The Bigger They Are, The Harder They Fall)	237
25. 많은 위험과 고생과 올무를 지나 (삼하 22:1-51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243
26. 마지막 말은 앞을 내다본다 (삼하 23:1-7 Last Words Look Forward)	255
27. 용사들 만세 (삼하 23:8-39 Hail to the Chiefs)	262
28. 물지각한 인구 조사 (삼하 24:1-25 Senseless Census)	271

서문 (Preface)

강해 중심의 주석(주해)들을 쓰는 것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잔디 깎는 기계를 수리하거나 서가를 짓는 것(다른 예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음)과 상당히 비슷하다. 주해를 쓰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작했다면 계속 써 나가는 것보다 더 나은 생각은 없다. 아마도 그것은 완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때문일 것이다. 나는 전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에 대한 주해를 썼다. 이번에 사무엘하에 대한 주해가 완성되어 크리스찬 포커스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학생이든 나의 이전 주해들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받은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제 사무엘하 주해를 내놓는다. 예를 들어, 무엇보다도 어떤 주해가 누군가에게 무엇보다도 구약의 어떤 책을 설교하도록 격려를 주었다는 말을 듣는 것은 항상 고무적인 일이다!

이 책의 형식에 대해 한 마디 하고 싶다. 전체 성경 본문은 이 주해에 실리지 않았다. 이것은 의도적인 생략이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전체 본문을 생략한 이유는 아니다. 나는 이 주해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며 이 주해가 여러분의 성경을 대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 항상 여러분의 성경으로 돌아가 참조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성경 전체 본문에 대한 생략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계속 의존하도록 하기 위한 음모이다.

나는 이 책을 아버지 J. 대릴 데이비스와 어머니 매리 윌슨 데이비스를 기리며 바친다. 나는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해 왔지만 해가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 전에 나의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 은혜를 부으실 때 그것의 대부분을 나의 부모님을 통해 흐르게 하셨던 것을 고백한다.

1997 년 승천일에

역자 서문 (Translator's Preface)

아직도 온 세상이 Covid-19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데이비스 박사의 사무엘하 주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을 마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힘든 일이었지만 즐겁고 복된 일이었다. 번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다. 독자들도 이 사무엘하 주해를 통해 “사무엘하가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보다 분명히 보며 “한 언약 왕에게 언약의 약속들을 주시고 그 왕을 통해 자기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데이비스 박사의 통찰들 가운데 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사무엘하와 같은 역사적 내러티브를 읽을 때마다 독자들이 시선을 등장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다윗 언약(삼하 7:1-17)에 대한 본문을 다루며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여호와와의 지혜, 여호와와의 겸양, 여호와와의 은혜, 여호와와의 항상성”으로 나누어 설명한 후 우리의 필요가 가장 적절하게 충족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고 결론짓는다.

저자는 사무엘하 13 장에서 네 명의 등장 인물이 너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걱정을 보인 압논, 원칙이 없는 지혜를 보인 요나답, 공의가 없는 분노를 보인 다윗, 자제력이 없는 증오를 보인 압살롬”의 제목 아래 그들의 결핍된 모습을 길게 설명한다. 그렇지만 저자는 서론과 결론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네 인물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 왕국에서의 삶은 욕정, 음해, 나약, 증오”가 판을 치며 “재앙이 연달아 일어난다.” 마치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인간의 번덕과 죄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의 말씀(삼하 12:10-11)을 성취하고” 계셨다고 대답한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거기 계셨다. 저자는 이 확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정신으로 살도록 지켜준다고 해설한다.

저자는 문학적 구조와 특징이 본문의 이해와 가르침에 도움을 주는 측면을 자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삼하 17:1-23 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는 14 절 말씀은 문학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아히도벨의 조언(A 1-4 절)과 최후(A' 23 절)가 바깥 틀을 이루고, 압살롬의 질문(B 5-6 절)과 다윗의 정보원들(B' 17-22 절) 그리고 후세의 조언(C 7-13 절)과 전언(C' 15-16 절)이 안쪽 틀로서 여호와의 비밀(X 14 절)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삼하 17:15-22 의 중앙 집중식 역순 대구 구조에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내려가서 숨은 우물은 가장 중앙에 오며 "문자적으로나 구조상으로나 가장 낮은 지점"이다. 저자는 이 에피소드가 "구사일생의 탈출이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조그만 신호"라고 해설한다.

데이비스 박사는 사무엘하 본문을 아주 적절하게 신약과 연결 짓는다. 사무엘하 7 장에 의하면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은 죽음이 그것을 취소하지 못하고(12-13 절), 죄가 그것을 파괴할 수 없고(14-15 절), 시간이 그것을 소멸시키지 못할 것이다(16 절). 다윗 왕조를 통한 여호와의 왕국 계획은 막을 수 없다. 그분은 그것을 가져오는 데 필요하다면 죽음, 죄, 시간을 제압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해 오셨다. 한 아이, 다윗 계보의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 그는 죽음을 짓밟고 우주의 최고의 권세와 권위의 자리(성경[엡 1:20-23]에서 불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우편")에서 그의 끝없는 통치를 시작했다. 여호와의 왕국은 막을 수 없다.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버릴 권리가 없었듯이 참된 제자는 다윗의 자손을 버릴 권리가 없다(참조, 요 6:66-71). 압살롬의 반역 때 아히도벨과 대조적으로 이방인 소비와 전직 사울 신봉자 마길과 매우 늙은 노인 바르실래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편에 서 있었다. 이스라엘은 한 명의 언약 왕이 있었고 그들은 그를 포기할 권리가 없었고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언약적으로 기독교인 제자는 "다윗의 자손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관계에 서 있다." "그분의 권위와 통치에 대한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분이 아무리 많이 비하되고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시인하고(마 10:32-33) 그의 백성을 지지하라는 명령 아래 있다."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선택의 신비와 보존의 기적"으로 인해 다윗(삼하 22:2-3)처럼 찬양을 폭발적으로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다(시 33:1). 사무엘하 주해를 통해 "유일하신 언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바란다.

2022 년 부활절에 미국 북가주 더블린에서

약자 (Abbreviations)

ABD	<i>Anchor Bible Dictionary</i>
ANET	<i>Ancient Near Eastern Texts</i> , 3rd ed.
BDB	Brown, Driver, and Briggs, <i>Hebrew and English Lexicon</i>
IDB	<i>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i>
IDBS	<i>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ary Volume</i>
ISBE	<i>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i>
JB	Jerusalem Bible
JSO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KJV	King James Version
LXX	The Septuagint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BD	New Bible Dictionary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JB	New Jerusalem Bible
njps	Tanakh: A New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Hebrew Text (1985)
NKJV	New King James Version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REB	Revised English Bible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TDOT	<i>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i>
TEV	Today's English Version
TWOT	<i>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i>
ZPEB	<i>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i>

서론: 도용에서 거짓말로 (Introduction: From Theft to Lie)

이 강해의 제목(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신 이, Out of the Adversity)은 삼하 4:9 에 나오는 다윗의 말에 대한 RSV 의 번역에서 **도용**한 것이다. 거기서 다윗은 맹세 공식을 사용할 때 여호와를 “모든 역경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라고 묘사한다. 이것은 경솔한 말이 아니었다. 사무엘상 18-31 장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 공식은 단지 다윗의 삶의 한 단계나 한 부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묘사한다. 삼하 4:9 에 나오는 그의 진술은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그의 초기 통치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통치가 끝날 때 똑같은 말을 사용한다(왕상 1:29). 다윗과 환난은 그의 평생 동안 함께 걸었다.¹ 다윗은 사무엘하의 인간적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생애를 묘사하는 어구는 이 주해의 제목으로 삼는 데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서둘러 사무엘하가 다윗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인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사무엘하 주석을 읽은 후에) “오, 이제 나는 다윗에 대한 어떤 것이든 사랑한다.”라고 말할까 봐 걱정이 된다. 이해하지만 움찔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성경 내러티브에 대한 이러한 **피플**(People) 잡지식 접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사무엘하를 읽을 때 우리는 되풀이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치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약의 왕들에 대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한 언약 왕에게 언약의 약속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 그분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려는 언약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하의 주요 부분들에 대해 한 마디하고 싶다. 나의 책 **사무엘상 주해**의 서론에서 나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명확한 구분 표시들이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¹ 요압은 본능적으로 다윗의 삶을 고난과 연결시켰다. 삼하 19:7(히브리어 성경, 19:8)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그의 꾸짖음에 유의하라.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은[조트]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하라아, the evil; 새번역: 환난; 공동번역: 불행; 우리말성경: 재앙]보다 더욱 심하리이다[라아].” 프란시스코(Clyde Francisco, ‘1-2 Chronicles,’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12 vols. [Nashville: Broadman, 1970], 3:360)는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림 같은 표현, “[브하이팀 아세르 아브루 알라브] the circumstances [lit., times] that **came over** him, 그의 위로 다가왔던 상황들(대상 29:30)”에 주목한다. 이 표현은 파도가 해안으로 몰려오듯이 끊임없이 계속된 어려움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역자 주] 대상 29:30 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NIV: the circumstances that surrounded him; ESV/NASB: the circumstances which came upon him; KJV: the times that went over him; NKJV: the events that happened to him; 개역개정: 그의 *지난* 날의 역사; 새번역/공동번역: 그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 쉬운성경: 다윗 *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처음 네 주요 부분이 요약 구절로 마감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무엘상하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장 구분	주된 초점	요약 구절
삼상 1-7 장	사무엘	삼상 7:15-17
삼상 8-14 장	사울	삼상 14:47-52
삼상 15 장-삼하 8 장	다윗 I	삼하 8:15-18
삼하 9-20 장	다윗 II	삼하 20:23-26
삼하 21-24 장	왕국	

이것은 사무엘하가 세 번째 주요 부분의 중간에서 시작하고 사무엘하 8 장과 20 장의 끝에 나오는 요약 구절이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요 부분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사무엘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개요를 제안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삼하 1-8 장

하나님의 채찍 아래 있는 종, 삼하 9-20 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왕국, 삼하 21-24 장

나는 여러분이 계속 읽기를 바란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무엘하는 **거짓말로** 시작한다.²

² 저자나 저작 연대에 관하여 나는 나의 책 **사무엘상 주해**의 서론에서 썼던 것을 그대로 반복한다. 우리는 사무엘상하의 저자나 저작 연대를 모른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유수나 그 이후에 현재 형태의 본문과 같은 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매우 복잡한 구성의 역사를 주장한다(Georg Fohr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1968], 217-226 참조). 다른 학자들은 (삼상 27:6b 의 논평과 같은) 소수의 변경을 제외하고 "사무엘상하는 다윗 통치의 끝 무렵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한다(William Sanford LaSor, David Allan Hubbard, and Frederic William Bush, *Old Testament Survey: The Message, Form, and Background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2], 229). 그리고 Wolf, "Samuel, 1 and 2," 261 도 보라.

제 1 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God's Own Heart)

사무엘하 1-8 장

1. 왕국의 원리들 (삼하 1:1-16 Kingdom Principles)

장 자크 루소는 육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인쇄하는 것(예: 그의 **에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는 아이들과 노는 것을 자기보다 더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는 왜 그의 아내 테레제가 낳은 다섯 명의 아기를 버렸는가?¹ 루소의 경우 겉모습과 실제, 그리고 출판과 실천은 일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전초 기지로 숨을 헐떡이며 뛰어드는 아말렉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진정한 슬픔의 모든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삼하 1:2). 그는 갈릴리 바다(구약의 긴네렛)의 남쪽 끝에서 남서쪽으로 약 18 마일 떨어진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이스라엘 분쟁에서 나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사울 왕은 심한 부상을 입은 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고문하며 서서히 죽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의 칼 위에 얹드려졌다(삼상 31:3-5). 이스라엘에게는 암울하고 어두운 날이었다.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살해되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암울하고 어둡고 피비린내나고 침울했다.

이 아말렉 사람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재난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결국, 어떤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아무도 80 마일을 여행하지는 않을 것이다.² 그 여행은 그에게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살인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독자들은 그가 (더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가 진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정부 일자리를 얻는 것에 대해 진지했다.

이 단락은 다윗이 사무엘상 24-26 장에서 직면했던 문제를 제기한다. 왕국은 어떻게 다윗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는 여호와의 선물로 그것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주도로 그것을 잡아야 하는가? 분명히 그 아말렉 사람은 여호와의 약속들(그가 그것들을 알고 있었다면)에 약간의 밀어붙이기가 필요한 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삼하 1:10). 다윗과 내레이터는 이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왕국의 원리들이 왕국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원리들 중 몇 가지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거짓의 탄로로 시작한다.

¹ Paul Johnson, *Intellectuals* (New York: Harper & Row, 1988), 21.

² 시글락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명히 그것은 유다의 남서쪽(참조, 수 19:1-9)에 있었고 블레셋 가드의 전초 기지(참조, 삼상 27 장)였다.

I. 거짓의 탄로 (특히, 삼하 1:6-10, The Exposure of Falsehood)

사무엘상 31 장에서 사무엘하 1 장으로 바로 와서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평범한 독자는 “하지만 나는 사울이 길보아에서 자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영광스럽게도 자신이 사울에게 안락사라는 우호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일어났던 일에 대한 내레이터의 묘사(삼하 31 장)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났던 일에 대한 아말렉 사람의 보고(삼하 1:3-10)를 갖고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내레이터와 아말렉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면, 항상 내레이터를 신뢰하라.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아말렉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아말렉 사람을 너무 빨리 비난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카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울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자기 옆에 병기든 자나 호위병 없이 아주 고립되어 있어서 우연히 지나가던 아말렉 사람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도록 의지해야만 했을 것 같지는 않다.³ 그러나 만약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상을 받기를 원했다면, 그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꾸며야”만 했을 것이다. 어찌 그가 겁쟁이처럼 살금살금 걸어나니며 사울이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험이 없을 때 왕의 휘장을 덮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가 어떻게 왕관과 팔찌를 얻었는지 설명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투가 한창일 때 그가 친절하고 침착하게 사울이 위엄 있게 죽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용감하게 들렸겠는가?⁴ 그것은 훨씬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아말렉 사람은 정의로운 처벌을 받았지만(삼하 1:15-16), 그것은 아이러니가 섞인 정의로운 처벌이었다. 그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하지 않았지만) 그가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는 비록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았어야 하는 것을 받았다.

3 C.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286.

4 아말렉 사람은 삼하 1:6 에서 사울의 곤경을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아말렉 사람이 전투가 한창일 때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거의 영웅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그가 사울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사울의 시신을 전장에서 끌어내었을 것이고 그 지역을 곧 살살이 뒤질 블레셋 전리품 수집가들에게 넘어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삼하 31:8-10). 그 대신 그는 사울의 왕적 상징물들만을 훔쳤다. 이런 입장에 대하여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I Sam. 13-31 & II Sam. 1)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86], 686 을 보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를 찾아내고, 그의 거짓말에서 그를 찾아내어 그의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의 의도에 따라 그에게 갚아준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의 첫 장에서 우리를 폭로하시고, 마음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며(시 51:6), 우리의 은밀한 죄를 그분 앞에 환히 드러내시는(시 90:8)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이것은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존감을 높일 필요를 느낄 것이고(행 4:32-37 에 비추어 행 5:1-11 을 보라) 그것 때문에 무덤에 나란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왕들과 교회들을 속일 수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누구도 (공개를 위한) D-데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눅 12:2-3).”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눈을 속이면 하늘의 시선도 피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꺼안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한다.

한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스코틀랜드 청년이 있었다. 딩월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범죄가 발생했다. 한 소년이 정원에 들어가 매실 나무를 벗겼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범인은 알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안식일에 교회의 어린이 예배가 있을 때, 존 케네디 목사가 설교하고 있었다. 그는 시 11:4 에 근거하여 “그분의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분의 눈꺼풀로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 분에 대하여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극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오늘 저녁 자두를 훔친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다! 나는 그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그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알고 있다. 나는 서재의 창을 통해 그가 담을 뛰어넘어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서 숨가쁘게 집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나는 그 전부를 보았고, 하나님도 보셨다.”⁵

순박한 스코틀랜드 소년들과 나쁜 일을 꾸미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리, 즉 우리가 여호와의 나라에서 보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는 시글락(또는 딩월)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역사의 사건들과 연결되지 않은 단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말렉 사람의 경우를 통해 우리가 사무엘하 1 장에서 보는 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의 예고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신

⁵ Donald Beaton, *Some Noted Ministers of the Northern Highlands* (Glasgow: Free Presbyterian, 1985), 276-77.

분이다(롬 2:16).

II. 애도의 긴급성 (삼하 1:11-12 The urgency of grief)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삼하 1:12)

애도의 긴급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안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본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한 발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을 보면, 우리는 이 요점과 삼하 1:11-12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삼하 1:1-16 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아말렉 사람의 도착, 삼하 1:1-2

대화, 삼하 1:3-10 (3 가지 질문)

반응, 삼하 1:11-12

대화, 삼하 1:13-14 (2 가지 질문)

아말렉 사람의 제거, 삼하 1:15-16

이 구조를 보면 삼하 1:11-12 은 이야기의 중앙에 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나는 여러분이 10 절 직후에 13 절이 계속되는 것을 더 좋아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슬픔이 고조되는 동안 그 아말렉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제보자와 함께 당장의 상황을 정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 아말렉 사람으로 기다리게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군대가 멸망당한 것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호와의 백성이 박살이 났다. 애도는 기다릴 수 없다.

나는 저자가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의 엄격한 연대순을 변경했는지 잘 모르겠다. 성경 저자들은 연대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저자가 그 아말렉 사람의 보고가 있는 직후에 울부짖는 소동을 털어놓음으로써 우리의 문학적 경향을 거꾸로 서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뇌를 토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처형조차도 기다릴 수 있다. 저자가 제시한 구조와 순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방식이다.

본문의 문학적 패턴은 3 학년 소녀가 친구들과 함께 오후 놀이 시간에 기린이 학교 운동장을 가로 질러오는 것을 본 것과 비슷할지 모른다. 시간적으로 철자 시험과 피자 점심이 기린을 본

것보다 먼저 있었을지라도, 집에 돌아온 그 아이는 기린 이야기를 가지고 부엌으로 뛰어들어 간다. 이런 경우에 연대순은 훨씬 더 인상적인 것으로 인해 잊혀진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애도는 인상적이다. 하나님 백성의 사정으로 인해 그들은 마음이 괴로웠다.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 삶을 통제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불신, 배교, 냉정함에 대해 슬퍼할 의무가 우리에게 없는가? (복음주의자들인) 우리가 충실한 교리에 대한 무관심, 이교도의 유혹, 제도 교회의 기관들을 감염시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도덕적-사회적 의제에 대한 열망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위험은 보수주의자의 거만, 눅 18:11의 다소 초라한 버전, (그 자체로 복음과 모순되는) 복음주의자의 오만 같은 것을 드러내기가 매우 쉬운 데 있다. 오히려 교회의 이런 불신이나 과오는 우리를 애통과 비통과 기도와 슬픔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그것은 발언보다 중보기도를 요구한다.

성경은 매우 미묘하다. 그것은 저자의 문학적 기교로 시작한 다음에 우리로 무릎을 꿇게 한다.

III. 두려움이 주는 안전 (삼하 1:13-16 The safety of fear)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자기처럼 권력에 대한 열정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장신구를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이야기에는 허술한 점이 있지만) 다윗은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독자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최근에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아왔음을 확인하게 된다(삼하 1:13, “거류민의 아들”). 그러므로 그는 더 잘 알고 있어야 했다. 그래서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었다(삼하 1:14).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왕의 신성함은 다윗에게 교리와 같은 것이었다. 사울의 직분에 대해 다윗이 보인 이러한 신성한 존경심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특히 삼상 26:10-11 참조)에서 다윗을 통제하며 유혹을 기회로 여기지 못하도록 막는 원리였다.⁶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왕권을 장악하는 것에 어떤 가책도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다윗은 “너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암시하듯이 한 가지 두려움이 아말렉 사람으로 하여금 왕을 멸망시키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고 가정했다.

다윗의 이 질문은 왕국의 모든 윤리와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왕국에는 건전하고 구원을 주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다. 우리를 보존해주고, 우리를 통제해야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⁶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의 신성함에 대해서는 나의 *Looking on the Heart: Expositions of the Book of 1 Samuel*, 2 vols. (Grand Rapids: Baker, 1994), 2:105을 보라.

있다. 옛적에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던 폴란드 왕자가 있었다. 때때로 그는 그것을 꺼내서 바라보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라고 말하곤 했다.⁷ 그것이 왕국의 모든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 그들은 사랑에 근거한 두려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아말렉 사람들만이 그것을 병적인 것이라고 부를 것이다.

고백할 시간이다. 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요점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히려 거짓, 슬픔,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를 탓하지 말라.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침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그가 나로 내 자신에 대해 질문하도록 강요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적인 자아 안에 진실이 있는가? 나는 교회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오직 나의 왕(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루소의 경우 겉모습과 실제, 그리고 출판과 실천은 일치하지 않았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가?
2. 아말렉 사람은 그가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런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3. 어린 아이는 그가 여러분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도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기 눈을 가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한 적이 없는가?
4.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불신, 배교, 냉담함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항상 기도하는가, 아니면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가?
5. “사랑에 근거한 두려움”에 대해 철저히 생각해 보라. 그것은 죄에 근거한 두려움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느 쪽인가?

⁷ John Whitecross, *The Shorter Catechism Illustrated from Christian Biography and History* (reprint ed., London: Banner of Truth, 1968), 58.

2. 슬픈 노래 (삼하 1:17-27 Good Grief)

19 세기 스코틀랜드 목사인 앤드류 보나르의 일기에 가슴 아픈 글이 실려 있다. 1864 년 10 월 14 일부터 15 일까지 그는 17 년 동안 아내였던 이사벨라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다.¹ 이어지는 기록은 그의 마음의 상태와 슬픔을 드러낸다. 하지만 내 관심을 끌었(으나 나를 놀라게는 하지 않았)던 것은 보나르가 매년 이사벨라 사망 기념일에 그의 상실을 불가피하게 언급하는 방식이었다. 슬픔은 남아 있다. 슬픔은 단지 슬픈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다. (삼하 1:11-12 에서처럼) 슬픔은 불쑥 나타날 뿐만 아니라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다윗이 이 단락(삼하 1:17-27)에서 하는 일이다. 이스라엘과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의 애가를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이 계속 애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본문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마치 다윗이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하려는 것처럼 이 본문에 달려들어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 우리는 다윗을 “방법론”에 관한 책들을 펴내는 또 다른 기독교 전문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비록 그가 우리에게 슬픔을 마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함께 앉아(삼하 1:1) 길보아에 있었던 재앙을 마음으로 재현해야 한다. 우리는 다윗을 우리 시대로 끌어 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돌아가서 다윗과 함께 앉아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이해해야만 한다. 본문이 어렵고 영어 번역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나의 번역을 제시할 것이다.

- 17 그때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지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
- 18 그는 (그들로 하여금) 유다 사람들에게 “활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²
 주의하라—그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³
- 19 오, 이스라엘아, 영광이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⁴

¹ Marjory Bonar, ed., *Andrew A. Bonar: Diary and Life*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0), 226-27.

² “활 (노래)”은 다윗의 애가의 제목이다. 그것은 요나단의 무기(삼하 1:22)와 선물(삼상 18:4)을 기리기 위해 적절하게 명명되었다. Morris S. Seale, *The Desert Bible* (New York: St. Martin's, 1974), 19 을 보라.

³ 야살(의로운 자)의 책에 대한 다른 유일한 언급은 수 10:13 에 나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웅 혹은 전쟁 노래들의 모음집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것은 절판되었고 분실되었다! J. Orr and R.K. Harrison, “Jashar, Book of,” ISBE, 2:969-70 을 참고하라.

⁴ 나는 삼하 1:19a 에 대한 전통적인 번역을 유지했다. 첫 단어 [하츠비](히브리어 고유명사라면 츠비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는 것임)는 (1) 아름다움, 영예, 영광, 혹은 (2) 영양/가젤(BDB, 840)을 의미할 수 있다. 영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그 이미지는 우아함이나 신속함이 아니라 연약함이나 무력함을 반영할

- 어찌하여 용사들이⁵ 엎드러졌는고!
 20 그것을 가드에 말하지 말라;
 아스글론 거리에 소식을 퍼뜨리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할레반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다니며 자랑하지 못하도록.
 21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기를
 – 제물을 내는 밭이 없기를;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졌기 때문이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 않은 채 버려졌기 때문이다.⁶
 22 죽은 자들의 피에서,
 용사들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은 되돌아오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23 사울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살아 있을 때나 죽을 때에 서로 헤어지지 않았다;⁷

것이다. Edwin Firmage, "Zoology (Animal Profiles)," *ABD*, 6:1141-2 을 보라. 더 나아가, 누가 영광/영양인가? 삼하 1:25 의 병행 어구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요나단인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삼하 1:19a 에서는 그것이 사울과 요나단(참조, 삼하 1:22-23), 혹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삼하 1:19b 의 힘센 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 쉘(Seale)은 본문을 의문문으로 여긴다. 이것은 가능한 해석이며 "이스라엘은 영양인가?"라고 번역된다. 이스라엘이 "높은 곳들"에서 죽음당한 채로 놓여있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좋은 수비 위치는 더 높은 곳(길보아 산)이고, 공격자들이 그 지역을 넘어섰다면 그들은 그들의 적을 죽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위해 Seale, *The Desert Bible*, 43-44 그리고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2, *The Crossing Fates (I Sam. 13-31 & II Sam. 1)*, (Assen/ Maastricht: Van Gorcum, 1986), 651-53 을 보라.

⁵ 나는 [기보림]에 대한 전통적인 번역인 "힘센(mighty)" 혹은 "힘센 자들(mighty ones)"을 일관되게 유지했다(삼하 1:19, 21, 22, 25, 27). 이 단어는 용사들(warriors)을 가리킨다. [역자 주: 저자의 번역에 나오는 "mighty, mighty ones"는 "용사(들)"로 번역했다.]

⁶ 가족 방패는 전투 준비를 위해 기름으로 문질렀다. 앨런 밀라드의 연구에 근거한 P. Kyle McCarter, Jr., *//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76 에 나오는 설명을 보라. 사울의 방패는 전투를 위해 준비되기는커녕 길보아 산의 다른 방패들처럼 버려지고 전장의 흙과 진흙으로 덮여 있었다.

⁷ 여기서 나는 절 구분에 있어서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n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238) 그리고 A. A. Anderson (*2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1989], 11,19)을 따랐다. NRSV, NJPS, 그리고 REB 도 마찬가지다.

- 그들은 독수리들보다 더 빨랐고,⁸
 그들은 사자들보다 더 강했다.
- 24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올라.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던 자(를 위해 올라);
 너희의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던 자(를 위해 올라).
- 25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 엎드러졌는고!
 어찌하여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었는고!
- 26 내 형제 요나단여,
 그대 생각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오!
 그대는 나를 매우 즐겁게 해주었소;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웠소.
 –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놀라웠소.
- 27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러졌는고!
 그래서 전쟁의 무기들이⁹ 망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애가의 가르침과 의미를 개관하여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

I. 슬픔과 수양 (삼하 1:17 Grief and discipline)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 “이 애가로 애통할 때(삼하 1:17a 직역: lamented this lament, 이 탄식시로 탄식할 때)” 그는 글로 축소될 수 있는 의식적이고 반성적인 슬픔을 표현했다(삼하 1:18b). 애가는 슬픔이나 괴로움의 공식적인 표현으로서, 쓰고, 읽고, 배우고, 실행하고,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애가는 (삼하 1:11-12 처럼)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이며 즉각적인 슬픔의 분출과는 다르다.¹⁰ 애가는 그에 못지않게 슬프거나 진지하지만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매개체이다. 애가는 **사려 깊은** 슬픔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글로 쓴 애가에서 단어들은 처음의 슬픔에서처럼 단순히 버려지거나 내뱉어지거나 뭉개질 수 없다. 여기서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들을 토해낼 수만은 없으며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⁸ [네세르](독수리)는 맹금류이다(합 1:8; 욥 39:27-30).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 이 행은 전쟁에서 불행한 적을 삼키기 위해 급습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기량을 기념하고 있다. John W. Klotz, “Animals of the Bible,” *Wycliffe Bible Encyclopedia* (Chicago: Moody, 1975), 1:92, 혹은 H. van Broekhoven, Jr., “Eagle,” ISBE, 2:1-2 을 참고하라.

⁹ “전쟁의 무기”는 용사들 자신에 대한 비유일 것이다(Seale, *The Desert Bible*, 42-43). 이것은 야구 팬이 뛰어난 수비를 보인 유격수를 언급할 때 “멋진 글러브(some glove)!”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하다.

¹⁰ (Eileen F. DeWard 에 근거한) David L. Zapf, “How Are the Mighty Fallen! A Study of 2 Samuel 1:17-27,” *Grace Theological Journal* 5 (1984): 116 을 보라.

애가가 차갑고 객관적이고 거리를 두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의 강도가 사람들의 마음의 수양과 연합이 되어 구조화된 슬픔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일종의 괴로움의 공인된 버전이고 일종의 일관된 고뇌이다. 그러므로 애가에서 단어들은 주의 깊게 선택되고 만들어지고 연마되어 가능한 한 밀접하면서도 완전하게 상실을 표현한다.

특히 기독교인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모든 여호와와 백성을 위한 어떤 원리가 여기에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슬픔과 함께 우리의 반성적인 슬픔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의 슬픔을 주의 깊고 사려 깊은 애가의 형식으로 기록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떤가?¹¹ 그리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상실로부터 받는 슬픔과 상처는 잠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겪은 후에도 기적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교회는 때때로 슬픔에 대한 상당한 조급함이 있다. 왜 앨런은 캐롤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코니는 톰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가? 18 개월이 지난 후에도 왜 그 어머니는 열 살짜리 자기 아이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가?¹² 그러나 성경의 애가라는 형식은 우리의 슬픔이 깊고 진행중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그것은 우리의 고뇌를 옮기는 말로, 우리의 실망을 묘사하는 이미지로, 절망을 말로 표현하는 기도문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는 훈련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데 조잡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II. 슬픔과 수치 (삼하 1:20-21 Grief and disgrace)

수치심은 슬픔을 악화시킨다. 다윗이 느끼는 수치심은 두 곳, 즉 블레셋(삼하 1:20)과 길보아(삼하 1:21)와 관련이 있다. 다윗은 길보아를 저주하며 불모지가 되기를 바란다. 길보아는 이스라엘의 방패들이 보호하지 못한 시체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삼하 1:21). 길보아는 국가적 수치이다. 그러나 블레셋에서 있을 수치심은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다윗은 자기의 명령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에게 블레셋의 보도자료(삼하 1:20a)를 검열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그것을 가드에서 방송할 것이 매우 확실하다. 그것은 또 아스글론의 모든 술집의 대형 화면

¹¹ 물론 시편에는 애가로 된 기도들이 있고 많은 신자들은 시편 기자들의 말을 그대로 취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다.

¹² 나는 신자들이 상실을 기괴하고 뒤튼린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슬픔의 지속성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슬픔의 예리함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한 70 대 기독교 여성이 남편과 사별한지 13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그의 교제를 그리워한다고 나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균형 잡히고, 성숙하고, 즐거운 기독교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어떤 면에서는 결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어쩌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큰 사랑에는 더 큰 고통이 있는 법이다.

텔레비전에 방영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블레셋 여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방식이다(삼하 1:20b).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아바와 같이, 블레셋 여자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도 모욕적인 말을 할 것이다. 삼하 1:20 에는 이스라엘의 수치심이 단순한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블레셋 전역에서 어리석은 신자들이 모여 “다곤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최근의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는 신에 대한 하찮은 변백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는 유용하다. 적어도 다윗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 다윗의 애가의 서문을 기억하라. “그는 (그들로 하여금) 유다 사람들에게 ‘할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삼하 1:18a).” “할 (노래)”는 다윗이 삼하 1:19-27 의 애가에 붙인 제목이다. 다윗은 자기 지파의 전사들이 이 슬픈 노래를 알고, 그것을 외우고, 그들의 모공에 쟁여 넣기를 바랐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왜 군대가 시를 배워야 하는가? 왜 유다의 군대가 패배의 가사를 항상 귀에 울리게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다윗이 그것을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의도했기 때문이다. 길보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싸운 마지막이 아니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길보아를 기억하고, 비극을 기억하고, 이교도들의 오만함을 기억하기를 원했다. 그는 다음 번의 싸움을 위해 그들이 깊은 자극과 감동을 받기를 원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기갑부대는 마사다의 옛 요새 위에서 충성을 맹세한다. 마사다는 사해 서쪽의 요새로, 약 960 명의 유대인들이 주후 72-73 년에 플라비우스 실바의 로마 군대에 맞서 싸운 곳이었다. 7 개월간의 포위 공격 후 로마인들은 요새를 뚫고 나갔지만, 수비대가 밤에 자살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를 즐기는 일이 무산되었다. 그런 다음 마사다는 용기의 상징으로 서 있고, 오늘의 이스라엘 군대는 그 정상에서 “마사다가 다시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들의 충성 맹세를 한다.¹³

우리는 길보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까지 우리의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그러나 길보아를 기억하라는 다윗의 명령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 요구를 하고 있다. 다윗은 경박함이 결코 모을 수 없는 편치가 슬픔에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참조, 전 7:2-4).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도 하나의 원리는 남아 있다. 어떻게든 언약 백성의 비극적 상태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그들의 회복을 추구하도록 자극한다. 이것이 기독교인들로 중보 기도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친히 하나님 백성의 고난들을 짊어질 때 우리는

¹³ Y. Yadin, “Masada,” *Encyclopaedia Judaica* (Jerusalem: Macmillan, 1971), 11:1091. 또한 1836 년에 “알라모를 기억하라!”는 구호가 샘 휴스턴의 텍사스 군대에서 담당할 역할을 참고하라.

감동을 받아 그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는다. 아니, 우리는 대개 그들의 고통에 직접 개입하는 척할 수가 없다. 42 세의 남편이요 아버지를 잃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암에 걸렸고 아내마저 집을 떠나버린 친구를 위해, 전쟁 중인 정치 세력의 도살에 휘말린 다른 나라의 알려지지 않은 신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은혜를 간구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작지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들의 슬픔과 수치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움을 구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고난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라.

III. 슬픔과 감사 (삼하 1:22-23 Grief and gratitude)

삼하 1:22-23 은 다윗의 시의 중앙에 서 있다. 다음의 전반적인 개요는 우리로 이것을 보도록 도와줄 것이다.¹⁴

도입부, 삼하 1:19

부정, 삼하 1:20-21

“그것을 말하지 말라 ...,” 삼하 1:20

이슬과 비가 없음, 삼하 1:21

칭찬, 삼하 1:22-23

요나단과 사울 – 전투 기량, 삼하 1:22

사울과 요나단 – 삶의 특성, 삼하 1:23

분담, 삼하 1:24-26

사울을 위해 우는 여인들, 삼하 1:24

요나단을 애도하는 다윗 자신, 삼하 1:25-26

마감부, 삼하 1:27

삼하 1:22-23 이 구별되는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이 서술적인(즉 그것들이 사울과 요나단에 **관하여** 무언가를 말하는) 반면에 그것들의 앞과 뒤는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삼하 1:20 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퍼뜨리기 쉬운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한편,

¹⁴ 나는 여기서 단순화된 구조만을 제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상세한 구조 분석을 했지만, 여기서 그것들을 재현하는 것은 나뭇가지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나는 이 시의 구성에 대한 J. P. 포켈만의 논평(*The Crossing Fates*, 655-56)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개요에서 “분담”이라는 용어는 다윗이 제안하는 분업을 가리킨다. 여인들은 사울을 위해 울어야 할 것이고(삼하 1:24) 다윗은 요나단에게 집중할 것이다(삼하 1:25-26; 이것은 삼하 1:22-23 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기억하는 것과 대조된다).

삼하 1:21 에서 그는 길보아 산을 향해 말한다. 삼하 1:24 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사울을 위해 애도하라고 부탁하고, 삼하 1:25-26 에서 그는 요나단에게 말하며 애도한다. 중간에 삼하 1:22-23 이 서 있고 여기에는 말을 건네는 것이 없고 서술하는 것만 들어 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진가를 인정한다. 성격상 독특하고, 위치상 중앙에 있는 삼하 1:22-23 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정서가 그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다.

이제 삼하 1:22-23 자체를 살펴보자. 나는 과도한 분석을 경계하지만 분명 이 두 구절 안에 의도된 초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성격 묘사인) 삼하 1:23a 이 어떻게 용사로서의 사울과 요나단의 능력에 대한 언급들(삼하 1:22 와 삼하 1:23b)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지 주목하라.¹⁵

용사들 – 무기를 사용한 성공, 삼하 1:22

성격 – 결코 헤어지지 않음, 삼하 1:23a

용사들 – 동물과의 비교, 삼하 1:23b

그러므로 그들의 진가에 대한 다윗의 가장 깊은 찬사는 그들의 군사적 기술을 넘어서 그들의 인성에 기초하고 있다.

사울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살아 있을 때나 죽을 때에 서로 헤어지지 않았다(삼하 1:23a).

다윗이 사울에 대해 말하는 데 있어서 매우 관대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놀라서는 안 된다.¹⁶ 어쨌든 나는 다윗이 이 시점에서 요나단의 성격이 사울의 성격을 채색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찬사는 그들이 죽을 때조차도 서로 헤어지지 않은 것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이나 최후까지 자기 아버지의 곁에 서 있는 것을 결코 흔들지 못했다. 다윗의 감사는 요나단이 자기 소명에 충실한 것을 강조한다. 요나단은 자기 소명이 보상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¹⁵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삼하 1:22 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전투에서 보인 평소의 기량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길보아도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윗은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이 그날에 블레셋 사람의 몫을 차지했음에 틀림없다고 가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¹⁶ John Calvin, *Sermons on 2 Samuel*, trans. by Douglas Kell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2), 38 을 보라.

용어로 소망이 없을 때조차도 그것에 충신했다.¹⁷ 그러한 고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IV. 슬픔과 사랑 (삼하 1:25-26 Grief and love)

삼하 1:22-23 이 다윗의 애가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면, 삼하 1:25-26 은 절정적 위치를 차지한다. 다윗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사울을 위해 우는 일을 맡겼지만(삼하 1:24), 돌아서서 요나단을 위해 홀로 애도했다(삼하 1:25-26). 사울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었지만(삼하 1:24), 사울의 아들은 다윗에게 여인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을 베풀었다(삼하 1:26b).

동성애에 대한 개념을 이 본문에 집어넣어 읽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¹⁸ 요나단의 사랑과 여인의 사랑을 비교하는 것은 성의 관점이 아니라 충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매튜 헨리는 오래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분명히 그와 같은 사랑은 결코 없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알기로 머리에 왕관을 쓰게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경쟁자에게 그토록 성실한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부부간의 애정과 지조를 훨씬 능가했다.¹⁹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요나단이 호레스(참고, KJV 와 개역개정은 일반 명사 “수풀”로 번역했음)에서 다윗을 격려했을 때보다 더 나은 요나단의 태도에 대한 요약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삼상 23:17; 볼드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에 강조된 것을 나타냄).”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왕국 생활에 대한 요나단의 모든 접근 방식의 전형이다. 다윗은 자기가 **최고의** 친구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애도의 강도는 결코 신비가 아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그대 생각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오(삼하 1:26a)!” 매튜 헨리의 말대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슬퍼한다.” 사랑이 가장 깊은 곳에서 슬픔은 가장 힘들 것이다. 이것은 주전 1010 년 경의

¹⁷ 내가 요나단의 “비극적” 충성이란 주제에 대한 확장을 자제하는 것은 나의 이전의 책들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나의 책 *Looking on the Heart: Expositions of the Book of 1 Samuel*, 2 vols. (Grand Rapids: Baker, 1994), 1:139-42, 그리고 2:182 을 보라.

¹⁸ 이러한 제안에 대한 반대를 위해 A. A. Anderson, *2 Samuel*, 19 을 보라.

¹⁹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451. 그리고 나의 책 *Looking on the Heart*, 2:66-67 을 보라.

현상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자주 이것을 경험으로 배우도록 요청받는가! 나는 내가 아는 30 년 혹은 40 년 혹은 그 이상을 함께 지낸 부부들을 생각하면 종종 움찔한다. 여기서 나는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좋아하고 즐기는 부부를 말하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소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나의** 아내가 소천하여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관심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 전에 심각해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나는 다윗의 애통 배후에 있는 원리, 즉 사랑이 클수록 슬픔도 크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싶다. 우리는 냉정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모든 것 아래에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한 사랑이 있다(롬 8:35-39)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슬픔을 견딜 수 있겠는가?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이 유족의 슬픔을 나눌 수 있다고 느끼는 친구에게 위로의 편지를 쓸 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사려 깊은** 애도의 표현을 쓰는가?
2.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통해 들어야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다윗의 시대와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윗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그런 노력을 하겠는가?
3. 우리의 언어로 된 현대 기독교 노래들은 자주 찬양시를 사용하지만 탄식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4.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고난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라.”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기독교 형제 자매들과의 우리의 동일시는 얼마나 깊은가?
5.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영예를 얻었을 때 기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2 바이올린 주자처럼 보조 역할에 만족하는가?

3. 두 왕국의 이야기 (삼하 2:1-11 A Tale of Two Kingdoms)

언뜻 보기에 이 단락은 근동의 정치 권력 투쟁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얼핏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세워진(삼하 2:1-4a) 왕국이 인간의 야망에 의해 출범한(삼하 2:8-11) 또 다른 왕국에 의해 반대되고 있는 것이다.¹ 그래서 이 본문은 지배적인 진리, 곧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거의 열망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선언한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는 세 번의 언급(삼하 2:4a, 7b, 11)은 우리가 이 단락을 세 부분으로 적절하게 나누는 것을 도와준다.² 이 부분들은 각각 왕국 투쟁의 무언가를 묘사한다. 우리는 이 묘사들을 차례로 살펴보며 이 단락의 가르침을 파악할 것이다.

1. 하나님의 인도 아래 왕국을 시작하는 것 (삼하 2:1-4a Inaugurating the kingdom under divine guidance)

다윗은 십중팔구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삼상 23:6-14) 여호와로부터 인도를 구하기 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³ 인도하심의 역학은 불분명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 유다, 특히 헤브론으로 갈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신다. 이로써 다윗은 블레셋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다윗이 자기의 두 아내(삼하 2:2), 자기의 추종자들과 그들의 각자 가족들(삼하 2:3a)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헤브론의 각 성읍에 살게 했다(삼하 2:3b).”라고 언급한다. 다윗은 블레셋과 완전히 단절하고 유다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⁴ 그것도

¹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212.

²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3,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0), 16, 25-26.

³ 칼빈(Calvin, *Sermons on 2 Samuel*, trans. Douglas Kell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2], 53)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왕위를 누릴 때가 무르익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쭙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그가 왕좌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심각하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평생 동안, 특히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며, 무엇이 유용하고 효과적인지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과신하지 말자.”

⁴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248.

언약의 기억들이 풍성한 성읍에서 말이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모두 묻힌 곳이다(창 23:17-19; 25:9-10; 49:29-32; 50:13).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9 마일 떨어진 곳에 약 3,000 피트 높이로 서 있었으며,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삼하 2:4).”⁵ 볼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에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다윗은 오래 전에 왕권을 약속 받았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실이다(참고, 삼상 16:1-13; 20:14-16; 23:17; 25:30-31). 그러나 지금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삼하 5:1-5), 사무엘하 7 장에 이르러서야 왕국의 헌장(즉 여호와와 왕권이 다윗 왕조를 통해 이 세상에서 표현되는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삼하 2:1-4a의 엄청난 중요성에 대해 눈 멀게 해서 안 된다. 이 단락은 여러분의 성경의 여백에 “역사적 표지”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다윗의 광범위한 승리(참조, 사무엘하 8 장)에 대해 듣지 못했다. 우리가 솔로몬의 호화로운 화려함(참조, 열왕기상 4 장과 10 장)에 눈이 부시게 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이새의 순과 뿌리의 공의로운 통치(사 11:1-10)를 즐기려면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지상에서 눈에 띄게 통치한다. 헤브론, 곧 지방의 후미진 곳에서 말이다. 그것도 오직 한 지파를 다스리는 것으로 말이다. 이것은 어쩌다가 생긴 덜거럭거리며 지나가는 통치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점에서 여호와와 지도 아래 있다(왕하 2:1). 그것은 작은 시작이지만, 구체적이고 눈에 띄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유다의 산간 지역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⁶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하는 한 그의 탈주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⁵ 칼빈(Calvin, *Sermons on 2 Samuel*, 56)은 다음과 같이 바르게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들은 사무엘이 한 일(삼상 16:13)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아멘”이라고 답하고, 이미 행해졌던 일을 비준하고 있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기서 왕으로 선출된 것은 사람의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가하시므로 그가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⁶ 이 비유(마 13:31-32 과 병행 본문들)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나라의 성장이 아니라 그 나라의 현재 형태 안에 있는 불분명함과 숨겨짐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왕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왕권)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흐리게 해서 안 된다(참고, 눅 17:20-21).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는 George Eldon Ladd, *The Gospel of the Kingdom* (Grand Rapids:

스코틀랜드의 목사 알렉산더 와이트는 프랑스 그르노블 근처에서 그의 친구 제임스 스튜어트에게 썼다. 와이트는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포도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현재 있는 모든 포도 나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에 매우 많은 뿌리가 있다. 시커멓고, 건조하고, 꼬이고, 비틀리고, 도끼에 의해 뿌리가 잘게 조각나고, 겨울의 서리로 인해 줄기와 나뭇가지가 부서졌다. 모든 땅에서 그 포도 나무처럼 전도 유망하지 못하며 보는 것이 거의 금지될 만한 나무나 식물이나 덩불은 없다. 그 어떤 언어도 자신의 놀란 눈으로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모든 포도원이 보여주는 죽음의 그림을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과, 자두, 체리 나무는 호화로운 꽃 속에서 그들의 삶을 과시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도 그는 “현재의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몇 달 안에 포도로 뒤덮이게 될 것을 확신하라.”고 독단적으로 말했다.⁷

그것이 우리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것이다. 전도 유망하지 않은 형태의 왕국이 여러분으로 그 왕국의 실체에 대해 눈 멀게 하지 않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이 진리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똑바로 서 있도록 해 준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수고의 대부분이 능력과 영광을 거의 보지 못하는 “헤브론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분이 이미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엡 1:19b-21) 그들은 만족한다.

II. 매력적인 호소로 왕국을 확장하는 것 (삼하 2:4b-7 Extending the kingdom with winsome appeal)

다윗은 정치와 신앙을 혼합하고 있으며, 날카롭고 진지하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이 진정으로 칭찬하고, 노골적으로 정치적이고, 진지하게 복음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그 안에 동시에 어우러져 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야베스-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기억하며 그에게 베푼 마지막 친절에 대해 말한다(삼하 2:4b). 그들은 (왕복) 20 마일이 넘는 힘든 야간 행진을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전시를 위해 벧산 성벽에서 못박아 놓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훔쳐서 야베스-길르앗으로 돌아와 그 유해를 적절하게 수습했다(삼상 31:11-13). 그들은 전에 사울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기들 성읍을 암몬의 살인자 나하스로부터 구해준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사무엘상 11 장).

Eerdmans, 1959), 58-59 그리고 D.A. Carson, “Matthew,”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4), 8:317-319 을 보라.

⁷ G. F. Barbour, *The Life of Alexander Whyte, D. 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23), 460.

그래서 야베스-길르앗은 모두 다 항상 친 사울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죽어 있고 사람들은 단지 기억의 연기에만 의존하며 살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야베스-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호소한다. 그의 메시지는 솔직한 것이고 칭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감사, 삼하 2:5b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2. 제안, 삼하 2:6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⁸

3. 초청, 삼하 1:7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다윗은 야베스-길르앗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나서 그의 왕권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요청한다. 애도와 캠페인을 병행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⁹ 그의 과감한 정치에서 다윗은 과감한 반응을 요구한다. 야베스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로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게 하라. 그들은 벤산에 행한 그 야간 습격에서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지 보여주었다(삼상 31:11-13). 그들의 용기가 다시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하라. 그들이 북쪽에서

⁸ 삼하 2:6 에 나오는 관용구는 직역하면 “너에게 선을 행하다”이다. 분명히 이것은 우호 조약을 맺는 것을 표현하는 아카드어 어구에 해당한다. T. N. D. Mettinger, *King and Messiah*, Coniectanea Biblica (Lund: CWK Gleerup, 1976), 147 그리고 Hillers 를 인용하는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85 을 보라.

⁹ 그러나 아무도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한 호소가 진정성 있고 진지하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사울에게 “의리를 지켰다”고 칭찬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무엘하 1 장에서 아말렉 사람을 처리한 것은 그 의리가 그 사람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가 되도록 하라.¹⁰

이렇게 다윗은 야베스-길르앗 사람들에게 헤브론에서 갓 태어난 왕국에 복종하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의 부름, 그의 호소는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확장된다. 이것이 다윗의 후손이 자기 왕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놀라워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 11:29).” 우리는 멍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 절대적인 복종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호소와 요구는 매우 매력적이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성품(“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과 그분의 약속(“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으로 우리를 매료시킨다. 이것은 조지 헛필드의 사역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를 설명했던 뉴욕 여인을 생각나게 한다. “헛필드씨가 **매우 쾌활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¹¹ 유혹을 받았다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 그것이 자주 예수님의 방식이다. 그분은 멍에를 감추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마 10:34-39)을 숨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성품과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호소나 다윗의 호소에 대한 반응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야베스-길르앗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오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야베스-길르앗의 시민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사는 곳이다. 왜냐하면 본문은 분명히 야베스-길르앗이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거자씨 형태의 참된 왕국과 충성을 기대하는 가짜 왕국(삼하 2:8-11)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후자의 왕국을 거역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용기는 오직 은혜에서 나온다.

III. 완강한 반항으로 왕국을 반대하는 것 (삼하 2:8-11 Opposing the kingdom by stubborn defiance)

야베스-길르앗이 다윗의 호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반응이라도 보였는지

¹⁰ A.A. Anderson, *2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1989], 29: 따라서 “유다의 새 왕에 대해 첫 번째로 기록된 행위는 이스라엘의 한 그룹에게 우정과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윗이 유다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은 온 이스라엘에 속해 있음을 암시한다.”

¹¹ J.C. Ryle, *Christian Leaders of the 18th Century* (1885; reprint ed.,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8), 58-59 (볼드체 부분은 라일의 인용에 강조되어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임).

아무도 모른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삼하 2:8-9)

우리가 삼하 2:8-11을 평가하기 위해 연대, 이름들, 혹은 주장들의 수수께끼를¹² 풀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큰 맥락에서 아브넬의 행동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카일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다.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된 것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이 계속된 것일 뿐만

¹² 연대에 관하여: 우리는 북쪽에서 이스보셋의 2년 통치(삼하 2:10)가 유다에서 다윗의 7년 6개월의
통치(삼하 2:11) 중 어느 시기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어떤 사람들(세들, 영블러드)은 사울이
죽은 후 아브넬이 그의 새 지명자를 지지하는 데 약 5년이 걸렸다고 가정하면서 이스보셋의 2년이 다윗의
유다 통치의 마지막 2년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말 그랬는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각자의 치세
기간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윗이 이스보셋보다 더 오래 통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스보셋이란 이름에 관하여: 이스보셋의 원래의 이름은 에스바알(대상 8:33; 9:39)/이스바알이다.
후대의 서기관들이 (가나안의 신과 관련된) -바알이란 부분을 바알 숭배를 빈정거리며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보셋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보셋을 사용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삼상 14:49에
나오는 이스위가 이스보셋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브넬-이스보셋의 지배 범위에 관하여(삼하 2:9): 나는 브라이트(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196)의 설명을 따르며 그것이 서류상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심지어 온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면, 아브넬이 요단
동쪽의 마하나임에 본부를 세우는 것이 왜 필요했겠는가?

[역자 주] 데이비스는 삼하 2:9의 אַשּׁוּרִי[하아슈리]가 어형상 변칙이라고 지적한다. [아슈리]는 종족을
표시하는 어미가 붙은 것으로 ESV/NASB/JPS는 Ashurites로 번역한다. 그러나 NIV는 Ashuri로 음역하고
HCSB는 Asher로 번역한다. 한글 성경은 "아술"로 번역한다. A. A. Anderson(*2 Samuel*, 31)은 맛소라
본문의 [하아슈리]가 전승상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시리아어역과 별게이트역이
אֲשֻּׁרִי[하그슈리] 그술 사람들 혹은 אֲשֻּׁרִי[그슈르] 그술로 읽는 반면, 타르굼이 בֵּית אֲשֵׁר[베트 아세르]
아셀의 집(→ אֲשֵׁרִי[하아세리] 아셀 사람들, 혹은 אֲשֵׁר[아세르] 아셀)으로 읽는 것을 언급하고 타르굼의
독법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D. G. Firth(*1 and 2 Samuel*, 329)는 시리아어역과 별게이트역이 그술
사람들이나 그술로 읽는 것은 삼하 3:3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술에 자체 왕이 있었으므로 가능한 독법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아셀로 읽는 타르굼의 독법은 실질적이 아니라 단지 주장된 영역으로 본다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Youngblood("1 and 2 Samuel," *REBC*, 315)는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 Ashuri는 알려지지 않은 지명이고 아셀 지파의 땅일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Tsumura(*The
Second Book of Samuel*, 66)도 Youngblood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아니라, 사울을 거부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여호와께 대한 공개적인 반역의 행위이기도 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선택에 대해 온 백성의 눈에 아주 분명한 증거들을 주셨으므로 사울조차도 다윗이 그의 왕위의 계승자로 임명된 것을 확신했다.¹³

당시 아브넬의 행보는 단순히 반대 정당이 권력을 다투면서 예측 가능한 내전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을 때 그 사실을 비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다(삼하 3:9-10, 18).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반대하면서 여호와와 왕권과 뜻에 반대했다. 그는 그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여기 아브넬은 시편 2:2-3에 나오는 그의 동료들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등(행 4:27-28)과 합세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않는다(눅 19:14).”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의 정권은 사무엘하 2 장에서 반란과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왕국의 갈등은 예수님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까지(참조, 마 13:40-41) 이런 저런 형태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와 남은 자 중에 속한다면, 우리는 최근의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반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다. 1566 년에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녹스가 그의 절망을 쏟아 부었을 때 그가 낙담하는 모습을 잘 보라.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으시고, 주가 기뻐하시는 때에 나의 이 비참한 삶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는 정의와 진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¹⁴ “오직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삼하 2:10b).”—이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소명이다. 심지어 불경기에도, 심지어 작은 일의 날에도(참조, 문맥을 고려한 속 4:10) 말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형태만 볼 수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낙담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헤브론과 그것의 아주 작은 마을들이 태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울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 전에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알게

¹³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292.

¹⁴ A.M. Renwick, *The Story of the Scottish Reformation* (Eerdmans, 1960), 148.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을 수 있는가?

2. 삼하 2:1-11은 작은 일의 날을 경멸하는 우리의 경향에 대한 책망이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교회에서 행하신 것들 중 어떤 다른 예들이 이 점에 있어서 우리를 더 책망할 수 있는가?
3.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증언은 다윗을 특징 짓고 더 나아가 주 예수님 자신을 특징 짓는 도전과 매력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가?
4. 아브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이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것의 다른 예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5. 여러분이 관여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 명백하게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 우울해졌을 때,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의 승리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는가?

4. 약속이 지배한다 (삼하 2:12-3:39 Promise Rules)

이번 강해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본문(삼하 2:12-3:39)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다. 첫째로, 모든 아브넬 자료를 함께 모아두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 에피소드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렌즈는 삼하 3:9-10, 18 에 이르러서야 분명하게 제시된다. 우리가 다룰 단락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것의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단락을 삼하 2:1-5:5 의 더 큰 구조 안에서 그 개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삼하 2:1-5:5 이 세심하게 잘 짜인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헤브론 – 왕권, 삼하 2:1-7

이스보셋 – 옹립, 삼하 2:8-11

아브넬의 군국주의와 그것의 실패, 삼하 2:12-32

(아사헬의 죽음)

아브넬의 권력 이동과 그것의 실패, 삼하 3:1-11

아브넬의 협상과 그것의 실패, 삼하 3:12-39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 – 제거, 삼하 4:1-12

헤브론 – 왕권, 삼하 5:1-5

중간에 나오는 세 개의 에피소드들은 아브넬의 실패라는 문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브넬은 공격하지만 실패한다(삼하 2:12-32). 아브넬은 계획하지만 실패한다(삼하 3:1-11). 아브넬은 협상하지만 (요압으로 인해) 실패한다(삼하 3:12-39). 여기에 강한 자의 삼중 실패가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지배할 것이라는 아브넬의 말(삼하 3:9-10, 18)이 옳았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실패 부분을 유형화하여 본문의 가르침을 전개할 것이다.

I. 무력으로 왕국에 저항하는 것 (삼하 2:12-32 Resisting the kingdom by force)

삼하 2:12-32는 매혹적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삼하 2:17, 30-31에는 내전의 결과가 주어진다. 저자가 단지 사실적인 보고만을 제공하고 싶었다면, 그는 삼하 2:12-13a, 17, 30-31 과 같은 것들만 우리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일련의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통해 말한다. 그것들 중 첫째 장면(삼하 2:12-16)은 헬갓

핫수림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다윗 편의 12 용사와 이스보셋 편의 12 용사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므로 일제히 쓰러지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장면(삼하 2:18-23)은 추격을 그만 멈추라는 아브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아사헬의 스릴 넘치고 비극적인 추격을 보여준다. 셋째 장면(삼하 2:26-27)은 요압이 그의 유다 부하들을 철수시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악한 일인지에 대하여 아브넬이 요압에게 불평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저자는 전쟁의 결과만을 전하는 대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다. 삼하 2:12-32은 네 개의 주요 장면으로 나뉜다.

기브온 – 연못 가, 삼하 2:12-16

전쟁 – 도주 중, 삼하 2:17-23

암마 – 산에서, 삼하 2:24-28

귀향 – 성읍들로, 삼하 2:29-32

마하나임으로, 삼하 2:29

베들레헴을 경유하여 헤브론으로, 삼하 2:30-32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브넬이 공격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삼하 2:12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마하나임의 정확한 위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 아마도 압복강의 북쪽 기슭에 있었을 것이다.¹ 요단강 동쪽의 본부를 떠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5마일 떨어진 곳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아브넬이 공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헤브론 정권은 의심할 여지없이 아브넬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요압과 그의 군대가 기브온으로 진격한 것은 단지 온전한 방어적 조치였다. 삼하 2:12-32에서 일어난 일은 북부와 남부의 군대가 우연히 만남으로써 일어난 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브넬이 북쪽의 힘을 다윗의 유다 왕국에 강요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이었다. 아브넬은 공격하고 있었다.²

이 사실을 독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아사헬이 아브넬을 가차없이 추격하는 에피소드(삼하 2:18-23)로 인해 아브넬에 대한 우리의 동정심이 발동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사헬은 적의 수장을 잡는 최고의 영광을 탐냈던 것으로 보인다(참고, 사 4:9). 아브넬의 경고들(이것들은 추격을 받으며 잠깐 숨을 쉬는 사이에 주어진 것인가?)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계속 추격했다.

¹ K. A. Kitchen, “Mahanaim,” NBD, 3rd ed., 718 을 보라.

² 이것은 칼빈이 분명하게 보았던 사실이다. John Calvin, *Sermons on 2 Samuel*, trans. Douglas Kell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2), 64, 70, 78 을 보라.

아사헬이 속력을 내며 뒤쫓을 때 아브넬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의 창의 밑동 끝 혹은 (NEB 가 옳다면) 그의 창의 "뒤" 끝으로 아사헬을 찔러 죽였다(삼하 2:23). 그것은 아사헬의 마지막 추격이었다. 이 이야기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독자로서 우리가 삼하 3:26-27 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아브넬이 꺼려하며 단지 자기 방어를 한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에 매료되어 우리가 아브넬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브넬은 공격하기 위해 왔다(삼하 2:12). 그의 가벼운 말은 열두 명 대 열두 명의 결투로 인한 죽음을 부추켰다(삼하 2:14-16). 형제애와 전쟁의 비극에 대하여 지나치게 동정심이 많은 아브넬의 말이 실없는 말로 드러난 것은 요압에 의해서였다. 요압은 애초에 아브넬이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꾸했다(삼하 2:27).³ 그때의 사정으로는 아브넬이 졌다. 사망자의 통계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삼하 2:30-31).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므로(삼하 3:9-10, 17-18), 그의 무력 저항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원죄 교리를 통해 인류와 역사를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비뚤어진 것이었다.

아브넬의 저항은 나에게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공군의 수장인 헤르만 괴링에 대한 일화를 생각나게 한다. 1942-43 년 사이의 언젠가 괴링은 자신의 전투기들의 사령관 갈란트 장군이 히틀러에게 여러 대의 미국 전투기가 아헨 상공에서 격추당했다고 보고한 것을 알고서 그에게 화를 냈다. 갈란트는 괴링에게 그것은 진실된 보고라고 말했다. 완고하게 괴링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갈란트는 괴링에게 아헨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도전했다. 정말 추락한 비행기들이 거기 있었다. 그 후 괴링은 좀더 외교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갈란트에게 보고상의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갈란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괴링은 "나는 미국 전투기가 아헨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한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끝냈다. 갈란트는 "그러나, 장군, 그것들은 거기 있었습니다!"라고 목격자로서 마지막 이의를 제기했다. 괴링은 자제력을 아주 잃고서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그것들이 거기 없었다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린다! 알겠는가? 미국 전투기들은 거기 없었다!" 그는 으스스대며

³ 나는 삼하 2:27 에 나오는 요압의 맹세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 카일과 포켈만을 따랐다. 포켈만이 지적한 것처럼 이 구절은 "만일 당신이 오늘 아침 대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나로서는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3,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0), 59-60 을 보라. 그러나 NIV 의 번역("당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추격하는 것을 아침까지 계속하였을 것이다")은 요압이 전날 아침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 대해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

걸어 나갔다.⁴ 괴링은 증거나 사실들이나 증언에 신경 쓰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사람이었다.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나,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을 인용할 수 있는 사실이나, 여호와께서 이미 유다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의 권위만을 행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죄이다.

아브넬은 우리 중 어느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아브넬의 본성을 공유하며 죄의 어리석음, 비뚤어짐, 그리고 뒤틀림을 품고 있다. 아브넬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라. 그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인용하면서도 진리에 복종하지 않으며, 진리를 붙잡으면서도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게 하라. 그러므로 아브넬은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왕이 되리라(왕상 1:5)”고 말하는 다른 모든 적그리스도들과 합류한다.

II. 필요에 의해 왕국을 찾는 것 (삼하 3:1-11 Seeking the kingdom by necessity)

삼하 3:1-11은 대조를 부각시킨다. 1절과 6절은 모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진행 중인 “전쟁”을 언급한다. 1절은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2-5절은 헤브론 시대 동안 다윗이 취한 아내들과 태어난 아들들의 수에서 이러한 힘의 표본을 제공한다.⁵ 아브넬도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며(삼하 3:6)” 사울의 첩 리스바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삼하 3:7). 고대 근동에서 “죽은 왕의 하렘(아내들과 첩들)을 취하는 자가 그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다.”⁶ 우리는 아브넬이 어느 정도까지 왕국을 차지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다.

⁴ Albert Speer, *Inside the Third Reich* (New York: Avon Books, 1970), 377-78.

⁵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명성과 권력은 그의 아내들의 수와 미모와 중요성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들의 수로 측정될 수 있었다(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N.Y.: Alba House, 1972], 3: 190).” 다윗이 많은 아내를 취한 것은 근동 문화에는 일치하지만 성경의 요구에는 위배된다(신 17:14-20, 특히 17 절). 왕들은 정욕을 충족시키기보다 동맹을 맺기 위해 아내들을 취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마아가와 결혼함으로써 그술(갈릴리 바다 북동쪽의 작은 아람 왕국)은 전략적으로 이스보셋의 후방에 있는 그의 동맹이 되었다(삼하 3:3). 나는 신명기가 모세 시대에 저작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다윗이 신 17:17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무엘하 저자는 다윗의 초기 잘못에 관심이 없고 그의 점점 강해지는 힘을 강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그는 그 점에 대하여 도덕적인 평가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 문제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독자들이 너무 자주 매우 친 다윗적인 감정적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야한 밋세바 사건 외에는 그에게서 어떤 실패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⁶ Schedl, 3:169. 이러한 사고 방식의 예로서 삼하 16:21-22 그리고 왕상 2:13-25 을 보라.

이스보셋이 꼭두각시이고 나약한 존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가 아브넬의 책략에 대해 매우 화를 냈기(삼하 3:7) 때문에 아브넬의 “힘”은 좌절로 바뀌었다(삼하 3:8). 그래서 아브넬은 양심을 품고 북쪽 나라를 다윗의 품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아브넬 자신의 말(삼하 3:9-10)을 들어보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삼하 3:9-10).

이스보셋이 그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삼하 3:11).

아브넬은 신학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이러한 편법을 추구했다. 그가 다윗의 왕권을 확장하려고 한 것은 여호와와 약속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스보셋이 죽은 듯이 지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브넬이 취할 차선책은 그의 지지를 다윗에게로 옮기고 북쪽 지파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다윗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함으로써 다윗의 정권에서 강력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아브넬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오직 친 아브넬적인 움직임을 지지할 때뿐이다. 아브넬이 왕국을 찾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예리한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아브넬에게는 여호와와의 계획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전부이다.⁷

아브넬은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얼음 위로 기어 나와 물에 빠진 놀이 친구를 구해준 꼬마 윌리에 대해 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그에게 칭찬과 감탄이 빗발치고 있었다. 그러자 한 숙녀가 그에게 물었다. “얘야, 네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친구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용감했는지 우리에게 말해보라.” 숨을 쉬면서 윌리가 쏘아붙였다. “그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아브넬은 사라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우리는 더 많은 그들을 만난다. 그들은 아브넬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넬의 성향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사역 아래 사마리아에서 최고의 개종자였다. 시몬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 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서, 그는 의기 양양하게 그들에게 돈을 드리며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선물로 성령님이 주어지게 하는 권능을

⁷ 칼빈(Calvin, *Sermons on 2 Samuel*, 118-19, 121)은 아브넬의 이중성에 대한 날카로운 설명을 했다. Fokkelman, *Throne and City*, 74, 89 도 참조하라.

갓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행 8:18-19).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몬의 인기가 식어간 것이 사실이지만(행 8:9-12), 여기에 시몬이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사무엘하 3 장이든 사도행전 8 장이든 기독교인 일꾼들은 그들 자신의 아브넬 정신 상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지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정통 노선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표지에 불과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라는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그 대열에 많은 용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명백히 밝히기를 바라는 신실한 설교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감명을 받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축하하며 애지중지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브넬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III. 복수로 왕국을 파괴하는 것 (삼하 3:12-39 Subverting the kingdom by revenge)

이 긴 내러티브(삼하 3:12-39)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로 나누어서 보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브넬의 제안과 다윗의 요구, 삼하 3:12-16

아브넬의 회담들과 다윗의 평강, 삼하 3:17-22

아브넬의 떠남과 요압의 분노, 삼하 3:23-25

아브넬의 돌아옴과 다윗의 모름, 삼하 3:26-30

아브넬의 장례와 다윗의 변호, 삼하 3:31-39

이 요약은 우리 앞에 두고서 나는 이 단락의 주된 요지를 강조하기 전에 몇 가지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싶다.

첫째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을 데려오라는 다윗의 요구는 적어도 낭만적인 것만큼이나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갈을 통한 남자 후손이 다윗 집과 사울 집의 주장을 통합하기를 바랐다(사무엘하 6 장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헛된 꿈이었다).⁸ 그것은 북부 지파들의 충성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는 것을 아브넬과의 협상의 절대적 조건으로 삼음으로써 우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삼하 3:13),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돌려보낼 것을 직접 요구함으로써(삼하 3:14) 아브넬의 권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아브넬을 이 에피소드에서 단순한 중개인으로 전락시킨 것에 주목하라.⁹

⁸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198.

⁹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48. 다른 한편으로, 고든(Robert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아브넬은 고자세로 말할 수 있었지만, 그가 되기를 선호했던 그런 실세가 아니었다. 가슴 아프고 속수무책인 발디엘이¹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장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삼하 3:15-16). 제일 먼저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처음에 미갈을 (장기판의) 줄로 만든 사울일 것이다(삼상 25:44).¹¹

둘째로, 다윗이 아브넬을 보냈다는 것과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는 것이 세 번 언급되어 있다(삼하 3:21, 22, 23). 이것은 아마도 그가 안전 통행권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평안히”라는 어구는 “안전하게”라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은 아브넬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돌아온 이유와 요압이 그와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것에 대해 그렇게 순진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삼하 3:26-27).¹² 그는 면책 특권을 약속받았었다. 그가 의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너무 늦게서야 요압의 단검을 보았다. 그것은 다윗의 약속 뒤에 숨겨져 있었다. 따라서 요압은 가장 사악한 형태의 배신을 저질렀다.

셋째로, 다윗은 요압의 행위를 반박하고 자신이 요압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삼하 3:28), 요압과 그의 아버지 집에 가혹한 저주를 내리고(삼하 3:29), 요압과 군대에게 공개적인 애도 의식에 참여하라고 명령하고(삼하 3:31), 그 자신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묻은 무덤에서 공개적으로 소리 높여 울었다(삼하 3:32). 다윗은 또한 그 비극을 기념하는 애가를 지었고(삼하 3:33-34),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맹세했다(삼하 3:35).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공모한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켰다(삼하 3:37). 존 브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1986], 218)은 이스보셋에게 요구한 것을 단지 예상된 외교 의례로 보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했다고 가정한다.

¹⁰ [역자 주] 삼하 3:15의 발디엘은 삼상 25:44에서 발디로 나온다. 영블러드(Youngblood, “1, 2 Samuel,” *REBC*, 253)는 발디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구원자”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요소가 생략된 발디의 뜻은 “나의 구원”이라고 풀이한다.

¹¹ 고든이 지적했듯이, 미갈과의 분리가 자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신 24:1-4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포로로 잡혀 고국에서 추방된 것과 같은) 강제적인 분리 후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되찾을 권리는 메소포타미아 법에 잘 확립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Gordon, *I & II Samuel*, 219).”

¹² 요압의 부하들은 시라의 우물 가에서 아브넬을 따라잡았다(삼하 3:26). 영블러드(Ronald F. Youngblood, “1,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 838)의 설명에 따르면, 시라는 아마도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2.5 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살해되었을 때에도(삼하 3:22-39), 다윗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멈추지 않았다. 백성은 이것이 유혈의 복수였음을 이해했고, 다윗이 그의 결백을 항변했을 때 그를 믿었던 것 같다. 그들은 다윗이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믿었던 것 같다.¹³

이제 요압으로 돌아가보자. 무엇이 그로 아브넬을 제거하게 하여 다윗이 북부 지파들의 충성을 얻는 것을 잠재적으로 방해하도록 했는가? 그 직접적인 이유는 삼하 3:27, 30 에 제시되어 있다. 그(와 아비새)는 아사헬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고 있었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고,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다. 그러나 아사헬의 죽음은 복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전쟁에서" 아사헬을 죽였고(삼하 3:30), 그것도 다만 은혜로운 경고 이후에 죽였기 때문이다(삼하 2:20-23). 그것이 불법적인 살인이거나 심지어 고살이었다면 요압은 복수할 근거들이 있었을 것이다(참조, 민 35:9-34). 그러나 그것은 둘 다 아니었다. 요압은 공개적인 전쟁에서 일어난 문제를 사적인 복수로 해결했다.

그러나 나는 요압에 대하여 아브넬보다 더 많은 의심을 갖고 있다. 나는 요압이 아사헬만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염려했다고 생각한다. 비록 본문이 그렇게 거칠게 말하지는 않지만, 요압은 아브넬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가졌고 자기 대신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까봐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다윗이 아브넬과 협상하는 것의 일부로서 잘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삼하 3:12-13a).¹⁴ 그러므로 지위에 대한 시기심은 요압의 실제 동기였을 것이고, 아사헬에 대한 복수가 부분적이고 유용한 명분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요압은 복수로 나라를 약화시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계속 차지하기를 갈망하는 그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브넬이 우리 중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 요압도 마찬가지다. 요압은 아브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요압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 우리는 심지어 최후의 만찬 때 요압의 태도를 무참히 드러낸 제자들보다 더 교묘하다. 그들은 설마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¹³ *A History of Israel*, 197.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다. 시므이(삼하 16:5-18)는 자신이 김새를 쳤다고 생각하거나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일부 현대 학자들조차도 다윗의 결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James C. Vanderkam, 'Davidic Complicity in the Deaths of Abner and Eshbaa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9 (1980): 521-39 그리고 Diana V. Edelman, "Abner," ABD, 1:28 을 참조하라.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이 내러티브는 다윗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다."

¹⁴ 나중에 다윗은 요압의 지위를 아마사에게 주기로 결정했지만(삼하 19:13), 아마사는 요압다운 방식에 의해 곧 제거되고 말았다(삼하 20:4-10).

있느냐고 서로 물은 후 바로 연이어서 그들 중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다툼을 벌였다(눅 22:23-24). 비록 내가 예수님의 왕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공언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이름에 대한 명예보다는 그분의 정권에서 차지할 내 자리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나의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등이 되어 인정받고 호평받고 잘 영접받기를 원한다. 왕국에서 봉사한다는 미명 아래 나는 예수님을 희생시키더라도 가능한 한 모든 성공을 갈망한다. 요압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변형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를 너무 잘 알고 있다.

IV. 믿음으로 왕국을 기대하는 것 (Expecting the kingdom in confidence)

삼하 3:9-10, 18에 의하면 다윗은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나머지 이야기를 다 읽으면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우리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전체 이야기에 비추어 사무엘하 2장과 3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무엘하 2장과 3장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왕권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이 결국에는 정말로 실현된다는 사실에 대해 경탄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이 무력으로 왕국 약속에 저항하거나(아브넬과 그의 추종자들, 삼하 2:12-32), 잘못된 이유로 왕국을 추구하거나(아브넬, 삼하 3:1-11), 그들 자신의 “왕국”에만 관심이 있는(요압, 삼하 3:23-39)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요압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삼하 3:38-39) 그 난장판에 기여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¹⁵ 그러나 모든 반대와 책략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어쨌든 실현된다. 칼 굿브로트가 (특히 아브넬이 제안한 지원과 관련하여) 쓴 것처럼, 다윗을 위해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맹세로 주어진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아브넬이 하나님께 그의 팔을 빌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넬에 대항하시고 아브넬 없이도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¹⁶

¹⁵ 삼하 3:39 에 나오는 다윗의 반응에 대한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요압을 처벌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신중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관점에 의하면 다윗이 요압과 군대의 지원을 아직 희생시킬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참조, Youngblood).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심한 말을 했지만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다윗 편의 도덕적 실패라고 본다(참조, Fokkelman).

¹⁶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47. 또한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232 에 나오는 다음 설명도 참조하라. “다윗의 ‘새 시대’는 그 약속을 무시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섬기는 관습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솟아오른다. 내레이터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각하지 못하는 인물들, 그들의 기만적인 말, 그리고 그들의 자기 봉사적인 행동을 통하여 여호와의 단호한 약속의 작용을 보게 한다. 이 추악한 내러티브를 거쳐 왕국은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여호와와 백성은 이 초기 왕국 에피소드들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 어떤 것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날(계 11:15)만큼 아주 희박하고 멀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오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 선포하셨고(시 2:8-9),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그 이상의 어떤 공모자도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이 장은 사무엘하의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작은 분량으로 읽는 것만 아니라 많은 분량으로 읽는 것에서 어떤 특별한 가치를 볼 수 있는가?
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실제로 그 빛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아브넬은 성경이 자신에게 적합할 때는 인용했지만 다른 때는 무시했다. 마귀조차도 이러하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4 장을 보라.
4. 여러분 안에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로 인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여러분은 복음을 목적, 곧 여러분 자신의 명성이란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
5. 요압의 성품이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무엇인가?

5. 사람의 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삼하 4:1-12 The Gore of Man Does Not Work the Righteousness of God)

마하나임에서는 더 이상 평소와 같은 일이 진행되지 못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배신으로 인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스보셋은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놀랐다(삼하 4:1).” 아브넬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다윗의 신복들이 체계적인 학살 프로그램을 가지고 북쪽으로 오는 것은 아닌가? 화해와 재결합을 위한 계획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무산되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알았겠는가?

바아나와 레갑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고 생각했다.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끌던 이 두 형제 폭력배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무엘하 4 장은 그들의 시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장의 흐름은 4 개의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상황, 삼하 4:1-4

행동, 삼하 4:5-7

해석, 삼하 4:8-11

보응, 삼하 4:12

그러나 나는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내러티브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럼 강해로 나아가며 본문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I. 비꼼은 진실을 전하는 훌륭한 수단을 제공한다 (삼하 4:1-7 Sarcasm provides an excellent vehicle for truth)

저자는 바아나와 레갑에 대하여 다소 단조로운 소개를 하는 것 같다(삼하 4:2-3). 그들은 사울과 이스보셋의 지파인 베냐민에 속했고 브에롯 사람이었다.¹ 그러나 저자는 상황을 알리는 이 부분(삼하 4:1-4)에서도 바아나와 레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암시한다. 왜냐하면 그는 무력한 꼭두각시인 이스보셋(삼하 4:1)과 무기력한 절름발이인 므비보셋(삼하 4:4)의 묘사들이 그들에 대해 사실만을 전하는 이 어정쩡한 소개(삼하 4:2-3)를 감싸게 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저자는 우리가 사울 집안의 총체적인 연약함에 대한 인상을 갖기를 원한다. 사울의 아들은 저항을 계속할

¹ 브에롯은 기브온에서 남쪽으로 2 마일 정도 떨어진 키르벳 엘-부르즈(Khirbet el-Burj)일 가능성이 있지만(참고: Anson J. Rainey, Beeroth, IDB/S, 93)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나는 삼하 4:3 이 베냐민 사람들이 브에롯의 원주민을 쫓아낸 것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브에롯이 지금 베냐민의 성읍으로 간주되고 있다(삼하 4:2b).

용기가 없었고(삼하 4:1), 다른 유일한(?) 후계자인 요나단의 아들은 완전히 의존적인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다(삼하 4:4).² 그렇다면 바아나와 레갑이 하는 모든 것은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고작 다섯 살배기들을 때리는 중학생 악당과 같은 짓일 것이다. 이렇게 어떤 미묘한 비꼬미 본문으로부터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

나는 저자가 상황 부분에 이어서 행동 부분(삼하 4:5-7)에서도 레갑과 바아나에 대해 또 다시 빈정대며 말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삼하 4:5-7 은 다음과 같다.

5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때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6 사실³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나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는 도망쳤다.

7 이렇게 그들이 집에 들어갔고 그는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그때 그들은 그를

² C.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309 을 참조하라.

³ 나의 번역은 삼하 4:6 의 첫 단어의 모음을 다르게 붙여 [헤나에서 히네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을 따른 것이다. 나는 칠십인역(“그 집의 문을 지키는 여인이 밀을 까불다가 졸려 잠이 들었다.” RSV 와 REB 는 칠십인역을 따른다)이 히브리어 본문보다 더 선호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NRSV 가 다시 히브리어 본문으로 돌아온 것에 유의하라.

[역자 주] 삼하 4:6 에 대한 다음 번역들을 비교해 보라.

LXX[Brenton]: And, behold, the porter [ἡ θυρωρὸς] of the house winnowed wheat, and **he** slumbered and slept: and the brothers Rechab and Baana went privily into the house:

NLT: The doorkeeper, who had been sifting wheat, became drowsy and fell asleep. So Recab and Baanah slipped past **her**.

RSV: And behold, the doorkeeper[ἡ θυρωρὸς] of the house had been cleaning wheat, but **she** grew drowsy and slept; so Rechab and Ba'anah his brother slipped in.

NRSV: They came inside the house as though to take wheat, and they struck him in the stomach; then Rechab and his brother Baanah escaped.

ESV: And they came into the midst of the house as if to get wheat, and they stabbed him in the stomach. Then Rechab and Baanah his brother escaped.

Davis: And **indeed** they came to the middle of the house (as?) ones getting wheat, and they struck him in the stomach; but Rechab and Baanah his brother escaped.

Tsumura: —**hither** they came, even to the middle of the house as takers of wheat—and struck him on the belly. Rechab and Baanah his brother escaped.

쳐서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두 개의 혼란스러운 설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삼하 4:7 이 삼하 4:5-6 과 나란히 나오는 반복적인 설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둘은 세 개의 요소, 즉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것, 그들이 그를 쳐서 죽인 것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히브리어 내러티브의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히브리어 내러티브는 자주 사실을 제시하거나 상황을 설명한 후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며 이전 진술을 확장하는 추가 세부 사항을 덧붙인다. 사무엘하 5 장에서 우리는 먼저 7 절을 통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고 하는 간단한 진술을 들은 후에 8-9 절을 통해 다시 반복 진술되어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빼앗았는지를 듣는다. 이렇게 같은 입장에 더 자세한 세부사항이 추가된다. 삼하 4:7 의 경우 저자는 이스보셋의 목을 베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삼하 4:5 에 나오는 이스보셋이 그의 침실에서 자고 있던 사항을 **반복한다**. 나는 이 반복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자의 비웃음을 거의 들을 수 있다. 레갑과 바아나는 매우 남자다움을 과시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이다. 참으로 폭력을 잘 쓰는 거친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이 왔다. 그는 자고 있었다. 그들은 찢어 죽였다. 저자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다윗의 판단을 보고할 것이지만(삼하 4:9-11), 그는 이미 우리에게 그 자신의 판단을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레갑과 바아나에 대해 말해 주는 동시에 그들을 조롱한다.⁴

이 기교는 수많은 경우에서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이 1939 년 폴란드에 대한 나치 독일의 기습 공격을 보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라. 여러분은 어떻게 독일군이 공군력에서 3 대 1 이상의 우위를 점했고 어떻게 그들의 탱크가 폴란드 기병을 돌격하여 난도질하였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독일의 힘, 심지어 독일의 뻔뻔함을 부각시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독일인의 용기를 경적 울리듯이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탱크에서 발포하여 적들을 비명지르는 사람과 말의 살덩이 더미로 만드는 데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조랑말과 싸우는 장갑차에 무슨 배짱이 필요한가? 이렇게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 존경보다는 조롱을 하기 위한 “용기”를 제시할 수 있다.

성경 저자들은 풍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볍게 혹은 심하게) 충격을 주며 그들이

⁴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역대상 12 장) 바아나와 레갑이 그저 다윗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표현하기를 원했다면 비난할 만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정권에서 최고의 자리를 원했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지렛대로 이용하기를 원했다.

사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는 데 꽤 능란하다. 풍자는 때때로 공공연하고 노골적이고(예: 사 41:5-7; 44:9-20; 46:5-7), 때때로 미묘하다. 나는 다니엘 3 장이 미묘한 풍자에 대한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그 내러티브는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금 신상(높이 90 피트, 너비 9 피트)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거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해 말한다. 그 이야기에는 매혹적인 함축이 있다. 그것은 9 번이나 그 신상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것이라고 언급한다(단 3:1, 2, 3[두 번], 5, 7, 12, 14, 18). 이 용어는 내레이터 자신에 의해 사용되거나 등장 인물들의 말을 통해 나온다. 너무 미묘할지 모르지만 그 미묘함도 9 번 후에는 감지될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부추김에 속아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괴물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라!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세웠다.” 그것에는 실제적이거나 신적인 것이 없다. 그것은 두라 평지에 공간을 차지하는 거대한 의례적 금속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사무엘하 4 장으로 돌아가자. 나는 저자가 그의 이야기를 비꼬는 풍자로 수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그는 이렇게 암시한다. 레갑과 바아나가 담대하고 대담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라. 그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용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겁하고,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강조한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얼마나 시급히 필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기 쉬운지를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가 외모의 겉치장 아래에 숨어 있는 진짜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만 하는지를 강조한다.

II. 신학은 악에 대한 훌륭한 구실을 제공한다 (삼하 4:8 Theology provides an excellent cloak for evil)

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중에서 형의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한 일화를 들은 기억이 난다. 형은 어떤 연못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더니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형은 이렇게 변명했다. “나는 연못 곁에 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했지만 그가 나를 밀어넣었어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대학 시절에 한 동료 학생이 간증을 하고 있었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그도 고향에서의 자기 운전 습관을 نن지시 언급했다. 그가 좀처럼 멈추지 않던 교차로가 있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그리고 법에 따라 그는 멈추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멈추지 않고 달리던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고를 당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물에 빠진 소년들이나 무지한 대학생들이나 모두 신학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탄의 충동이나 신의 축복으로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레갑과 바아나도 역시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데 열중했다. 그들이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이동하는 데 적어도 이들은⁵ 걸렸을 것이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다윗에게 그들의 트로피를 보이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삼하 4:8b 개역개정).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다. 내 생각에 다윗은 그것이 누구의 머리인지 알고 있었다. 사실과 해석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사울과 그 후손에 대한 여호와와 그의 복수였는가? 그렇다면 레갑과 바아나는 (그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적수를 제거하고 다윗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여호와와의 공의를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여호와와 종들이었다는 말인가? 그들은 (한 찬송가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오직 통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통로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멋진 정부 일자리를 주어야 할 빛을 진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손에 피가 묻었지만 입술에 신학을 가지고서 그들은 신학이 마술적으로 피를 표백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살인은 종교적인 고려 사항들로 포장될 때 항상 더 즐거워 보인다.

바아나와 레갑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있으며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 죄와 어리석음을 덮기 위해 신학을 사용하는 그들의 방법론은 변함이 없다. 그들에게 신학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우리는 교리적 정확성에 대한 자칭 옹호자에게서 그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을 매우 냉혹하고 엄중하게 설명하고 바로잡고 알리기에 열심이다. (심지어 덜 중요한 문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명확함에 대한) 그의 엄격한 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주장한다. “내가 오직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교리적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적은 무관심이 불신앙에 빠지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장로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완고한 교인에 대하여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징계를 시작한다고 가정해보라. 사람들은 무엇을 듣게 될 것인가? 신학이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확실히 교회 장로들보다 훨씬 더 많으심에 대하여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나의 삶을 평가할 권리를 주었는가?”라는 질문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사물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그분을 논증으로 사용하고, 그분의 은혜나 율법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 그분을 조종하는 것일 수 있다.

⁵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80 마일이다. 영블러드가 말한 30 마일은 분명히 잘못 인쇄된 것이다.

III. 감사는 우상 숭배에 대한 훌륭한 교정 수단을 제공한다 (삼하 4:9

Gratitude provides an excellent antidote for idolatry)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삼하 4:9 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특히 이 구절은 레갑과 바아나의 행위에 대한 다윗의 평가를 소개하는 맹세 공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다윗이 여기서 우상 숭배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문으로 돌아가자. 어떤 사람들(예: 고든과 포켈만)은 레갑과 바아나의 주장(삼하 4:8)과 다윗의 고백(삼하 4:9) 사이에 언어의 유사성과 의미의 대조에 주목했다.

삼하 4:8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 ...

삼하 4:9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

포켈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유사점은 그 남자들이 다윗의 피를 찾는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은근한 암시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고 어떤 심복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⁶

확실히 레갑과 바아나는 자신들이 여호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다윗에 대한 모든 위협을 사울의 집에서 단호하게 제거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감히 너무 많은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 자신과 그의 왕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이 마무리 작업에 대해 다윗이 그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 그들의 배신을 그럴듯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안에 유혹이 숨어있다. 아주 미묘하게도 그들은 다윗의 구원자임을 자처하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사이비 구원자들이 어느 날 아침 난데없이 나타났을 때 다윗은 그의 참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들의 주장을 부인할 수 있었다. 다윗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큰 감사가 숨쉬는가! 얼마나 큰 기억이 살아있는가(참조: 렘 2:6)! 받은 은택과 부여된 호의를 항목별로 얼마나 잘 세분하는가(참조: 시 103:2-5)!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악인들의 공로로 돌리는 일에 말려들지 않는다.

왕들이 이 원칙(감사가 정절을 키워준다는 원칙)을 전유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항상 모든

⁶ J.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3,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0), 132.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주후 155 년경 서머나의 폴리갑은 당국에 소환되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며 한 줌의 필요한 향으로 분향하도록 요구받았다. 폴리갑은 거절했다. 집정관은 자기에게 야수들이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폴리갑을 그것들의 먹이감으로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폴리갑은 “그것들을 불러오라”고 대답했다. 집정관은 “당신이 야수를 멸시하면 내가 당신을 불 속으로 던지겠다”고 위협하며 “맹세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것이니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말했다. 이것은 폴리갑의 뛰어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86 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그분은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해 오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⁷ 말들은 다르지만 원칙은 동일하고 결과도 동일하다. 감사는 우상 숭배에 대한 훌륭한 교정 수단을 제공한다.

IV. 정의는 성도에게 훌륭한 격려를 제공한다 (삼하 4:9-12 Justice provides an excellent encouragement for saints)

다윗은 먼저 맹세를 한(삼하 4:9) 후 그의 사법적 결정을 선언한다(삼하 4:10-11). 그는 삼하 1:1-16 에 나왔던 아말렉 사람을 암시한다. 그는 다윗이 사울에 대한 그의 좋은 소식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다윗은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한다. 바아나와 레갑은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삼하 4:11a)?”라고 주장할 때 그 이유를 이해하였다. 레갑과 바아나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 마지막 항목(즉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계획을 자세히 연습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매끄러운 조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치사한 행위라고 불렀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지가 잘리어 수족이 없는 형태로 헤브론 못가에 매달렸다. 이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잘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참고: 신 21:22-23). 왕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격분”했는지 한탄하는 정부 성명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들이 다시는 몰래 잠입하거나 찌르지 않을 것이다. 헤브론은 정밀한 조사와 정의를 가진 왕국이었다

나는 바아나와 레갑의 시체가 간략한 광고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다윗의 마음을 상상해본다. 그는 자기가 그들의 행위를 거부한 것을 보여 주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아브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쪽 지파들, 특히 사울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모든 일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 “편리”한 것이고, 다윗이 그 배후의 주모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형 집행도 회의론자들을 잠재우지 못했을 것이다.

⁷ S.M. Houghton, *Sketches from Church Histor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0), 18.

그들은 그것이 정치인들이 일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보상을 약속하고 암살자들을 고용한 후 자신들을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 고용인들을 해치운다. 사울의 정권이 이미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바아나와 레갑의 행위가 필요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피가 끓고 있을 때 추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브론에서 실행된 이 정의의 표본은 우리에게 고무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와 선택하신 왕이 잘못을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인정하건대,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유다라는 소인이 찍힌 왕국 안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홍보용 속임수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삿 16:22-31 참조) 그것은 더 큰 것의 표징이다. 다윗 정권하에서 시행된 모든 미시적 정의는 다윗의 약속된 후손이 자기 시대에 온 땅에 시행할 거시적 정의의 전조로 간주되어야 한다(사 9:6-7; 11:1-5; 시 72 편).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소망을 필사적으로 굳게 붙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불의**의 만연이 교회에 어떤 압력과 시험을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사 59:14-15). 만약 그리스도의 양 무리가 계속해서 학대를 당하고 짓밟히면, 그들은 다른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시 125:3). 그 양은 자기 땅에서 강제로 추방되어 가족과 헤어지게 된 남(南)수단의 신자일 수도 있다. 그 양은 남편이 더 새로운 모델을 따라다니고 법적 절차를 밟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한 기독교인 아내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께서 온 세상에 헤브론 식의 정의를 세우실 때가 올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곧 차지할 것이지만(삼하 5 장), 거기에 이르는 길에 정말 수많은 일련의 방해와 좌절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하 2-4 장을 되돌아보며 엄청난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다(아브넬, 2 장).

어떤 어리석음도 하나님 나라를 좌절시킬 수 없다(요압, 3 장).

어떤 불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바아나와 레갑, 4 장).

⁸ 나의 책 *Looking on the Heart: Expositions of the Book of 1 Samuel*, 2 vols. (Grand Rapids: Baker, 1994), 1:22-26 을 보라. 거기서 나는 한나의 기도를 다루며 비슷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바아나와 레갑은 그 기회를 포착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은 불경건한 기회주의와 경건한 기회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가?
2. "우리는 외모의 겉치장 아래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삼상 16:1-13 에도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목수에 불과한데 설교자가 된 인물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지 아는가?
3. 그리스도인 남녀의 마음에 진리와 사랑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4.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얼마나 큰 동기인가?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가?
5.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6. 왕국 콜라주 (삼하 5:1-25 Kingdom Collage)

나는 지금 막 이스라엘의 지리에 관한 책의 표지를 보았다. 하나의 사진이 표지를 독점하지 않고 4 개의 사진, 즉 주요 지형지물, 개인, 풍경, 마을에 대한 사진들이 표지에 있다. 이 모두는 여러분이 예루살렘, 헤브론, 갈릴리, 혹은 베들레헴에서 보게 될 광경의 종류를 암시한다. 그 표지는 콜라주이다. 이 경우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콜라주이다.

사무엘하 5 장은 콜라주이다. 그것은 거침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나란히 배치된 “덩어리”, 에피소드들, 또는 정보 조각들의 모음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다윗 왕국의 수립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부분(1-5 절, 6-10 절, 11-12 절, 13-16 절, 17-25 절)으로 이루어진 사무엘하 5 장은 엄격한 연대순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콜라주임을 확신한다. 히람은 다윗에게 왕궁을 짓기 위해 석공과 자재를 보냈다(삼하 5:11).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삼하 5:6-9) 직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히람의 통치는 다윗의 마지막 10 년과만 겹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히람 = 주전 980-947; 다윗 = 주전 약 1010-970). 그러므로 삼하 5:11 은 다윗의 통치의 비교적 늦은 시기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다.¹ 삼하 5:13-16 에 나오는 처첩들과 자녀 출생에 대한 보고는 분명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몇 년을 요약하지만, 삼하 5:17 은 삼하 5:1-3 에 묘사된 다윗의 기름부음 받은 직후로 우리를 데려간다. 더욱이 연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삼하 5:17-25 에 묘사된 블레셋 사람들의 패배가 삼하 5:6-8 에 묘사된 다윗의 예루살렘 함락 **전에 일어났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합에 즉각 반응했다면, 다윗은 블레셋의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작전을 실행할 시간(또는 자유)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연대를 늘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 내가 앞선 문단을 포함한 것은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뿐이다. 나의 요점은 성경 저자들이 연대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무엘하 5 장에서 연대 사슬은 확실히 떨어져 나갔다. 이 장은 질서정연하지만 연대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콜라주이며 우리에게 왕국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주기 위한 단편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제 이 본문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¹ 연대에 대해서는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238-40 그리고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3: 218-19 을 보라.

² 보다 자세한 것을 위해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323 을 보라.

I. 왕국을 보장하는 약속들 (삼하 5:1-10 The Promises that Secure the Kingdom)

i. 다윗에게 주신 약속 (The Promise to David)

북부 모든 지파들(삼하 5:1), 곧 그들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삼하 5:3)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 북부 사람들은 준비한 연설을 통해 세 가지 논거로 그들의 친 다윗적 입장을 밝혔다.

- (1) 관계: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삼하 5:1b)
- (2) 지도력: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삼하 5:2a)
- (3) 약속: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삼하 5:2b, 볼드체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강조된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임)

마지막 논거가 절정의 논거이다. 성경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것이 결정적인 논거라고 확신한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국에 대한 약속은 위협에서 시작되어(삼상 13:14),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이새의 가족 중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가시화되고(삼상 16:1-13), 고통받는 사울의 마음에 의심으로 남아있거나(삼상 18:8) 거의 받아들인 사울의 마음에 필연적인 결론으로 남아있고(삼상 24:20-21; 26:25), 다윗의 친구들(삼상 23:16-17; 25:30-31)과 그의 반대자들(삼하 3:9-10, 18)에 의해 추정된다. 그러므로 북부 지파들이 헤브론 협상에서 여호와와의 약속을 인용할 때 저자는 우리가 본문에서 그것에 주목하기를 원한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보는가? 다윗에 대한 여호와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가? 그것이 사울의 독(삼상 18-26 장), 다윗의 어리석음(삼상 25, 27, 29 장), 북부 지파들의 반역(삼하 2:8-32), 그리고 “친구들”의 이기적인 추구(삼하 1:1-16; 3:22-30; 4:1-12)를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보는가? 사무엘상 18 장 이후로 여러 장들에 걸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여 여호와와의 약속이 어떻게 확고하게 입증되었는지를 보는가?” 저자는 여호와와의 모든 약속이 아무리 큰 저항을 만나더라도 확실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ii.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The Promise to Abraham)

나는 로버트 고든이 삼하 5:6-10 에 나오는 여부스 족속의 정복을 창 15:18-21 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한 것은³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자들은

³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226. 또한 John Calvin, *Sermons on 2 Samuel*, trans. Douglas Kell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2) 188-89 도 보라.

“여부스 족속”을 보지 않고 “창세기 15 장”을 생각한다. 우리는 여부스 족속의 건방진 재담을 듣고(삼하 5:6), 다윗의 승리에 대해 조롱하듯이 간결한 보고를 읽으며(삼하 5:7-8), 세부 사항이 없는 것이 더 많은 질문을 낳는 것을 발견한다. 다윗의 성공이 여부스 족속의 급수 시설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사람들의 제안을 들을 때, 우리의 호기심은 절망적이 된다. 이 역사적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다시 약속과의 연관 문제로 돌아가자.

주된 어려운 문제들은 삼하 5:6-8 에서 일어난다.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여부스 족속의 저항, 삼하 5:6

다윗의 성공, 삼하 5:7

추가 정보, 삼하 5:8a

결과로 생긴 속담, 삼하 5:8b

삼하 5:6 에서 우리는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의 상당한 대담함에 대하여 듣는다. 방어자들은 그들의 요새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고(삼하 5:6c) 다윗에게 이렇게 도전한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삼하 5:6b).” 보지 못하는 눈들과 무력한 다리들도 너의 어떤 공격을 물리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⁴ 오만하고 깔아뭉개는 말이다. 그것은 좋은 대사이고 기억에 남는 말이다. 그 말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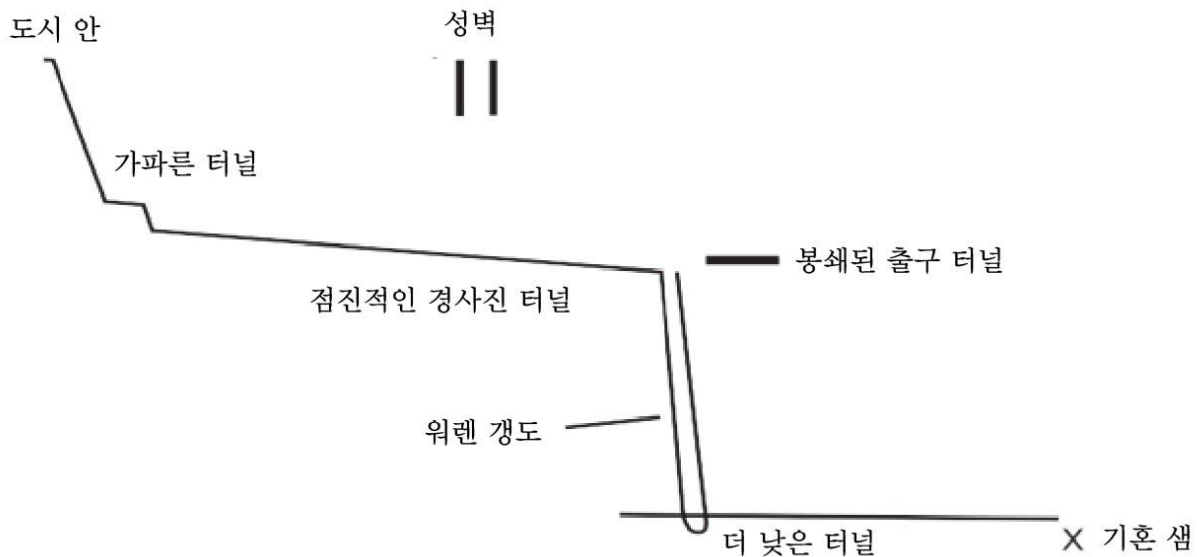
삼하 5:7 은 그들이 자기 말을 취소해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여부스 사람들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삼하 5:8 의 추가 설명에 나온다. 다윗은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치노르, 수갱?]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고 말했다. (나는 여기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이 조롱하는 여부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본문은 어렵다. [치노르]는 어려운 용어이다.⁵

⁴ 이가엘 야딘(Yigael Yadin, *The Art of Warfare in Biblical Lands*, 2 vols. [New York: McGraw-Hill, 1963], 2:267-70)은 여부스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도시 성벽 위에 올려놓고 끔찍한 마법의 저주로 사용한 것이라고 제안했다. 야딘은 헷 족속의 비슷한 사례들을 인용하며, 여부스 족속의 저주가 이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신이 불구가 되고 눈이 멀게 될 것이라는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요술은 다윗을 겁주어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 본문이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이 성벽에 놓였었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요세푸스(*Antiquities*, 7.3)에게서 유래된 약간의 지방색(local color)이다.

⁵ [치노르]는 아마도 도구(참고: NEB “그로 쇠갈고리를 사용하게 하라”; NIV “기어오르기 위한 걸이를 사용하라”)가 아니라 목적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동사 [나가]와 전치사 [브]의 결합은 거의

그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고학은 번역자들을 계속 감질나게 하는 매력적인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옛 예루살렘의 (동쪽 언덕 오벨에 있는) 수로는 계단식 터널을 통해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 터널은 약 90 피트 계속되는 점진적인 경사 터널로 이어지며 수직 갱도의 꼭대기까지 이른다. 이 갱도는 약 37 피트 정도 내려온 지점에서 성벽 바깥에 있는 기혼 샘에서 물을 끌어오는 하부 수평 터널과 만난다. 다음 도식은 수로의 단순화된 도표를 보여준다.⁶



이 수로는 생명을 구하는 시설이다. 비록 포위 아래 있을지라도, 도시는 성벽 밖에 (위장했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이 있을 때에도 물을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그의 군대에게 하나씩 수로를 따라 올라가며 길을 터서 도시 내부의 기습 공격을 위한 입구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고 제안한다.⁷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예외 없이 대상/목표물에 도달하거나 닿거나 때리는 것을 암시한다. [치노르]는 여기 삼하 5:8 과 시 52:7[MT 8]에만 나온다. 거기서 그것은 흐르는 물을 위한 일종의 통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⁶ 개관을 위해 Dan Gill, "Jerusalem's Underground Water Systems: How They Met,"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0/4 (July-August 1994): 20-35 을 보라. 일부 다른 것들과 달리, 워렌 갱도(Warren's Shaft system, 영국의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됨)는 아마도 다윗의 공격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이었을 것이다. 연대에 대해서는 Zvi Abells and Asher Arbit, "Some New Thoughts on Jerusalem's Ancient Water Systems,"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27 (1995): 2-4 을 참고하라.

⁷ NRSV 가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유의하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고자 하는 자는 수갱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다윗의 부하들이 도시의 수원을 발견하였거나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워렌 갱도 바닥에 앉아서 물을 얻기 위해 내려진 여부스 사람의 모든 양동이의 밧줄을 끊고 성읍에 물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윗의 승리에 대한 사실은 알지만 그 방법은 잘 모른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수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어쨌든 다윗은 통일 왕국을 위한 최고의 수도를 확보했다.⁸ 이제 본문이 말하는 약속과의 연관 문제로 돌아가자.⁹

우리는 전에 여부스 족속을 만난 적이 있다. 사무엘하 5 장에서는 그들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묘사되었을 뿐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던 땅을 의미했다. 여부스 족속은 여호와께서 언급하신 다른 거주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주자이다(창 15:18-21). 이 약속은 가나안 정복의 때까지 반복해서 언급된다(출 3:8, 17; 13:5; 23:23; 33:2; 34:11; 신 7:1; 수 3:10; 12:8).¹⁰

그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란 조항은 걸림돌이 되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삿 1:8)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수 없었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수 15:63). 베냐민 지파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수 1:21).¹¹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⁸ 참고,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200: “이 조치로 다윗은 국토의 중앙에서 가나안인 거주지를 제거하고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수도를 얻었다. 남쪽으로 멀리 유다 땅에 위치한 헤브론은 북쪽 지파들에게 수도로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쪽에 있는 수도는 유다에게 더더욱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다. 두 지역 사이의 중앙에 위치하고 어느 지파의 영토도 아닌 예루살렘은 훌륭한 타협점을 제공했다.”

⁹ 삼하 5:8b 에 나오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에 대하여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각각의 관점에 대해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 마태복음 21 장과의 몇 가지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는 Gordon, *I & II Samuel*, 50-52 을 참조하라.

¹⁰ 여러 족속들을 그룹으로 열거하는 목록들에서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자주 마지막 자리에 오는지 유의하라.

¹¹ 수 15:63 과 삿 1:8, 21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책들 *No Falling Words* (Joshua), 88-90[= **여호수아 주해**, 73-74(9 장 IV. 정복의 방식)] 그리고 *Such a Great Salvation* (Judges), 19[= **사사기 주해**, 6(1 장 I. 신학적 관심사들), 각주 3]에 나오는 설명을 참고하라.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254-56 도 참고하라.

지금 다윗은 여부스 사람의 요새를 쳐부수고 요새 시온을 차지한다(삼하 5:7).¹²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와의 약속(창 15:18-21)은 사실로 입증되었다. 삼하 5:1-5 이 여호와와의 약속은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다고 가르친다면, 삼하 5: 6-10은 **연대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의 약속은 확실하다고 가르친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약 800 년의 기간은 여호와와의 말씀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분의 약속은 작은 글씨로 만료일이 찍혀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참조, 뱀후 3 장).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에 감사하자(히 12:28).”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약속이 확고하고, 너무 확고해서 세월이 그것을 무산시킬 수 없고(아브라함의 경우), 적들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기(다윗의 경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약속은 오래되거나 반대될 수 있지만 결코 거짓이 아니다.

II. 왕국을 번영시키는 비전 (삼하 5:11-12 The Vision that Prospers the Kingdom)

다음 단락(삼하 5:11-12)은 페니키아 해안의 시돈에서 남쪽으로 25 마일 떨어진 상업과 해상의 중심지인 두로에서 표시한 외국인의 인정을 전하고 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삼하 5:11-12)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히람의 건축 작업들은 다윗의 통치 후기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들에 대한 공지는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그의 예루살렘 정복을 언급한 직후에 나온다. 따라서 저자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삼하 5:11 에 나오는 히람의 공급 물품, 일꾼들, 건축 작업들을 보면서 미래에 있을 여호와와의 회복된 백성에 대한 열방의 존경(참고, 사 60:3, 10-14)의 예표를 거의 내다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기의 강조점이 아니다. 그 대신 본문은 그의 새로운 영원한 거처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왕권을 어떻게 수립 혹은 확립하셨는지에 대한 징표라는 다윗의 추론을

¹² 삼하 5:7 은 성경에서 시온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다. 원래 시온은 여부스 족속의 이 정복된 성읍, 곧 (남동쪽) 오벨 언덕에 있는 이 “다윗 성”(왕상 8:1)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성전의 산(시 74:2-3; 84:7), 예루살렘 성(시 87:2-3; 147:12), 하나님의 백성(사 49:14; 51:16), 그리고 중요하게도 다가올 시대의 여호와와의 왕국의 중심지(사 2:3; 4:3-5; 미 4:7; 스 8:1-3)를 가리키게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날이 올 것이지만(사 24:23), 그 통치는 11 에이커의 땅에 불과했던 옛 여부스 마을에서 처음으로 가시화되었다.

강조한다(삼하 5:12).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유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왕권을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¹³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권력 강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 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 곧 여호와와 백성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위에** 있다.

이 전체 정신은 왕이든 평민이든 죄 많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 우리는 존경을 열망하나 봉사는 추구하지 않는다. 폴 존슨은 이런 맥락에서 레오 톨스토이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를 쓴다. “그는 편안함, 즐거움, 심지어 삶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용의가 있었다. 그것이 웅장하고 연극적인 제스처로 행해지며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말이다.” 그는 군대에서 톨스토이가 기꺼이 복무하려고 했지만 섬기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톨스토이는 나중에 도박을 포기했지만 도박과 관련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 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었다. 존슨이 언급했듯이 “오래된 빚을 갚는 것에 극적인 것은 없었다.”¹⁴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 노예적인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섬기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전을 그분의 모든 제자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신다(참조: 막 10:35-45, 특히 42-45). 성경에 나오는 왕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쉽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항상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사역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아가 백성으로부터 오는 인정, 수용, 심지어 칭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그들의 비전을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궁핍하고 자주 고약한 양 무리를 섬기는 것, 곧 참된 왕국의 비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훈련이다.

III. 왕국을 망치는 타협 (삼하 5:13-16 The Compromise that Mars the Kingdom)

이 짧은 단락(삼하 5:13-16)은 삼하 3:2-5 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¹³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와 율법을 읽는 것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를 참고하라. “(신 17:18-19 개역개정)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¹⁴ Paul Johnson, *Intellectuals* (New York: Harper & Row, 1988), 111,115.

예루살렘에서 취한 (더 많은) 처첩들과 다윗이 낳은 (더 많은) 자녀들의 새로운 목록을 전한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다. 한편으로, 다윗의 아들들의 수는 그의 힘을 나타낸다(삼하 5:14-16). 다른 한편으로, 그의 처첩들의 수는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삼하 5:13a). 왜냐하면 이런 관행은 언약 왕에 대한 여호와와 그의 규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신 17:17).¹⁵ 나는 우리가 삼하 5:13-16 을 통해 두 개의 논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무엘하 5 장은 전반적으로 다윗에게 긍정적이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만나는 것은 오직 13-16 절에서이다.¹⁶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부정적인 것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다윗의 힘도 있고 그의 어리석음도 있다.

때로는 한 가지 흠이 다른 훌륭한 기록이나 업적을 더럽힐 수 있다. 루터는 한때 그의 동료 유스투스 요나스가 훌륭한 설교자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칭찬했지만 “사람들은 자주 기침하여 가래를 내뿜는 선인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¹⁷ 그러므로 설교는 정말 훌륭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축축하면 그에 대한 평가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의 왕권이 전반적으로 훌륭했고 여호와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한결같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료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완전하지 못한 신실함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인간 문화에 의해 지배되는 그의 관행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¹⁵ Ronald F. Youngblood, '1,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859 그리고 Calvin, *Sermons on 2 Samuel*, 206-7 을 보라. (칼빈은 한 아내가 “12 명, 아니 심지어 25 명의 자녀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하렘이 없어도 수많은 자녀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246 은 이렇게 설명한다. “다윗은 왕처럼 행한다. 그는 첩들을 두었다. 그는 이미 많은 아내들을 두었지만 헤브론 단락에서는 ‘첩’이란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제 왕의 도시에서 새로운 관행에 대한 새로운 어휘가 나온다. 이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관행은 아무런 변명없이 나온다. 다윗은 성 정치(sexual politics)의 과정에 폭 빠져있다.” 이 책에서 삼하 2:12-3:19 을 다룬 제 4 과에 나오는 각주 5 번을 보라. 신명기에 대한 모세 저작설을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Gleason L. Archer, Jr.,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updated and rev. ed. (Chicago: Moody, 1994), 108-12, 274-83 을 보라.

¹⁶ 삼하 5:13 이 다윗의 행동만을 기록한 것이어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때때로 내러티브는 독자로 하여금 관점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추론해 보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6 장은 다윗이 블레셋 스타일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두 번째 시도(삼하 6:12-13)에서 옮기는 방식의 변화는 독자로 하여금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긴 것이 잘못된 것임을 올바르게 추론하게 한다.

¹⁷ Preserved Smith and Herbert Percival Gallinger, eds., *Conversations with Luther* (New Canaan, CT: Keats, 1979), 189-90.

일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찰들은 매우 유익해야 한다. 그것들이 기독교 영웅 숭배에 대한 우리의 경향을 제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왕국의 어떤 종들에게 너무 매료되어서 그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하게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열정을 제지해야 한다. 다윗조차도 그가 다스리는 왕국을 위태롭게 하고 파괴한다. 궁극적으로, 왕국은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다윗의 자손(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만 안전하다(요 8:29).

IV. 자신의 왕국을 지키시는 수호자 (삼하 5:17-25 The Defender Who Protects His Kingdom)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왕 아래 통일되는 것이다(삼하 5:17). 그래서 그들은 올라와서 다루기 힘든 봉신(다윗)을 추적하기 위해 올라와서 예루살렘 남서쪽의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한다. 블레셋 사람들은 듣고 올라오고(삼하 5:17a), 다윗은 듣고 내려간다(삼하 5:17b). 블레셋과 다윗이 접전한 요새는 밝혀지지 않았다.¹⁸ 어쨌든, 다음에 나오는 보고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번 승리한 것을 전한다. 그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삼하 3:18 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⁹

이 에피소드들은 여호와를 그분의 왕국의 수호자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도 보여준다.

첫째로, 그분은 **그분의 인도를 통하여** 그것을 보호하신다. 두 에피소드에서 다윗은 맨 먼저 여호와의 지시를 구한다(삼하 5:19, 23; 참조, 삼하 2:1). 아마도 제사장을 통하여 구하였을 것이다(삼상 23:6-14). (여기서 다윗은 사울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삼상 28:6, 15]. 다윗은 여호와의 지시를 받지만 사울은 그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지시에서 흥미로운 반전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다윗이 거의 동일한 두 가지 상황(삼하 5:18, 22)에 직면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의 인도를 변경하셨기 때문이다. 첫 번째

¹⁸ 어떤 사람들은 그 요새가 아둘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참조, 삼상 22:1, 4-5; 삼하 23:13-14),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이 시온 요새/시온 산성(삼하 5:7, 9)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는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삼하 5:17).

¹⁹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470;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159.

경우에서는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삼하 5:19b)”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삼하 5:23b)”고 주의를 주셨다.

그러나 본문은 여호와와 인도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주로 그것의 보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의 경계(vigilance, 警戒)는 새로운 왕들과 신생 왕국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많은 왕국의 종들이 이 보호막 뒤에 놓여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1545 년 스코틀랜드 몬트로스에서 존 녹스의 멘토인 조지 위샤트는 한 친한 친구로부터 갑자기 병이 들었고 임종 전에 와서 함께 있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는 편지를 받았다. 위샤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출발했지만 불과 4 분의 1 마일도 못 가서 멈추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행을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 곳(위샤트가 가리킨 작은 언덕)으로 가서 발견한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목숨을 노리는 음모가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의 정찰대가 언덕을 확인했고, 언덕 뒤에 숨어 위샤트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60 명의 기병들을 발견했다. 사실 그 “친구의” 편지는 그의 예하(eminence 猊下, 추기경의 존칭), 곧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배신자 비튼 추기경이 조작한 것이었다.²⁰ 여러 면에서 여호와와 인도하심은 그분의 대의와 그분의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둘째로, 이 블레셋 이야기들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힘으로** 왕국을 보호하신다고 가르친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다윗은 [파라츠]라는 어근을 사용하여 야훼께서 주신 승리를 설명한다. 실제로 그것은 삼하 5:20 에서 4 번 사용된다.

다윗이 바알브라심[프라침]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흘음[페레츠]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흘으셨다[파라츠]**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프라침]이라 부르니라

“바알브라심”은 “터뜨림의 주”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무너뜨리신 방식을 기념한다. 다윗은 여호와와 행위를 거대한 급류가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에 비유했다. 여호와께서 상대를 그렇게 평정하셨고 다윗은 그 지역의 이름을 분쇄자 마을(Smasherton)이라고 불렀다.²¹

²⁰ Thomas McCrie, *The Story of the Scottish Church from the Reformation to the Disruption* (1875; reprinted., Glasgow: Free Presbyterian, 1988), 19-20.

²¹ 미 2:13 은 그의 남은 자들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구원과 자유로 인도하실 [하포레츠](“길을 여는 자,” “the Breaker”)를 언급한다. 나는 이 용어가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 또한 여호와의 힘을 부각시킨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 군대를 인도하며 싸우시는 용사라고 묘사하신다.

뿔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야차]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삼하 5:24)

“나가다”는 의미의 동사 [야차]는 매우 흔히 사용되는 동사이지만 자주 전투에 들어가거나 전투로 이끄는 것을²² 나타낸다. (삼하 5:2 에 나오는 표현 **אֲנִי מוֹצֵא וְאֵלֶּי מְבִיא** [하모치 브하메비 “the one leading out and the one bringing in”,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을 보라.) 예를 들어, 드보라가 바락에게 시스라의 군사와 싸우라고 명령할 때 그녀는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야차] 아니하시느냐(삿 4:14)”라고 외쳤다. 다시 말하면,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전투에 들어가셨으니 그분의 백성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삼하 5:24 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전투에 뛰어들어 블레셋을 치시는 용사로 칭하셨다.

본문이 평정자요 용사이신 여호와의 힘에 대하여 얼마나 강렬한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지 주목하라.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을 누그러뜨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규범과 일치하는 길들여진 너무 여린 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하 5:21 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런 신들을 버린다. 그것들은 쓰레기장으로 옮겨진다.) 아니, 여호와의 백성은 분쇄자이시요 전사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시 24:8)을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 양을 지키시고 그분과 우리의 모든 적을 제지하시고 정복하실 수 있다.²³ 그러므로 사무엘하 5 장은 우리를 종말론, 즉 마지막 일들로 곧장 인도한다.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을 보호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백성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항상 넉넉히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수 있으시고(참고, 고후 2:14) 마지막에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그분은 평정자이시요 용사이시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얼마나 근본적인가?
2. “그분의 약속은 작은 글씨로 만료일이 찍혀 있지 않다.” 고후 1:20 에 언급된 또 다른 위대한 사실(“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²² H.D. Preuss, TDOT, 6:229 는 이 동사가 이런 의미로 120 회 이상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²³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No. 26.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에 비추어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라.

3.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신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권위,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는 여러분의 직분을 보는 방식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보셨는가?

4.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을 때 다윗은 처음에 인도를 받았으므로 지금은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랬었다면 그가 얼마나 잘못했겠는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5. 우리는 평정자와 용사와 같은 여호와의 힘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들을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분의 다른 이미지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들이 그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7.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희열 (삼하 6:1-23 The Terror and Ecstasy of God)

한 장의 사진이 내 벽에 걸려 있다. 그것은 가로 2 인치, 세로 2 인치 크기에 X자 형태로 배열된 12 명의 남자 사진으로 가운데에 날짜(1926)가 찍혀 있다. 사람들이 골동품 가게의 잡동사니 가운데서 이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1920 년대의 옷 깃과 넥타이를 연구하는 데 과도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신학교 학급 사진이며 아버지께서 오른쪽 위에서 3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나는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조각목으로 짜서 순금으로 입힌 $3\frac{3}{4} \times 2\frac{1}{4} \times 2\frac{1}{4}$ 피트의 옛날 궤로서 언약궤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크게 흥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신성한 궤가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의 임재 자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무관심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언약궤에 관한 이 내러티브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6 장은 언약궤의 여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이 장의 가르침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나는 이 내러티브에 관한 한 구조를 제시하고 싶다. 그 구조는 본문과 함께 분석이 되면 독자들에게 이야기의 리듬과 대조를 부각시켜 줄 것이다.

I. 사무엘하 6 장의 구조 (Structure of 2 Samuel 6)

언약궤 메어 오기, 삼하 6:2-4

기쁨, 삼하 6:5

비극, 삼하 6:6-7

다윗의 반응: 분노와 두려움, 삼하 6:8-9

오벤에돔의 집에서 – 축복, 삼하 6:10-11

언약궤 메어 오기, 삼하 6:12-13

기쁨, 삼하 6:14-15

비극, 삼하 6:16

다윗의 반응: 경배와 관대, 삼하 6:17-19

다윗의 집에서 – 멸시, 삼하 6:20-23

이제 이 장이 가르치는 강조점들로 나아가자.

II. 여호와와 임재의 중심성 (삼하 6:1-2 The Centrality of Yahweh's Presence)

기랏여아림(참고, 수 15:9-10; 삼상 7:1)이라고도 알려진 바알레-유다(삼하 6:2)¹는 사람들로 붐볐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서쪽/북서쪽으로 8-9 마일 떨어진 이곳으로 군대(삼하 6:1, 삼만)와 왕과 군중(삼하 6:2)이 그날의 임무, 곧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는 일을 위해 모였기 때문이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일을 보기 전에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우리는 출 25:10-22 에서 언약궤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중요성은 민 10:35-36 에 나오는 모세의 광야 기도에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의 대적들이 흩어지게 하십시오.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치게 하십시오.

언약궤가 머물 때에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

¹ [역자 주] 기랏여아림은 "city of forests 수풀의 도시"란 뜻으로 원래 기브온, 그리바, 브에롯과 함께 히위 족속 동맹을 이루고 있던 도시였다(수 9:17). 이 동맹의 대표로 온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숙여 화친 조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기랏여아림은 기브온 족속의 4 도시 중 하나(one of the four Gibeonite cities)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기랏여아림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고(수 18:14-15), 처음에는 유다(수 15:60; 참조, 사 18:12), 다음에는 베냐민(수 18:28)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블레셋에서 벤세메스로 돌아온 후 언약궤는 기랏여아림 산([기브아], 삼상 7:1; 삼하 6:3, 4)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지켰다(삼상 6:19-7:2). 여호야김 시대에 기랏여아림 출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우리야] 선지자가 있었고(렘 26:2-23), 바벨론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온 귀환민 중에 기랏여아림(느 7:29; 비교, 스 2:25 "**기라다림**") 사람들이 있었다. 시 132:6 에 나오는 [비스데-**야아르**]는 개역/개역개정에서 "나무 밭(KJV: in the fields of the **wood**)"으로, 우리말성경에서 "나무들이 무성한 들판"으로 번역되었으나, 새번역/공동번역에서 "야알의 들"로, 쉬운성경에서 "야르의 들판"으로, 현대어성경에서 "야일 들녘"으로 번역되었다(NIV/NASB/ESV: in the fields of **Jaar**). 이 [야아르]를 기랏여아림과 동일시하는 문제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기랏여아림에 대한 다른 이름들은 바알을 섬기던 옛 산당이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기랏바알**(수 15:60[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 18:14[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 "**바알라**(수 15:9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 10, 11, 29; 비교, 대상 13:6[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여아림])", "**바알레 유다**(삼하 6:2)" 등이다. 대상 13:6 에 나오는 [바알라타]는 바알라에 방향의 접미사가 붙은 것이다. 개역개정은 기랏여아림을 13 번 **기랏여아림**처럼 띄어 쓰지 않았고, 4 번 **기랏 여아림**처럼 띄어 썼는데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수천만이십니다(NJPS).²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와 매우 밀접하게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출발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했고, 언약궤가 다음 야영지에 내려놓였을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외쳤다. 언약궤와 여호와 사이의 긴밀한 동일성은 언약궤가 여호와의 형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임재의 성례(sacrament)이었음을 의미한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가?

첫째, 언약궤는 여호와의 **통치권**을 강조한다. 대상 28:2 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부른 것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왕은 보좌에 앉아 발등상을 사용한다. 언약궤가 여호와의 발등상이라면 분명 여호와께서는 왕이시다.³ 둘째로, 언약궤는 여호와의 **화해**에 대해 말한다. 왜냐하면 매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를 언약궤의 뚜껑과 언약궤 앞에 뿌리기 때문이다(레 16:14-15). 셋째, 언약궤는 여호와의 **계시**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언약의 계명들을 담은 돌판들이 언약궤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출 25:16, 21; 신 10:1-5). 더욱이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추가적인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모세와

² NJPS 번역이 정확하다. 여호와는 (RSV 와 NIV 의 번역처럼) 이스라엘의 수천만 인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수천만 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신이 사단들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으시다.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보호이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영어의 “to”(한글의 “에게”)라는 전치사가 없다.

³ [출 25:16-21] 16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돌지며 17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18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19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메알]에서, **곧 증거궤 위에**[알]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미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어떤 이들은 삼하 6:2 이 “그룹들(언약궤의 뚜껑에 붙여진 천사들의 형상들) 위에[NASB “above”; ESV “on”]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말할 때 이 개념을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NIV “between”; NKJV “between”]” 만군의 여호와라는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일 수 있다. [NASB 와 NKJV 의 이탤릭체 전치사가 암시하듯이, 삼하 6:2 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전치사가 없다.] 특별히 Marten H. Woudstra, *The Ark of the Covenant from Conquest to Kingship*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5), 68-73 을 보라. 왕의 발등상으로서 언약궤에 관해서는 C. L. Seow, “Ark of the Covenant,” *ABD*, 1:388-89 을 보라.

만나신 밀회 장소였다(출 25:22).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였다.

그렇다면 기랴트여아림의 왁자지껄한 상황은 정말 중요하다. 언약궤를 시온에 가져오는 일을 통해 다윗은 여호와와 임재가 더 이상 한 옆 골목에 머물 수 없고(대상 13:3 참조) 다윗 왕국의 중심점과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⁴ 이 다스리시고 화해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는 위엄이 있으시고 용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선포한다.

각주 1: 여러분은 사무엘하 6 장이 사무엘하 5 장의 뒤를 이어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가? 그것은 여부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만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블레셋을 무찌름으로써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번성한다. 복음주의 교회는 이것을 쉽게 놓치고 있다. 최근의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비상 사태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많은 아드레날린을 쏟아낼 수 있다. 위기는 우리가 행동하도록 자극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유지시키지는 못한다.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최선의 대의에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밖의 원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예배를 없애서는 안 된다. 진짜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 중에 계시는가?”이다.

각주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관찰하라. 성찬식에서 나는 종종 우리의 구속주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고 말한다(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23-26 번 참조). 언약궤가 여호와와 계시를 나타내지 않는가? 그렇듯이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우리의 선지자이다. 언약궤가 여호와와 화해를 말하지 않는가? 그렇듯이 그리스도는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의 제사장이다(히 9:12). 언약궤가 여호와와 발등상으로 그분의 통치권을 선포하지 않는가? 그렇듯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시고 정복하시는” 우리의 왕이다. 여호와에 대하여 온전하게 말하는 이 구약의 기구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골 2:9)”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⁴ 예를 들어 메릴(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238-48))이 주장하듯이, 이 요점은 이 사건이 다윗 통치의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효하다.

하면 여호와와 그의 임재가 나의 삶과 교회에 중심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대답: 예수님을 바라보라.

III. 여호와와 그의 거룩의 위험성 (삼하 6:3-11 The Danger of Yahweh's Holiness)

즐거웠다. 왁자지껄했다. 종교적이었다. 춤추고 노래했고 수금과 소고와 제금 등 여러 악기의 소리가 들렸다(삼하 6:5). 기랴여아림이 흔들리고 있었다. 언약궤는 소가 끄는 새 수레를 아효와 웃사가 모는 가운데 옮겨지고 있었다.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다. 춤이 멈추고 음악이 멈추었다. 모든 시선이 땅에 엎드려져 비틀거리고 경련을 일으킨 웃사에게 쏠렸다. 그리고 조용했다. 누군가 긴급 보고를 했다. 파티는 끝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삼하 6:7).”⁵

이것이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가? 어쨌든, 웃사는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는 소들이 뛰므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했는가(삼하 6:6)? 여호와께서는 왜 그를 봐주지 않으셨는가? 왜 그렇게 심하셨는가? 왜 그렇게 독단적이셨는가? 우리는 화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삼하 6:8)? 아니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가(삼하 6:9)?

나에게 이와 같은 구절들은 성경의 초자연적 기원과 신뢰성에 대한 증거이다. 이 웃사의 이야기는 인간의 취향에 어긋난다. 우리가 개종자들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신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신은 시장성이 없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든 산물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다.

본문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문제, 오류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에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민 4:4-6, 15, 17-20; 7:9 참조). 그 규례들은 만지지 말고, 보지 말고, (수레로 옮기지 말고) 어깨에 메어 옮기라는 것이었다. 제사장들은 성물을 덮어야 했으며, 그 후에 고핫 자손의 레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물을 옮기도록 배정했다(따라서, 암시적으로 수레는 금지되었다). 고핫 자손들은 “죽지 않기 위해” 성물을 만지거나 쳐다보지 않아야 했다(민 4:15, 20).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친절하심은 그 경고 전반에 걸쳐 쓰여

⁵ 아마도 일부 독자들에게는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여기에 웃사의 궁극적인 구원이 걸린 것은 아니다. 그가 당한 것은 일시적인 심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은 아니다.

있었다. 그러므로 다윗과 웃사와 일행에게 경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호와의 타격은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니었다.⁶

이러한 배경 외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행위가 삼하 6:8 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웃사에 대한 치심(outbreak[페레츠])으로 치셨기(broke out [파라츠]) 때문에 다윗은 화가 났다. 그래서 그 곳이 웃사의 치심(Outbreak-of-Uzzah [페레츠-우자])이라고 오늘날까지 불린다(삼하 6:8).

이렇게 나는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어근 [파라츠]가 3 번 사용된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사무엘하를 읽어 내려온 사람은 누구나 같은 어근이 삼하 5:20 에서 4 번 사용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다윗이 바알브라심[프라침]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흘음[페레츠]**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흘으셨다[파라츠]**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프라침]이라 부르니라(삼하 5:20)

삼하 5:20 에서 여호와와 다윗의 적들을 “치신다.” 그러나 삼하 6:8 에서 여호와와 다윗의 친구를 치신다. 여호와와 블레셋을 치시거나 이스라엘을 치실 수 있다. 여호와의 치명적인 거룩하심은 이교도들과 교인들을 평준화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간을 깜짝 놀라게 하는 무시무시한 힘과 예기치 못한 행위로 치셨다. 이번에는 다윗의 업무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었다.”⁷

물론, 독자로서 우리가 원한다면 계속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적용은 분명하다. 여러분은 실재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경시할 수 없다. 여호와와 하늘에 있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워싱턴 D.C. 환영 연회에 가던 두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난다. 그

⁶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무엘하 6 장을 다룰 때 민수기 4 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본문을 설명하는 데 민수기 4 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민수기의 대부분이 포로기 이후의 제사장(P=Priestly) 문서에서 유래되었다는 그들의 비평적 정통을 고수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민수기의 대부분은 다윗보다 훨씬 늦은 시기의 것으로 어쨌든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R. C. Denton, 'Numbers, Book of,' *IDB*, 3:571 참조). 그러나 그러한 비평적 정통 학설은 퇴색되고 있다. 제사장 문서의 고대성에 대해서는 Jacob Milgrom, "Numbers, Book of," *ABD*, 4:1148-50 을 보라.

⁷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3,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0), 189.

중 한 사람이 같은 연회장으로 가는 낯선 사람에게 자기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철벽거리며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눌 때 그 낯선 사람은 그랜트 장군이 매우 과대평가되었다는 그의 의견을 표명했다. 물론, 그랜트가 자기 위에 우산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했다. 여호와와 백성도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불이 있다는 것을 잊는다. 아니,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겁을 먹는다고 해서 해가 되지는 않는다.⁸

IV. 여호와와 기쁨의 축하 (삼하 6:12-23 The Celebration of Yahweh's Joy)

하나님께서서는 곧바로 그분의 엄한 행위가 언약궤에 대한 마지막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었을 때(삼하 6:6) 죽임을 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언약궤가 자동적으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언약궤가 오벰에돔의 집에 석 달 머물러 있는 동안 그가 받은 복을 목격하였다(삼하 6:11).⁹ 이 소식은 다윗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달되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벰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삼하 6:12a).” 사무엘하 6 장에서 12a 절은 실제로 2-11 절과 12b-23 절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경첩이다. 앞에서 제시한 구조에서 나는 12a 절을 후반부에 포함시켰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2a 절은 2-11 절과 12b-23 절 사이에 그 자체로 홀로 서 있다. 어쨌든, 다윗은 요점을 파악하고 여호와와 진정한 의도가 언약궤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저자가 기억나도록 하거나 여백 전체에 주의 사항들을 써 놓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주 분명하게 삼하 6:13 을 통해 언약궤가 율법의 규례대로(민 4:15) 이제 옮겨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여러분은 기쁨에 대한 강조를 놓칠 수 없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기쁨”으로 다윗의

⁸ 사무엘하 6 장의 하나님이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하나님(행 5:1-11; 고전 11:30-31; 히 10:26-31)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⁹ 여호와와 “복”(삼하 6:11b)은 밭과 가축과 가족의 다산의 형태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벰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그가 가드 출신 블레셋 사람이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Ronald F. Youngblood, “1,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872 과 Terence Kleven, “Hebrew Style in 2 Samuel 6,”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5 (1992): 306 을 보라. 증거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가드 사람 오벰에돔은 대상 15:18, 21, 24; 16:5, 38 의 레위 사람 오벰에돔일 수 있다(H.L. Ellison, “Obed-edom,” *ZPEB*, 4:482 참조).

성 안으로 옮기고 있었다. 다윗은 힘을 다하여 덩실 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삼하 6:14, 16). 사람들은 즐거이 환호하며 (숫양의 뿔) 나팔을 불고 있었다(삼하 6:15).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광희(狂喜)가 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이 요점(삼하 6:12-23)과 이전 요점(삼하 6:3-11)을 결합하여 완전한 진리를 보기를 원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환호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이 진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보는가? 여러분은 한 개의 장 안에서 어떻게 이 두 개의 강조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가?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여호와와 임재 가운데 여러분은 떨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사무엘하 6 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운 느낌이 기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시편 2 편은 이 모든 것을 세 단어로 묶는다. “떨림을 가지고/떨며 즐거워하라(Rejoice with trembling! [길루 비르아다] 시 2:11b)!” 이 역설이 얼마나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시온의 자녀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

v. 여호와와 종의 겸손함 (삼하 6:20-23 The Humility of Yahweh's Servant)

사무엘하 6 장의 후반부는 언약궤가 다윗 성에 안착하는 성공 이야기이다. 그러나 사무엘하 6 장의 구조를 묘사한 도표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은 이 “성공적인” 후반부 이야기에 전반부의 웃사의 죽음(삼하 6:6-7)에 상응하는 비극(삼하 6:16)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삼하 6:16 에는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반부의 오벤에돔의 집(삼하 6:10-11)과는 대조적으로 후반부의 다윗의 집(삼하 6:20-23)은 축복 대신 경멸을 물씬 풍긴다.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녀의 풍자는 확연히 드러난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삼하 6:20)¹⁰

저자가 미갈을 세 번이나 “사울의 딸(삼하 6:16, 20, 23)”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여러분이 그녀의 목소리가 “구 시대” 곧 구 정권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¹⁰ 다윗이 그 짝 죄는 에봇을 입고 덩실거리는 것은 미갈이 보기에 아주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한 술 취한 사람이 오후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마을의 빵 가게 밖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미갈은 다윗의 행동이 그러한 수준의 것으로 역겹다고 말하고 있었다.

원한다.¹¹

미갈은 왕의 품위와 적절한 예절과 외모에 관심이 있었다. 왕은 유지해야 할 일정한 이미지가 있고 천민과 같은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이에 대한 답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 그는 여종들이 청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었다(삼하 6:21a). 그분이 청중이셨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예배였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당신(미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다윗을) 택하셔서 여호와와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으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축하한 것이다(삼하 6:21b).”라고 말했다. 다윗은 청중에 대한 다른 관점뿐만 아니라 품위에 대한 다른 관점도 가졌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바 여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오(삼하 6:22).”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종이라 여겼다. 겸손은 종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다윗에게는 겸손이 품위였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에 비굴한 것이 전혀 없었다!¹²

미갈과 다윗은 두 왕국을 대표한다. 구 정권은 예절을 갈망하나 신 정권은 기쁨을 누린다. 미갈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과 같았다. 그것은 소용이 없다(막 2:18-22).

나는 미갈과 다윗 사이의 이 연쟁이 우리의 예배와 헌신의 영역에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에는 봉사와 외적 의식과 절차와 기법과 회의와 품위와 질서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높지만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프로 스포츠에 대해서는 열정과 열광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적인 무관심 외에는

¹¹ 허커스(John Hercus, *Out of the Miry Cla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68], 87)는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미갈이 보인 태도의 풍미를 잘 포착한다. “온종일 노래하고 춤추던 사실에 여전히 좋아 어쩔 줄 모르며 피곤하지만 상기된 채로 마침내 다윗이 집에 왔을 때, 미갈은 기대고 있던 긴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화장은 아주 잘 어울리고 형클어진 머리카락 하나 없고 아름답게 단장한 가운데 주름 하나 없었다.” 허커스는 계속 말한다. “그녀의 긴 속눈썹은 빠른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아래위로 쳐다보는 눈 위에 경멸적으로 드리워졌다. ‘잘 하셨습니다!’ 그녀는 마치 분명히 혐오스러운 광경에서 눈을 돌리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말했다.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연출한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요! 아니, 정말 역겨웠어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춤추며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다리를 공중으로 걷어챘어요. 당신은 모든 여종들이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는 것을 보았어야 했어요! 정말 저속했어요!’”

¹² John Calvin, *Sermons on 2 Samuel*, trans. Douglas Kell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2), 279-94 에 나오는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란 제목이 붙어 있는 칼빈의 강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것을 추천한다.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생동감 넘치는 찬양과 회개의 눈물은 그들에게 낯선 것이다. 블레이키는 다음과 같은 신중한 결론을 내렸다.

의심할 여지없이 침착해야 할 때가 있고 열광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냉랭함은 그리스도께 바치고 우리의 모든 열렬함은 세상에 바치는 것이 옳을 수 있는가?¹³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¹⁴

VI. 미주 (Endnote)

사무엘하 6 장이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라.¹⁵ 그는 제사장 옷으로 보이는(삼상 2:18; 22:18) 에봇을 입었고(삼하 6:14),¹⁶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민 6:22-27) 백성에게 복을 선포한다(삼하 6:18). 다윗은 교만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는 자신을 “진정한 왕이신 분의 겸손하고 섬기는 제사장(Gutbrod)”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다윗 왕의 이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예언들(시 110:1, 4; 슥 6:12-13)에서, 그리고 또 한 개인 곧 예수님에게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는 제사장이다.

V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언약궤가 주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통치권, 화해, 계시를 강조한다면, 이 사실로부터 기독교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을 대표하는 특권적인 자신의 임무와

¹³ W. G. Blaikie,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 Graham, n.d.), 96.

¹⁴ 마지막 절인 삼하 6:23 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다윗이 그녀와 성관계를 끊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은 여호와의 징계의 일환인가?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281 을 참조하라.

¹⁵ 여기서 나는 Terence Kleven, “Hebrew Style in 2 Samuel 6,” 307-9, 그리고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94-95 에게 빚을 졌다.

¹⁶ [역자 주] **עֵֿפֹֿד** [에포드 바드] (“a linen ephod”)는 개역개정에서 사무엘(삼상 2:28)과 늑의 제사장들(삼상 22:18)의 경우 “세마포 에봇”으로 번역되고, 다윗(삼하 6:14; 대상 15:27)의 경우 “베 에봇”으로 번역되어 있다.

관련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진짜 질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라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때로 우울해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3. 여러분은 성경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수많은 사고 방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우리에게 성경의 영감을 가장 잘 확신시켜준다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여러분은 이것의 다른 예들을 찾을 수 있는가?

4. 해외에 있다가 오래간만에 영국을 여행한 한 기독교인은 밝고 매력적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지만,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해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의 의식하지 못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5. “떨림을 가지고/떨며 즐거워하라(시 2:11)!” 이것이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요약해 주는 말씀인가?

8.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삼하 7:1-17 Getting to Know the Covenant God)

어느 독자라도 사무엘하 7 장 위에 쏟아진 잉크에 빠져 죽을 수 있다. 이 장이 그 모든 잉크를 풍성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왕조를 약속하신 소위 다윗 언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경 계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이다. 그러나 모든 잉크는 강해자를 유혹한다. 강해자는 쓰여진 모든 것을 살피며 모든 비평적 구석과 신학적 틈을 찾아 자신이 거부하는 입장들에 반대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본문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언약이 아니라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언약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약속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가?

I. 여호와의 지혜 (삼하 7:1-5 Yahweh's Wisdom)

사람들은 다윗과 나단이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며 다윗의 집 지붕에서 식후 대화를 즐기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상황은 안정적이지만(삼하 7:1)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삼하 5:11 참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가 미미한 장막에 있다는 것(삼하 7:2)이 그를 괴롭혔다. 다윗 성에 언약궤를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삼하 6 장). 언약궤는 적당한 처소가 있어야 했다. 여호와의 종은 백향목 궁에 살지만 여호와의 임재의 징표는 휘장 가운데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다윗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단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것은 고상하고 합리적이고 옳았다. 그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재촉했다(삼하 7:3).

그날 밤 더 나중에 전달된 계시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거부했다. 그것은 이상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팬케이크 저녁 식사에 팬케이크를 대접하는 것만큼이나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삼하 7:5)?” 그분의 대답은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은 아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실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갖는 그분의 대답은 다윗(과 나단)의 계획은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락은 사무엘서의 주제들 중 하나인 여호와의 종들의 한계가 다시 드러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다른 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막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엘리가 있다(삼상 1:12-18).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확신했지만, 그는 틀렸다. 아니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의 좋은 외모를 보고 있는 사무엘이 있다(삼상 16:6-7). 그는 왕을 위한 여호와의 선택을 감지했다고 확신했지만, 그는 틀렸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을 대하는 것이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확신하고, 나발과 그의 모든 가족을 학살할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삼상 25 장). 그러나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사무엘하 7 장에서 우리는 다윗과 나단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고 경건한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다윗과 함께 언약궤도 가지고 도망하려고 하는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게 될 것이다(삼하 15:24-28). 그들의 동기는 훌륭했지만 그들의 신학은 틀렸다(삼하 15:25-26). 하나님의 종들은 자주 뜻은 좋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하다. 현재의 경우 인간의 계획(삼하 7:1-3)은 하나님의 계시(삼하 7:4-17)에 의해 수정되어야 했다.

이 본문은 인간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손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고 증언한다. 여호와의 가장 훌륭한 종들도 자주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가 기독교 영웅들을 신격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 보여주며,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얻으려고 부르짖게 하고(약 1:5 참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롬 12:2)”을 분별하는 데 옳다고 여겨지는 길을 내다볼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한다.

II. 여호와의 겸양 (삼하 7:6-7 Yahweh's Humility)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왜 연기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야샤브]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삼하 7:6-7)

나는 여기 여호와의 말씀에서 어떤 언어 유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그분은 이스라엘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적절한 신전을 지어 달라고 로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계신다(삼하 7:7). 여호와의 대답은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다. 여호와께서는 오늘까지 집에 살지[야샤브] “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앉으시고

장막(천막 신전 혹은 성막) 안에서 돌아다니셨다([미트할레흐] “이리저리 걸어/돌아다니는” = “걷다, 다니다, 행하다”라는 어근 [할라흐]의 히트파엘 어간 분사형). 그분은 자신이 “이동 중(on the go)”이셨기 때문에 집에서 “살지(settled)” 않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현재까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동적인 상황에 있으므로(광야에서 배회했고 사사 시대의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으므로, 삼하 7:10b-11a 참조), 그분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배회하시며 다니셨기(삼하 7:7)” 때문이다. 그들이 안정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때 어떻게 그분이 정착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있는가? 그분은 자기 백성과 함께 이리저리 배회하며 여기저기 다니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이 장막에 사는가? 그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며 순례하는 백성인가? 그러면 그분도 순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여행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신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왜 백향목 성전을 아직 원하지 않으시는지 엿볼 수 있다. 그분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만드셔야 한다(삼하 7:10).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신 12:9-11 참조)!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겸양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계시에 압도되어 어찌 경외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녔다.”

폴 볼러는 샘 레이번이 하원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있었던 한 이야기를 전했다. 레이번이 알고 있던 한 기자의 10대 딸이 갑자기 죽었다. 다음날 아침 그 기자는 자신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고 레이번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냥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려고 잠시 들렀습니다.” 그 기자는 말을 더듬으며 놀라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하원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럼, 오늘 아침 다들 커피 드셨어요?” 그 기자는 아직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아침에는 내가 커피를 끓일 수 있겠군요.” 레이번은 들어가서 커피를 찾으러 부엌으로 갔다. 레이번이 커피 만들기에 바쁠 때, 그 기자는 레이번이 매주 이 특정 아침이면 보통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의장님,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레이번은 인정하며 대답했다. “그래 맞아요. 하지만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 나에게 곤경에 처한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¹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겸양의 모습을 희미하게 엿보게 할 뿐이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 전에는 안식을 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고난을 나누시려고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더불어 “장막 안에서 다니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분인지 보라! 여러분이 신성과 겸양이 서로 배타적인 범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삼하 7:6-7 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여러분은 빌 2:5-8 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은 거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III. 여호와와 은혜 (삼하 7:8-11 Yahweh's Grace)

나단이 다윗에게 준 개정된 충고의 첫 마디는 도입문(사자 공식)과 설명이다(삼하 7:5-7). 그리고 이어서 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의 핵심을 선포한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삼하 7:8a), 그 말씀은 은혜이다(삼하 7:8b-11). 이 대목에서 여호와께서는 과거에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분의 선하심을 상기시키시며, 장차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그분의 선하심을 약속하신다. 여기서 여호와와 다윗 왕의 성전 건축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약속하신다.

나는 우리가 본문의 전개를 따라가며 다음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요를 제시한다.

삼하 7:8-11

경험된 은혜(삼하 7:8b-9b)

여호와와 선택(8b):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호와와 임재(9a):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와와 능력(9b):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약속된 은혜(삼하 7:9c-11)

다윗에게(9c):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에게(10-11a):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¹ Paul F. Boller, Jr., *Congressional Anecdo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1), 261.

다윗에게(11b):²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클라이막스 (11c):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본문이 여호와의 은혜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자.

i. 은혜의 고집 (The Insistence on Grace)

여호와께서는 늘 그러시는 것처럼(요 1:16) 은혜(삼하 7:8-9b) 위에 은혜(삼하 7:9c-11)를 약속하신다. 그러나 이 미래의 은혜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삼하 7:11c는 여호와께서 삼하 7:5b에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그분 자신의 대응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삼하 7:5b)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삼하 7:11c)³

다윗은 능동적인 개시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이트]라는 용어를 새롭게 해석하신다. 그것은 벽과 지붕이 있는 장소(신의 경우에는 신전, 성전) 혹은 가족이나 집안으로서 사람들의 집합체(왕의 경우에는 왕조)를 의미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게 고집하신다. 여호와께서 건축자가 되실 것이고 그 집은 다윗의 것이 되리라고 말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그 반대의 경우가 흔했다는 증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왕이 한 신의 신전을 짓거나 복원한 **다음에** 그의 통치나 승리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 이 패턴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다.

엔릴 신은 우르남무(주전 2100 년경)를 수메르의 왕으로 선택하고 우르남무의 적들을 통제하여 왕이 엔릴의 신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르남무는 엔릴을 위한 신전 재건은 물론이고 엔릴 부인(일명 닌릴)의 신전을 개조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엔릴은 “우르남무의 위대한

² 삼하 7:1 의 “이미” 주어진 안식과 삼하 7:11 의 “아직 주어지지 않은” 안식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Robert 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93), 78 을 보라.

³ Walter 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150-51 을 보라. 삼하 7:11c 에서 삼인칭으로 바뀐 것에 주목하라. 앞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1 인칭으로(내가 ... 내가 ...) 말씀하셨다. 그러나 삼하 7:11c 에서 나단은 갑자기 3 인칭(그분이 이르시되)으로 바꾼다. 이 문법적 변화는 그 자체로 삼하 7:11 을 돋보이게 한다.

운명이 먼 날까지 계속될 것을 선언한다.”⁴ 이 패턴은 주전 19 세기 마리 왕 야둔림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그의 신 샤마시가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고, 그 뒤에 야둔림이 샤마시를 위하여 웅장한 신전을 세웠다. 이로 인해 그는 샤마시가 그에게 “적들을 패배시킬” 능력과 “길고 행복한 통치와 풍요와 행복의 영원한 해”를 주기를 원했다.⁵

애굽의 경우 투트모세 3 세(주전 1490-1436 년경)의 승리 찬가는 아몬-레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아몬-레는 그가 투트모세에게 부여한 모든 승리를 반복 진술하고, 투트모세가 “나의 거처를 지었고” 그의 기념비들을 세우는 데 다른 왕들을 능가했음을 인정하고 나서, “나는 그대를 수백만 년 동안 호루스의 왕좌에 세워 그대가 영원토록 삶을 영위하도록 했다.”라고 선언한다.⁶ 아멘-호텝 3 세(주전 1413-1377 년경)는 아몬-레를 위한 그의 호화로운 건축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몬-레는 아멘-호텝에게 감사의 찬가로 답하며 그에게 사방에 있는 왕의 적들에 대한 정복을 약속한다.⁷

주전 일천년기에 앗수르의 에살하돈(주전 680- 669)은 붕괴된 아슈르의 신전을 재건했다. 이 일은 “오랜 치세를 위하여, 내 치세의 안정을 위해, 내 자손의 복지를 위해, 내 제사장적 왕좌의 안전을 위해, 내 적들의 멸망을 위해, 앗수르의 성공적인 수확을 위해, 앗수르의 복지를 위해” 그가 한 것이었다.⁸ 그가 이 큰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아슈르로부터 무엇을 기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교도 자료에서 나온 이러한 예들은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서 유래된 것이다. 나는 그것들이 포함하지 않고 있는 어떤 것이 그것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것들이 반영하는 사고 방식은 사무엘하 7 장의 사고 방식과 천양지차인 것 같다. 우리는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교도 자료

사무엘하 7장

⁴ 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3rd ed. with Suppl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69), 583-84 (번역: S. N. Kramer). 이 후로는 *ANET*라고 약칭할 것이다.

⁵ *ANET*, 556.

⁶ *ANET*, 373-75

⁷ *ANET*, 375-76

⁸ Henri Frankfort, *Kingship and the Go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48/1978), 267. 프랑크포트는 러켄빌(Luckenbill)의 번역을 인용하고 있다. 신 바벨론 제국의 독특한 왕인 나보니두스(주전 556-539)는 달의 신 신(Sin)이 그를 왕으로 불렀고 꿈에 그에게 나타나 “하란에 있는 신의 신전인 에홀룰을 빨리 재건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나라를 넘겨주겠다.”라는 명령과 약속을 주었다고 주장했다(*ANET*, 562).

신이 준 과거의 호의

왕의 신전 건축

신이 줄 미래의 호의

(신전 건축에 대한 반응)

여호와께서 베푸신 과거의 호의

여호와께서 베푸실 미래의 호의

왕의 성전 건축

(후대로 연기됨)

사무엘하 7 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그분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5 절) 자신이 다윗을 위해 집(왕조)을 지어주시겠다고 고집하신다(11 절).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진 일정에 따라 성전은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다(13 절). 여호와께서 이방의 신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여기 여호와의 의제인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은 호화로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나서 여호와께 호의를 베풀어 주시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께서는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며 성전을 뒤로 미루신다. 여러분은 사마시, 신, 아슈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은혜의 신”이 아니다.⁹

ii. 은혜의 집착 (The Preoccupation of Grace)

위에서 제시한 삼하 7:8-11 의 구조를 다시 한번 참조하라. “약속된 은혜”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다윗에게” 주신 두 가지 짧은 약속이 있고 이 두 약속(삼하 7:9c, 11b) 사이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삼하 7:10-11a)이 끼어 있는 것에 유의하라. 이 구조는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낸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안보가 여호와의 관심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므로(삼하 7:10-11a) 다윗을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삼하 7:9c, 11b).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다윗 왕조를 세우실 것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왕권은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통해 시작하신 구원이 그 목표에 이르게 하는 도구, 즉 그분이 주신 땅에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심는” 도구가 될 것이다(삼하 7:10a; 출 15:17 참조).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왕권이 새 시대를 개시하도록 의도하셨다. 그분은 사사 시대의 공포와 떨림과 혼란을 끝내려고 하셨다(삼하 7:10b-11a).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집을 가지고 안전하게 그것을 즐기기를 원하셨다.¹⁰

⁹ 이 요점은 학문적으로 사소한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2 학년 학생으로 주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알게 될 때까지 나는 주님의 기쁨을 알지 못했다.

¹⁰ 나는 삼하 7:10(“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에 나오는 “한 곳”이 이스라엘을 위한 안전한 집(보금자리)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맥카터(McCarter, // *Samuel*, The Anchor Bible, 202-3)는 그것이 “예배의 처소” 곧 성소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맥카터를 반박하는 훌륭한 주장을 위해 D. F.

다윗 이후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다윗 왕조의 왕들이 대체로 이스라엘 및/또는 유다를 위해 안전한 한 곳을 조성하는 데 비참하게 실패했음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유배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프로그램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미래와 희망에 대한 약속(렘 29:11)을 자기 백성이 “안전하게 거할” 것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채우신다(렘 23:6; 32:37; 33:16; 겔 28:26; 34:25, 27, 28; 호 2:18; 미 4:4; 습 3:13; 속 14:11).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안전에 집착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에 우리 교직원 휴게실에 (종고 깨끗한) 낙서 하나가 발견되었다. 우리는 벽에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써서 테이프로 벽에 붙인다. 성경 학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 동료 한 사람이 나에게 고백하기를 우리 중 한 사람이 새로운 허튼 소리를 게시하면 곰곰이 생각한 후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마음은 우리의 좁은 방을 위한 더 많은 유머를 써서 붙일 때까지 쉴 수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안전에 대해 그러한 집착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여호와께서 왕을 특히 자기 백성의 방패로 높이시는) 사무엘하 7 장과 (위에 언급한) 나머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안전한 집(보금자리)을 세우시려는 그분의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적어도 그분이 성문을 활짝 열어 둘 수 있는 안전한 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까지는(계 21:25)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IV. 여호와의 항상성 (삼하 7:12-16 Yahweh's Constancy)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다윗 언약의 핵심에 이르렀다. 이 구절에 대해 수많은 글이 작성되어 왔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개의 문단만 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훨씬 덜 쓰고 오직 한 단어만 강조하고 싶다. 나는 인쇄소에서 굵은 활자체로 오직 한 단어만 쓰여 있는 도장을 가지고 와서 선홍색 잉크로 적신 패드 위에 그것을 누른 후에 여러분의 성경책의 삼하 7:12-16 위에 “완벽한(INDEFECTIBLE)”이란 도장을 찍어 주고 싶다. 그것은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시이다. 그것은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재난을 어느 것 하나도 빠짐이 없이 견디어 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 그분은 모든 대적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완벽하다.

죽음이 그것을 취소하지 못한다(삼하 7:12-13).

Murray, “MQWM and the Future of Israel in 2 Samuel VII 10,” *Vetus Testamentum* 40 (1990): 298-320 을 보라.

죄가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삼하 7:14-15).

시간이 그것을 소멸시키지 못할 것이다(삼하 7:16).

이것들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째로, 이 약속은 다윗의 죽음으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을 것이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삼하 7:12-13).

다윗이 수한이 차서 죽어 “누울”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씨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창 12:6-7), 다윗의 자손에게 왕권을 약속하신다. 다윗의 씨란 어느 개인적인 후손(여호와와 그의 집을 지을 “그”, 즉 우리가 발견하는 바 솔로몬)이나 통치할 왕들의 지속적인 계보(왕조)를 가리킨다.

둘째로, 죄가 이 약속을 파괴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삼하 7:14-15)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란 어구에 주목하라. 여호와께서는 정면으로 대응하는 현실주의자이시다. 다윗 계보의 통치하는 왕은 그가 죄를 범할 때마다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모든 온정과 친밀이 아니라 징계와 처벌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계를 삽입하신다. 삼하 7:15 에서 우리는 세 번이나 “제거하다, 빼앗다”라는 뜻의 어근 [수르]가 사용된 것을 발견한다. 말하자면, 이 동사를 가지고 여호와께서는 바닥이 없는 독에 밑바닥을 세우신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을 맞도록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릇된 길을 가는 다윗 계보의 왕들을 확실히 징계하고 처벌할 것이지만, 그 심판은 그분의 [헤세드], 곧 그분의 언약적 사랑을 완전히 제거하는 정도까지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죄 많은 왕들을 다루실 것이지만, 죄가 그분의 지배권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범죄는 [헤세드]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의 계보는 사울의 결말과 같은 최후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의미는 다윗 계보의 어느 개별적인 왕도 자신의 불충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 왕조의 약속된 지속을 뒤엎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집” 유추를 빌려 말하면, 죄가 어느 현 “거주자”에게도 재앙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집(왕조)"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¹¹

셋째로, 시간의 공격이 이 약속을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

이 약속 부분에서 우리는 세 번(삼하 7:13 에 한 번, 그리고 여기 삼하 7:16 에서 두 번) [아드 올람]이란 어구를 볼 수 있다. 이 어구에 대한 좋은 번역은 "영원히"이다.¹² 보이드는 부정적인 성경 비평가들에 대한 논박을 썼을지라도 "영원히"라는 이 [아드 올람]이 주는 스틸을 잘 포착했다.

삼하 7:13이 삼하 7:12의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있다. 그들도 삼하 7:13이 다윗의 귀에 [아드 올람, "영원히"]이란 놀라운 가사를 담은 음악이 처음으로 들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가사는 전체 신탁의 절정인 삼하 7:16에서 두 번 반복되고, 다윗의 기도 가운데 반복되고 또 반복되며, 그 후 여러 세기에 걸쳐 시인들의 시와 예언자들의 환상에 반복되다가 마침내 계시록의 "할렐루야 합창"에서 "또 그가 다스리신다.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부를 때 영광의 물결을 일으킨다. 비참하게 오해되고 잘못 취급되어 온 여기 삼하 7:13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인간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이것 또한 "영원히", 삼하 7:24 참조) 한, 다윗의 씨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여하시고 유지하시는 주권을 언약적으로 소유한 자가 될 것이다.¹³

¹¹ 이것에 대해서는 Kaise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156-57 을 보라.

¹² 추가로 Merrill F. Unger and William White, Jr., eds., *Nelson's Expository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Nashville: Thomas Nelson, 1980), 117-118 에 나오는 간략하지만 유용한 논의를 참고하라. 그리고 *TWOT*, 2:672-73 도 보라.

¹³ James Oscar Boyd, 'The Davidic Covenant: The Oracle,'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25 (1927): 430. 다윗부터 예루살렘 멸망(주전 587 년)에 이르는 다윗 왕조의 기간도 놀랄 만하다. 로버트슨(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0], 239)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전 1000 년경 다윗의 등극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400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의 왕조들의 평균 기간은 100 년도 채 되지 못했다. 심지어 다윗 왕조는 약 250 년 동안 존속한 이집트의 18 왕조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계보의 왕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더 이상 통치하지 않았을지라도, 다윗의 혈통은 "메시아/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의 약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저 끝나거나 소진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모든 가능한 음이 아니라 으뜸음을 듣기를 바란다. 본문은 분명히 말한다. “죽음, 죄, 시간 등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도록 하라. 그래도 그것들이 다윗의 집/왕조를 통한 여호와의 왕국 계획을 결코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 약속에 들어 있는 **필연성**의 음조를 느끼길 바란다.

이 본문의 어조는 나에게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18 세기 목사 아이네이아스 세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건장한 체격의 성직자인 세이지 씨는 어느 안식일, 자신의 사악한 생활로 잘 알려진 어느 지주의 집에서 교리 교육을 위한 모임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세이지 씨가 그 지주의 문에 도착했을 때, 후자는 그가 왜 왔는지 물었다. 세이지는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과 당신의 양심과 나의 양심에 나의 의무를 다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지주는 “나는 그 셋 중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소.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내 집에서 쫓아내겠소.” 목사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대답했다. 매우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주와 일종의 교리문답 준비 모임이 뒤따랐다. 그러나 교리 문답 교육이 끝났을 때 그 지주는 그의 손과 발에 밧줄을 감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세이지 씨의 표현대로, 그 지주가 “이제 평화를 지키도록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는 그 지역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소교리문답을 가르쳤다. 물론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다!¹⁴

우리 본문은 “내가 당신의 집에서 교리문답 모임을 열 예정이고 당신이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호히 말한 아이네이아스 세이지의 어조를 갖고 있다. 다윗 왕조를 통한 여호와의 왕국 계획은 막을 수 없다. 그분은 그것을 가져오는 데 필요하다면 죽음, 죄, 시간을 제압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해 오셨다. 세월이 흘렀고 어리석은 실패에서 노골적인 사악함에 이르는 모든 것이 다윗 계보의 왕들의 통치를 표시했다. 이스라엘은 유배되어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한 아이, 다윗 계보의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 그는 죽음을 짓밟고 우주의 최고의 권세와 권위의 자리(성경[엡 1:20-23]에서 불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우편”)에서 그의 끝없는 통치를 시작했다. 말하자면, 이미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여호와의 왕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계속되었다(마 1:12-16).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쳐서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히”는 깨뜨릴 수 없다.

¹⁴ John Watson, *The Scot of the Eighteenth Century* (New York: A.C. Armstrong and Son, n.d.), 192. 그런데 그 지주는 결단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가 어떤 강요 아래 있었는지 누가 신경쓰겠는가?

막을 수 없다. 다윗에게 주신 큰 약속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여호와의 백성은 그분의 더 작은 모든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사무엘하 7:1-17 에 대한 논의를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겸양,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항상성으로 다시 요약하고 싶을지 모른다. 여러분은 그 그림이 보이는가? 여러분은 성경을 살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필요가 가장 적절하게 충족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이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발전시킬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정말 그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불과한 것인지 물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가?
2. 사람들은 한 저명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그의 친구들이 회상할 수 있는 유일한 비판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문을 통과하려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식별할 수 있는 주된 “잘못”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하겠는가?
3. “겸양—하나님의 모든 뛰어난 속성 중 가장 놀라운 것.”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는가?
4. 집의 문제에 있어서 다윗은 능동적인 개시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삶에 이 둘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5.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분의 훌륭한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토대가 얼마나 견고하게 놓여있는가!” 사무엘하 7 장과 수많은 다른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되게 하는지 생각해보라.

9.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앉고 서라 (삼하 7:18-29 Sit Down and Stand on God's Promise)

가끔 여러분은 신호등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불빛은 빨간색이다. 그것이 바뀐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처럼 많은 운전자들이 녹색으로 바뀔 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에게 문제될 게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색을 본 것이 그들의 뇌 전달 센터에 들어가 규정된 회로 위로 달려가 브레이크를 풀고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발에 도달하는 데 3 초가 걸린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 6-7 초 정도가 걸리면, 여러분은 초조해지고 심지어 동요되기도 한다. 참을성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경적 울린 것을 후회하지만, 여러분 뒤에 있는 동료 운전자들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멍하니 있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녹색불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와 같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자기 백성의 안전을 위한 의제를 선언하신 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환영하고, 그분의 계획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뻐하고, 그것들을 주신 분을 기뻐하며 그것들의 성취를 구해야 한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 삼하 7:5-16 에 나오는 여호와와의 계획에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아마도 언약궤 가까이 있는 어딘가에 앉았을 것이다. 그는 그의 놀라운 찬양을 위한 말을 찾기가 어려운 행복한 좌절감을 맛보며(삼하 7:18b-24), 긴급하게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청했다(삼하 7:25-29).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은 다윗의 헌신을 불러일으켰고, 그분의 약속은 다윗의 찬양과 기도에 불을 붙였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락(삼하 7:18-29)은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찬양으로 응답함: 하나님의 은혜에 경탄함, 삼하 7:18-24

간구로 응답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도함, 삼하 7:25-29

그러나 첫 주요 부분에 들어있는 삼하 7:23-24 은 좀 독특하므로 별도로 다룰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강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I. 여호와와의 계획에 경탄함 (삼하 7:18-22 Marveling at Yahweh's Plan)

다윗의 기도는 청원이 아니라 경탄으로 시작하고, 간구가 아니라 놀라움으로 시작한다. 그는

여호와와 은혜로 인해 숨이 막힐 듯했고 그 은혜 아래 깜짝 놀라며 그의 기도를 시작한다. 아무도 희열 혹은 황홀을 해부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윗의 기쁨의 기초는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다윗은 **이전의 은혜**에 놀라서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삼하 7:18b)?” 하고 묻는다. 감사는 결코 과거를 잊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여호와와 계획이 왜 그에게 집중되었는지 다윗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왔다(삼하 7:8).”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답이 없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와 선택의 신비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물으며 그분의 보존의 기적도 찬양했다. 베들레헴(삼상 16:1-13)은 예루살렘(삼하 5:1-10)에서 불과 6 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 거리는 위험, 도피, 배신, 어리석음, 절망, 그리고 중상모략으로 얼룩진 (10 년 이상의 세월과) 총 21 장의 성경 기록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기에 있다.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놀랍다(삼하 7:8-9a 참조).

계속해서 다윗은 **약속된 은혜**, 미래의 은혜에 대해 놀라워한다.

(삼하 7:19 개역개정)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칼빈의 말처럼 천 번의 죽음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약속에 자신을 헌신하셨다. 그러나 “Such is human destiny.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라는 NJB 의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특히 그의 집이 모든 인류 역사에서 담당할 역할에 대해 흥분했던 것 같다.

우리는 삼하 7:19b 에 나오는 마지막 문([브조트 토라트 하아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자들은 이 문이 영어 성경에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몇 가지 번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NASB)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관습입니다.

(NIV) 이것이 주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식입니까?

(NKJV) 이것이 사람의 방식입니까?

(RSV, 본문 “정정”) 그리고 주께서 저에게 미래의 세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NRSV) 이것이 사람들을 위한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NEB, 대상 17:17 과 일치하도록 정정) 그것이 높은 지위를 시작한 사람의 몫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토라입니다.”가 될 것이다. 이 문은 간결하고

갑작스럽고 당혹스럽다. 몇 가지 살펴볼 사항이 있다. 첫째로, NIV와 NKJV의 번역처럼 이 문이 정말 의문문이나 하는 문제이다. 다윗의 경탄과 경외를 감안하면 의문문이 적절한 형식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이 의문문이라는 뚜렷한 문법적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을 감탄문으로 여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둘째로, “[토라]”는 흔히 “율법”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이지만, 법적인 의미는 자주 너무 제한적이다. 토라는 거의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 가르침, 지시를 의미한다. 토라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을 다루고,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다룬다. 따라서 NASB, NIV, NKJV 등의 “관습, 방법, 방식”이란 번역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다윗이 “이것이 토라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의 “이것”은 삼하 7:12-16에 나오는 그의 왕조에 대한 여호와와의 약속을 가리킨다. 그 말씀, 곧 하나님의 규정 혹은 하나님의 지시가 토라이다. 여기 [토라]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어구는 사람이 이 토라의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이 수혜자임을 의미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의 토라”이다. 여기서 “사람(man)”은 자주 그렇듯이 “인류(mankind)”, 혹은 인간(humanity)을 의미한다. NJB의 “Such is human destiny.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라는 번역은 원문에 아주 가깝다.

우리는 다윗의 소름 돋음을 용서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왕조를 보장하시며 주신 왕권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삼하 7:10-11a) 모든 인류에게 여호와와의 통치와 은택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본 것 같다. 마치 다윗 왕조가 “땅의 모든 족속(창 12:3)”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것처럼 말이다. [토라트 하아담]을 “인류를 위한 헌장”이라고 번역한 월터 카이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한다.

우리는 이 토라를 헌장으로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 세상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고 규정이기 때문이다. ... 그것은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권세, 권리, 특권을 주는 하사이다.¹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놀라워한다(삼하 7:20-21). 나는 삼하 7:20에 나오는

¹ Walter C. Kaiser, Jr., ‘The Blessing of David: The Charter for Humanity,’ in *The Law and the Prophets: Old Testament Studies Prepared in Honor of Oswald Thompson Allis*, ed. John H. Skilton (n.p. :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4), 314. 나의 논의는 카이저의 논문(특히 310-315쪽)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비슷한 견해를 위해,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97, 112-13을 보라. 그리고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204을 참고하라. 그는 H. Cazelles을 인용하며 [토라트 하아담]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신탁을 뜻하는 아카드어 [테리트 니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히브리어 동사 [야다]("알다")가 "주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You know your servant)."라는 여호와와 전지하심에 대한 호소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영어의 과거 시제, 즉 "주(강조)는 주의 종을 아셨습니다(Now *you* have known your servant)."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알다"는 이와 비슷한 문맥들에서처럼 ² "선택하다, 선별하다(choose, select)"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앤더슨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친히 주의 종을 선정하셨습니다(You yourself have singled your servant out, Lord Yahweh)."라고 잘 번역했다.³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말씀⁴ 때문에 **주의 뜻대로**(데이비스의 강조 표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삼하 7:21)."라고 덧붙인다. 여호와와 왕국 계획은 전적으로 여호와와 선택과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어느 인간의 독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특히 다윗의 독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⁵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와 은혜로운 계획에 감탄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 다윗의 경이로움을 설명하는 나의 말들은 그 경이로움을 사라지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까지 이르게"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왕조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하셨고 그 왕조가 역사의 역경을 견디고 인류 전체를 포용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숨을 가쁘게 하셨다. 다윗은 할 말을 잃었다.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삼하 7:20a)?"라는 다윗의 찬양에서

² 예를 들어 창 18:19; 암 3:2 을 보라. 그리고 TDOT, 5:468 를 참고하라.

³ A. A. Anderson, *2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1989), 124.

⁴ [역자 주] Anderson(*2 Samuel*, 124-125)은 삼하 7:21 을 병행 본문인 대상 17:19 처럼 [드바르하]("your word, 주의 **말씀**")가 아니라 [아브드하]("your servant, 주의 **종**")로 읽는다. 그는 타르굼, 페시타역, 벌게이트역이 맛소라 본문([드바르하] "주의 **말씀**")의 독법을 따르고 있지만, 칠십인역의 바티칸 사본은 대상 17:19 처럼 [아브드하]("your servant, 주의 **종**")로 읽고, 루시안 개정역은 이 두 독법을 합쳐서 읽는다고 설명한다. 한편, Youngblood("1, 2 Samuel", *REBC*, 398)는 더 어려운 독법인 맛소라 본문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은 맛소라 본문을 따르고 있다.

⁵ 비록 여호와와 계획의 뿌리가 그분의 의지에 있지만, 삼하 7:21a("주의 말씀을 위해/주의 말씀 때문에 ...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은 그 근거의 일부가 이전의 약속에 충실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카일(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351)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전의 약속들, 즉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예언들, 특히 야곱의 축복 속에 있는 유다에 관한 예언(창 49:10), 그리고 발람의 예언에 있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통치자와 관련된 예언(민 24:17 이하)"으로 본다. 이 예언들은 다윗 통치의 영원한 지속을 약속하는 싹(배아, 기원)을 담고 있다.

그가 느끼는 무력감, 곧 그가 느끼는 행복한 좌절감이 들리지 않는가?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행위(삼하 7:18), 말씀(삼하 7:19), 갈망(삼하 7:20-21)을 통해 보이신 엄청난 은혜에 걸맞은 영광을 예배를 통해 돌려드릴 수 없었다. 그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예(삼하 7:18)”로 시작하여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삼하 7:22)!”로 끝나는 고백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좌절과 신실의 완벽한 조합이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한 감동을 주셨다.

카이저는 루이 14 세가 노틀담 대성당의 장례식에서 전면에 그의 관 위에서 타는 촛불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어둡게 해달라고 어떻게 요청했는지를 말한다. 그러나 궁정 설교자 마시옹은 장례식 설교를 위해 일어나서 관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불을 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다!”로 그의 메시지를 시작했다.⁶ 그러나 다윗은 그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장례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여호와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다(삼하 7:22 참고).”라고 중얼거렸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항상 그러한 송영으로 이어진다.

II. 여호와의 백성을 고려함 (삼하 7:23-24 Considering Yahweh's People)

삼하 7:23-24 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은 다른 초점(이스라엘)을 취하지만 취지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비할 데 없는 백성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시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을 반영할 뿐이다. 다윗은 여전히 찬양의 행복한 족쇄에 묶여 있다. 그러나 그의 찬양이 여호와의 백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야 한다.

본문에 주목하라.⁷

⁶ Walter C. Kaiser, Jr., *Micah-Malachi*,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Dallas: Word, 1992), 192.

⁷ 대부분의 번역에서 삼하 7:23은 충분히 분명하다. 그러나 이 구절은 문법적인 난제들과 본문상 문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본 강해에 참고하기 위해 나의 번역을 제공했다.

23. And who is like your people, like Israel,
a unique nation in the earth,
whom God went to redeem for himself as a people,
and to make a reputation for himself,
and to do for them grand and fearful deeds,
by your causing nations – and their gods – to flee from
before your people,
whom you have redeemed for yourself from Egypt?

삼하 7:23 누가 주의 백성과 같고

이스라엘, 곧 땅에 독특한 나라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자기를 위해 그들을 백성으로 구속하시고,

자기를 위해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해 위대하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 애굽에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주께서 나라들과 그의 신들을 도망하게 하심으로써 말입니다.

삼하 7:24 그래서 주는 주를 위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삼하 7:23의 문법적 모호한 부분들 가운데 나오는 분명한 설명이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를 위해 애굽에서 구속하신” 백성이다. 이 한 절은 구속의 양극을 모두 포함한다. 즉 ~로부터 구속받은 것과 ~을 위해/~으로 구속받은 것을 포함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이 새로운 주인에게 속하도록 하기 위해 속박(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 성경적 구속은 항상 해방과 소유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사슬을 부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묶으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나타내셨다. 우리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어느 편이나 하면 후자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첫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 가셔서 자기를 위해 백성으로 구속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유는 주시지만 독립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그에게 속해야 한다. 신약도 구약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도 이에 대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벧전 1:18-19)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다면, 정확하게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고전 6:19b-20a)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속받은 백성은 또한 **보존된** 백성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를 위해

24. So you established for yourself your people Israel
as your very own people forever,
and *you*, Yahweh, have proven to be their God.

본문상의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건전한 해결책을 확인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3,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0), 244-47, 382-83을 참고하라.

영원히 주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삼하 7:24a).” 이 진술에는 네온 사인처럼 깜박이는 두 개의 코드 단어가 있다. 첫 번째 코드 단어는 “세우다(히브리어 [קָנָה])”라는 동사이다. 이 동사는 삼하 7:12-16 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의 왕국/왕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세 번 사용되었다. 시선을 사로잡는 두 번째 어구는 “영원히[아드 올람]”라는 용어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조의 무한한 존속을 확인하기 위해 역시 세 번(삼하 7:13[한 번], 16[두 번]) 사용하셨다.⁸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의 왕조처럼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지구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에 레 26:44-45 과 신 30:1-6 을 읽었다.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 웬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잘못 생각한 적이 없는가? 여호와와 백성과 다윗의 왕조는 확실한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실체들이다.⁹

우리가 신약으로 가도 동일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것은 마치 언약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인(고후 7:5)”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10 장에 나오는 자기 양들에 대한 예수님의 보증을 쉽게 떠올린다. 요 10:29 의 본문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만유보다 더 크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¹⁰ 번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께서 만유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양들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의 눈에 크며,” “그분이 이처럼 양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양들을 돌보실”

⁸ [아드 올람]과 [르올람]의 의미에 대하여 T. E. McComiskey, *The Covenants of Promise* (Grand Rapids: Baker, 1985), 23-24을 참고하라. 이 용어들은 삼하 7장에서 총 8번 나온다(13, 16 [두 번], 24, 25, 26, 29 [두 번]).

⁹ 다윗 왕조에 대하여 나는 이전 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와 제공과 연결했고(삼하 7:10-11a), 지금 이 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시려는 여호와와 계획과 연결하고 있다(삼하 7:19b). 그렇다면 다윗 언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모두 이루시는 방법이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것으로 방금 말한 요점이 결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와 신실한 제자일 것이나 신실한 제자이었다고 암시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다윗 계보의 왕이 그의 죄악으로 인해 다윗 언약의 은택을 잃을 수 있었던 것처럼(삼하 7:14), 이스라엘 사람도 누구든지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 언약의 복들의 고리 밖에 자신을 놓았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항상 비록 남은 자만 있을지라도 계속 신실한 백성을 보존하셨다(왕상 19:18).

¹⁰ 볼드체는 헬라어 본문에서 강조된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의 논의를 위해서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71), 232을 보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¹¹ 그것은 마치 언약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심시키시는 일에 결코 실패를 내지 않으시는 것 같다. “많은 갈등과 많은 의심”을 갖는 우리도 사무엘하 7 장에서든 요한복음 10 장에서든 그 점에 대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구속받고 보존되는 백성이 무엇보다도 **특권을 누리는** 백성이라고 선언한다(삼하 7:24b). “여호와여,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혹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친숙하게 들리는 어구는 구약의 언약 공식의 일부이다(예: 창 17:7; 출 6:7; 레 26:12). 이것은 결혼 계약 공식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¹²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출 6:7 에 주목하라. (“아내를 취하다”에서처럼) “취하다”는 뜻의 동사 [라카흐]와 “누구의 것이 되다”는 뜻의 [하야+르]는 배우자를 확보하고 배우자에게 속하는 것에 대해 사용된다.¹³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이다! 그분이 속박에서 구속하시고 역사 전반에 걸쳐 보호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여호와께 충분하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속하시고(그들의 것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기 구속받고, 보존되고, 특권을 누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의 찬양 부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점화시키는 연료의 일부이다. 다윗은 목자를 찬양하지 않고는 양 떼를 볼 수 없다. 그래야만 한다.

존 스토티는 캠브리지 리들리 홀의 교장인 폴 킵슨 목사의 은퇴식에 대해 말한다. 누군가 그의 초상화를 그렸고 이 은퇴식에서 그 초상화가 공개되었다. 그의 연설에서 킵슨 씨는 그 예술가에게 은혜롭고 마땅한 경의를 표했다. 그는 미래에 초상화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묻지 않고 “저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¹⁴ 그래서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신하들이 누구인가?”라고 묻지 말고 “그들의 왕이 누구인가?”라고 묻게 한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양들은 누구인가?”라고 묻지 말고 “누가 그들을 모았는가?”라고 묻게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¹¹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95), 464. 본문의 변형들에 대해서도 모리스를 보라. 요 10:16에 의하면, 예수님의 양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¹² Moshe Weinfield, “Berith – Covenant vs. Obligation,” *Biblica* 56 (1975): 125.

¹³ Nahum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32, 242.

¹⁴ John R. W. Stott, *God's New Society: The Message of Ephesians*, The Bible Speaks Toda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9), 82.

III. 여호와와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함 (삼하 7:25-29 Praying Yahweh's Promises)

이제 다윗의 기도는 찬양에서 간구로 옮겨간다. 그는 놀라운 약속이 역사적 현실로 전환되기를 구한다. 그러나 여호와와 약속은 다윗의 간구의 출발점이자 근거이다. 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하라.

여호와 하나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
그것이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삼하 7:25a)

이 번역은 다윗이 간구의 첫 머리에 둔 것,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삼하 7:12-16의 약속이다. 그것은 토대이다. 그것에 근거하여 다윗은 “이제 그것이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다윗이 여기서 가르치는 주요 교훈, 즉 기도는 약속들을 붙들고 간청한다는¹⁵ 것을 고수하자. 아니면, 다윗 자신의 말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옵서(삼하 7:25b).”라고 하자. 이 진술에는 기도의 전체 신학이 있다. 그것은 삼하 7:25-29의 핵심이다.

여기 다윗의 모든 간구가 어떻게 여호와와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1) 삼하 7:25a에서 “그것이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되짚어 말한다.
- (2) 삼하 7:27b에서 다윗이 감히 그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중간에 나오는 “그러므로”의 논리가 암시하듯)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의 수립에 관해 다윗에게 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다.
- (3) 삼하 7:28-29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삼하 7:29a의 간구(“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가 삼하 7:28(“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과 삼하 7:29b(“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오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요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은 여호와와

¹⁵ 알렉 모티어(Alec Motyer, “The Psalms,”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Grand Rapids: Eerdmans, 1970], 506)는 그의 시편 89편 강해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경험한 사실들에 의해 부인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후, 그 약속들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간구하라고 대답한다.”

약속들을 붙들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어떤 약속도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확실히 다윗의 약속은 그렇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삼하 7:26; 겔 36:20-23 참조)를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취해 달라고 구하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되신 분께서 이미 오셨지만 그의 왕권은 아직 충만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믿을 만하기 때문에(“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삼하 7:28a]”) 그 간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다. 여호와의 약속은 기도에 열정과 담대함과 자신감을 준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앓아서(삼하 7:18a)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있었던 이유이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은 다윗의 헌신을 불러일으켰고, 그분의 약속은 다윗의 찬양과 기도에 불을 붙였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
2. 사무엘하에서 지금까지 본 것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3. 여러분이 때때로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행동하기를 잊는다면, 이는 여러분이 그분이 주신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그 자유를 위해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4. “구속받고, 보존되고, 특권을 누리는 (백성)”—여러분은 이 놀라운 진리들을 각각 충분히 중요시하고 있는가?
5. “기도는 약속들을 붙들고 간구한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간을 내서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라.

10. 왕국의 도래 (삼하 8 장 The Coming of the Kingdom)

그것은 매우 원시적인 것처럼 보인다. 집에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작동한다. 그것은 1920 년경 아버지의 레밍턴 휴대용 타자기다. 나는 분명히 자동 교정이 가능한 현재의 전동 모델을 선호한다. (최소 10 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해 문서 작성을 해 온) 내 동료들과 학생들은 오만하게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것과 나를 정말 구식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훈련되지 않은 눈조차도 오래된 레밍턴 휴대용 타자기와 현대의 컴퓨터 키보드 사이에 분명한 유사성, 일정한 연속성을 볼 수 있다.

사무엘하 8 장은 우리에게 오래된 레밍턴 휴대용 타자기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앞에는 사무엘하 저자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구원의 역사와 성경 계시가 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이후 시대에 사는 특권을 누린다. 예수님은 그분의 왕적 통치를 가져오셨고(눅 17:20-21) 가져오실(눅 17:22-37)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오래된 계시를 경시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8 장과 같은 더 오래된 가르침과 그 이후의 가르침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필수 요소는 동일하다. 사무엘하 8 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권 아래서 이 땅에 임했으며, 사무엘하 7 장의 약속이 다윗 자신의 시대에도 (최종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8 장은 여호와의 왕국이 다윗 통치하에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 그러나 사무엘하 8 장이 보여주는 왕국에 대한 가르침은 즉각적인 역사적 상황을 초월하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최종 형태로 임할 때 무엇이 항상 실제로 있을 것인지를 설명한다. 그래서 사무엘하 8 장은 보고이기도 하고 예고이기도 하며, 역사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다.

다음 요약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무엘하 8 장의 분해이다.

삼하 8:1-6 네 번의 승리 + 공식: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삼하 8:7-12 주님을 위한 전리품/선물

삼하 8:13-14 에돔에 대한 승리 + 공식: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삼하 8:15-18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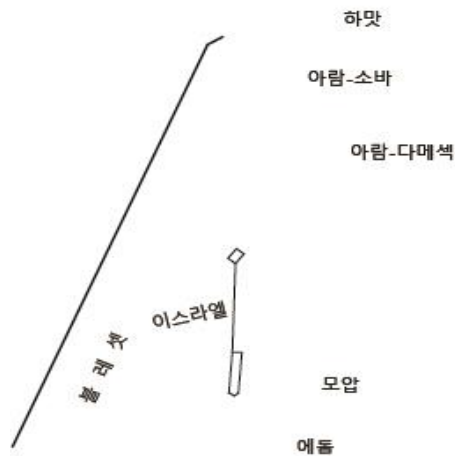
삼하 8:15-18(다윗의 정부 관리들 명단)이 사무엘상 15 장에서 사무엘하 8 장에 이르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요약 구절임을 주목하라. 이에 대한 논의는 서론을 참고하라. 이제 강해로 나아가자.

I. 왕국의 분쟁과 정복 (삼하 8:1-6, 13-14 The Conflict and Conquests of the Kingdom)

먼저 왕국의 전투와 정복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승리 부분(삼하 8:1-6, 13-14)을 살펴보자.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치다, 때리다, 쓰러뜨리다”는 뜻의 [나카]이다. 이 동사는 두 개의 승리 부분에서 다섯 번(삼하 8:1, 2, 3, 5, 13) 나온다. (그것은 삼하 8:9, 10 에도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승리에 대한 빠른 보고를 접한다. 다윗은 블레셋(1 절), 모압(2 절), 소바의 하닷에셀(3-4 절), 아람-다메섹(5 절), 에돔(13-14 절)을 쳤다. 이 구절들은 소규모의 문제들과 질문들을 담고 있지만,¹ 그 어떤 군대도 다윗을 당해낼 수 없었음을 전한다. 본문이 전하려는 요점은 명확하다. 다윗의 통치는 먼 북쪽(3-4 절)에서 깊은 남쪽(13-14 절)까지 확장되었다.² 이러한 대적들/반대자들의 대략적인 위치는 다음 개략도를 참조하라.

¹ 몇 가지 문제들과 질문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덱암마(삼하 8:1)는 지명(NIV, 대부분의 한글 성경)인가 아니면 “모(母)도시의 굴레”, 즉 “주요 도시의 통제”라는 서술 어구(NASB, 현대어성경: “그들의 독자적인 통치권”)인가? 둘째, 전에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에게 은신처를 허락해 주었음(삼상 22:3-4)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모압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는가(삼하 8:2)? 이 문제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셋째, 삼하 8:4의 “마병/기병 천칠백 명”은 칠십인역의 번역이나 병행 본문인 대상 18:4처럼 “병거 천 대와 기병/마병 칠천 명”으로 읽어야 할지도 모른다. 넷째, 여기 사무엘하 8장에서 아람과 하닷에셀이 굴복되었다면 왜 사무엘하 10장에서 요압과 다윗이 그들과 싸우는 것이 나오는가? 연대적으로 사무엘하 10장의 에피소드는 사무엘하 8장의 에피소드보다 앞선다.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358-59 그리고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3r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81), 202-203을 참고하라. 다섯째, 삼하 8:13에서 다윗은 아람(NASB)을 무찔렀는가 아니면 에돔을 무찔렀는가? 에돔일 가능성이 높다. 공인된 히브리어 본문은 “아람”을 갖고 있지만, 소수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은 “에돔”을 갖고 있다. 에돔이 지리적으로 더 잘 맞는다. (“소금 골짜기”는 사해의 남쪽에 있다.) 아람(אַרָם)과 에돔(עֲדָם)은 히브리어 자음이 매우 비슷해 쉽게 혼동된다.

²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3,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0), 259.



우리는 이러한 갈등들을 무역로를 통제하고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작은 국가들의 분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 다윗은 근동 전체의 종주가 될 또 하나의 후보가 아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그리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왕권을 부여받았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모든 원수로부터의 안식을 약속하셨다. 이 모든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언급되어 있다.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 여호와께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신다.³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권한을 부여하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바) 가시적인 형태의 초기 여호와의 왕국이다. 다윗이 다스리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지배권을 갖는다. 그러나 다윗의 이웃들은 그의 관할을 갈망하는 선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적들을 “쳐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삼하 8:6, 14).⁴

다윗의 왕국은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예비적 초기 형태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러나 분쟁이 정복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왕국의 패턴은 같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대체로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기를 갈망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대중의 요구가 아니라 무력으로 그분의 통치를 세우실 것임을 증언한다(예: 시 2 편; 사 11:3b-5; 욥 3:9-17; 욥 14:1-5, 12-15; 살후 1:7b-8; 2:8-10 참조). 교회는 성경의 이러한 강력한 설명을 묵살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왕국의 교리를 약화시킨다. 때때로 이 단조로운 감성이 우리의 찬송가에서 정경화되었다. 예를 들면,

³ 모압과 에돔에 대한 승리는 또한 민 24:17-19의 성취로 간주될 수도 있다.

⁴ 사무엘하 8장과 10장의 사건과 전쟁에 대한 그럴듯한 역사적 재구성을 위해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255-60을 보라. 그는 에돔, 모압, 암몬의 동맹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칼의 시끄러운 충돌이 아니라,
신나게 북 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행위에 의해
하늘 나라가 임한다.⁵

여기에는 약간의 진실이 있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착하기만 하면 왕국이 도래할 것 같은 엄청난 왜곡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도 무혈 쿠데타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가르쳐 주었다. 또한 역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스며들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대와 반대 위에 그것을 강요하시며 그분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올 것이다.

II. 왕국의 부와 경의 (삼하 8:7-12 The Wealth and Homage of the Kingdom)

삼하 8:7-12 은 다윗이 정복되거나 복종하는 민족들에게서 모은 전리품과 재물을 나열한다. 하닷에셀에 대한 완벽한 승리(삼하 8:3-5)가 이전 부분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요약은 하닷에셀에게서 얻은 전리품으로 시작한다.

하닷에셀에게서 얻은 전리품, 삼하 8:7-8

도이의 굴복과 조공, 삼하 8:9-10

정복된 나라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의 봉헌, 삼하 8:11-12

이렇게 다윗은 보물을 모았다. 하닷에셀의 신하들에게서 얻은 금 방패(어떤 사람들은 “화살통”이라고 주장함, 삼하 8:7)와 그의 성읍들에서⁶ 가져온 많은 놋(삼하 8:8), 하맛 왕 도이(대상 18:9-10, 도우)가 그의 아들 요람(대상 18:9, 하도람)을 통해 보낸 은 그릇, 금 그릇, 놋 그릇(삼하 8:10),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외에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삼하 8:11-12)이 더해진다. 하맛에서 온 것이든 다른 곳에서 온 것이든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열방의 부는 그 정당한 소유자에게 속했다(삼하 8:11). 다윗은 분명히 그의 후계자가 여호와를 위해 지을 “집(성전)”을 위해 그것을 성별했다(삼하 7:13; 대상 22:14-16). 다윗의 왕국은 마지막 날에 도래할 왕국에 대한 예언이다. 마지막 날에 열방의 모든 재물이 여호와께로 올 것이다(사 60 장; 학 2:6-9; 계 21:24, 26).

하맛 왕 도이에 관한 짧은 설명(삼하 8:9-10)을 놓치지 마라. 그는 기록 보관소의 샌드위치

⁵ 이 가사는 Ernest W. Shurtleff(1862-1917)가 지은 “Lead On, O King Eternal”에 나온다.

⁶ 베다(혹은 데바)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베로대는 아마도 다세맥에서 북-북서쪽으로 30일 마일 떨어진 현대의 베레이탄일 것이다(영블러드).

가운데 눌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겐 뭔가 독특한 것이 있다. 그는 “쳐서 무찌름”을 당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삼하 8:9, 10)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화평을 청하며 다윗이 하닷에셀을 무찌른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다. 왜냐하면 하닷에셀은 도이의 영원한 적이었기 때문이다. 도이는 성경의 왕국 교리에 대한 또 다른 패턴을 예시한다. 한편으로 여호와와 왕국과 싸우는 통치자와 민족이 있지만(앞의 논의 참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무기를 내려놓고 그들의 왕국 아래서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예: 사 45:22-23; 56:6-8; 66:18-24; 미 4:1-18; 렘 3:17-18; 습 3:9-10; 숙 2:10-11; 8:20-23).⁷ 어떤 나라들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하고 어떤 나라들은 복종한다.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반항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돌아서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분쇄되어야 하고, 어떤 나라들은 뉘우친다. 분명히, 어떤 나라 지도자들은 시 2:10-12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시 2:10-12)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도이를 가지고 장난칠 생각은 없다. 나는 도이가 자신을 여호와와 택하신 왕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모범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십중팔구 그는 하닷에셀을 따돌리는 데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에 대한 주변 민족들의 반응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반응의 **패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의 묘사에서 도이의 반응은 한 민족이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왕에게 복종하려고 하지만 하면 그 왕이 그들을 쳐서 무찌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도이는 한 줄기 희망의 역할을 한다. 그 어떤 나라도 부서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희생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요점은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다. 아무도 과거나 상황에 의해 희생되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희망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⁸ 찰스 콜슨은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⁷ 이 나라들/민족들이 여호와와 통치에 자연적으로 순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절 및/또는 문맥을 확인하면 일반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시거나, 변화시키시거나, 회심시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종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⁸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희생자 의식이 틀렸음을 밝히시는 에스겔 18 장을 참조하라.

다시 들려준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에게 파티, 마약, 섹스, 술이 끝없이 반복되는 자기 인생 스타일에 지쳤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정신과 의사는 "왜 그만 두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제안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⁹

III. 왕국의 이상과 질서 (삼하 8:15-18 The Ideal and Order of the Kingdom)

이 요약 구절(삼하 8:15-18)을 통해 사무엘상하의 저자는 자기 작품의 한 주요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린다. 그는 이러한 요약 구절들을 자주 사용한다. 그는 삼상 7:15-17 을 통해 사무엘 부분을 마감하고, 삼상 17:47-52 을 통해 사울 부분을 마감하고, 이제 삼하 8:15-18 을 통해 첫 번째 다윗 부분, 곧 때때로 다윗의 상승의 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을 마감한다. 사무엘하 8 장의 모든 부분처럼 이 요약 부분도 소름 돋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기록 보관소에 가깝다. 하지만 그것은 왕국의 이상(삼하 8:15)과 질서(삼하 8:16-18)를 정말로 반영하고 있다.¹⁰

나는 삼하 8:15 에 나오는 다윗의 치세에 대한 저자의 요약을 강조하고 싶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때 다윗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는 다윗이 전반적으로 그의 왕직을 올바르게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다윗 통치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분위기를 주장한다. 다윗은 경건한 왕이 해야 할 일(시편 72 편과 101 편 참조)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것이 바로 왕국의 이상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훌륭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고 다윗이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 기쁘다.

⁹ Charles Colson, *Against the Night* (Ann Arbor: Servant, 1989), 58.

¹⁰ 나의 강해는 다윗의 내각 명단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삼하 8:17)"과 제사장 일을 본 다윗의 아들들(삼하 8:18)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Ronald F. Youngblood, "1,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911-13을 보라.

[역자 주] 삼하 8:18

개역개정: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NKJV/NASB: chief ministers)이 되니라

새번역: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ESV/NIV: David's sons are priests.

NLT: David's sons served as priestly leaders.

Brenton LXX translation: the sons of David, were princes of the court.

Douay-Rheims: the sons of David were the princes.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런 글이 다가와 우리의 시선을 끌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 물론 나는 언약의 왕도 아니고 심지어 삼류 정치인도 아니다. 나는 결코 다윗이 구속사에서 “메시아적” 왕으로 가졌던 것과 같은 지위를 공유하지 않는다. 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은 왕국을 통치하지도 않고, 왕국을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어떤 직책(예: 장로, 아버지, 어머니, 고용주, 종업원 등)에서도 그 왕국을 **예시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계속 시행한다면, 왕국의 이상은 분명해지고, 왕국의 질서는 향유될 것이다.

내 아내는 캔자스 주 출신이고 그녀의 고향 주를 상당히 좋아한다. 우리는 20 년이 넘도록 캔자스에 살지 않았다. 현재 우리는 미시시피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파티오 바로 옆에 캔자스 토종 식물, 풀, 그리고 꽃들의 샘플이 가득 들어 있는 가로 15 피트, 세로 7 피트 정도의 작은 부지가 있다. 몇 년 전 바바라는 “캔자스 정원”의 기본적인 것을 주문했다. 우리는 부지를 준비하고 흙을 조금 부었다. 이제 캔자스는 우리 뒷창문 밖에서 눈에 띄게 번창했다. 이렇게 바바라는 미시시피에서 캔자스가 조금 보이도록 했다.

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도록 권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윗 계보의 왕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가시적으로 완전하게 가져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실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시행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관계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의 부지에 왕국의 의를 심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임무는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일을 다윗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왕국의 이상을 벗겨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위에 그것을 붙이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백성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만약 사무엘하 8 장과 같은 단락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과 그 이후의 왕국에 대한 교리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때때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너무 두꺼운 썰기를 박는다고 생각하는가?
2. 여러분은 재림과 장차 임할 심판이 너무 자주 경시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상적이고 비성경적인 견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3.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정당한 왕이시다. 여러분은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는가?
4.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포함하는가?
5. 사무엘하 8 장은 그리스도의 장차 승리의 본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상기시켜 주는가?

제 2 부

하나님의 채찍 아래 있는 종
(A Servant Under God's Rod)

사무엘하 9-20 장

11. 언약을 들어올려라 (삼하 9 장 Up with Covenant!)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32 년 피츠버그에서 정부 지출의 자제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다. 4 년 후 거기서 그는 정부 지출에 찬성하는 연설을 하기를 원했다. 그는 고문 중 한 명에게 어떻게 하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180 도 전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언은 직설적이었다. 대통령께서 1932 년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이었다.¹

나는 다윗이 그와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의 왕권이 확고히 자리 잡았고 사울 집안의 적대(예: 아브넬과 이스보셋, 삼하 2-4 장)가 진압되거나 제거되었으므로 그는 요나단과의 언약(삼상 20 장)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둘로 쪼개진 동물의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이었을 뿐이고, 게다가 그것은 15 년도 더 지난 일이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의 안전을 고려하며 이전의 경쟁 왕조의 생존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배제함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다윗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아무리 좋아했다고 할지라도, 현 상황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저버리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고 사무엘하 9 장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이 장은 신학적이거나 영적인 것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바, 그것은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준다. 무엇보다도, 사무엘하 9 장이 주장하는 것은 언약 아래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설 수 있는 확고한 자리를 제공하며 안전감과 특권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러티브를 살피며 세 가지 주요 관찰을 말하려고 한다.²

¹ Paul F. Boller, Jr., *Presidential Anecdotes* (New York: Penguin Books, 1982), 271.

² 사무엘하 9장과 더불어 우리는 사무엘상하의 또 다른 주요 부분으로 들어선다. 학자들은 전문 용어를 써서 (열왕기상 1-2장과 함께) 사무엘하 9-20장을 승계 내러티브라고 부른다. 이것은 “다윗의 다른 아들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부분 혹은 문서이다(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41). (고든과 다른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는 소위 말하는 승계 내러티브가 승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David M. Gunn, *The Story of King David*, JSOT Supplement Series 6 (Sheffield: JSOT Press, 1989), 82-84을 보라. 그러므로 나는 이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삼하 9-20장에 대한 나의 제목은 “하나님의 채찍 아래 있는 종”이다. 나는 이 주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1. 관계에 있어서 다윗의 신실함, 삼하 9-10장
2. 다윗이 빠진 최악의 늪, 삼하 11-12장
3. 다윗 집안에 일어난 문제들, 삼하 13:1-19:8a

I. 언약이 행사하는 힘 (삼하 9:1-4 The Power Covenant Exercises)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헤세드]을 베풀리라(삼하 9:1).”³ 여러분은 내가 왜 이 구절의 중심 주제로 언약을 끌어들이는지 의아해할지 모른다. 그 이유는 세 번(삼하 9:1, 3, 7) 사용된 [헤세드]가 언약 관계 안에 약속된 헌신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헤세드]는 그 약속을 엄숙한 기록 사항으로 여기며 상대방에게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헤세드]와 “요나단을 위하여”를 언급했을 때, 우리는 그가 삼상 20:15 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신성한 약속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거기서 요나단은 이렇게 요청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헤세드]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⁴ 그때 다윗은 그것에 대해 맹세했었다. 이제 그는 그 서약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의 가족과 관련된 종인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 그를 불러 왕과 면담하도록 한다. 다윗이 묻자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들 중 “다리를 저는” 아들이 아직 한 명 남아 있다고 그에게 알린다(삼하 9:3). 그는 마길의 보호 아래 요단 동편 로드발에 살고 있었다(삼하 9:4).⁵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며 그 약속을 한 지 이제 15 년에서 20 년이 지났다.⁶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있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4. 다윗 왕국에 닥친 혼란, 삼하 19:8b-20:26

³ NJB의 “내가 요나단을 위해 **신실한 사랑**(faithful love)을 베풀 자”라는 번역은 [헤세드]의 함축적인 의미를 잘 포착하고 있다. 나의 책 *Looking on the Heart* (1 Samuel), 2:64-66에 나오는 논의를 참고하라. 그리고 Katharine Doob Sakenfeld, “Love (OT),” ABD 4:377-80도 보라.

⁴ 삼상 23:18은 이 언약적 약속의 갱신을 나타내는 것 같다. 다윗은 또한 사울에게 그가 왕위에 오르면 사울의 가족을 근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통해 확신을 주었다(삼상 24:20-22).

⁵ 로드발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갈릴리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움 에드-데바르(Umm ed-Debar)가 종종 제안된다. NBD, 2nd ed., 274-75을 보라.

⁶ 우리는 시간적 공백이 없는 연대기를 재구성할 수 없다.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므비보셋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에 안겨 도망하다가 비극적인 부상을 당한 일이 다섯 살 때 일어난 것임을 안다(삼하 4:4; 참조, 삼상 31장).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했다(삼하 5:5). 다윗은 국내외에서 자기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것이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궁정으로 부를 때 그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다면(삼하 9:12의 더 자연스러운 해석), 이때 그는 20세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하 9장의 에피소드는 길보아 참사 후 15년이 지난 시점일 수 있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삼상 20장)은 길보아보다 5년 전일 수 있다(참조, 삼상 27:7).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252-53을 참고하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삼하 9:1).” 엄숙한 의식에서 엄숙한 저주 아래 주어진 그 엄숙한 말은 그가 헌신적인 사랑으로 행동하도록 했다.⁷ 그것이 오래전 일이라거나, 조건이 달라졌다거나, 그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여기에 언약이 행사하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한 약속이 현재에 신실함을 보일 것을 명령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의 세상과 문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본 기억이 난다. 자연 경관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로맨스는 부도덕했다. 그러나 한 장면에서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는 해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는 그가 자기와 결혼해 주기를 원한다. 레드포드는 “내가 종이 한 장으로 인해 당신을 더 사랑할 것 같느냐?”라고 대답한다. 그것이 그의 사고방식이었다. 언약은 종이 한 장이고, 그저 공허한 형식이었다. 물론 영화 대사는 결혼 서약의 요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서약은 사랑의 강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안전을 규제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진실한 사랑이 상대방이 그 사랑 안에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묶고, 기꺼이 약속하며,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자신에게 의무를 지운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의 삶은 신성한 약속을 하는 시간들, 곧 언약의 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약을 한다. 우리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군가가 교회의 (장로, 집사) 직분을 맡을 때, 그리고 물론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서약을 한다. 그러한 서약은 그것이 극적(dramatic)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faithful)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때때로 여러분은 지키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들을 지킨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존경받는 성경 신학자인 B. B. 워필드의 작품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여전히 알려지고 읽히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의 결혼 이야기다. 워필드는 1876-77 년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그의 아내 애니와의 신혼 기간이었다. 그들은 하르츠 산맥에서 도보 여행을 하다가 엄청난 뇌우를 만났다. 그 경험은 애니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평생 동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병약자가 되었다. 워필드는 신학교 임무를 위해 그녀를 두고 떠나지만 한번에 두 시간 이상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거의 전적으로 프린스턴 신학교와 그의 아내를 돌보는 일에

⁷ 나는 다윗이 단지 형식적 혹은 법적인 동기만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요나단을 위하여”라는 어구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의 추억에 대한 사랑이 또한 다윗을 움직였다고 느낀다.

국한되었다. 그것도 39 년 동안이나 말이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워필드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의 부드러움은 그가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사랑스러운 보살핌의 놀라운 증거"라고 말했다.⁸ 39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 행사하는 힘이다.

II. 언약이 제공하는 공급 (삼하 9:5-8 The Provision Covenant Makes)

사무엘하 9 장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5 절부터 8 절까지이고 특히 7 절이다. 이 요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문학적인 관찰을 해보자.

첫째로, 사무엘하 9 장에서 므비보셋의 이름은 6 절에 처음 나온다. (물론, 우리는 이미 삼하 4:4 에서 그에 관한 설명을 읽었다). 지금까지 그는 일반적으로 "요나단의 아들" 또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으로 언급되어 왔다. 의미심장하게도 저자는 6 절에서 그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로 소개한다. 따라서 그는 경쟁하던 구 정권의 일원이다.

둘째로, 다윗이 시바와 나눈 대화를 전할 때(삼하 9:2-4, 9-11a), 저자는 일반적으로 다윗을 "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므비보셋과 대화할 때는(삼하 9:6-7) 그는 단순히 "다윗"이다. 아마도 저자는 므비보셋과의 좀 더 개인적인 접촉을 암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

셋째로, 사무엘하 9 장의 문학적 구조는 7 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에 제시하는 구조에 유의하라.

사무엘하 9 장의 구조

- 은총을 베풀기 위한 다윗의 계획들, 삼하 9:1
- 왕의 시바와의 대화, 삼하 9:2-4
 - (므비보셋을 찾음)
 - 므비보셋의 도착과 부복, 삼하 9:5-6
 - 언약의 보호와 공급, 삼하 9:7
 - 므비보셋의 부복과 경탄, 삼하 9:8
- 왕의 시바와의 대화, 삼하 9:9-11a
 - (므비보셋을 지원함)
- 베푼 은총에 대한 므비보셋의 체험, 삼하 9:11b -13

여기 사무엘하 9 장의 경첩이고 핵심인 5-8 절에서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은 다음과 같다.

⁸ Stanley W. Bamberg, "Our Image of Warfield Must Go,"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4 (1991): 237-38, 240-41.

(1) 보호: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삼하 9:7a).”

(2) 공급: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다(삼하 9:7b).”

(3) 지위: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삼하 9:7c).”

삼하 9:6 에서 므비보셋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고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행동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다윗의 말(삼하 9:7a)은 므비보셋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므비보셋은 자신이 이전의 경쟁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쟁 상대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시바와 그 집안 식구들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므비보셋에게 소득이 생기게 할 것이다(삼하 9:9-10). 아마도 사울의 토지는 왕궁으로 환수되었거나 아니면 시바가 개입하여 자기에게 유용하게 썼을 수도 있다. 우리는 잘 모른다. 어쨌든, 므비보셋의 자리는 왕의 발 앞에서 신하처럼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들 중 한 명처럼 식탁에 앉는 것이었다. 이것은 네 번이나 언급된다(삼하 9:7, 10, 11, 13).⁹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준 공급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다. 적어도 이 주장에 대한 논거가 정당함은 입증될 수 있다. 삼상 20:14 에서 요나단은 다윗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도 그가 살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 있다면, 너는 여호와와 인자하심[헤세드]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삼상 20:14).” 그런 상황에서 [헤세드]는 요나단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헤세드]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삼상 20:15).” 삼상 20:14 에 비추어 삼상 20:15 을 해석하면 요나단의 관심은 다윗이 또한 요나단의 후손을 청산하기보다는 살려줌으로써 그들에 대한 인자함[헤세드]을 보이는 것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요나단의 언약은 다윗이 요나단의 가족을 살려주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일은 그것의 주요 관심사인 것 같다.

그러나 여기 사무엘하 9 장에서 다윗은 어떤 단순한 요구 사항을 훨씬 뛰어넘는다. 다윗은 므비보셋의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을 보호할

⁹ 어떤 사람들(예: 헤르츠버그, 맥카터)은 친절함뿐만 아니라 경계심도 다윗이 므비보셋을 왕실에서 먹게 한 동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다윗은 왕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문은 다윗의 동기를 “요나단을 위한” 언약적 사랑([헤세드])에 고정시키고 있다(삼하 9:1, 7).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유산을 돌려준다. 다윗은 그를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식탁을 준비한다. 다윗의 은총은 생존을 넘어 생계 유지로 나아간다. 므비보셋은 왕에 의해 그리고 왕과 함께 보살핌을 받으며 결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헤세드]가 여호와와 [헤세드]의 충실한 반영에 불과함을 아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여호와께 벌거벗은/맨(bare) [헤세드] 같은 것은 없다(시 23:1; 요 1:16; 6:35; 롬 8:32).

III. 언약이 껴안는 사람 (삼하 9:11B-13 The Person Covenant Embraces)

여기서 나는 사무엘하 9 장 전체에서 므비보셋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내가 특별히 11b-13 절을 가리켰던 이유는 9 장에서 므비보셋이란 이름이 7 번 언급된 중에 여기에 4 번이나 나오기 때문이다. 다윗 왕은 시바에게 므비보셋을 “네 주인의 아들”이라고 3 번 언급하며 그를 위해 사울의 땅을 관리할 것을 명령한다(삼하 9:9-10).¹⁰ 그런 다음 므비보셋에 대한 네 가지 진술이 나오며 사무엘하 9 장이 마무리된다. 그에 대한 마지막 진술은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을 전한다.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삼하 9:13).”

본문에 강조되어 있는 므비보셋의 상태에 대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그의 **절름발이** 상태이다. 시바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 저는 자”라고 알려주었고(삼하 9:3),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하 9 장의 마지막 절(13b 절)은 슬프게도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여러분은 독자로서, 특히 삼하 4:4 에 나오는 그에 관한 짙막한 설명에 비추어, 므비보셋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므비보셋에 대한, 비극적인 자료이다. 왕자의 아들이지만 그는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불구자이다.¹¹

그러나 므비보셋에 대한 더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혈통**이다. 그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다(삼하 9:6a).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므비보셋은 다윗 정부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원수이다. 그는 구 정권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살아 남았다.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맹세한 언약 때문이다(삼상 20:14-16a). 엄밀히 말해 므비보셋은 원수인 셈이지만, 그는 언약의 안전 안에 수용되어 있다.

우리는 짧지만 적절한 접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윗-요나단 언약의 핵심에는 어떤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조(다윗)는 이전의 경쟁 왕조(사울, 요나단)를 살려두는 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상 20:14-16a 에 대한 내

¹⁰ 시바는 그의 열다섯 아들과 스무 명의 종이 증언하듯이 그 자체로 상당한 부자이다(삼하 9:10b).

¹¹ 메시아 시대에 다리 저는 사람들의 위치(사 35:5-6; 렘 31:7-9; 미 4:6-7)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마 11:2-6)을 주목하라.

설명을 인용하겠다.

새로운 정권 혹은 왕조가 집권하게 되었을 때, 게임의 이름은 숙청이었다. 여러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대 근동 세계로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성경 역사의 페이지 안에 머물며 바아사(왕상 15:27-30) 혹은 시므리(왕상 16:8-13) 혹은 예후(왕하 10:1-11)를 보면 이전 정권의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왕은 그의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바로 숙청에 의한 공고화가 관습적인 정치 정책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실행했다.¹²

이제 우리는 다윗이 므비보셋을 불렀을 때 틀림없이 그가 떨고 있었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삼하 9:6). 므비보셋의 저는 상태는 그의 두뇌가 아니라 그의 다리에 있었다. 그는 소멸한 왕조의 남은 자에게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무서워하지 말라(삼하 9:7)”는 말은 기대되는 것을 므비보셋이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다. 다윗이 대부분의 제정신인 정치인들이 결코 하지 않았을 터무니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원수에게 [헤세드]를 약속했고, 그 언약은 므비보셋의 피난처였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일종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원수” 므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헌신적인 사랑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롬 5:10 과 같은 말씀 사이에 있는 유사점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윗의 언약적 사랑의 근원이시요, 창시자이신 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그것을 음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짐작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롬 5:6-10 을 쓴 바울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의 논증을 주목하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롬 5:6, 8, 10).” 하나님의 사랑의 경이로움과 씨름하는 첫 번째 원칙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므비보셋들이고, 우리에게 왕의 상에서 계속 먹어도 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정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한 어떤 약속들을 지키는 것을 잊어버렸는가?

¹² *Looking on the Heart*, 2:68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이행하기로 결심할 것인가?

2.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3. 워필드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매우 엄격하고 엄밀하게 들리는 변증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그의 병약한 아내에게는 큰 다정함을 보였다. 당신의 성품에 진리에 대한 관심과 부드러운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가?
4. 다윗과 므비보셋의 이야기는 사람의 성품이 약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므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사랑처럼 너무 뜻밖이고, 너무 놀랍다. 여러분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그것이 여러분을 더 이상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12. 외교상의 어리석음 (삼하 10 장 Foreign Folly)

삶이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상황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예측 가능한 반응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반응이 전혀 관습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란다. 1930년대 뉴욕 양키스의 좌완 투수 레프티 고메즈는 포수 빌 디키에게 투수 마운드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야구 경기 중이었고 상대 팀은 만루였다. 디키는 고메즈가 다음 타자에게 어떤 공을 던질지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레프티는 디키에게 야칸소에 있는 집에 여분의 사냥개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디키는 완전히 당황해하며 베이스가 만루인데 왜 사냥개에 대해 물어보느냐고 말했다. 레프티는 이렇게 “설명했다.” “내 친구는 네가 사냥하러 다니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너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방금 그 생각이 났다.”¹

사무엘하 10 장은 야구가 아니라 외교에서 또 다른 예측 가능한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관례에 따라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전하기 위해 여러 명의 외교 사절을 하눈에게 보냈다(삼하 10:1-2).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다. 물론, 다윗이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 울부짖으며 잠을 청하지 못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상당한 형식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망한 지도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조의를 표현하는 것은 멋진 접촉이었다. 모든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호의적인 격식으로 인정되고 예의를 갖추어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눈과 그의 관리들이 속으로 레프티 고메즈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들은 의전을 무시하고 다윗의 외교 사절들을 욕되게 하였다. 그들은 그 사절들을 붙잡아 수염의 절반(한쪽 면)을 깎고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잘라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여 마을 밖으로 내쫓았다(삼하 10:4).² “우리는 그들이 조롱하는 남녀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며 집중 야유를 받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³ 하눈은 관례를 따랐어야 했다. 그는

¹ Bruce Nash and Allan Zullo, *The Baseball Hall of Shame 4* (New York: Pocket Books, 1990), 122.

² 하눈이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모욕을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남자들의 남자다움이 상하기도 하고(수염 절반이 깎이고) 노출되기도 했다(엉덩이/은밀한 부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클라우스 세들(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3:211)은 무쉴(A. Musil)이 “헤브론 인근에 살던 베두인들이 술 취한 남자의 턱수염을 반쯤 잘라낸 방법, 관련된 두 부족 사이에 전면전을 일으킨 농담”에 대해 기록한 (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전한다.

³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304.

외교상의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그는 큰 악취를 풍겼다.⁴

하눈의 잔학 행위는 사무엘하 10 장 전체를 뒤흔드는 동인이다. 그러나 나는 암몬 왕의 이 어리석음 자체에서 물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하 10 장 전체를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I. 문학적 관찰 (Literary Observations)

그럼 먼저 다음에 나오는 분해를 통하여 사무엘하 10 장의 흐름과 내용을 살펴보자.

미친 모욕, 삼하 10:1-5

위기의 순간, 삼하 10:6-14

회의, 삼하 10:6-8

난관, 삼하 10:9-10

전략, 삼하 10:11-12

승리, 삼하 10:13-14

주요 토벌, 삼하 10:15-19

사무엘하 10 장은 매우 압축된 이야기로 보인다. 전투를 보고하는 뼈대와 거기에 약간의 내러티브가 살로 입혀진 것 같다. 확실히 하눈의 악의적인 예절(삼하 10:1-5)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사무엘하 17 장 또는 삼하 2:8-32 처럼 생생한 세부사항이나 매혹적인 상세한 관찰을 주지 않는다. 요압이 병참 비상 사태에 직면했을 때에도(삼하 10:9-14), 이야기는 매우 간결하고 단편적이다. 그러나 사무엘하 10 장은 지루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의 깊게 읽어보면 저자가 그의 간소한 문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에 걸쳐 위기감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보다”는 의미의) 동사 [라아] + (본 내용을 소개하는) 접속사 [키](“누군가 -을 보고/알고 ... 했다”)를 5 번 사용함으로써 이런 긴장감을 조성한다. 다음 도표를 주목하라.

본문	위기	대응
삼하 10:6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것을 보고(알고)	아람 용병을 고용함
삼하 10:9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군대를 나누어 배치함
삼하 10:14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자신의 요새 성읍으로 도피함
삼하 10:15	아람 사람이 자기가 패하였음을 보고	엄청난 군대를 다시 집결시킴

⁴ 삼하 10:6을 직역하면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악취가 된[니브아슈] 것을 깨달았다.”

삼하 10:19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함
----------	--------------------------	-----------

사무엘하 10 장은 간결하지만 이 위기-대응이란 패턴이 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통일성을 갖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문학 관심사는 사무엘하 10 장이 전후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확실히 사무엘하 11-12 장의 무대를 설정한다.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밋세바-우리아 사건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고, 삼하 12:26-31 은 삼하 10:14 에 남겨진 암몬 자손 문제를 종결시킨다. 그러나 사무엘하 10 장은 또한 주제적으로 사무엘하 9 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은 사울 집안의 사람 므비보셋(삼하 9:1, 3, 7)에게 은총[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암몬 왕 하눈에게 은총[헤세드]를 베풀려고 했기 때문이다(삼하 10:1-2).

이렇게 사무엘하 10 장은 앞과 뒤를 모두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증언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말이 있는가?⁵ 나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나는 다음 제목들을 통해 그 증언을 요약하려고 한다.

II. 신학적 증언 (Theological Witness)

i. 예언적 시나리오 (Prophetic Scenario)

먼저, 나는 사무엘하 10 장이 예언적 시나리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분명히, 언뜻 보기에는 이 에피소드들에 예언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것들은 단지 흔히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는 것 같다. 정치 고문들은 새 왕이 너무 순진해서 조문을 가장한 다윗의 사기성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그를 흔들었다(삼하 10:2b-3).⁶ 그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다. 심지어 암몬 자손이 다윗의 사절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의복을 잘라버린 매우 잔인하고 불쾌한 행위(삼하 10:4)조차도 그들의 역사를 고려하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암몬 자손들은 정복당한 민족들의 오른쪽 눈을 도려내고(삼상 11:1-2) 두 세대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는데(삼 1:13) 것을 좋아했다. 그렇다면 수염과 옷을 조금 자르는 것이 뭐가 그리 이상하다는 것인가? 그게 바로 암몬 자손들이 하는 일이었다. 아람 사람들이 요단 건너편의 일과 특히 암몬 자손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실, 그들은 북쪽 다메섹에서 남쪽 엘랏(그리고 그 너머)까지 이어지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최고의 대상 도로를 장악하기를

⁵ 브루게만(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271)은 “사무엘하 10장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신학적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⁶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1, *King David (II Sam. 9 – 20 & I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44.

원했기 때문이다.⁷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그게 바로 아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모두 아주 전형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것은 예언적일 수 있다. 내가 사무엘하 8 장의 강해 중에 이 문제를 더 광범위하게 논의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확장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무엘하 10 장이 시편 2 편의 지역화된 버전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눈과 하닷에셀의 아람 동맹이 다윗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처럼,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은 여호와와 그분의 다윗 계보의 메시아적 왕의 지배에 저항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초기 패배 후에도 하닷에셀은 또 다른 전면적인 대규모의 공격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갖지 못했다(삼하 10:15-18). 다윗은 헬람에 이르러 이 아람 동맹을 쳐서 무찌른다.⁸ 마침내 하닷에셀의 추종자들은 깨닫고서(시 2:10-12) 다윗과의 화친을 청한다(삼하 10:19).

우리가 행 4:24-30 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시 2:1-2 을 특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적용하는 것을 들으면 훨씬 더 쉽게 시편 2 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보통 하눈과 하닷에셀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윗과 밋세바에 대한 정말 선정적인 내용에 이르기 전에 읽어야 하는 동부 국경에서 일어난 성가신 에피소드로 본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고 하눈과 하닷에셀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그들은 졌다. 사무엘하 10 장은 시편 2 편의 축소판에

⁷ Benjamin Mazar, "The Aramean Empire and its Relation with Israel," *The Biblical Archaeologist Reader*, 2 (Garden City, NY: Doubleday, 1964), 131-33. 대상 경로에 대해서는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3rd ed. (New York: Macmillan, 1993), 17을 보라. 덧붙여서, 더 많은 지도들과 사무엘하 8장과 10장(그리고 역대상 18-19장)에 나오는 사건들의 순서에 대한 유용한 재구성을 위해 같은 지도책 78-79을 참고하라.

⁸ 헬람(Helam)은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마을 또는 지역이다(ABD, 3:116-117 참조).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너머에서 동맹군을 불러 모집하고 소박을 군 사령관으로 삼아 그들을 거느리게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대단한 노력이었다. 독자들은 요약에 들어 있는 땀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이크(W. G. Blaikie,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 Graham, n.d.], 155-56)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장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된 전쟁들이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들에 대한 기록은 너무 짧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단순해서 많은 독자들이 그것들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외국 땅에서 그토록 많고 강력하고 전쟁에 익숙한 연합군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이 엄청난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들은 다윗과 그의 백성의 믿음과 용기를 최대한으로 시험하기에 적합했다." 그나저나 삼하 10:18(다윗이 "아람 병거 **칠백** 대와 **마병** 사만 명"을 죽이고)과 병행 본문인 대상 19:18(다윗이 "아람 병거 **칠천** 대의 군사와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사이에 통계와 용어의 불일치를 조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불과하며 모든 저항과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다윗 계보의 왕이 통치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수요일에 출근할 이유가 무엇인가?

ii. 칭찬할 만한 신실 (Commendable Fidelity)

사무엘하 10 장은 9 장처럼 [헤세드]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시작된다(삼하 10:2; 9:1).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헤세드]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헤세드]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삼하 10:2a).”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어떤 언약이나 조약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헤세드]는 그것을 암시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협약은 전혀 없었을지도 모른다. 경우가 어떻든지 친절과 지조, 사랑과 충성이란 이중적인 뉘앙스를 지닌 헤세드는 다윗이 느꼈던 의무였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호혜적인 친절을 베풀었고 그의 아들 하눈을 향해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다.

내 생각에 저자는 다윗을 [헤세드]를 실천하는 왕으로 묘사하길 원했던 것 같다. 사무엘서의 세 번째 주요 부분인 삼하 9-20 장에 대한 나의 개요(참고: 11 강 각주 2)가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먼저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다윗을 다루는 사무엘하 9-10 장에 이른다. 사무엘하 9 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대하여 친절하게/신실하게 행동하기를 열망하는 신실한 왕으로 나타나고, 사무엘하 10 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친절하게 행동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감사하는 왕으로 나타난다. 이 새로운 부분의 첫 머리에서 우리는 다윗을 [헤세드]를 실천하는 왕으로 묘사하는 이중 그림을 갖는다. 포켈만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였다.

사무엘하 9 장에 따르면, “충성 [헤세드]”은 이스라엘의 이전 왕가의 남은 자와 관련하여 다윗을 인도한 원칙이었고 따라서 그의 국내 정책의 일부였다. 사무엘하 10 장에 따르면, 다윗은 또한 이 핵심 단어를 특히 지금 이 순간 이웃 나라의 왕실과 관련하여 그의 외교 정책의 지침으로 적용하기를 원한다.⁹

나는 저자가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다윗의 이 두 초상화를 우리 앞에 제시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이러한 나의 추측을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저자가 다윗에 대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하 11-12 장에 묘사된 다윗과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사무엘하 9-10 장에는 친절하고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다윗이 있고, 저기 사무엘하 11-12 장에는 친절과 충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다윗이 있다. 여기 다윗은 그의 언약과 그의 기억에 의해 통제되지만, 저기 다윗은 그의 분비선과 그의 비밀에 의해 이끌린다. 여기 다윗은 생명을 아끼고 애도하지만, 저기 다윗은

⁹ Fokkelman, *King David*, 43.

생명을 짓밟고 파괴한다.

현재 우리는 사무엘하 10 장에 있다. 여기서 저자는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삼하 9 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삼하 10 장)에게도 친절하게 행동한다. 이것은 칭찬할 만한 신실이다.¹⁰ 사도 바울도 살전 5:15 에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지 있지 않는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살전 5:15).”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근거한 예수님의 주장의 취지가 아닌가(마 5:45-47)?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헤쎄드]는 암몬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포함해야 한다.

iii. 뜻밖의 신학 (Unexpected Theology)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무엘하 10 장의 중간 부분(6-14 절)에 집중해야 한다. 요압이 지휘하는 다윗의 군대는 암몬 자손의 수도 랍바를¹¹ 공격할 준비를 하던 중에 협공 작전에 휘말리게 된다. 앞뒤로 적과 맞서게 된 요압은 그의 군대를 나누었다. 그의 아우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는 암몬 자손을 물리쳐야 했고, 요압과 함께 있는 군대는 강력한 아람 군대와 맞서야 했다. 내레이터는 우리에게 전쟁 영화의 내용을 제공하기를 열망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없다. 아람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그(=요압) 앞에서 도망쳤다(삼하 10:13b).” 그게 전부다. 암몬 자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아람에게 좋은 것이 암몬에게도 좋은 줄 알고 성벽 뒤로 도망쳤다(삼하 10:14).

저자는 전쟁의 세부사항을 전혀 주지 않지만 요압이 아비새에게 한 말에는 충분한 자리를 준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삼하

¹⁰ 어떤 해석자들은 내가 여기에서 너무 “모범적” 접근을 한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내 주장은 저자가 이 경우에 다윗을 모범으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모범이 의도된 경우라면 우리의 해석에서도 “모범적”이 되어야 한다.

¹¹ 나는 분쟁이 랍바 부근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도시가 랍바에서 남쪽으로 이십 마일쯤 떨어진 메드바라고 주장한다(병행 구절인 대상 19:7을 보라). 그러나 메드바는 요압의 군대가 랍바와 교전할 준비를 마친 후 후방에서 요압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도착한 아람 용병들의 집결지였을 뿐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Yigael Yadin, *The Art of Warfare in Biblical Lands*, 2 vols. (New York: McGrawhill, 1963), 2:273-74을 보라.

그러므로 요압의 말은 내레이터에게 중요하다.¹² 이 작은 부분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어 여기까지 이르지만 그 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도망쳤다.”는 것이 전부다.

우리가 사무엘하 10 장에서 명백한 신학적 설명을 만나는 것은 오직 요압의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오직 여기에서만 우리가 여호와에 대하여 듣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 신학적 설명이 아니라 요압이 그것을 말했다는 사실이다. 이 철면피 같고, 완고하고, 보복적이고, 피를 흘리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군인(삼하 2, 3, 20 장)이 갑자기 신학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협공 아래서 경건하게 된 참호형 종교인가? 밧줄이 목을 조일 때 입 밖으로 나온 작은 믿음인가? 분명 저자의 진심일 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설령 그것이 저자의 진심일지라도 우리는 이 악랄한 요압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파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요압이 옳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가?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그의 불미스러운 성품이 그의 말의 진실성을 가리게 허락해야 하는가? 강패들도 진실을 말할 수 있지 않는가?¹³ 나는 요압의 권면에서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한다. 사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라는¹⁴ 그의 마지막 확언은 항상 곤경에 처한 하나님 백성의 안식처이다.

나는 이 확언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결국 요압을 기꺼이 그들의 교사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말을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절망의 한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나는 이 확언이 삶의 모든 불확실성 속에 있는 어느 신자에게도 가장 확고한 위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중요성 때문에 나는 다음에 나오는 칼빈의 강해의 일부를 덧붙이고 싶다.

만일 요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고 율법의 약속을 철저히 확신하지 못했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저런 구체적인 약속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는 바 우리를

¹² Fokkelman, *King David*, 48 을 보라.

¹³ 칼 굿브로트(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135)는 확실히 여기에 있는 요압에 대해 공정한 취급을 하고 있다. “요압은 피비린내 나는 소명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

¹⁴ 이 말은 확언(“여호와께서 ... 하실 것이다(NIV: will do; 새번역/쉬운성경/우리말성경/현대어성경)”) 혹은 소원/요청(여호와께서 ... 하시길(ESV/NASB: may ... do; 개역/개역개정))으로 번역될 수 있다. 나는 NJPS와 NIV처럼 전자를 더 좋아한다.

굳게 설득시키는 요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자비와 진리에 의존할 때 좌절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수확물이나 큰 포도 수확기를 보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에게 담대히 나아가면 결국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오늘이나 내일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며, 심지어 우리는 살아있을지 죽을지 의심하기까지 한다.

칼빈은 계속해서 요압이 이 아람-암몬 전쟁에서 승리와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압의 불확실성이 믿음의 부족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오류가 없다고 믿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많은 일에 대해 긴장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은밀한 작정과 섭리에 맡기기를 원하신다.¹⁵

여기에 이상한 화학 반응이 있다. 곧 요압의 말을 우리의 딜레마에 적용하면 우리는 더 확신하면서도 덜 확실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신다면 그것 또한 그분의 백성에게 좋은 것이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는가? 요압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는 그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다윗은 암몬 왕에게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예의를 보여주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에 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¹⁵ John Calvin, *Sermons on 2 Samuel*, trans. Douglas Kell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2), 464-65. 나는 여러분이 칼빈의 논의 전부(463-469쪽)를 볼 것을 권한다.

2. 사무엘하 10 장은 시편 2:1-3 의 지역화된 버전처럼 보인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였던 더 현대적인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3. 여러분은 동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가?
4. 조지 맥도널드는 “진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든 진리이다.” 라고 쓴 적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그러한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인정하는가?
5. 롬 8:28 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천명한다. 거기 문맥은 하나님 자신의 “선”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13. 육과 혈 (삼하 11 장 Flesh and Blood)

상황이 전쟁 중인 것을 잊지 말라. 그런데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 이로 인해 사무엘하 11-12 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생긴다. 이야기의 서두(삼하 11:1)와 말미(삼하 12:26-31)를 통해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암몬과 전쟁하는 중에 일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새해가 되자(삼하 11:1)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랍바 작전을 통해(참조, 삼하 10:14) 암몬을 완전히 무찌를 기회를 갖는다. 암몬과의 전쟁이 사무엘하 10-12 장을 함께 묶지만, 11 장에서는 그 초점이 암몬에 있는 최전선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침실로 바뀐다. 우리는 거기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지만 이 강해에서 다룰 수 있는 분량을 고려해서 11 장만 살필 것이다.

I. 문학적 특징들 (Literary Features)

사무엘하 11 장의 가르침을 살피기 전에 나는 그것의 문학적 특징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어떤 경우에 그것들은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쨌든 우리는 문학적 예술성을 그 자체로 음미해야 한다.

첫째로, 사무엘하 11 장은 앞의 10 장에 나오는 내러티브보다 더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 10 장에서 저자는 서둘러서 우리에게 사실들을 알려주고, 상황을 요약하고, 꼭 필요한 세부 사항만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기 11 장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암몬과의 전쟁의 진행 상황은 빠르고 굵은 필치로 거의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전자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과정일 뿐이지만, 후자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성을 탐구하는 것이다.¹

둘째로, 사무엘하 11 장은 많은 제한을 반영하고 있다. 앞의 요점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역설이다. 저자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밋세바와 우리아가 실제로 한 말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윗은 꽤 많은 말을 하지만, 밋세바의 말은 “내가 임신하였나이다[하라 아노히](삼하 11:5)”라는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로만 제한된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삼하 11:11 에만 나온다. 기록된 그의 말은 의미심장한 말이고, 충성의 절정을 표현하는 말이고, 독자에게 이 헛 사람이 11 장 전체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이스라엘인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그러나 저자의 가장 분명한 제한은 다른 곳, 즉 등장 인물들의 감정에 대한 그의 완전한 침묵에

¹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3:230.

있다. 그는 밋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혹은 그녀가 왕과의 정사를 영광으로 여겼는지 아니었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강조는 다윗과 그의 행위에 있다. 저자는 우리아의 심리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에 무슨 잘못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인가? 이것은 왕에게 복수를 퍼붓는 그의 방식, 곧 왕이 자업자득으로 괴로워하도록 하는 것이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저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는 요압이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살해 계획에 관하여 어떻게 느꼈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그것을 수행했고 아마도 실적을 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충격을 느꼈는지, 의기양양한 만족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그 밖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우리는 듣지 못한다.² 저자는 다윗의 행동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감정을 침묵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로,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러니로 가득 채운다. 예를 들어, 의식법의 엄격한 준수(밋세바가 생리 후 몸을 씻음, 삼하 11:4c)³ 다음에 도덕법의 노골적인 위반(다윗이 그녀와 간음한 것)이 뒤따라 나온다. 또한 우리아는 왕의 명령(삼하 11:8)에 불순종했지만(삼하 11:9) 가장 감동적인 신실함(삼하 11:11)이 그 불순종의 이유를 설명한다. 아니면, 여기서 다윗이 샬롬(평강, 평화, 평안)에⁴ 대해 끊임없이 묻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삼하 11:7) 실상은 한 결혼 생활의 평화와 한 종의 삶을 망치기 위해 그가 원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압이 전령에게 지시한 내용(삼하 11:19-21)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필요한 피흘림에 대해 항상 강력하게 반대해 왔음을 전제한다.⁵ 요압의 말은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는 다윗의 정책을 반영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소수의 생명들이 불필요하게 희생되었던 것을 반가운 소식으로 여기고 있다.

² 문학적 제한에 대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나는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139-41로부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311도 참고하라.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밋세바에 대해서는 Adele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1983), 26-27 그리고 Joyce Baldwin, *1 & 2 Samu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8), 244을 참고하라.

³ NJPS는 삼하 11:4c를 삼하 11:2에서 그녀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삽입적 설명으로 간주하며 “그녀는 생리 후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었다(she had just purified herself after her period).”라고 번역했다. 나는 이것을 잘 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⁴ 삼하 11:7에 나오는 샬롬이 “평화”로 번역되면, 마지막 어구인 [샬롬 하밀하마]는 “전쟁의 평화”라는 이상한 의미가 되어버린다!

⁵ Gutbrod, *Das Buch vom Reich*, 141.

저자는 정면으로 다윗에게 이목과 책임을 계속 집중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윗은 음탕한 간음자(삼하 11:2-5)이면서 은혜로운 대접하는 자(삼하 11:6-13)이고, 살의가 가득한 음모가(삼하 11:14-15)이면서 이해심이 많은 사령관(삼하 11:25)이다. 독자가 사무엘하 11 장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윗과 그가 갖는 관계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다윗과 밋세바, 삼하 11:2-5

다윗과 우리아, 삼하 11:6-13

다윗과 요압, 삼하 11:14-25

다윗과 여호와, 삼하 11:26-27

다른 문학적 항목들은 우리가 사무엘하 11 장의 가르침을 논의하면서 언급될 것이다.

II. 신학적 증언 (Theological Witness)

i. 타락한 종 (삼하 11:1-5 The Fallen Servant)

무엇보다도 먼저 저자는 타락한 종의 모습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그는 우리에게 삼하 11:1-5 의 다윗이 삼하 9:1-3 과 삼하 10:1-2 의 다윗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사무엘하 9 장과 10 장의 서두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은총 베풀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사무엘하 11 장의 서두에서 다윗은 베풀 은총을 갖고 있지 않다. 삼하 11:1-5 에서 그를 움직이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라 [에로스]이다. 브루게만은 본문의 어조를 다음과 같이 잘 포착한다.

동작이 빠르다. 다윗의 열정이 서두르듯이 동사들도 서두른다. 그는 보냈다. 그는 취했다. 그는 동침했다. 그는 전령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했고 그녀와 동침했다(삼하 11:4). 왕의 방종한 행위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동작에는 장식이 없다. 그런 다음 그 여인을 묘사하는 동사들이 나온다. 그녀는 돌아갔다. 그녀는 임신했다. 동작이 너무 적나라하다. 동작밖에 없다. 대화가 없다. 보살핌, 애정, 사랑의 기미는 없고 오직 정욕만 있을 뿐이다. 다윗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심지어 그녀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그 만남의 끝에 그녀는 단지 “그 여인”일 뿐이다(삼하 11:5). 마지막으로 중요한 동사는 “임신했다”이다. 그러나 실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동사는 “그가 그녀를 취했다”이다.⁶

이것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다(삼상 16:1-13).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삼상

⁶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273.

13:14).

이 본문에 나오는 경고는 다윗 왕을 훨씬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른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매우 갑자기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 로버트 로빈슨의 찬송가("복의 근원 강림하사") 가사 중에 나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구절이 나온다. 나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님, 방황하기 쉽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Cf. 새찬송가 28 장 3 절: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아마도 로버트 로빈슨도 그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는 1752 년 조지 핏필드의 설교를 듣고 개종했고 나중에 케임브리지에서 침례교 목사가 되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말년에 다시 "하찮은 습관에 굴복"했다. 이 기간 중 어느 날 그는 역마차로 여행하고 있었다. 완전히 낯선 여성인 또 다른 승객은 몇몇 찬송들을 회상하며 특히 그녀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준 찬송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끊임없이 언급했다. 그녀가 계속 말하자 로빈슨은 너무 동요된 나머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부인, 저는 수년 전에 이 찬송을 작곡한 그 가련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천 개의 세상이 있었다면 저는 그 때 제가 가졌던 감정들을 즐길 그 세상들을 주었을 것입니다!"⁷

삼하 11:1-5 을 보고 더듬으며 여러분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면죄부라도 주는가? 여러분이 "아, 하지만 나는 결코 ... 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타락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결코 놀라지 말라. 유일한 안전한 근거는 로버트 로빈슨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오, 은혜에 얼마나 큰 빚진 자인가!

매일 나는 부득이 빚진 자가 되네;

이제 그 은혜가 사슬처럼

나의 방황하는 마음을 주께 묶게 하소서.

(Cf. 새찬송가 28 장 3 절: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⁷ W. J. Limmer Sheppard, *Great Hymns and Their Stories* (1923; reprint ed.,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79), 159-60.

ii. 변하지 않는 진실 (삼하 11:6-25 The Unvarnished Truth)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실에 도달하기 전에 나는 우리가 다윗의 관점에서 전체 이야기(삼하 11:2-25)에 대한 느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는 거의 동일한 두 부분으로 나뉜다.

좌절한 다윗, 삼하 11:2-13

성공한 다윗, 삼하 11:14-25

첫 번째 부분에서 다윗은 항상 능동적인 사람이고 항상 통제하는 사람이지만 반복적으로 좌절한다. 삼하 11:2-5 에서 다윗은 보고, 묻고, 보내고, 취하고, 동침했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왕궁의 “비밀”은 “제가 임신했습니다(5 절).”라는 걸림돌에 부딪힌다. 다음 부분(삼하 11:6-11)에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고(6 절), 묻고(7 절), 명령하고(8 절 상반절), 선물을 아낌없이 준다(8 절 하반절). 그는 주도권을 쥐고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신하들과 더불어 잠을 잔 우리아를 통제할 수 없다(9 절). 왜 우리아가 저녁 식사, 샤워, 섹스에 대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해할 때(10b 절) 다윗은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도록 했어야만 할 대답을 들었다(11 절).⁸ 그러나 다윗은 손에 카드가 한 장 더 있다. 그는 우리아에게 최종 명령을 내리고(12 절),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그로 취하게 한다(13 절 상반절). 다윗은 여전히 움직이고 통제하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아를 술기운 아래 두지만 그의 영향력 아래 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비틀거리며 가서 다시 그 신하들의 숙소에서 있는 침상에 누웠기 때문이다(13 절 하반절).

다윗의 전체 계획의 핵심은 우리아를 집으로 가게 하여 밤새바와 하룻밤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명령은 “네 집으로 내려가라(삼하 11:8)”이다. 그러나 삼하 11:6-13 은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다윗의 계획이 좌절된 것을 강조한다.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내레이터에 의해 2 번 보고되고(삼하 11:9, 13), 궁중의 소문을 통해 전달되고(삼하 11:10a), 왕의 질문에 나오고(삼하 11:10b), 우리아가 직접 거절하는 것을 통해 언급된다(삼하 11:11).

그러나 다윗은 삼하 11:14-25 이 보여주는 것처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는 우리아가 어인이 찍힌 자신의 사형 영장을 들고 가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다윗은 통제하고 있다. 즉 그는 편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아를 통해 보낸다(삼하 11:14-15). 우리아는 청산되어야 하고 청산된다. 왜냐하면 요압과 암몬 자손이 피를 조금만 흘리기만 하면 될 때 가장 수용적이기 때문이다. 삼하 11:14-25 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아가 죽는 것이고, 이 큰 사실은 반복적으로(15 절, 17 절, 21 절, 24 절)

⁸ 존 칼빈(*Sermons on 2 Samuel*, trans. Douglas Kell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2] 500)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해야만 했었는지에 대해 생생한 묘사를 한다.

언급된다. (우리아의 죽음은 삼하 11:26 에도 언급된다.) 아, 국립묘지에서 장례식이 있을 예정이고, 우리아의 뛰어난 군사 기록을 찬양하고 반암몬 정서를 부채질하는 보도 자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아는 죽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이다.

이렇게 다윗은 굴하지 않고 계속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삼하 11:6-25 전체는 두 가지 사실, 즉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과 헛 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획책했고 그 모든 것을 준비했었다.⁹

우리는 대개 그러한 “준비들”에 놀라지 않는다. 1944 년 10 월의 그날 야전 원수 에르빈 롬멜은 “베를린에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롬멜은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프리카에서의 그의 복무로 인해 그는 독약을 마시는 더 부드럽고 친절할 선택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가 제거된 후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식으로 독배를 마시고 죽으면 그들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는 두 명의 장군과 함께 차를 몰고 가서 독약을 마시기만 하면 되었고, 15 분 안에 그의 아내는 지역 병원에서 남편이 뇌색전증(腦塞栓症)으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을 것이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장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히틀러는 롬멜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겪은 큰 손실에 대해 표시하는 나의 가장 신실한 위로를 받아줄” 것을 부탁했다. 나치 공군의 총사령관인 헤르만 괴링도 그 행위에 동참하여 “당신의 남편이 부상으로 인해 영웅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라고¹⁰ 롬멜 부인을 확신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미리 짜여 있었다.

우리는 나치 독일에서 그러한 억압과 사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다른 백 개의 정권에서도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고, 이것은 다윗, 곧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왕이다(삼하 7 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 백성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다. 여기에 불법을 행하는 다윗의 가상적 후손이 아니라(삼하 7:14b) 압제와 무정함으로 다스리는 그 언약 왕 자신이 있다. 여기 므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두지만 우리아를 무덤에 둔 사람이 있다. 깡패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⁹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압이 다윗의 계획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다. 요압이 우리아를 싸움에 앞세우고 그가 혼자 있도록 다른 용사들을 물러나게 했다면(참조, 삼하 11:15b) 너무나 명백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아 외에도 몇 사람이 더 죽도록 했다면(삼하 11:17, 24) 누가 더 현명했겠는가? 그러나 내레이터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¹⁰ William L. Shi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Greenwich, CT: Fawcett, 1960), 1400-1401.

것이다. 그 나라는 다윗의 손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다스리실 때에만 안전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공의로운 정권을 공개적으로 시행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되는 곳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여기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많은 부분이 그들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혹함과 혹독함으로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위로하기보다는 짓밟고,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후원하기보다는 질식시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iii. 최종 결과 (삼하 11:26-27 The Bottom Line)

우는 일만 제외하고 다 끝난 것 같다. 밋세바(하지만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라, 삼하 11:26a)는 군대로부터 통보와 애도의 편지를 받고 일반적인 애곡 의식에 들어간다(삼하 11:26b). 우리는 그녀의 슬픔이 형식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살을 에는 듯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저자는 그녀가 **정말로**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전혀 암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애도 기간은 항상 끝나기 마련이다. 적어도 공식적 애도 기간은 그렇다. 밋세바의 애곡 기간이 끝난 후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았다. 그녀는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9 개월이 지났다. 그게 전부이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최종 결론이 주어진다. “다윗이 행한 일은 여호와와 의에 악했다(삼하 11:27b).” 나의 직역은 의도적이다. 만약 우리가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는 메시지(삼하 11:25)도 역시 직역하면, 두 구절의 대조는 분명해진다. 다윗은 요압을 이렇게 달랜다. “요압아, 이 일이 네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해라.”¹¹ “이 전투에서 역전은 확실히 한탄할 일이지만, 요압아, 너는 그것을 골똘히

¹¹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삼하 11:25 그리고/혹은 삼하 11:27b를 보다 더 관용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히브리어 본문이 보여주려는 것을 모호하게 만든다.

[역자 주]

YLT: 25 Let not this thing be **evil in thine eyes**; 27 and the thing which David hath done is **evil in the eyes of Jehovah**.

NASB: Do not let this thing *displease* you, 27 But the thing that David had done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ESV: 25 Do not let this matter *displease* you; 27 But the thing that David had done *displeased* the LORD.

NIV: 25 Don't let this *upset* you; 27 But the thing David had done *displeased* the LORD.

개역개정: 25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27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더욱 힘써 싸워야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 . . 여호와의 눈에 악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 결론이다.

이 “최종 결론”의 힘은 그것이 말 그대로 사무엘하 11 장의 맨 아랫줄, 곧 마지막 줄이라는 사실에 있다. 저자는 욕망과 섹스, 속임수와 살인에 대한 그의 모든 추잡한 이야기를 해 오는 동안 잠시 쉬며 미미한 도덕적 언급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그 이야기의 모든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도 관여하지 않으신 것처럼 묘사한다. (위에서 말한 대로) 다윗이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침묵은 삼하 11:27b 에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강조하는 데 이바지할 뿐이다. 마치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부딪힐 때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땀샘을 터뜨리고 자신의 은폐를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셨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쓰여진 방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시 11:4b).” 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 장에 여전히 신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많은 불의와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11 장의 악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방해받지 않고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이르러서야 우리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듣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불의를 미워하신다면, 왜 그분은 여기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만약 그가 억압을 싫어하신다면, 왜 그분은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는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서 말했던 조문객들의 말(요 11:37)을 가로채서 말한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으셨단 말인가?

사무엘하 11 장의 이야기는 이러한 신비를 풀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명확한 점을 주장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침묵하고 계실 수 있지만 보지 않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은 밋세바의 살과 우리아의 피를 취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호와의 눈을 마주해야만 할 것이다.

새번역: 25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27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우리말성경: 25 이 일로 괴로워할 것 없다 27 그러나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삼하 11:1-2 을 통해 저자는 다윗이 유혹을 받았을 때 다소 방종한 마음 가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암시하고 있는가?
2.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유혹을 이기는 큰 힘이 있다는 중요한 진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연약하다는 동반 진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3. 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권력을 남용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있는가?
4. 다윗의 행위는 여호와의 눈에 악했다. 여러분은 가끔 그분의 눈이 만물을 얼마나 잘 꿰뚫어 보는지를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5. 오늘날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간음 자체를 덜 심각하게 만드는가?

14.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 (삼하 12 장 Grace Greater Than All Our Sin)

사무엘하 11 장에서는 다윗이 통제하고 있다. 그가 주동자이고, 그가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 다윗은 왕궁 옥상(삼하 11:2)에서 행동을 완전히 지배한다. 그것은 여호와와 그의 공의의 단호한 기준에 부딪힐 때(삼하 11:27b)까지 계속된다. 예상된 대로,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이 12 장을 지배한다. 우리는 다윗에 대한 보복, 처벌, 심판을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하 12 장에서 심판을 넘어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갖는다. 나는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하며, 은혜라는 주제 아래 사무엘하 12 장의 가르침을 전개할 것이다. 은혜란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한다.

I. 은혜의 추격 (삼하 12:1a The Pursuit of Grace)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맞게 되었을 것이다. 사무엘하 12 장의 첫 번째 줄은 여호와께서 수동적인 방관자라는 생각을 불식시켜 준다. “보내다”는 뜻의 [살라흐]란 동사가 그 신호이다. 이 동사는 사무엘하 11 장에서 12 번(1, 3, 4, 5, 6[3 회], 12, 14, 18, 22, 27 절) 나온다. 사무엘하 11 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낸다. 다윗이 보내고, 밋세바가 보내고, 요압이 보낸다. 그러나 사무엘하 12 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보내신다(12:1a). 그분이 행동에 들어가신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고 그래서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빨리 달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무엘하 12 장을 시작하는 말에 좀 더 미적거리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은혜의 감시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죄인을 추격하고 그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종이 죄 가운데 편안하게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가차없이 폭로하시어 그가 죄 가운데 자리잡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은 신실하지 못하면서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뒤쫓아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종은 사무엘하 12 장의 처음 여섯 단어에서 얼마나 크고 참된 위로를 얻는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추격하는 은혜가 즐겁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혜가 추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죄를 짓고 성공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II. 은혜의 요령 (삼하 12:1b-7a The Savvy of Grace)

나단은 다윗에게 한 실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다윗은 이 나라의 최고 재판장이고, 이 이야기는

그의 사법적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다윗은 이것을 나단이 풍문으로 듣고 일반적인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실제 사례로 여겼던 것처럼 보인다. 잘은 몰라도 말이다. 이 이야기는 흔히 비유라고 불린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알 수 없다. 나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윗이여,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일 뿐입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았다. 나단은 매우 똑똑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말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두 사람이 등장하고(삼하 12:1b) 두 사람에 대한 묘사(삼하 12:2-3)에 이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행위(삼하 12:4)가 진술된다. 진술이 흥미롭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부자는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데는 네 배의 지면이 필요하다(삼하 12:3). 가난한 사람은 양 떼나 소 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식들이 있고, 가정 생활의 따스함이 있다.¹ 하지만 그 부자에게는 손님이 있다(삼하 12:4). 손님들은 대접하도록 되어 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 중 어느 하나라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싫어한다. 그 부자가 가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슬쩍 훔친 것은 바로 그 가난한 남자와 그의 자식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였을 것이다. 왕이 밧세바를 “취했듯이(삼하 11:4)” 그 부자는 그것을 “취했다(삼하 12:4b).” 그리고 그는 자기 손님을 위해 그것을 잡았다.

다윗은 대노했다. 그는 종교적으로 매우 진지하여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했고 사법적으로 아주 엄중하여 그 범인이 “사망의 아들” 곧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했다(삼하 12:5b). 이어서 지불해야 할 배상도 선언하며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삼하 12:6a; 참고, 출 22:1). 그러나 재판장인 왕은 여기서 재산에 대한 단순한 범죄 이상의 것을 보았다. 행위 이면에는 무정하고 잔인한 태도가 있었다(삼하 12:6b). 나단은 자기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곳에 다윗이 있도록 만들었다.

나단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1-12 장 전체 이야기의 전환점이다. 본문의 일반적인 구조도 이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윗이 요압을 보내 암몬을 치게 함, 삼하 11:1

밧세바와의 간음 – 임신, 삼하 11:2-5

우리아를 조종하려고 함, 삼하 11:6-13

다윗의 성공적인 계획, 삼하 11:14-27

¹ 또한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279도 보라.

드러내는 이야기, 삼하 12:1-7a

여호와와 다윗의 만남, 삼하 12:7b-15a

하나님께 굴복함, 삼하 12:15b-23

밧세바와의 결혼 – 출생, 삼하 12:24-25

요압이 다윗을 불러 암몬을 점령하게 함, 삼하 12:26-31

어떤 이들은 삼하 11:27b 가 두 장의 중앙에 서도록 구조를 짜기도 하지만,² 나는 내가 여기서 제시한 구조도 옹호할 만한 관철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단의 이야기는 내러티브의 경첩이거나 경첩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나단의 이야기보다는 그의 전략에 관심을 둔다. 왜냐하면 그의 전략은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의미심장한 것을 말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지적은 서론이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결정적인 말이다. 그것은 일부 독자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 그들은 세레 요한과 같은 접근 방법을 선호할지 모른다(참고, 막 6:18). 그러나 나단은 마음과 입이 정면 공격에 맞서 얼마나 든든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다윗을 불결한 바람둥이이자 잔인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대신, “왕께 한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했다. 이렇게 그는 왕을 끌어들이고 다윗이 스스로를 판결하게 했다(삼하 12:5-6). 나단이 선지자라고 해서 그가 예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단 이상이다. 나단의 전략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의 독창성이다. 그의 기교는 은혜의 경건한 계략으로서 우리의 저항의 끝을 돌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움에 투광 조명을 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 일부는 회개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은 뱀만이 간교하다(창

² Ronald F. Youngblood, “1,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927을 참고하라.

[역자 주] 영블러드가 제시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다윗이 요압을 보내 랍바를 포위하도록 함, 삼하 11:1

B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함, 삼하 11:2-5

C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함, 삼하 11:6-17

D 요압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냄, 삼하 11:18-27a

E 여호와께서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심, 삼하 11:27b

D'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심, 삼하 12:1-14

C' 여호와께서 다윗이 낳은 아이를 치시고 죽게 하심, 삼하 12:15-23

B'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함, 삼하 12:24-25

A' 요압이 다윗을 불러 랍바를 포위하고 점령하게 함, 삼하 12:26-31

3:1)고 생각해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에 비윤리적인 것은 없다고 장담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은혜의 경건한 계략”이라고 불렀다. 나는 한 농업 잡지에서 토양 보존법에 대한 논쟁에 관해 말해주는 한 기사를 기억한다. 때는 1934 년이었고 베넷 상원의원은 그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한때 그 상원 의원이 청문회를 하루 늦췄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는 오하이오 계곡을 따라 동부 해안과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는 남부 평원의 황사를 추적하고 있었다. 다음날 청문회가 재개되고 황사가 찾아오자, 베넷 상원 의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잠시 비공식 시간을 주며 호화로운 마호가니 테이블에서 물러나 상원 청사 건물의 창문으로 걸어가 워싱턴의 한낮 황혼을 보라고 했다! 베넷은 “여러분, 이것은 바람에 날려 사라져가는 캔자스입니다.”라고 말했다. 상원 의원은 그 후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지적했다. 상원 의원이 청문회를 하루 연기하는 것에 비윤리적인 것은 없었다. 단지 현명했을 뿐이다.

그것이 나단이 다윗을 대했던 방식이다. 그는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무자비한 부자 녀석으로 인해 다윗의 혈압이 올라가게 했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꼴이 되었다. 나단은 신원 확인만 하면 되었다(삼하 12:7a). 알렉산더 화이트가 한 말은 옳다. 나단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전에 나단의 칼은 다윗의 양심을 곧 찌를 태세였다.³ 그것은 은혜의 거룩한 영리함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거부할 기회가 있겠는가? 은혜는 놀라운 것을 훨씬 더 넘어선다. 그것은 똑똑하다.

III. 은혜의 분노 (삼하 12:7b-12 The Fury of Grace)

다윗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린 셈이었고(삼하 12:5-6) 이제 나단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선언한다(삼하 12:7-12). 이 절들은 전체 내러티브에서 매우 중요하다. 독자는 삼하 12:10-12 이 사무엘하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나단이 전한 심판의 신탁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은혜, 삼하 12:7-8

고소, 삼하 12:9

보응, 삼하 12:10-12

여호와께서는 은혜로 시작하신다. 죄가 제대로 섬뜩하게 드러나게 하려면 그것은 은혜의 불길

³ Alexander Whyte, *Bible Characters*, 2 vols in one edition (reprint, Grand Rapids: Zondervan, 1967), 1:245.

안에 있어야 한다. 배신은 그것이 경멸했던 충성에 비추어 볼 때만 끔찍하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열거하신다(삼하 12:7-8).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네 주인의 집을 주었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안겨주었고),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⁴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죄의 무분별함을 강조하신다. 다윗은 궁핍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은택들로 그를 가득 채우셨다. 다윗은 정말로 그 “부자”였다. 그가 한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필요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라고 하시며 분노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삼하 12:9 은 흥미로운 강조를 보이며 왕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히브리어 본문은 직접 목적어들을 동사들 앞에 놓음으로써 그것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헛 사람 우리아를 너는 칼로 쳐죽였다.
그의 아내를 너는 네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를** 너는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삼하 12:9b).

이런 식으로 본문은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파멸시켰음을 강조한다. 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사람들을 망쳤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삼하 12:10-12 은 심판을 선언한다. 첫째로, 우리아를 친 칼로 인해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삼하 12:10a).” 둘째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취하여 네 이웃에게 주실 것이다(삼하 12:11).” 그 이웃의 [다윗의 아내들과의] 동침은 다윗이 은밀히 행한 것과 달리 백주에 일어나 공개될 것이다(삼하 12:12). 이 “다윗 집의 환난”은 사무엘하 13-20 장의 주요 주제이다.

⁴ 여기 볼드체 “**내가**”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자립대명사 [아노히]가 강조를 위해 두 번 나오는 것을 나타낸다. 나는 “네 주인의 아내들”을 주는 것을 관습적인 표현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전임자의 하렘에 대한 지배권이 새 왕에게 넘어온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사울의 아내들은 그의 “집”의 일부로 간주되었다(삼하 12:8a).

나는 이 부분을 “은혜의 분노”라고 불렀다. 그러나 다윗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관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 그 관점은 삼하 12:9-10 에서 “멸시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는 뜻의 동사 [바자]가 두 번 사용된 것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바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삼하 12:9)?” 다윗은 간음과 살인으로 여호와의 계명들, 곧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대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짓밟는 것은 그 명령자를 짓밟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삼하 12:10 에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바자].”라고 외치신다.

프란츠 조세프 하이든은 그의 기질과 그의 음악에서 쾌활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아내 때문이 아니었다. 패트릭 캐버노는 우리에게 “하이든의 새 신부는 천재적인 작곡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 그의 원고를 잘라서 머리를 마는 용지로 사용했다.”라고 말한다.⁵ 그녀는 그의 음악에 대한 경멸만을 표현하고 있었는가?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의 음악에 대한 그녀의 경멸은 **그**에 대한 경멸의 가시적인 표시일 뿐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항상 그것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다윗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진정한 의미를 보신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적어도 지적으로 은혜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나단이 말한 부자에 대해 노발대발할 도덕적 능력이 필멸의 죄인에 불과한 다윗에게 있다면(삼하 12:5-6), 하물며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더 격노하실 것인가? 그분은 그러셔야 한다.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종이 자신을 업신여겼으므로 노발대발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일부이다. 가끔 우리는 은혜의 발톱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은혜는 마냥 좋음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우리는 **“내 마음으로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주었던** 것은 바로 은혜였다.”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잊어버린다. 은혜는 호의일 뿐만 아니라 호의에 앞서는 분노이기도 하다.

IV. 은혜의 기적 (삼하 12:13-14 The Miracle of Grace)

율법은 우리에게 다윗이 받아 마땅한 것이 죽음임을 말해준다(참고, 레 20:10; 신 22:22).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다윗이 받은 것, 즉 용서와 사형 선고의 면제를 보여준다(삼하 12:13b). 이 시점에서 독자들은 다윗이 쉽게 풀려났다고 지껄이며 냉소적일 수 있다. 자신을 정죄하고 싶지

⁵ Patrick Kavanaugh, *The Spiritual Lives of Great Composers* (Nashville: Sparrow, 1992), 21.

않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첫째로, 다윗의 **고백**에 주목하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삼하 12:13a, [하타티 라도나이]).” 어떤 이들은 이 고백이 너무 짧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결국 다윗은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만 말했는데 나단은 그에게 사죄의 확신을 준다. 다윗이 너무 쉽게 가는 것은 아닌가? 그가 올바른 공식을 말하는 것만 기대되는가? 우리는 그가 죄책감에 빠져서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 간청하고 빌며 고민하기를 선호한다. 우리는 그가 명백한 불행 속에서 몸부림쳤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회개의 강도가 속죄에 기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단순함이 다윗의 고백의 특징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베를레부르크 성경(Berleburg Bible, 1726-29)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말한다.

눅 18:13 의 세리의 고백([호 세오스, 힐라스세티 모이, 토 하마르톨로]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처럼 이 고백은 매우 짧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상한 심령에 대한 좋은 징조이다. ... 변명도 없고 은폐도 없고 죄의 완화도 없다. 허점을 찾는 일도 없고, ... 핑계를 내세우지도 않고 인간의 약점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얼버무리지 않고 인정한다.⁶

여기 다윗이 사무엘상의 사울(삼상 15 장 참조)과 어떻게 다른지 잠시 관찰해보자. 이 본문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말씀의 비판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점에서 다윗은 사울과 대조를 이룬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에 민감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죄 없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⁷

둘째로, 다윗이 받은 사죄의 **확신**을 고려해보라.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삼하 12:13b).”⁸ 이 진술에는 이유가 없다. 그것은 법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용서는 전적으로 무료였다. 나는 교회마저 그런 용서에 대한 경이로움을 잃어버렸다고

⁶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391에서 재인용.

⁷ “그분(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것에 대해서는 V. Philips Long, *The Reign and Rejection of King Saul: A Case for Literary and Theological Coherence*, SBL Dissertation Series 118 (Atlanta: Scholars, 1989), 92-93을 참고하라.

⁸ 여기 히브리어 본문에 대해서는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1,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87을 참고하라.

생각한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용서에 대하여 기적의 관점보다는 재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참회 토큰을 넣으면 사죄의 확신이 튀어나온다. 공적 예배에서 우리는 고백의 기도들을 통해 중얼거리며 “우리가 했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은 했음”을 인정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비참한 범죄자”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교회 주보에 나와있는 대본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격동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사형 집행 전날 밤 아가일(Argyll) 후작은 하나님께서 “방금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고 그 말을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리고 창가로 물러나 거기서 울었다.⁹ 우리는 아가일 후작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영혼에 소름이 돋는 것을 잃었다. “반역/(고)범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미 7:18)을¹⁰ 모신다는 것이 우리로 기뻐하며 떨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 은혜의 기적에서 다윗의 **대속물**에 유의하라. “However, because you have totally scorned (*the enemies of*) Yahweh in this matter, that son that is born to you will surely die. 그러나 당신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원수들)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태어날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삼하 12:14).”¹¹ 여호와께서는 죄의 죄책을 용서하지만 죄의 결과를

⁹ Thomas McCrie, *The Story of the Scottish Church from the Reformation to the Disruption* (1875; reprint ed., Glasgow: Free Presbyterian, 1988), 257.

¹⁰ [역자 주] 미 7:18 에 나오는 [아본](개역개정: ‘죄악’)과 [페샤](개역개정: ‘허물’)는 [헤트/하타아]와 함께 죄를 언급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레 16:21-22; 사 53:5, 6, 8, 12). *ABD* 6:32 과 *TWOT* 1:277-278 에 따르면, [헤트]의 어근 [하타]는 구약에서 595 번 사용되었고 “to miss, to fall short of the standard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다, 표준에 미달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아본]의 어근 [아바]는 229 번 정도 사용되었고 “to deviate from the standard, to twist the standard 표준에서 벗어나다, 표준을 왜곡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페샤]의 어근 [파샤]는 135 번 정도 사용되었고 “to revolt against the standard, to rebel 표준을 거역하다, 의도적으로 어기다, 반역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모티어(*Isaiah*, 433)는 [헤트]를 실패로서 죄(sin as failure), [아본]을 윤리적 결함으로서 죄(sin as moral defect), [페샤]를 고의적 범죄(sin as willfulness)로서 죄라고 구별했다. 이사야 53 장에서 ESV 는 [헤트]를 sin, [아본]을 iniquity, [페샤]를 transgression 으로 번역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페샤]를 “잘못 저지는 실수”라는 뜻의 “허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페샤]가 “반역,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를 나타내는 것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공동번역은 사 53:5, 8 에서 [페샤]를 “반역죄”로 번역하여 [페샤]의 뉘앙스를 잘 드러내고 있다.

¹¹ 나의 번역에서 “—의 원수들”을 괄호 안에 넣은 것은 본문에서 이 어구가 관용적 표현 가운데 나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괄호 안에 “—의 원수들”을 집어넣은 것은 “여호와의 원수들”을 모욕한 것으로 읽지 말고 바로 “여호와”를 모욕한 것으로 읽도록 함으로써 저자가 의도한 의미가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원수들을 모욕하는 것은 관용적으로 여호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하 12:14에 나오는 표현은 (“여호와”를 목적어로 하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사용된

감당하도록 하신다. 그분은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지만 죄로 인한 징계를 계속 하실 수 있다.¹²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와 용서는 놀랍고 값비싼 것이었다. 아이는 죽을 것이다. 마치 아이가 다윗 대신에 죽는 것처럼 말이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윗 자신은 나단이 말한 부자를 “죽어 마땅한 자(삼하 12:5)”로 판결했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삼하 12:13). 그러나 한 죽음이 일어날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죽을 것이다(삼하 12:14b). 그것은 마치 그 아이가 다윗의 대속물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신약 성경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되돌려 집어넣을 생각이 없다. 다만 나는 독자들이 여기의 패턴을 주목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대속물이

완곡어법이다. 이와 병행되는 애굽 문헌을 위해 K. A. Kitchen, “Israel Seen from Egypt: Understanding the Biblical Text from Visuals and Methodology,” *Tyndale Bulletin* 42:1(1991): 116을 보라. 일반적으로 구약은 삼하 12:14의 완곡어법 대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민 14:11, 23; 16:30; 신 31:20; 사 1:4에서 “모욕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는 뜻의 동사 [나아츠]가 여호와나 여호와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직접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보라.

[역자 주]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은 완곡어법을 바로 이해하고 “여호와”를 목적으로 삼은 번역(예: ESV; 공동번역)과 “원수들”을 사용하여 의역한 번역(예: NASB; 개역개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ESV: Nevertheless, because by this deed you have utterly scorned the LORD, the child who is born to you shall die.” (공동번역: “그러나 임금님께서 **아훼를 알아보셨으니**, 우리야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현대어성경: “그러나 임금님께서 간음과 살인죄로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밋세바가 낳은 임금님의 아들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NASB: “However, because by this deed you have given occasion to the enemies of the LORD to blaspheme, the child also that is born to you shall surely die.”; 개역개정: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cf. KJV; YLT; 새번역;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사역: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당신이 **여호와**(직역: 여호와와 원수들)를 정말로 모욕하였기[니에츠 니아츠타(부정사 자립형+정형동사)] 때문에 당신에게 태어난 그 아들 또한 반드시 죽을[모트 야무트(부정사 자립형+정형동사)] 것입니다.

¹² 참고, Walther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he Old Testament Library,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7], 2:455): “하나님의 용서의 실체가 모든 상황에서 지상의 축복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시 받아들여 호의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이것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의 지상 운명의 변화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그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 자체로도 값지고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형벌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형벌과 함께 나란히 가는 용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것은 야곱의 운명이나 우리아에게 저지른 그의 범죄로 인한 다윗의 고난에 대한 묘사에서 잘 볼 수 있다.”

되셨기에 무료이면서 값비싼 용서라는 역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v. 은혜의 감각 (삼하 12:15b-25 The Sense of Grace)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셨고 그 아이는 중병에 걸렸다(삼하 12:15b). 그러나 은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호의보다는 하나님의 치심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은혜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인 다윗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이 주요 관심사를 고수하고 싶다. 그렇지만 독자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가의 문학적 기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음 개요는 이야기의 내용과 저자의 기교를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치신 아들, 삼하 12:15b

다윗의 비하, 삼하 12:16

신하들의 난처함, 삼하 12:17-18

다윗의 질문, 삼하 12:19

다윗의 "회복", 삼하 12:20

신하들의 난처함, 삼하 12:21

다윗의 대답, 삼하 12:22-23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아들, 삼하 12:24-25

이 부분에서 다윗의 행동은 그의 신하들을 두렵게 하고 당황하게 한다. 다윗은 간구에 투신한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다윗은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삼하 12:16)." 그는 식사를 권하는 신하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의 강렬함은 그들을 겁나게 한다. 아이가 죽었을 때 그들은 차마 그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윗이 자살이라도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결코 멍청하지 않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한다. 그의 직접적인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이끌어낸다(삼하 12:19).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면도 후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성막으로 가서 경배한다. 그리고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 요리사들에게 그가 얼마나 배고픈지 말한다(삼하 12:20). 그의 신하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이해해 보려고 애쓴다. 그 아이가 죽었는데, 왜 그는 금식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것일까? 왜 그렇게 파격적일까? 기타 등등.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삼하 12:22-23)¹³

그것은 다윗의 끈질긴 중보 기도를 설명한다. 다윗은 아마도 여호와와 선고(삼하 12:14b)가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마도 다윗은 그분이 나에게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생각과 가정에 달려 있다.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행여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까 해서였다!”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여호와의 장점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무슨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실지 누가 알겠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기를 원하시는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다윗에게 은혜는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독특한 성향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궁정에 있던 늘 가난한 철학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다시 심각한 재정적 궁핍에 빠졌을 때 그는 곧장 그의 주군이고 세계의 정복자인 알렉산더에게 갔다.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었겠는가? 알렉산더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재무 관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는 즉시 알렉산더의 이름으로 만 파운드를 요구했다. 재무 담당자는 망연자실하며 그것을 주기를 거부했다. 그 담당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알렉산더에게 가서, 그 요청이 불합리하고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재무 관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 돈이 즉시 지불되게 하라. 나는 이 철학자의 사고방식에 매우 만족한다. 그는 나에게 특별한 명예를 주었다. 그가 요청한 규모를 통해 나의 뛰어난 부와 나의 왕실의 부유함에 대해 그가 품었던 높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¹⁴

이 경우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여호와께서도 알렉산더처럼 “이 왕(=다윗)의 사고 방식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짐작해본다. 알다시피, 다윗이 은혜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그를 사로잡았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모든 타락한 신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를 자각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만 여러분 자신 안에 자비를 기대할 근거도 없고 은혜를 기대할 이유도 없다. 여러분은

¹³ 나는 우리가 삼하 12:23b을 빛나는 소망의 표현으로 역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윗이 “내가 그에게로 가려니와”라고 한 것은 자기도 역시 죽을 것, 곧 그의 갓난 아들이 간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임을 의미한다. 나는 다윗에게 죽음 너머의 소망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시 16:8-11; 17:15). 다만 나는 **이 본문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설명(*Sermons on 2 Samuel*, trans. Douglas Kell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2], 592-93)을 보라.

¹⁴ John Whitecross, *The Shorter Catechism Illustrated from Christian Biography and History* (rpt. ed., London: Banner of Truth, 1968), 170-71.

남은 날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범위 안에 존재할 운명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은혜의 교리 그 이상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은혜의 **감각**이 있다면, 여기 다윗처럼 여러분이 여호와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소망의 빛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 단락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죄책을 면제받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절망을 넘어서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VI. 미주 (삼하 12:26-31 Endnote)

우리는 암몬 족속을 거의 잊고 있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요압이 암몬을 공격했다는 기록으로 시작되었다(삼하 11:1). 이제 저자는 요압이 항복 직전까지 물고 갔던 랍바로 돌아간다(삼하 12:26-27).¹⁵ 적절한 관례는 왕이 결정타를 날릴 것을 요구한다(삼하 12:29-30). 다윗은 암몬을 점령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삼하 12:31).¹⁶

그러나 삼하 11:2-12:25 을 모두 읽은 후 암몬 사람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독자들에게 절정을 반감시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아마도 그것은 의도된 것일 것이다. 저자는 전체 이야기의 죄악과 수치심과 심각성을 다 설명한 후에, 아마도 여러분이 암몬 사람들에 대하여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것이 비교적 중요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기쁨 부음을 받은 종의 순종과 거룩이다. 암몬과의 싸움은 이겼지만, 진짜 싸움은 졌다. 그것은 로버트 머레이 맥케인이 목사로서 자기 역할에 대해 성찰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나의 회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거룩이다.”

다윗의 끔찍한 실패는 우리 저자에게 중요하다. 사무엘상하 전반에 걸쳐 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엘리압과 아브넬과 같은 지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엘리와 아들들, 사무엘, 사울을 소개한다. 그들 모두는 어떤 면에서 결함이 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울은 심히 그렇다. 사무엘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다(참조, 삼상 8:1-2, 5; 16:6-7).¹⁷ 그리고 이제 언약의 왕 다윗의 차례이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왕이라고 해서 그가 어떤 공로로 왕국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직 은혜로만 왕국을 유지한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 마땅한

¹⁵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Joyce Baldwin, *1 & 2 Samu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8), 245을 보라.

¹⁶ 삼하 12:31은 어렵다. NIV의 번역이 원문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거기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곡괭이질)과 (철)도끼질을 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했다.” 톱질과 썰레질(곡괭이질)과 (철)도끼질은 랍바의 요새들을 파괴하는 임무에 할당되었을 수 있다. 더 자세한 것은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311, 313을 보라.

¹⁷ 후자의 단락에 대해서는 나의 책 *Looking on the Heart: Expositions of the Book of 1 Samuel*, 2 vols. (Grand Rapids: Baker, 1994), 2:27-30에 나오는 논평을 참고하라.

자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상하에서 모든 인간 지도자에게는 결함이 있다. 이것은 왕국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왕국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무엘상하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메시아 왕을 기다리게 한다.

V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프란시스 톰슨은 죄인을 뒤쫓으시는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라고 불렀다. 그분이 여러분을 따라잡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와 대면하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는가? 여러분은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2.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정죄했다. 여러분은 그가 나중에 그것에 대해 후회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감사했다고 생각하는가?
3.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독창성을 느꼈던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4. “은혜는 호의일 뿐만 아니라 호의에 앞서는 분노이기도 하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일들에서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분께 찬양을 드려라.
5. 하인리히 하이네는 임종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보는가?

15. 모든 가족 (삼하 13 장 All in the Family)

그녀는 왕의 전갈을 받자마자 길을 나섰다. 그녀의 이복 오라버니 암논이 아파서 누워있으므로 그녀는 요리사와 간호사 역할을 하러 가야 했다. 그녀는 미인이자 왕의 딸이었지만 일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분주하게 일했다. 그녀는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구웠다(삼하 13:8b).” 그런 다음 그녀가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 놓았다. 그렇지만 그는 먹기를 거절했다(삼하 13:9b).” 너무 아파 먹지 못하는 것인가? 너무 약해 혼자 먹을 수 없는가? 어쨌든 암논은 시종들을 모두 내보냈다. 그는 그녀가 자기를 먹여 주길 원했다. 문제될 것 없었다. 그녀는 음식을 들고 그의 침실로 갔고 음식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암논은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테러는 1-2 초 정도 걸린다. 10 분 후에 다말의 삶 전체가 너덜너덜해진다.

사무엘하 13 장은 정욕과 강간, 증오와 살인 등 엉망진창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뛰어든 것이다. 사무엘하 13 장의 가르침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본문의 문학적 측면들을 다룰 것이다. 주된 질문은 이것이다. 사무엘하 13 장의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세 가지 주된 강조점이 있다고 제안한다.

I. 우리가 혐오해야 하는 변태 (삼하 13:1-22 The Perversion We ought to Abhor)

사무엘하 13 장의 전반부는 문학 평론가들로부터 세심한 주의를 받아왔다. 그들은 그것이 매우 주의 깊게 짜인 이야기로서 암논의 상상할 수 없는 행동 그리고 정욕에서 혐오로의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내러티브의 핵심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지 리다웃은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¹

- A.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다(삼하 13:1-4)
- B. 다말이 암논의 집에 와서 그를 위해 빵을 굽다(삼하 13:5-9a)
- C. 암논이 다말과 단둘이 있기 위해 종들을 내보내다(삼하 13:9b-10)
- D. 암논이 다말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다;
그녀는 항변하지만 소용이 없다(삼하 13:11-14a)
- E.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다;

¹ George Ridout, 'The Rape of Tamar: A Rhetorical Analysis of 2 Sam 13:1-22,' in *Rhetorical Criticism: Essays in Honor of James Muilenburg*, ed. Jared J. Jackson and Martin Kessler (Pittsburgh: Pickwick, 1974), 81. 또 다른 참고 문헌으로 Charles Conroy, *Absalom Absalom!: Narrative and Language in 2 Sam 13-20*, *Analecta Biblica*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17-42 그리고 Jenny Smith, "The Discourse Structure of the Rape of Tamar (2 Sam. 13:1-22)," *Vox Evangelica* 20 (1990): 21-42도 보라.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증오로 바뀐다(삼하 13:14b-15a)

D¹. 암논이 다말에게 나가라고 명하다;

그녀는 항변하지만 소용이 없다(삼하 13:15b-16)

C¹. 암논이 종을 불러 다말을 내쫓고 문을 잠그라고 명하다(삼하 13:17)

B¹. 다말이 암논의 집을 떠나며 그녀의 운명을 한탄하다(삼하 13:18-19)

A¹. 압살롬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증오하다(삼하 13:20-22)

그러나 지금 나는 암논보다 다말에 집중하고 싶다. 독자들은 특히 그녀의 두 번의 필사적인 항변을 들을 때 동정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것이다(삼하 13:12-13, 16; 리다웃의 구조에서 D와 D¹ 참조).

이야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녀가 함정에 빠지고(삼하 13:5-11), 무시되고(삼하 13:14a, 16b), 강간당하고(삼하 13:14b), 멸시받고(삼하 13:15), 추방되고(삼하 13:17), 파멸되는(삼하 13:18-19, 20b) 것을 본다. 우리는 암논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한다. 즉 우리는 다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저자의 관점은 다말의 항변들을 통해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암논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려면, 우리는 다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암논이 그녀를 짊어붙이고 동침 요구에 순응할 것을 권할 때, 다말은 불쑥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하 13:12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 오빠. 제발 나를 욕보이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일이 행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발 이런 괴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세요.

삼하 13:13

나로 말하면, 나의 수치를 지니고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당신(오빠)으로 말하면, 당신(오빠)은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들의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그분이 나를 당신(오빠)에게 주는 걸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암논은 동침을 요구할 때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안 되요, 내 오빠!”라는 말로 그 요구를 거절했다. (삼하 13:1 에 이미 언급된) 이 관계가 문제였다. 강간만으로도 충분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강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근친상간으로 언약의 율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레 18:9, 11; 20:17; 신 27:22).² 그래서 다말은 그것을 [느발라](“괴악한

²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하 13장이 근친상간이 아니라 강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이 다윗 시대보다 늦은 연대의 것으로 보며(내 생각에는 잘못된 입장임) 다윗 시대

일”)라고 부르며, 암논이 이것을 행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괴악한 자들[느발림, 복수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히브리어 [나발](단수형)은 영어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fool(바보)로 번역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바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변태자 혹은 “불경건한 망나니”를 나타낸다(사 32:6 에 나오는 [나발]에 대한 묘사를 참고하라). [나발]은 [느발라], 곧 노골적인 불경건한 짓을 저지를 것이다. [느발라]란 용어는 한 번의 강간(창 34:7), 반복된 강간(삿 20:5-6), 혼전의 부정(신 22:21), 동성애 관계(삿 19:23-24) 같은 성범죄를 가리킬 수 있다.³

다말은 그 행위를 올바른 이름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로 그들 두 사람에게 미칠 결과를 고려해보라고 암논에게 항변했다(삼하 13:13a). 확실히 그녀의 입장이 옳았다. 그러나 힘이 더 센 그는 억지로 “그녀와 동침했다(삼하 13:14)”. 동침하고 나서 그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를 사용해 “[쿠미 레히] 일어나 가라(삼하 13:15).”고 말했다. 다말은 항의했다. 지금 이렇게 그녀를 쫓아보내는 것은 아까 그녀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악이라고 말이다(삼하 13:16). 그러나 암논은 귀도 마음도 없다. 그는 시종을 불러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라”고 명령한다(삼하 13:17).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 본문에는 “계집”이란 단어가 없다. 그는 다말이 마치 차도 가에 던져버릴 쓰레기인 것처럼 “이것을 내 던지라”고 말한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삼하 13:19).”⁴ 그녀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그는(=암논이)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다(삼하 13:20a). 이것이 도움이 못 되는 위안임에 틀림없는 것은 그가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위기-민수기 자료의 고대성에 대해서는 Jacob Milgrom, *Leviticus 1-16*,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1), 3-13을 참고하라. 어떤 사람들은 암논의 행위가 근친상간이라면 다말이 암논에게 자기와의 결혼에 대한 왕의 허락을 받으라고 항변하는 것(삼하 13:13b)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다말은 암논의 강간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녀는 위급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움켜쥐려고 하고 있고, 그녀가 법적 정확성의 패러다임으로 말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었다. 둘째로, 그녀는 다윗이 그의 자녀들에게 자유방임적인 것을 알았던 것 같다. 이것은 여러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삼하 13:5-7, 24-27; 왕상 1:6). 회유된다면 그는 금지된 관계에 대해서도 허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³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322-23에 나오는 논의를 보라. 암논의 범죄가 근친상간적 강간이고 레위기 18장의 율법들이 이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다는 그의 주장(323-24쪽)도 참고하라.

⁴ 옷을 찢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Shimon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JSOT Supplement Series (Sheffield: Almond, 1989), 270을 보라.

나서서 암논이 빼앗아 간 것을 그녀에게 회복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⁵ 그녀는 압살롬의 집에서 지냈다. “처량하게” 혹은 카일이 번역한 것처럼 “황량하게”라는 한 단어가 그녀의 삶을 잘 요약한다. 저자는 다말에 대한 여러분의 동정을 얻고 싶어한다. 그는 여러분이 암논의 행위가 보인 깊은 죄성과 다말의 상태가 보이는 그 죄성의 슬픔을 보기를 원한다. 그는 여러분이 이 변태적인 행동을 혐오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도착적 행위를 그만큼 심히 혐오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 흥미롭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재난에 홀린 관중처럼 되어버린다. 부활절 무렵에 펄리버(진주 강)가 범람하여 5-6 피트의 물이 수백 채의 가옥을 집어삼켰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 지역 근처로 운전하려고 했다. 그들의 목적은 일하거나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하려는 것이었다. 지방 당국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 골치가 아팠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미묘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 그것은 사무엘하 13 장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암논의 사악함을 미워하지 않고 그의 계략에 매료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우리도 다말의 파멸을 슬퍼하지 않고 이야기의 문학적 예술성에 매료될 수 있다. 우리 안에 변태가 있다.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아서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II. 우리가 관찰해야 할 인물들 (The Persons We ought to Observe)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등장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개 성경 해석을 빗나가게 한다. 성경의 강조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있다. 그러나 사무엘하 13 장에서 저자는 등장 인물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가 우리에게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저자는 네 명의 주요 남성 인물을 각각 어떤 면에서 결핍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i. 암논—사랑이 없는 격정 (Amnon – Passion without Love)

암논은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했고(삼하 13:1b), “그의 누이 다말로 인하여 애만 태우다가 병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처녀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암논에게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삼하 13:2).” 여기 “처녀”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틀라]이다. 이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기보다는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성을 나타낸다.⁶ 그렇다면 다말은 성적으로 성숙하다. 따라서 암논의 좌절이 일어난다. 다말은 아름다울 뿐만

⁵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161.

⁶ TWOT, 1:137-39, 그리고 TDOT, 2:338-43 을 보라.

아니라 암논의 관점에서 보면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아마도 왕의 딸들은 보호 감독하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삼하 13:2b).

삼하 13:2 의 마지막 진술은 무섭다. 암논은 다말에게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 암논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심할 것이 없다. 암논이 다윗의 장자로서 왕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말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암논은 다말을 범한 후 즉시 내쫓지 않고 오랫동안 다말을 붙잡았을 것이다. 오히려 암논은 다말이 시사했던 것처럼 단지 불경건하다(삼하 13:13). 암논은 두뇌보다 땀샘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이 그가 요나답을 필요로 했던 이유이다(삼하 13:3-5).⁷

그러나 심지어 암논도 마침내 다말과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다말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낼 수 있었다(삼하 13:10-11). 다말이 기꺼이 따랐다면 암논의 반응은 달랐을까?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암논은 들을 귀가 없었고(삼하 13:14a)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저자는 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중앙에 오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가 받을 충격에 대비하도록 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⁸

그런 다음 암논은 매우 큰 증오로 그녀를 미워하였는데 그가 그녀를 미워하는 증오가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연애보다 더 컸다. 그래서 암논은 그녀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했다(삼하 13:15).

암논의 혐오감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다말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삼하 13:16b). 그는 그녀를 내쫓고 문을 닫아버렸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암논의 “사랑”이 정욕에 불과했음을 보고 정욕과 증오가 자연스러운 동반 현상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현대 음악 비디오와 랩 음악에서 암논은 수천 배로 증폭되어 있다. 거기서 우리는 “전적으로 강력한 성기에 의해 온전히 지배되는 현저하게 일차원적인 인물들”을⁹ 만난다. 그러한 미디어는 그것들이 조장하는 딱딱하고 쓰라리고 가학적인 섹스를 미화하지만 제대로 볼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십대들과 6 학년생들은 제대로 볼 눈이 없다.

⁷ ISBE, 2:977 그리고 ABD, 3:936 에 나오는 “요나답”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라.

⁸ Conroy, *Absalom Absalom!*, 32.

⁹ Michael Medved, *Hollywood vs. America* (New York: Harper, 1992), 104.

ii. 요나답—원칙이 없는 지혜 (삼하 13:3-5, 32-35 Jonadab – Wisdom without Principle)

요나답은 암논의 친구요, 다윗의 조카요(삼하 13:3a),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삼하 13:3b). 저자에 따르면 “지혜로운”이란 단어는 “숙련된” 또는 “날카로운”을 의미한다. 요나답은 즉시 그의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그는 암논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묻는다. “왕자, 자네는 아침마다 어찌하여 이렇게 수척해 보이는가? [그 연유를]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삼하 13:4a)?” 암논은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장기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요나답은 다말에 대한 암논의 열망을 듣고 암논에게 다말에 대한 그의 의도를 관철시킬 계획을 제안한다(삼하 13:5). 따라서 요나답은 “지혜롭다.” 그는 모든 각도들을 알고, 그 각도들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고, 어떤 일이든 성공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심지어 사춘을 강간하는 것까지도 말이다. 요나답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유능한 정치인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는 사건과 상황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삼하 13:32-35 을 보면, 암논이 살해된 후 일어난 왕궁의 공황 상태 속에서도 요나답은 유일하게 차분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문들이 나돌았다(삼하 13:30-31).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요나답은 다윗에게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는 심지어 그 이유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압살롬이 오랫동안 숙고해온 복수라는 것이었다(삼하 13:32).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요나답이 옳았다(삼하 13:34-35).

요나답은 아마도 이 총체적인 실패의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일 것이다. 암논의 악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그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침대에 있으며 그의 호르몬을 관리한다. 그러나 요나답은 사방에 악을 퍼뜨리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가 위험한 것은 그에게 양심이 없는 기술, 윤리가 없는 지혜, 신실이 없는 통찰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헨리 8 세 치하에서는 가톨릭교도였고, 에드워드 6 세 치하에서는 개신교도였고, 메리 여왕 치하에서는 다시 카톨릭교도였으며,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는 개신교도였던 브레이 교구장에 대한 일화를 생각나게 한다. 어떤 사람이 그가 그의 소명에 수치와 추문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그 교구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어쩔 수 없다. 내가 종교를 바꾸었을지라도, 나는 나의 원칙, 곧 브레이의 교구장으로 살다가 죽는 것에 충실해 왔다고 확신한다.”¹⁰

요나답에게 있어서 성공만큼 성공하는 것은 없고, 표준만큼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 요나답은 여러분의 기독교 단체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아니면 그는 여러분에게

¹⁰ John Whitecross, *The Shorter Catechism Illustrated from Christian Biography and History* (reprint ed., London: Banner of Truth, 1968), 78.

멋진 여성을 강간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어느 쪽이든 그것에 맞출 수 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해 깜박이는 경고등이 있다. 칼빈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께서 책망하는 의미로 요나답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것과 그가 남자 사촌의 뚜쟁이가 되고 여자 사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숙부인 왕에게 불충할 만큼 자기 분수를 잊어버린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분께서 신실과 성실도 더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간교함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다.¹¹

이것은 “세속적인” 문제만도 아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아왔다. 왜냐하면 그들의 은사들이 경건으로 싸여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양 떼 가운데 재앙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iii. 다윗—공의가 없는 분노 (삼하 13:21 David – Anger without Justice)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삼하 13:21a)...” 다윗은 암논이 자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말을 그의 집으로 가도록 하는 자기의 허락을 어떻게 악용했는지를 들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다말이 채색옷을 찢고 거리를 달리며 울부짖는 것이 어떻게 보이고 들렸는지 다 들었다. 그는 아마도 그녀가 이제 그녀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머물며 얼마나 처량하게 지내는 여인이 되었는지도 들었을 것이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심히 분노했다.” 그것은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그것은 나쁜 것이었다. 다윗은 화를 냈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그의 분노를 거의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그 분노를 억제하고 말았다.

내가 “불행히도”라고 한 것은 다윗의 분노에 옳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로운 결과로 이어져야만 했었다. 그의 분노는 공의로 이어져야만 했었다. 암논은 처벌을 받았어야만 했고 다말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야만 했다. 그 대신 암논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 다말은 바로잡음을 얻지 못했고, 압살롬은 복수에 대한 그럴듯한 구실을 얻었다. 다윗은 들었다. 다윗은 심히 노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¹²

¹¹ John Calvin, *Sermons on 2 Samuel*, trans. Douglas Kell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2), 619

¹² 삼하 13:21은 칠십인역이 맛소라 본문보다 더 길다. REB는 칠십인역을 따르며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다윗 왕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매우 노했다. 그러나 그는 암논을 해치지 않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장자였고 그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NRSV와 NJB도 이와 거의 비슷하게 번역한다. 쿤란 사본의 한 단편과 요세푸스는 칠십인역과 같은 본문을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물론, 수많은 주석가들은 다윗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제거했는데(삼하 11-12 장) 어떻게 그가 암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겠는가?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다윗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가정에서 치안 판사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왕으로서 그가 개인적으로 타협하든 안 하든, 그는 정의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우리가 다윗이 행동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봐줄 수는 없다. 다윗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서 암논은 처벌받지 않은 죄인으로 남아 있고, 다말은 손상된 물건으로 시들어가고, 압살롬은 들끓는 자경단원이 되어 있다.¹³

칼 굿브로트는 이 내러티브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 슬프지만 정확하게 포착했다. “여호와와 뜻과 공의보다 그의 부성애를 더 높이 두는 이 다윗은 제이의 엘리(참고, 삼상 2:29)이다.”¹⁴ 확실히 그는 여호와와 왕권을 모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압제받는 자들의 요새가 되지 못했고, 악인들의 길을 파멸로 이끌지 못했다(시 9:7-9; 146:5-9).

iii. 압살롬—자제력이 없는 증오 (삼하 13:22-39 Absalom – Hatred without Restraint)

자주 지적되는 대로 사무엘하 13 장의 첫 번째 내러티브(삼하 13:1-22)는 암논의 사랑(1 절)으로 시작하여 압살롬의 증오(22 절)로 끝난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신의 누이를 학대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하지만 압살롬의 증오는 교묘하고 수준 높은 증오였다. 그는 자신의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고, 암논에 대한 어떠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다. 압살롬의 증오는 냉정하고 참을성 있는 증오이고 기다릴 수 있는 분노였다. 2 년 후에 그 순간이 왔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잔치를 하고 있었다(삼하 13:23). 그것은 양털을 깎으며 암논을 도살하기에 완벽한 때였다. 이 에피소드(삼하 13:23-39)는 사무엘하 13 장의 두 번째 내러티브를 구성하며 첫 번째 내러티브의 전개와 다소 유사하다. 독자는 다음에 나오는 구조를 통해¹⁵ 이러한 전개를

칠십인역이 원문을 반영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으며 여전히 공인된 히브리어 본문의 더 갑작스러운 독법을 선호한다.

¹³ 사실상 요나답과 압살롬이 기꺼이 다말을 희생하여 암논을 파멸시키고 압살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닦은 공모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참고, Ronald F. Youngblood, ‘1,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959). 그것은 흥미로운 재구성이지만 나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¹⁴ Gutbrod, *Das Buch vom Reich*, 161.

¹⁵ 이 구조를 작성한 후에 나는 폴진(Robert 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93], 134-35)도 역시 일부 동일한 병행들을 설명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찰하며 삼하 13:23-39 절의 개요를 얻을 수 있다.

압살롬의 누이, 삼하 13:1

암논, 요나답, 다윗: 다말을 접근 가능하게 함, 삼하 13:2-7

암논의 다말 강간, 삼하 13:8-17

반응: 슬픔, 옷을 찢음, 삼하 13:18-19

압살롬이 주는 위로, 삼하 13:20

다윗과 압살롬의 반응, 삼하 13:21-22

압살롬의 양털 깎기, 삼하 13:23

압살롬과 다윗: 암논을 접근 가능하게 함, 삼하 13:24-27

압살롬의 암논 살인, 삼하 13:28-29

반응: 슬픔, 옷을 찢음, 삼하 13:30-31

요나답이 주는 위로: 삼하 13:32-33, 34-35

다윗과 압살롬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 삼하 13:36-39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5 마일 떨어진 바알하솔에서 일어났다.¹⁶ 압살롬은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을 초대했으나 다윗은 압살롬이 부담해야 할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거절했다(삼하 13:24-2).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때 압살롬은 다윗을 회유하여 암논이 자기와 함께 가게 하는 허락을 얻었다(삼하 13:26-27). 계획은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살롬의 말이나 신호에 따라 그의 심복들이 암논을 없애버리는(삼하 13:28) 것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삼하 13:29a). 당연히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황 상태가 계속되었다(삼하 13:29b-36). 압살롬은 달아났으나(삼하 13:34, 37, 38) 암논은 죽었다. 그것이 중요한 전부였다.

물론 우리의 위험은 압살롬이 불길한 범죄 그리고/혹은 아주 잘 보이는 범죄를 꾸미고 저지르는 제한된 수의 사회적 괴짜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나게 강렬한 악의에 의해 움직이는 보기 드문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는 개탄 듀가스와 같다. 듀가스는 프랑스계 캐나다 항공 승무원으로 때때로 미국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최초 보균자, 곧 최초 감염자로 간주된다. 1984 년 사망하기 전에 듀가스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목욕탕, 모텔, 술집, 화장실에서 약 2,500 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계산했다. 의사들이 듀가스에게 치명적인 성병에 걸렸다고 통보한 후에도 그는 수십 명의 파트너를 계속 감염시켰다. 각각의 정사 후에 그는 그들에게 “나는 동성애자 암에 걸렸다.”라고

¹⁶ 바알하솔의 위치에 대해서는 ABD, 1:552 을 보라.

말하곤 했다.¹⁷

그러나 우리는 듀가스와 압살롬 같은 최고의 증오자들이 단연 독보적이라고 추론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압살롬은 드문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인 규칙이다. 압살롬은 일반적인 사람이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압살롬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딤후 3:3 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끔찍한 모습에 대해 묘사한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탈출의 소망이 없었다(딤후 3:4). 그 외에도 우리는 압살롬의 행동을 모방하든 안 하든 그의 본성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본문이 보여주는 이 네 개의 초상화가 있다. 그러나 비극이 확 드러나는 것은 각각의 묘사를 넘어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의를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전체 그림을 볼 때이다.

III.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관점 (The Perspective We ought to Keep)

우리는 사무엘하 13 장을 끝까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재앙이 연달아 일어나고, 다윗 왕국에서의 삶은 욕정, 음해, 나약함, 증오에 의해 지배되며 영위되었다. 산산이 부서진 여인은 여전히 정의에 의해 무시되고 살인에 의해서도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건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사건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그분이 세우신 왕국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그 과정이 단지 인간의 변덕과 죄악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이 어떻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지 알고 있다. 연예인 마사 레이(Martha Raye)가 죽을 때 그녀는 모피 반대 단체인 PETA(동물을 윤리적으로 다루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돈을 남겼다. 그녀는 또한 일곱 번째 남편인 마크 해리스에게 약 150 만 달러를 남겼다. 그러자 그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그 자신의 모피들을 디자인하고 시장에 내놓을 계획을 세운다. PETA 는 들고 일어났고, 그것의 책임자는 만일 레이가 그의 어리석은 모피 사업의 자금으로 해리스가 그녀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무덤에서 데굴데굴 굴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사 레이는 어떤 통제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것이 여호와의 왕국 그리고/혹은 여호와의 역사 통치에 대해 우리가 때때로 갖는 인상이다.

¹⁷ Charles Colson, *Against the Night* (Ann Arbor: Servant, 1989) 67.

그 모든 것이 사무엘하 13 장의 세계인 것 같다. 여기서 모든 것이 부딪히고 튕겨 나가고 하나님은 아예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하 13 장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삼하 12:10-12 을 통해 삼하 13 장에 대한 단서를 받았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었다(삼하 12:10, 11). 이것이 사무엘하 13 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암논이 다말에게 저지른 무모한 성행위는 다윗이 밋세바에게 저지른 성행위와 상응하며, 압살롬이 암논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한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이 추악한 일화에서 다윗의 집에 대한 **자신의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다고 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다. 그것이 즐겁다는 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분은 거기 계셨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거기 계셨다. 때때로 그 확신만이 그분의 백성을 제정신으로 살도록 지켜준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이 죄, 특히 여러분 자신의 죄를 충분히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언덕은 어떤가?
2. 여러분은 오늘의 사회에서 강간 피해자들이 충분히 동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여러분은 오늘의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4. “양심이 없는 기술, 윤리가 없는 지혜, 신실이 없는 통찰.” 요나답의 성품에 대한 이 요약은 기술, 지혜, 통찰력이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찾는 자질일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가 다른 세 가지 자질도 역시 기억하는가?
5. 칼빈은 신실과 성실이 없는 지혜는 간교함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여러분은 모든 덕목에 동반 덕목이 필요하고, 심지어 거룩과 사랑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가?

16. 조작자들 (삼하 14 장 The Manipulators)

사무엘하 13 장과 마찬가지로 14 장도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삼하 14:1-22: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 요압이 행한 방법

삼하 14:23-33: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 압살롬이 행한 방법

그리고 (사무엘하 13 장에서와 같이) 계략이 계속된다. 요압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이용하는 반면, 압살롬은 비숙련 노동을 사용하여 자신의 대담한 계획을 꾸민다. 그러나 본문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맞춤은 축하의 서곡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의 신호이다.¹

다윗은 압살롬이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열의가 별로 없었다. 압살롬과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의가 더더욱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영어 성경들의 번역으로부터는 이러한 개념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하 13:39 과 14:1 에서 번역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기를 갈망했다”라고 하거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갈망했다(NIV)”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삼하 13:39 은 어렵지만, 동사 [칼라]는 일반적으로 “갈망하다(to long), 열망하다(to yearn)”라는 뜻보다 더 강하다. [칼라]는 “끝이 나다, 소진되다, (to come to an end, to be used up)”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삼하 13:39 은 “[압살롬]을 치러 나가려는 왕의 열의가 다했다(맥카터)”고 말할 수 있다. “—에게 나가다(to go out to); 맥카터의 치러 나아가다(to march out against)”라는 표현은 적대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신 28:7). 삼하 14:1 에는 “갈망하다”라는 동사가 없다. 삼하 14:1 은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 위에” 있거나(= 왕이 압살롬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압살롬에 맞서는”(= 왕이 여전히 그에게 적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만 말한다. 단 11:28 에 비추어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² 삼하 14:1 에 나오는 갈망이란 개념은 삼하 13:39 부터 유추된 것이 틀림없다. 만일 다윗이 이미 압살롬을 열망하고 있었다면 사무엘하 14 장에 나오는 요압의 모든 계략은 불필요하게 된다.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가 이미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살짝 쿡 찌르는 것이라면, 요압의 모든 미묘한 책략이 왜 있어야 했는가?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에

¹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173.

²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404-406 그리고 A. F. Kirkpatrick,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UP, 1897), 141-42 그리고 P. Kyle McCarter, //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344을 보라.

“반대하는/맞서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요압이 가장 좋은 충들을 준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삼하 14:24 은 다윗이 압살롬을 진심으로 환영할 기분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나는 사무엘하 14 장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장이 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에피소드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 이 모든 것은 폴 볼러가 1940 년부터 1952 년까지 하원 규칙 위원회의 의장인 일리노이의 아돌프 사바스에 관해 전해주는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그 위원회 위원들 중 한 명인 조지아주의 유진 콕스는 그 위원회의 규칙을 변경하여, 심지어 의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위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에 투표하기를 원했다. 사바스는 80 대였고 콕스에게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콕스에게 심장이 약하다고 말한 다음, “콕스 의원님, 당신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이 나를 죽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굴욕입니다! 그것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간청했다. 콕스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고 대꾸하며 사바스가 이 일을 너무 오래 질질 끌어왔다고 반박했다. 즉시 사바스는 의자에서 일어나 앞으로 몸을 내밀더니 콕스의 발 앞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콕스는 “내가 그를 죽였어!”라고 외치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콕스와 다른 의원들은 사바스를 가장 가까운 사무실로 옮기고, 그를 커다란 가죽 소파에 눕히고,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다. 오하이오의 클라렌스 브라운은 사바스와 함께 남아 있었다. 1-2 분 후에 브라운은 사바스가 한쪽 눈을 뜨고 방을 살피보는 것을 보았다. 브라운은 깜짝 놀라며 “어, 당신은 늙은 악당이요!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사바스는 쏘아붙이며 “글쎄요, 콕스 의원이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라고 말했다.³ 그렇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은 없었다. 그것이 사무엘하 14 장이 나를 괴롭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에는 많은 지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유효한 가르침의 요점들을 얻고자 한다.

I. 이것은 지혜인가? (Is This Wisdom?)

암논이 “지혜로운” 요나답의 조언에 의존하였던 것처럼(삼하 13:3), 요압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 마일 떨어진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을 청하여 다윗에게 압살롬의 귀환에 대한 자기 주장을 밀어붙인다. 이 에피소드의 패턴은 추적하기 쉽다.

요압의 계획, 삼하 14:1-3

³ Paul F. Boller, Jr., *Congressional Anecdotes* (New York: Oxford, 1991), 64.

여인의 인터뷰, 삼하 14:4-20

친족/가족으로 인한 그녀의 고통, 삼하 14:5-7

사건의 해결, 삼하 14:8-11

왕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 삼하 14:12-14

비난의 완화, 삼하 14:15-17

왕의 분별력, 삼하 14:18-20

왕의 결정, 삼하 14:21-22

요압이 “그녀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을지라도(삼하 14:3), 이 여인은 자신만의 뛰어난 말솜씨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요약한다(삼하 14:5-7). 그녀는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었다. 그들이 들에서 싸우고 있었으나,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쳤고, 그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이제 나머지 친족들은 남은 아들도 자기 형제를 죽인 죄로 처형되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다(7 절). 그러나 그 과부는 그녀의 관계들이 갖는 그 나름대로의 의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삼하 14:7 에서 “그런즉 우리가 상속자 될 것까지 끊어버리겠다”는 친족들의 지나친 감상을 인용한다. 정의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그들의 탐욕에 대한 은폐일 뿐이다. 만약 그들이 남은 아들을 처형한다면, 그녀는 부양이나 도움이 없이 지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은 상속자나 후손을 남겨두지 못할 것이고, 과부로서 자기가 죽으면 남편의 재산은 친족들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의를 빙자하여 불의를 꾀하고 있다. 왕은 기꺼이 개입할 것인가?

다윗은 이 사건에서 기꺼이 그녀의 편에 서는 것 같다(삼하 14:8). 만약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 계속 그녀를 조르면, 그녀는 그를 다윗에게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귀찮은 일은 중단될 것이다(삼하 14:10).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 아들에 대한 면책에 대해 다윗이 맹세해 주길 원한 것 같고(삼하 14:11a), 이에 다윗은 즉시 맹세한 것처럼 보인다(삼하 14:11b).

이제 그 여인은 왕께 말씀드릴 개인적인 특권을 요청하며(삼하 14:12) 허락을 받은 후 왕을 고발하는 질문을 제기한다(삼하 14:13). 왕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그는 제거될 위험에 처한 그 여인의 아들은 그녀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그는 쫓겨난 자신의 아들을 되돌리는 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삼하 14:14a),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삼하 14:14b).” 그 여인은 말로 왕을

⁴ 그녀는 또한 압살롬이 왕위 계승자이고 다윗이 그 계승자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음으로써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수도 있다.

공격한 후 곧바로 자신의 처지로 돌아와 왕에게 호소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함으로써 그 공격을 완화시킨다(삼하 14:15-17). 일부 학자들은 삼하 14:15-17 이 잘못된 자리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그 여인이 요점에 도달한 후에 다시 자신의 사건으로 돌아올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들은 그 여자의 미묘함을 놓친다. 그녀가 자신의 처지를 다시 꺼낸 것은 다윗이 그녀의 요점을 요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그 여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왕께 나온 이유이고 유배된 왕의 아들의 경우는 단지 같은 종류의 예로서 부수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말의 구성을 통해 당연히 그녀의 주된 관심사인 압살롬의 경우가 부차적인 일로 보이도록 하려고 한다.⁵

그러나 다윗은 현명했고(참조, 삼하 14:20 절) 주요 요점과 하위 요점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삼하 14:19)?” 그녀는 대답한다.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삼하 14:19b).” 그녀의 대답은 해석하면 “예”이다. 그러나 폭로 후에 다윗은 요압의 소원을 정말로 묵인한다(삼하 14:21-22).

요압의 계략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을 통해 성공한다. 그러나 그의 지혜/그녀의 지혜는 정말 지혜인가? 그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다윗에게 암논과 압살롬이 있는 것처럼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것처럼 과부의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살인자의 목숨은 그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몰수된다. 기타 등등. 그러나 두 경우가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다. 과부의 아들들은 외딴 곳에서 둘이 서로 싸움을 벌인다. 한 일이 또 다른 일로 이어지고, “승자”의 타격은 다른 한 사람에게 치명적이다. 아마도 그 여인은 우리에게 충분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로 말한 것은 그 살인이 의도적이거나 사전에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서로 싸우다가

⁵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332-33. 또한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268에 나오는 다음 설명도 참고하라. “여기서 그녀가 삼하 14:4-11의 가상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상황과 왕의 상황 사이의 유사점을 묘사하는 삼하 14:12 이하에서 그녀의 변장을 벗으려고 의도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 여인이 자신과 요압의 관련을 누설함이 없이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이 경청되었더라면 더할 나위없이 요압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하 14:15-17에서 그녀가 자신의 문제로 돌아와 그것을 왕 앞에 가져온 이유를 다시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녀에게 다윗과 압살롬이 관련된 상황의 위험성을 일깨워준 것이 바로 그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비롯된 슬픈 결과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실 치사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참고, 민 35:6-34; 신 19:1-13; 수 20 장). 그러나 압살롬의 암논 제거는 주의 깊게 품어온 증오로 인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오랫동안 버르던 행위였다(삼하 13:22-29). 그것은 다름아닌 불법적인 살인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정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나단(삼하 12 장)과 드고아의 여인(삼하 14 장)은 그들의 이야기로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블레이키는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단의 비유의 목적과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비유의 목적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나단의 비유는 왕의 감정에 반하여 왕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드고아 여인의 비유는 요압의 지시에 따라서 왕의 양심에 반하여 왕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다.⁶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되는 경우에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삼하 14:14)은 지혜가 아니라 감상벽(感傷癖)이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14 장에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없다. 이 장에 지혜는 많아도 참 지혜는 없다. 요압에게는 계획적 지혜가 있다(삼하 14:1-3). 이것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략을 구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혜이다.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에는 설득력 있는 지혜가 있다(삼하 14:4-17). 그녀는 다윗의 상황을 교묘하게 자신의 상황으로 꾸며서 다윗이 하나님보다 동정심이 적음을 암시한다(삼하 14:14b).⁷ 다윗에게는 예리한 지혜가 있다. 그는 배후에서 어떤 손과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날카로움이 있다(삼하 14:18-20).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심지어 압살롬의 지혜도 끌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실용적인 지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반응이 없는 사람의 발을 불태움으로써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삼하 14:29-31).

이 이야기에는 온갖 종류의 계략과 재간이 있다. 요압과 드고아 여인과 압살롬은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아는 조작자들인 것 같다. 지혜의 모든 과시적인 요소들은 있지만 지혜는 아주 결핍되어 있다. 다윗이 요압의 손을 알아챌 수는 있지만(삼하 14:19) 압살롬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가? 아마도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억(삼하 11 장)이 행동하려는 그의 의지를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을 영원히 추방할 수 있었고, 차라리

⁶ W.G. Blaikie,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 Graham, n.d.), 208.

⁷ 이 여인의 전문적인 식견에 대해서는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1,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141 을 보라.

압살롬에게 정의를 집행했어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 자신의 말이 그것을 시사한다(삼하 14:32b).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영향을 받을 뿐이다. 사무엘하 14 장에서 다윗은 다스리지 않고 반응할 뿐하고, 통치하지 않고 허락해 버리고(삼하 14:21), 결단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삼하 14:24) 결국 받아들이고 만다(삼하 14:33). 이것이 지혜인가?

사무엘하 14 장은 (신자이든 아니든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사로잡아야 한다. 계획, 전략, 성취와 같은 지혜의 모든 징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혜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이것은 섭리인가? (Is This Providence?)

나는 여러분이 삼하 14:33 바로 다음에 자리를 잡고 압살롬의 관점에서 전체 이야기를 되돌아보기를 원한다. 다윗의 입맞춤은 압살롬이 왕의 호의를 다시 얻게 된 것을 의미한다.⁸ 이 순간은 5 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다(삼하 13:38; 14:28).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살인은 그가 품었을 수도 있는 모든 야심을 깨뜨려버린 것처럼 보였다(삼하 13:23-39). 그는 스스로 망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삼하 13:37-38). 그렇게 3 년의 세월이 흘렀다. 압살롬의 복수가 그의 미래를 망쳐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때 요압은 친 압살롬적 계락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시키려고 공을 들였다(삼하 14:1-17). 우리는 요압이 그술에 있는 압살롬과 어떤 접촉 혹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어쨌든 본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다윗은 마음을 돌이키고 압살롬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었다(삼하 14:21-23).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삼하 14:24). 이유가 뭐든 간에, 요압은 열렬한 옹호자가 되는 것을 그만둔다. 실제로 그는 압살롬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삼하 14:28-29). 그러나 압살롬은 요압의 관심을 끌어(30-31 절) 자기 일에 대해 다시 왕을 밀어붙이도록 하는 데(삼하 14:32-33) 발에 한 번만 불을 지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그술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유배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압살롬은 다윗에게 “나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죽이라”고 도전한다. 압살롬의 최후 통첩은 위험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된 위험이었다. 만일 다윗이 정의를 행할 마음이 있었다면 압살롬의 무사 귀환을 애초에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삼하 14:21-23). 압살롬이 옳았다. 약간의 투덜거림이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삼하 14:33). 이제 그는 왕좌를 차지하려고 수작을 부리며 현장에 있게 된다(삼하 15 장).

⁸ 다윗의 입맞춤이 압살롬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했다고 추정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단지 화해와 왕의 호의 회복을 의미했다. 이것은 McCarter, *II Samuel*, 350에 바르게 설명되어 있다.

압살롬은 올해의 컴백 후보로 지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압살롬의 관점에서 사무엘하 14 장을 보면, 모든 것이 기이한 섭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 섭리로 인해 암논을 제거함으로써 그가 빼앗겼던 것을 이제 회복하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압살롬이 영구히 날려보내 버린 것 같았던 것이 이제 놀랍게 그에게 회복되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말하자면, 압살롬을 위해, “협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독자들에게 압살롬의 관점에서 전체 이야기를 바라볼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내가 압살롬이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가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삼하 15:7-8). 어쨌든 섭리는 압살롬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은 자기 행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는 데 재빠르다.

1944 년 7 월 20 일이었다. 군사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책상 밑에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갑자기 그것은 타오르는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얼마 후 의도된 희생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잔해 밖에서 비틀거리고 있었고 그을리고 너덜너덜해졌지만 오른팔의 일시적인 마비와 고막에 구멍이 뚫린 채로 생존했다. 무솔리니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서둘러 기차를 타러 갔다.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자기의 은신처로 데려와 피해를 보여주었다. 히틀러는 “솔직히 말하면, 총통님, 나는 이 사건을 신의 섭리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했다. 무솔리니가 그의 놀라운 모면에 대한 경험을 인정했을 때, 히틀러는 이렇게 대꾸했다. “놀랍다고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내 방을 보십시오. 내 유니폼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분명히 나의 위대한 사업을 계속 수행하여 완성하는 것이 신이 나에게 준 임무입니다.”⁹

우리는 그러한 히틀러의 해석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어떻게 심지어 그의 왜곡된 마음조차도 그 에피소드로부터 그런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삼하 12:10-12 을 기억하며 사무엘하 14 장의 이 “섭리”가 압살롬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압살롬의 심판의 경우에서조차도 사무엘하 18 장이 일러주는 것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사무엘하 14 장에 한정해서 우리가 보는 삶의 단면은 믿음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르고도, 고위층 친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부추길 용기가 있어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악인들이 성공하는 복을 받고 하늘의 승인을 받아

⁹ Robert Leckie, *Delivered from Evil: The Saga of World War II* (New York: Harper & Row, 1987), 731-32.

정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백혈병이 그들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암이 그들의 아내들을 죽이지 않고, 음주 운전자들이 그들의 가족을 망치지 않고,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서 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우박이 그들의 농작물을 망치지 않는다(참조, 욥 21:4-16; 시 73:3-12). 그것은 섭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미소 아래 있는가?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은 가서 예배를 드려라(시 73:16-17).

III. 이것은 지도력인가? (Is This Leadership?)

우리는 왜 삼하 14:25-27 이 이 이야기에 끼어들어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내가 “끼어들다”라고 한 것은 이 구절들이 독자적으로 서 있을 수 있고 내러티브의 흐름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삼하 14:24 을 읽고 곧바로 삼하 14:28 을 읽을 때 내러티브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삼하 14:24 은 우리에게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고 알려줌으로써 끝나고, 삼하 14:28 은 다시 설명하며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계속된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잘 생긴 외모(삼하 14:25), 머리털 손질(삼하 14:26), 가족(삼하 14:27)에 대한 묘사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언론의 총애이자 사진사들의 특선인 미스터 이스라엘이 있다. 그 자신의 머리털과¹⁰ 세 아들과 한 아름다운 딸(그녀의 정말 멋진 고모의 이름을 따라 적절히 명명된 다말)¹¹은¹¹ 사람들의 넋을 잃게 만든다.

그러나 사무엘상하의 노련한 독자라면 삼하 14:25-27 을 대할 때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자질이 부족한 다른 지도자들이나 잠재적 지도자들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삼하 14:25-27 을 읽을 때 “준수한 청년 ...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삼상 9:2; 10:23-24)” 사울의 메아리를 듣지 않을 수 없고, 또 엘리압이 사무엘의 상상력을 매우 강하게 사로잡으므로 사무엘이 하마터면 제 2 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던 사실을(삼상 16:6-7)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육체적인 매력이나 인상적인 모습을 결격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아니다(삼상 16:12 은 그런 생각을 뒤집어엎는다). 하나님께 대한 내적 복종이 없고 오직 사람들 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매력만 있는

¹⁰ 우리는 압살롬이 연말마다 깎은 머리털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선호되는 범위는 2-3 파운드(맥카터)에서 5-6 파운드(고든)이다.

¹¹ 여기 삼하 14:27에 나오는 세 아들에 대한 언급은 삼하 18:18 과 모순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의 아들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죽어 그에게 남자 후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매튜 헨리(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517)는 압살롬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 아이를 갖는 것이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18:18의 기념비를 세웠으나 기념비 세운 후에 세 아들과 딸을 낳은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도자들은 재앙을 가져올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하 14:25-27 을 읽을 때 불안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이 여기에 또 다른 사울이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하 15 장은 불행하게도 압살롬이 왕국을 장악하는 데 사울만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압살롬 묘사에 대한 매튜 헨리의 관찰은 간결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다.

여기서 압살롬에 대해 언급된 모든 것은,
그가 매우 잘 생긴 남자였다는 것 ...
그가 아주 고운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 ...
그의 가족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 ... 이다.

매튜 헨리는 적절하게 “그의 지혜와 경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한다.¹²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이것은 지도력인가?

나는 대답이 예와 아니오 둘 다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언론과 정치가 압살롬의 접근 방식을 아주 오랫동안 취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는 실질보다 스타일, 내용보다 포장, 내용보다 매너를 중시한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가정 생활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심어준 대통령이 자신의 비밀 경호원과 함께 손전등을 들고 뉴욕의 거리 아래 터널을 밟고 가서 다른 호텔이나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인과 정사를 나눈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의 취임 첫날부터 계속된 패턴이었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는다.¹³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이러한 간극들은 수세기 동안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막 10:43).” 하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다. 더글러스 웹스터는 미국 현대 회중이 바라는 “포춘지 선정 500 대 목회자”를

따뜻함과 성공을 풍기는 목회자처럼 호감이 가고 카리스마 넘치며 집행력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그들의 영성보다는 그들의 유머로 더 잘 알려진 오늘날의 시장에 민감한 목회자들은 관계적으로 요령이 있다. ... 이들 목회자들은 옛 부흥사들처럼 깊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영혼을 고양시키고 낙관주의를 조장하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도록

¹² Henry, 2:517.

¹³ Thomas C. Reeves, *A Question of Character: A Life of John F. Kennedy* (New York: Free Press, 1991), 235-44.

한다.¹⁴

대조적으로, 교회의 장로에 대한 몇 가지 표준을 나열할 때 사도 바울은 카리스마보다 인격을, 공적인 은사보다 개인의 경건을 강조한다(딤후 3:1-7). 압살롬의 밋에 빠진 교회는 화 있을진저!

압살롬은 돌아오자마자(삼하 14:24) 내러티브를 지배한다. 우리는 그의 외모(삼하 14:25-27), 그의 터무니없는 행동(삼하 14:28-32a), 그의 대담함(삼하 14:32b)에 대해 읽는다. 이렇게 압살롬은 이 내러티브를 차지한다. 이것은 그가 앞으로 왕국을 차지할 것과 똑같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다양한 지혜를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시험들이 있는가?
2. 외견상의 섭리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경건한 수혜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유산과 불경건한 사람이 자기 쾌락을 위해 낭비하는 유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3. 조작이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때때로 지역 교회의 맥락에서 그것을 보는가?
4. "하나님께 대한 내적 복종이 없고 오직 사람들 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매력만 있는 지도자들은 재앙을 가져올 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현대적인 예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태도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5.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현대 교회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상에 얼마나 미달하고 있는가?

¹⁴ Douglas D. Webster, *Selling Jesus: What's Wrong with Marketing the Church*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2), 120.

17. 정치와 신앙 (삼하 15 장 Politics and Faith)

1942 년과 그 후에 적십자 소포들이 독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위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에서 국제 적십자사가 회계를 요청했을 때 부헨발트에서만 약 7 대의 화물(2 만 1 천에서 2 만 3 천개의 수포들)이 회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제국(히틀러 치하의 독일)의 붕괴를 목격하고 살아남은 일부 수감자들은 SS 장교들이 1945 년 4 월 사무실에서 열려 있고 비어 있는 적십자 상자들을 열심히 치우는 것을 보고 매우 즐거워했다.¹ 소포들은 나치 친위대 장교를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치 친위대가 그것들을 가져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탈취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 즉 왕국을 탈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나치 친위대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기교와 재주가 있고 군중을 조종할 줄 안다. 악은 같지만 훨씬 더 매력적이다.

사무엘하 15 장은 두 개의 주요 부분, 즉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망명으로 나뉜다.

I. 반역: 정치의 기술 (삼하 15:1-12 Rebellion: The Art of Politics)

이스라엘의 현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삼하 14:25) 압살롬은 자신의 이미지를 치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삼하 15:1).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병들이 반드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왕자의 행차가 화려함을 과시하기 위해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압살롬은 단지 뽐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군중을 선동했다. 그는 으레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 곧 법정 바깥의 문에 서서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다(삼하 15:2). 압살롬은 그 사람의 고향에 대해 묻고, 그 사람의 딜레마를 들으며 집중하는 듯 이마를 찌푸리며, 주기적으로 공감의 신음 소리를 낸 다음, 그 사건이 얼마나 설득력 있다(삼하 15:3a, "당신의 주장이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내비쳤다. 사실, 압살롬은 원고를 만나 자신의 동의를 표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압살롬의 다정스러운 접근 방식의 일부에 불과했다. 압살롬은 그 원고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한 후 "불행하게도"라는 비극적인 음표를 삽입하곤 했다. 제도(곧 다윗)에 대한 불만을 악화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압살롬은 한숨을 쉬며 그 원고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도

¹ Eugen Kog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Hell: The German Concentration Camps and the System Behind Them* (New York: Berkley, 1980), 128.

불구하고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곤 했다(삼하 15:3b). 압살롬의 말은 재판의 지연으로 인해 정의 구현이 지연되는 것을 한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사건은 왕이 마침내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정 소송의 밀린 일지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² 압살롬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 정체를 뚫고 나올 방법을 보았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삼하 15:4, 볼드체는 히브리어 본문의 강조를 표시한 것임).” 압살롬은 그렇게 힘들고 종종 인기가 없는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보살펴주는 정부를 갖고 싶다고 제안하기만 하면 되었다.

압살롬은 또한 평민과 잘 소통하는 기법을 완벽하게 구사했다. 그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 절하는 등의 공경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러한 격식을 없애 버리고 자기에게 인사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다정하게 대했다(삼하 15:5-6a).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한다. 어떤 공직 후보자는 넥타이를 풀고, 옷깃의 단추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쪽에 “디캘브(DeKalb)”가 새겨진 농부 모자를 쓰고, 돼지 우리의 오물을 마주하고, 울타리 난간에 한 발을 올려놓고, 아이오와 농부의 필요와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를 하는 사진을 찍을 것이다. 그 사진은 “보십시오.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는 돼지가 있고 옥수수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디모인(Des Moines)에 에어컨이 완비된 사무실에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압살롬의 기법이었다. 누군가가 힐튼 호텔의 점심을 추천한다면 압살롬은 “아닙니다. 저는 버거킹의 점심이 좋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다(삼하 15:6b).” 문자적으로 이 구절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관용구는

²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270: “왕에게 가져온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지방 장로의 권한을 벗어난 것들로 틀림없이 국가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고든은 또한 다윗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족을 가정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압살롬이 암시하고 불러일으키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속셈이 있으므로 그가 정확한 국가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믿기가 어렵다. 조이스 볼드윈(Joyce Baldwin, *1 & 2 Samu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8], 257)은 삼하 15:3에 나오는 압살롬의 불만을 “그 의도에 있어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심지어 기만하는” 것으로 바르게 설명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왔고, 드고아 여인이 왕 앞에 나와 호소하는 것(삼하 14:4-7)에 비추어 볼 때, 왕이 그의 판결을 요청한 사람들을 친히 대면하여 다루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애정을 사로잡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속이는 것을 가리킨다.³ 그것은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훔쳤을” 때, 곧 그를 속였을 때와 같다(창 31:20, 26).⁴ 당연히 정중한 정치인으로서 압살롬은 마무리 손질을 위해 약간의 종교적인 겉치레를 추가했다.⁵

압살롬의 성공적인 쿠데타를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분명하게 그리고 희미하게 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삼하 12:10-12 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압살롬과 그의 잘 짜인 반역은 다윗 자신의 집에서 나온 위협적인 재앙(삼하 12:11a)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압살롬의 행위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부당하고 비열한 반역 행위이다. 압살롬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⁶ 치는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삼상 24 장과 26 장에서 다윗이 보인 태도와 대조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삼하 12:11)의 참됨과 압살롬의 행위의 사악함을 나란히 보고 있다. 그런데 후자가 전자를 성취한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의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설교자들은 이 신비에 대해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다.

³ TWOT, 1:168 그리고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356을 보라.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받은 지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T. N. D. Mettinger, *King and Messiah*, Coniectanea Biblica (Lund: CWK Gleerup, 1976), 121-23을 보라.

⁴ [역자 주] 삼하 15:6b 의 “누구의 마음을 훔치다/누구를 속이다”라는 [가나브 에트-레브]는 창 31:20, 26 에도 나온다. 개역개정에서 창 31:26 은 “나를 속이고”라고 잘 번역하였으나 창 31:20 은 이 어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창 31:20 에 대한 다음 번역들을 비교해 보라.

개역개정: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새번역: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김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공동번역: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감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쉬운성경: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감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우리말성경: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김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YLT: and Jacob **deceiveth the heart of Laban** the Aramaean, because he hath not declared to him that he is fleeing;

NASB: And Jacob **deceived** Laban the Aramean by not telling him that he was fleeing.

NIV: Moreover, Jacob **deceived** Laban the Aramean by not telling him he was running away.

ESV: And Jacob **tricked** Laban the Aramean, by not telling him that he intended to flee.

⁵ 종교를 이용한 점에 있어서 압살롬은 사울(삼상 15:30-31)과 이스라엘(삼상 4:3)과 나란히 있다.

⁶ 기름 부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Gerard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0), 23-28에 나오는 매우 유용한 토론을 참고하라.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그것의 양면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행 2:23).”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다. “너희”로 지칭된 그들은 그것을 행한 것에 대해 죄책이 있다. 그것은 신비이다. 그렇지만 신비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풀 수 없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II. 망명: 믿음의 경기장 (삼하 15:13-17 Exile: The Arena of Faith)

달려야 할 시간이다. 압살롬의 성공 소식을 듣고(삼하 15:13) 다윗은 도망가자고 말한다(삼하 15:13).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삼하 15:14).”⁷ 이러한 다윗의 망명에 대한 이야기는 삼하 15:13-16:14 에 기록되어 있고 다양한 개인들과의 만남을 전하고 있다. 독자들은 다윗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삼하 19:9-43)도 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삼하 15-20 장 전체에 대한 시각적인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그 일반적인 구조 패턴을 간략히 묘사할 것이다.

사무엘하 15-20 장의 패턴

반역, 삼하 15:1-12

망명, 삼하 15:13-16:14

잇대, 사독, 후새, 시바, 시므이 등과 만남

압살롬의 결정(아히도벨과 후새에 대한 응답), 삼하 16:15-17:23

전투, 삼하 17:24-18:18

소식, 삼하 18:19-33

다윗의 결정(요압에 대한 응답), 삼하 19:1-8

귀환, 삼하 19:9-43

유다지파, 시므이, 시바, 므비보셋, 바르실래 등과 만남

반역, 삼하 20:1-22

⁷ 도시를 포기하는 것은 친절한 행위였다.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341: “[왕은] 자신과 신하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실제로 포위되고 함락되었을 때 일어날 참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한다.” 도시를 포기하는 것은 또한 현명한 행위였다. 만일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충성하는 사람들과 주저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었겠는가? 망명을 감으로써 그는 열렬한 지지자들만 그와 동행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저자는 다윗의 도피 이야기를 다윗의 믿음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주제 아래 이 부분의 실제적인 가르침을 살펴볼 것이다.

i.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들에 의해 지탱된다 (삼하 15:19-23 Faith is Supported by the Gifts of God)

다윗은 벤메르학(ESV/공동번역: 마지막 집; 새번역: 먼 궁; 우리말성경: 성 외곽)에 멈춰 서서 그의 지지자들이 그 곁으로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삼하 15:17-18). 그는 블레셋 성읍 가드 출신의 용병인 가드 사람 잇대를 막았다. 다윗이 그를 시험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제안은 관대하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삼하 15:19-20)⁸

다윗은 잇대가 강요로 인해 억지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짧은 기간 동안 다윗을 섬겼을 뿐이다. 그가 다윗의 갑작스러운 재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은가? 친절하게도 다윗은 잇대가 새로운 정권을 위해 봉사하고 평범한 삶을 누리도록 그를 풀어주려고 한다.

그러나 잇대는 질색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삼하 15:21)

잇대는 그의 대답을 강조하기 위해, 즉 그의 말이 얼마나 진심 어린 것인지 부각시키기 위해,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이중 맹세를 한다. 다윗은 그에게 “돌아가서 왕(곧 압살롬)과 함께 있으라”고 촉구했지만(삼하 15:19), 잇대는 오직 다윗만이 왕이라고 주장한다. 삼하 15:21 에서 그가 다윗에 대해 “내 주 왕”이란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한 것에 주목하라. 잇대는 다윗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그의 자녀들조차도 잇대의 충성의 위험과 다윗의 불확실한 미래를 공유한다(삼하 15:22). 우리는 다윗에 대한 잇대의 헌신의 말(삼하 15:21)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심취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⁸ 삼하 15:20의 본문에 대해서는 S.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n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314을 보라. 칠십인역은 마지막 절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0-21)

잇대는 배반의 바다에 있는 충성의 섬이다. 아이러니가 분명하다. 다윗의 친 아들은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반면, 이에 비하여 다윗에게 아무런 빛도 지지 않은 이방인은 그의 대의 명분을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다.”⁹ 저자는 신실한 블레셋 사람 잇대(삼하 15:21)와 배반하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도벨(삼하 15:12)을 대조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 다윗이 믿고 따르며 소중하게 여기던 모사(삼하 16:23)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썼다.¹⁰ 그러나 여기 이방인 잇대가 있다. 그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잠 18:24). 그는 그의 수행자들과 모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다윗의 뒤를 따르며 구원이든 파멸이든 함께 나누려고 한다.

잇대의 결연한 의지가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이는 압살롬의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다윗이 잇대에게 지휘권을 맡긴 것(삼하 18:12)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믿음을 위한 반가운 지원이었음이 틀림없다. 구약에서 잇대가 다윗에게 격려가 된 것은 신약에서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격려가 된 것과 같다(딤후 1:16-18). 오네시보로는 특별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끈질기게 그에게 신신했던 인물이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신실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딤후 1:16b).”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로부터 받은 비슷한 지원을 높이 평가하셨다. 그들의 모든 오해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남아 있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감사하며 그들의 동반을 인정하셨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눅 22:28).”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친구를 주시는 것이다. 잇대와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ii.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다 (삼하 15:24-29 Faith is Free in the Will of God)

다윗은 또한 제사장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추방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제사장뿐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독의 명을 받아 언약궤를 메고 온 레위인들도 있었기 때문이다(삼하 15:24). 압살롬이 성읍을 가질 수는 있어도 제사장들, 곧

⁹ W.G. Blaikie,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 Graham, n.d.), 232.

¹⁰ 아마도 시 41:9; 55:12-14, 20-21의 고뇌는 아이도벨의 배신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여호와와 임재의 표징은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삼하 15:26-27)

자유가 그의 말로부터 튀어나온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면 하나님을 갖게 된다”는 사고 방식의 출현에도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삼상 4:3 의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윗은 그의 회복이 (만일 있게 된다면) 여호와와 궤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여호와와 호의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은혜에 달려있다(삼하 15:25b).¹¹ 그는 여호와와 주권적인 통치에 복종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가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자신을 맡긴다(삼하 15:26). 눈속임도 없고, 미신도 없고, 부적 종교도 없고, 언약궤를 흠쳐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없다. 이것은 연약한 자포자기가 아니라 강력한 복종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 “만일 내가 여호와와 눈에 은혜를 입는다면, ... 그러나 그분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신다면, ...” 여기에 얼마나 큰 순전한 위안이 있는가! 왜냐하면 다윗은 나에게-무슨-일이-일어날-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언약궤, 곧)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참으로 자유로운지 주목하라! 여러분이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있다면 수수방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호와와 주권에 대한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공유하거나 붙드는 것은 **인간적인 지략과 독창성을 억누르지 않고 방출한다**. 삼하 15:27-28 에 주목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음에도 불구하고(삼하 15:25-26) 곧바로 성읍 안에 (이적 행위를 통해 자신을 도울) 제 5 열을 형성한다.

¹¹ 굿브로트(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Stuttgart: Calwer, 1973], 184-85)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는 것(삼상 18장 이하)과 압살롬에게서 도망하는 것(삼하 15장 이하)을 비교한다. 전자의 경우에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구원을 자신의 힘이나 기술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자의 경우에도 그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자비에 달려 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왕(다윗)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삼하 15:27-28)

이 행동은 삼하 15:25-26 의 진술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여전히 여러분의 머리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끓어오르는 염려와 걱정이 없이 그것을 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삼하 15:25-26 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가장 어두운 시간에 자유와 안도와 에너지를 발견한다. 내 말뜻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iii.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격려된다 (삼하 15:31-37 Faith is Encouraged by the Providence of God)

이제 우리는 다윗이 아히도벨에 대한 나쁜 소식을 받은 것을 듣는다(삼하 15:31a; 참조, 삼하 15:12). 다윗은 즉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삼하 15:31b)”라고 사정하는 기도를 올렸다. 다윗이 걱정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히도벨을 모사로 둔다는 것은 축구 감독으로 베어 브라이언트를 두거나 농구팀에 마이클 조던을 두는 것과 같았다. 아히도벨은 명석했고,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의 조언에서 지혜와 성공이 흘러나왔다(삼하 16:23). 그래서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소식을 듣고 즉시 기도했던 것이다.

우리는 다윗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 곧 옷을 찢고 흠을 머리에 덮어쓰고 두 발로 걸어오는 사람을 본다(삼하 15:32). 그 응답은 바로 다윗의 특별한 친구(confidant),¹² 아렉 사람 후새였다. 다윗은 후새가 그의 부르짖음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일 수 있음을 감지한 것 같다. 이것은 다윗이 후새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삼하 15:33-34)

다윗은 계속해서 후새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미 세워 놓은 정보망을 알려주었다(삼하 15:35-

¹² Gordon, *I & II Samuel*, 276. 삼하 15:37에 나오는 “친구 friend”라는 용어는 개인적인 친분을 나타내기보다는 “왕의 친구”라는 공적 직분을 가리킨다. McCarter, *II Samuel*, 372도 참조하라.

36). 그래서 후새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고 잘 위장되기를 바라며 압살롬을 속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걸어간다(삼하 15:37). 후새는 동반이 아니라 첩보를 위해 필요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즐거운 여호와와의 섭리를 만났다! 그것은 다윗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기도하자마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예 응답하기 시작하셨다. 그것도 어떤 대본 작가도 짐작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말이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다루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과 '어떻게'와 '언제'를 다룬다. 그 '어떻게'가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할 수 있는지!

이 상황은 1950년대 에티오피아의 포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돈 맥클루어의 딜레마를 생각나게 한다. 이미 길었던 하루가 어두워진 후 맥클루어는 강독으로 다시 호출되었다. 두 명의 여성이 비를 뚫고 어린 소녀를 카누에 태워 데려왔다. 그 소녀는 피범벅이 된 물 속에 누워 있었고, 두 명의 여성이 그녀를 카누에서 들어올리자, 그녀는 애처롭게 맥클루어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곤경을 보았다. 그들이 그녀를 배에서 땅으로 끌어올릴 때 탯줄은 제거되지 않았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 전날 그녀는 사산한 아기를 낳았고 태반이 스스로 분리되지 않았다. 이 슬픈 소녀는 열세 살도 채 되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매우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무 약해져서 견딜 수 없었다. 맥클루어는 겁에 질린 소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몸을 굽혔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들어올려 곧게 세우자 그녀는 그의 목을 잡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그 때 그 여성들 중 한 명이 "빠져나왔어요!"라고 외쳤다. 맥클루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말로 그것이 빠져나왔다. 그 어두움 속에서 위대한 맥클루어 박사는 그녀를 들어올리려고 몸을 구부렸을 때 그녀 뒤를 따르던 탯줄을 밟았었다. 그가 그의 발을 그 탯줄 위에 계속 단단히 고정시키며 그녀를 들어올릴 때, 태반 전체가 끌려 나왔다. 태반이 이러한 식으로 제거된 것은 기록상 유일한 경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¹³

맥클루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불쌍한 소녀를 돕지 않으셨다면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서투른 발을 포용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다윗이 막 드린 기도가 이 단정치 못한 공직자 후새를 통해 응답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사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기도대로 정확하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바꾸지 않으셨다. 사무엘하 17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압살롬을 바보로 바꾸시어 그것을 거부하도록 하셨다. 그분은 후새를 통해

¹³ Charles Partee, *Adventures in Africa: The Story of Don McClure* (Grand Rapids: Zondervan, 1990), 312-313(인용문은 313쪽에 나옴).

그렇게 하셨다.

다윗은 기도한다. 여호와께서는 후새를 보내신다. 그분은 아히도벨을 뇌졸중으로 치시거나, 누군가가 그의 포도주에 독을 넣게 하시거나, 예루살렘-헤브론 고속도로에서 병거 5 대의 충돌로 인해 죽게 하지 않으셨다. 여호와와 응답은 자주 섭리와 같이 추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자주 섭리와 같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며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격려하는지!

이러한 믿음의 암시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날이다. 다윗이 그의 범죄(삼하 12:10-12)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합법적인 왕이다. 그러나 그 합법적인 왕이 거절당하고 감람 산 등성이를 올라갈 때 울며 터벅터벅 걷는다(삼하 15:30). 이 장면은 반복될 것이다. 삼하 7:12-16 에 따른 합법적인 왕이신 다윗의 자손은 감람 산에서 보이실 것이다(눅 19:37). 그분은 자신이 거절당한 것에 대해 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절한 사람들의 비운에 대해 우실 것이다(눅 19:41-44).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약간의 종교적 겉치레를 추가했다. 사울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성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2.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악행에 대한 또 다른 예를 위해 이사야 10 장을 보라. 여러분은 다른 예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3. “잇대는 배반의 바다에 있는 충성의 섬이다.” 다윗의 운이 그렇게 나쁠 때 이러한 사람의 충성은 큰 미덕이었다. 여러분이 운용하는 미덕의 척도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
4.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 하시게 하라.” 이것은 믿음의 태도인가 아니면 영적 게으름을 위한 처방전인가?
5.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놀라운 방식들을 기억할 수 있는가? 그러한 성찰은 의심할 여지없이 믿음을 강화하고 찬양으로 이어질 것이다.

18. 내 원수들 앞에서 (삼하 16 장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삼하 15:13-17 이 다윗의 친구들과 세 번의 만남을 묘사하듯이, 사무엘하 16 장은 미묘하든 노골적이든 다윗의 원수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시바, 시므이, 아히도벨(삼하 16 장)은 잇대, 사독, 후새(삼하 15 장)와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치명적인 잘못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사무엘하 16 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내러티브 부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16 장의 전반부는 15 장과 함께 가는 한편, 16 장의 후반부는 17 장과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인다. 삼하 16:14 은 다윗의 망명에 대한 설명(삼하 15:13-16:14)을 마무리하는 한편, 삼하 16:15 은 압살롬을 속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또 다른 부분(삼하 16:15-17:23)을 시작한다.¹ 그러나 사무엘하 16 장은 그 자체로 보면, 두 개의 구별되는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고 각 내러티브는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²

삼하 16:1-14:

다윗

시바의 중상모략, 삼하 16:1-4

시므이의 저주, 삼하 16:5-14

삼하 16:15-23:

압살롬

후새의 아침, 삼하 16:15-19

아히도벨의 조언, 삼하 16:20-23

강해로 나아가기 전에 나는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다. 다윗은 범인(凡人 anybody)이 아니라 여호와와 택하신 왕이다(삼상 16:1-13). 그러므로 왕으로서 다윗을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와 그분의 나라를 거역하는 것이다. 다윗은 개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그의 직분, 곧 여호와와 언약 왕으로서 그의 소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민주적 선거가 없는 사회의 변화를 옹호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름을 부음 받은 여호와와 종에 대한 반역이었다(참조, 삼상 24:6; 26:9-11). 이것은 다윗의 죄악이나 (심지어 압살롬을 통해서도)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심판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선택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심판 아래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종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그를 멸시하고, 반대하고, 배신하는 것은 그를

¹ 삼하 16:15-17:29을 포괄하는 구조에 대한 제안을 위해 Ronald F. Youngblood, "1,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1005-6을 보라.

² Zvi Adar, *The Biblical Narrative* (Jerusalem, 1959), 156-60에 나오는 훌륭한 논의를 보라.

임명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대하고, 배신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위해 요 5:23b 와 눅 10:16 을 보라.

이제 왕의 원수들을 만나보자.

I. 시바, 조작하는 사람 (삼하 16:1-4 Ziba, The Man Who Manipulates)

나귀, 빵, 건포도, 여름 과일, 포도주를 가지고³ (겉으로 보기에) 호의적으로 다윗을 만나는 시바(삼하 16:1)를 원수라고 부르는 것은 무자비하게 들릴 것이다. 시바는 그 식량이 왕의 충신들의 힘든 여정에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윗을 확신시킨다(삼하 16:2). 공급품들이 무진장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구성하며 베풀어주는 사람의 사려 깊은 생각을 가리킨다. 다윗은 므비보셋에 대해 궁금해하며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삼하 16:3a; 히브리어의 “아들”은 종종 탄력이 있어 손자나 더 먼 후손을 나타낼 수 있음). 시바는 기민하게 반응하며 “그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삼하 16:3b). 다윗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위해 모든 것을 했음에도(삼하 9 장) 불구하고 므비보셋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는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빨리 시행되어야 했다. 시바의 종들은 서둘러 가야만 했다. 다윗은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시바의 것이 되게 하였다(삼하 16:4a). 물론 시바는 감사했다(삼하 16:4b).

우리는 므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진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시바의 주장을 특히 삼하 19:24-30 에서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하는 매우 다른 설명에 비추어 보라. 아주 간단하다. 시바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약간 위험하긴 했지만, 그는 다윗이 현재의 극한 상황에서 그의 이야기를 확인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바는 명백히 친 다윗적이었고, 짐을 잔뜩 실은 나귀들은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이에 순간적으로 발끈하여 다윗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다윗의 정신 회로가 확실히 과부하에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시바의 증상모략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지금 여론이 **압살롬**의 왕권으로 몰리고 있을 때 므비보셋이 사울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여기서 시바는 그의 다윗에 대한 입장을

³ חֲמִשָּׁה זָמָן [체메드 하모림]은 전통적으로 두 나귀(a pair/couple of donkeys)로 번역되지만 NIV에는 일련의 나귀들(a string of donkeys)로 번역되어 있다. 문맥은 두 마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NIV의 번역을 지지하는 것 같다. Youngbloo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3:999에 나오는 논의를 보라.

드러내 보일지라도, 그와 그의 종들은 밭에 남아있을 것이다(참조, 삼하 19:17-18). 그들은 다윗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감을 가졌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그러나 압살롬이 성공했다고 가정해보라. 문제될 것이 없다. 시바는 이전 왕과 망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정권 아래 살 준비가 된 밭을 경작하고 있다. 시바는 조작자이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다윗의 곤경을 이용하고 있다.⁴ 시바를 움직인 것은 여호와의 택하신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욕이었다.

여러분은 대륙군이 벨리 포지에서 겪은 끔찍한 겨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옷이 너무 헐렁하고 담요가 너무 희귀해서 자주 군사들은 누워서 잠들었다가 일어 죽는 것보다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라파예트는 다리가 시커멓게 얼어붙은 병사들을 보았다. 그들은 절단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가? 그 겨울은 펜실베이니아 기준으로 온화했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이 아니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인근의 농부들이 필라델피아의 영국인들에게 현금을 받고 파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굶주리게 되었다. 보스턴의 상인들이 “1,000%에서 1,800%에 이르는 이윤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는 그들의 진열대에서 정부용 의류를 보내는”⁵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군대는 반나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식민지는 시바와 같은 사람들로 붐볐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 그들에게 성공의 기회였다.

시바를 따르는 입장(시바주의?)은 노골적일 수도 있고 미묘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탐욕과 조작의 더 심한 표본에 대해 통곡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바의 접근 방식의 본질은 인상, 곧 이미지를 만들어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다. 내가 왜 곤경에 처한 친구에게 대화나 편지를 통해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아야만 했다. 그러한 확언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신자들을 진정으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때때로 바로 그것, 즉 그가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닌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 시바가 들어온다. 내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신경을

⁴ 만일 다윗이 기선을 제압하고 시바의 중상모략을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시바는 여전히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지라도 그는 왕이 곤경에 처했을 때 왕을 정말로 도왔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바에 대한 나의 견해의 보강 증거를 위해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276-77, 그리고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194, 그리고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345을 보라.

⁵ Robert Leckie, *The Wars of America*, 2vols (New York: Harper & Row, 1968), 1:181.

쓰고 있다는 것을 전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배려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고, 거기에 큰 투자는 없을지라도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주가는 약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의 경건은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 왜 나는 그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로 있지 못하는가? 글썄, 그렇다면 거기에는 나를 위한 것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늙은 랍비 던컨이 그의 수십 년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칠십 년 동안 죄 없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⁶

II. 시므이, 저주하는 사람 (삼하 16:5-14 Shimei, The Man Who Curses)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바후림에서 다윗과 그의 수행원들은 사울 가문의 후손인 시므이란 인간 화산과 마주친다. 그는 다윗과 추종자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삼하 16:5, 6, 13). 분명히 시므이는 다윗이 길을 갈 때 그 길 맞은편이나 위에 있는, 즉 피해를 줄 만큼 충분히 가깝고 안전이 보장될 만큼 먼,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다윗에게 분노를 표시하며 돌을 던졌다. 그는 다윗을 야비한 살인자요 무가치한 바보라고 비난했다(삼하 16:7b). 시므이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결백을 결코 믿지 않았다(사무엘하 3 장과 4 장). 그는 다윗이 그 편리한 폭력의 배후라고 확신했다. 그의 항의는 매우 정치적인 태도를 보였다(삼하 16:8a).⁷ 시므이는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무자비했다(다른 사람들이 복제했던 조합). 그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이 흘린 모든 사울 가문의 피에 대해 갚으시며 왕국을 압살롬의 손에 넘기시는 중이라고 말한다(삼하 16:8a). 그는 기뻐하며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좌초하였다(삼하 16:8b).”라고⁸ 덧붙인다. 시므이의 기죽이는 말은 곧 짜증스러워진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다윗에게 돌아서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삼하 16:9a, 왜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무엄하게도 내 주 왕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라고 반문하며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도록(삼하 16:9b)”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다. 아비새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머리가 없는 사람은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삼하 16:10a) 이상한 근거를 제시한다.

⁶ A. Moody Stuart, *The Life of John Duncan* (1872; reprint ed.,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1), 150.

⁷ Cf.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1,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198. 포켈만은 삼하 16:8의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다”는 절이 가리키는 것이 삼하 21:1-14의 사건이 아니라 “사울의 통치 말기와 바로 그 이후에 사울계의 실각(아브넬, 이스보셋)”이라고 주장한다.

⁸ כָּל־עֲוֹנוֹתָי בְּרָאָה [브힌하 브라아테하]; NIV: “you have come to ruin.”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네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삼하 16:10b)

그러므로 다윗의 명령(그리고 확신)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삼하 16:11)”는 것이었다. 시므이의 독은 여호와와의 지시에 따라서 온 것이다. 다윗은 시므이의 급소를 찔러 죽이는 대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지도 모른다(삼하 16:12, 데이비스의 번역)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 진술을 살펴보자. 삼하 16:12 에는 본문상 문제가 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보시기를/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나의 고난/곤경/고통”: 이 독법은 칠십인역과 같은 고대 역본에 반영되어 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독법을 따른다.⁹
2. “나의 눈/눈들”: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에 여백에 있는 독법(크레)으로 소수 히브리어 사본에 나온다. 중세 유대인 주석가들은 눈이 눈물의 원천이므로 “나의 눈들”을 “나의 눈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3. “나의 죄악”: 이것은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의 독법(크티브)이다.¹⁰

⁹ NIV 와 NASB 의 “my misery”는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 두 영어 성경은 본문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각주를 달지 않고 있다.

[역자 주] “my affliction(RSV/NKJV), my distress(NRSV), my trouble(NLV), wrong done to me(ESV/AMP) 등도 NIV 와 NASB 의 “my misery”와 비슷하다. 많은 영어 성경이 따르는 이 독법은 “Maybe the Lord will see *my misery* [*my affliction/distress; or that I am being wronged*] and repay me with something good [blessing] for Shimei’s curses today!”라고 되어 있는 EXB 에 잘 드러나 있다. AMPC 는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look on the *iniquity done me* and will recompense me with good for his cursing this day.”라고 되어 있다. 이 독법을 반영하며 개역개정은 “원통함”으로, 새번역/우리말성경/현대어성경은 “비참한 모습”으로, 공동번역은 “비참한 꼴”로, 쉬운성경은 “비참함”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독법은 히브리어 본문의 크티브나 크레를 따르지 않고 자음을 변경하고 모음을 붙여 읽은 것이다. BDB(730, 777)가 제안하는 대로 **יָצַח**[브온이], 즉 “나의 고난”으로 읽은 것이다(참고, 창 31:42). 이 독법은 소수 히브리어 사본, 칠십인역, 페시타역, 별게이트역에도 반영되어 있다.

¹⁰ 히브리어 단어 [아본]은 죄악 자체, 그것의 죄책, 혹은 그것에 대한 처벌을 의미할 수 있다. TWOT, 2:650-51 을 참고하라. NJPS 는 마지막 의미를 강조하며 “나의 처벌”이라고 번역한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고난과 눈과 죄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매우 비슷하여 쉽게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가? 번역을 확인해서 그 수를 세어보면 되는가? 그렇다면 첫 번째 독법인 고난이 선택될 것이다. 실제로는 두 가지 가능한 독법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 독법은 설명된 대로 첫 번째 독법과 혼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고난인가 아니면 죄악인가? 나는 올바른 독법으로 세 번째 독법인 죄악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고난”이 문맥상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고난”이 실제 원문이라고 가정해보자. 누가 그걸 바꾸고 싶어하겠는가?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잘 들어맞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으레 기대하는 단어이다. 어떤 필사자가 그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만약 “고난”이 원래의 독법이라면, 나는 이러한 다른 다양한 독법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죄악”이 원문이라고 가정해보라. 그것은 귀에 조금 거슬린다. 죄악을 보시고 선으로 갚으시는 여호와? 서기관들은 그러하신 분에 대해 곤혹스러워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연히 “죄악”이란 단어는 그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비슷해 보이는 “고난”에 대한 가벼운 실수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경의 가능성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에서 “고난”이 “죄악” 대신 오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죄악”이 원래의 독법이라고 생각한다.¹²

방금 나는 “죄악”이 문맥에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사무엘하 16 장만 놓고 보면 그렇다. 그러나 나는 또한 더 큰 문맥에서 “죄악”이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바른 독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전체 내러티브를 신학적으로 읽으며

[역자 주] 삼하 16:12 에 나오는 BHS 의 בְּעֵינַי 가 보여주는 것은 크티브의 자음 בֶּעֵינַי (베트-아인-바브-눈-요드)와 여백에 실린 크레의 자음 בֶּעֵינַי (베트-아인-요드-눈-요드)에 붙을 모음(בֶּעֵינַי)이다. 크티브에 기대되는 모음을 붙이면 בֶּעֵינַי [바아보니]가 되고 “나의 죄악을”이란 뜻이 된다(참고, 창 4:13). 그러나 크레 בֶּעֵינַי [브에니] 혹은 בֶּעֵינַי [브에나이]는 “나의 눈을” 혹은 “나의 눈들을”을 나타낸다. LEB 는 “Perhaps Yahweh will look *in my eye* and repay good for me in place of his curse this day.”라고 번역한다.

¹¹ [역자 주] “나의 고난, 나의 눈/눈들, 나의 죄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각각 עָוֹן [온이], עֵינַי [에니/에나이], עֲוֹן [아보니]이다. 이 단어들의 자음만 나란히 놓으면 $\text{עֲוֹן/עֵינַי/עָוֹן}$ 가 된다. 접미 대명사가 붙지 않은 단수형은 각각 $\text{עָוֹן/עֵינַי/עָוֹן}$ [오니/아인/아본]이다.

¹² 카일, 어드만(랑게 주석), 헤르츠버그와 같은 많은 주석가들이 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브루게만(Walter Brueggemann, “On Coping with Curse: A Study of 2 Sam 16:5-14,”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6 [1974]: 181)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Carmel McCarthy, *The Tiquque Sopherim*, *Orbis Biblicus et Orientalis* 3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1), 81-85을 보라. 나는 그녀의 최종 결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지만 매우 도움이 되는 논의이다. 또한 “나의 죄악”은 “나에게 행해진 죄악”이 아니라 “내 자신이 행한 죄악” 즉 다윗 자신의 죄악을 의미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삼하 12:10-12 이 사무엘하 13-20 장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무엘하 16 장에 이르면, 다윗이 삼하 16:12 에서 사용한 “죄악”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저주가 시므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것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하 11-12 장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다윗은 즉각적인 용서를 보장받았지만 계속 일어날 결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었다. 이에 비추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이의 저주가 그 결과들의 일부라고 인식한 것이다.

내가 독자들에게 이 본문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바른 독법이 엄청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 삼하 16:12 에 다윗의 평강의 비밀이 있다. 그것은 시므이의 머리를 베는 것에 있지 않고 “혹시 여호와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시고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라는 놀라운 진술에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두뇌에 각인되게 하라. 다윗은 저주를 선으로 자주 바꾸시는 하나님, 곧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여호와께서 죄책을 바라보시지만 저주 대신 복을 주시는 이상하게도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가정한다. 그는 하나님의 입은 그의 형벌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삼하 12:10-12) 혹시 하나님의 눈은 그를 그 형벌에서 구원하기를 갈망할 수도 있음을 감지한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디서 그런 기이한 생각을 얻었는가? 그도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는 [울라이], “혹시 ...” 혹은 “어쩌면 ...”이라고 말한다. 다윗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분은 그리하실 수도 있고 그리 아니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알려진 성품을 붙들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가 “혹시”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런 가능성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지 않는가? 그가 실제로 그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 징계하실 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따뜻하고 절절한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타고난 직감인가! 얼마나 거룩한 예감인가! 살면서 왕을 저주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때때로 눈을 부릅뜨고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고 그분의 표준들을 거역한 후 그로 인해 비참한 고난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윗의 이 말은 특별한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회개와 용서가 도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못해 관용을 베푸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때때로 그 관용에 의심을 품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물 기독교인들 처리장에 버려질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의

하나님을 얼핏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다윗의 “혹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죄악을 보시고 선으로 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므이는 저주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저주를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었다. 실제로 그분은 저주를 뒤집으셨다(갈 3:13).

III. 아히도벨, 배반하는 사람 (삼하 16:15-23 Ahithophel, The Man Who Betrays)

아히도벨은 구약의 가롯 유다이다. 그것이 가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결국, 동료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위해 일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그가 원한다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충성을 옮길 수 없는가(삼하 15:12, 31)? 대답은 “아니오, 아니오”이다. 다윗은 많은 고용주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다.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버릴 권리가 없듯이 참된 제자는 다윗의 자손을 버릴 권리가 없다(참조, 요 6:66-71).

삼하 16:15-23 은 시작(15 절)과 끝(23 절)에 나오는 아히도벨에 의한 언급에 의해 감싸여 있다. 이것은 아히도벨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세의 압살롬에 대한 헌신을 묘사하는 짧은 부분(삼하 16:16-19)도 들어있다. 압살롬은 후새가 신중하게 선택한 말에 속은 것 같다. 후새는 압살롬에게 나아가며 두 번이나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친다(삼하 16:16). 이 공식은 건성으로 하는 소원이 아니라 “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환호”로서 충성의 약식 맹세일 가능성이 높다.¹³ 사람들은 후새가 말하는 “왕”이 압살롬을 의미한다고 가정했을 것이다. 압살롬은 틀림없이 그렇게 가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후새가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압살롬이 다윗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후새를 다그칠 때(삼하 16:17), 후새가 주장하기를 자신은 여호와와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다(삼하 16:18). 하만처럼(에 6:6) 압살롬은 후새가 자기를 언급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후새는 아주 쉽게 다윗을 묘사하고 있을 수 있었다.¹⁴ 어쨌든 후새는 압살롬에게 그가 다윗의 아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고 확신시킨다(삼하 16:19). 이 에피소드는 후새의 궁극적인 성공을 암시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히도벨이 중앙 무대를 즐기고 있다. 대작전이 삼하 16:20-22 에 나온다.

¹³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384. 더 자세한 것을 위해 T. N. D. Mettinger, *King and Messiah*, Coniectanea Biblica (Lund: CWK Gleerup, 1976), 131-37을 보라.

¹⁴ 후새의 말에 들어 있는 그럴 듯한 아이러니와 이중 의미에 대하여 Charles Conroy, *Absalom Absalom!*, Analecta Biblica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114 그리고 Joyce G. Baldwin, *1 & 2 Samu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8), 264을 보라.

압살롬이 조안을 구하자(삼하 16:20) 아히도벨은 바로 대답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삼하 16:21).” 압살롬은 그대로 행했다. 사람들이 왕궁의 옥상에 이동식 침실을 마련했을 때, 압살롬(미스터 정력)은 부친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삼하 16:22). 만약 3 천년 후였다면 모든 뉴스 방송사들은 현장에 승합차를 세우고 줌렌즈들을 그 장막에 집중시켰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다. 한 왕의 하렘은 그의 후계자에게 넘어가곤 했던 것 같다(참고, 삼하 12:8). 그렇다고 이것이 새 왕이 이전 왕의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류상의 거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왕의 하렘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소유 증서와 같았다. 그래서 압살롬은 여기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말해주는 일로 삼았다.¹⁵ 실제로 다윗의 후궁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 더 이상 되돌아 갈 수 없다. 나는 진지하다. 나는 다윗과 화해할 의도나 소망이 없다.” 그러한 결단력은 압살롬의 지지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삼하 16:21c).

그렇다면 아히도벨의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곧 삼하 16:20-22의 조안과 행동은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타격을 의미했다. 그러나 주의 깊은 독자는 더 많은 것을 감지한다. 사실, 저자는 우리의 밑줄 긋는 것에 해당하는 고대의 것을 이 구절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읊조리지 않는다. 정말 그는 자신의 요점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가 노골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삼하 16:20-22 을 읽는 독자가 자동으로 삼하 12:10-12 을 그의 마음에서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누가 삼하 12:11b-12 을 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취하여 **네 이웃에게**¹⁶ 줄 것이고 그는 바로 대낮에 네

¹⁵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2 vols. (New York: McGraw-Hill, 1965), 1:116. 포켈만(Fokkelman, *King David*, 250)은 이렇게 설명한다. “자기 형의 성폭력(삼하 13장)에 거룩한(?) 분노로 가득했던 바로 그 왕자가 삼하 16:22에서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¹⁶ [역자 주] 개역개정版的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에 나오는 “네 이웃들”과 “그 사람들”은 오역이다. BDB(945)는 “이웃, 친구, 벗, 동료”를 뜻하는 단수 명사 **לְרֵעִי** [레아]가 2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를 취한 어형의 예들로 **לְרֵעִי**(신 5:7), **לְרֵעִי**(출 2:13), 그리고 **לְרֵעִי**(삼하 12:11)를 싣고 있다. BDB 는 삼하 12:11 의 **לְרֵעִי**가 단수 명사에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삼하 16:11b-12).

그렇다면 독자는 아히도벨의 조언이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에 대한 여호와와 심판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제거하려는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쨌든 여호와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성취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언약의 왕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을지라도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본문(삼하 16:20-22 과 삼하 12:10-12)은 배신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배반 행위는 오직 여호와와 말씀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이 복되고 궁극적으로 고무적인 신비에 직면한다. 그것은 1862 년 프레데릭스버그에서 참호로 둘러싸인 리 장군의 확고한 위치 그리고 번사이드 장군이 연방군에게 강을 건너 공격할 것을 명령한 방법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내가 믿는 바로는 리 장군이 롱스트리트에게 “전쟁은 너무 끔찍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좋아했을거야.”라고 말한 것은 바로 남군의 총이 많은 북군을 살해할 그 때이었다. 번사이드는 그가 하고 싶거나 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했다. 남부군 전선을 공격하기로 한 자유로운 결정은 그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리 장군의 뜻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리 장군이 그 위치를 선택하고 강화시켰던 것은 번사이드가 그의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역학은 신약의 아히도벨의 계략에도 작용하고 있었다. 주님의 만찬(성찬)에 대한 전통은 그 서두의 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고전 11:23)”에서 유다가 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 [파라디도미, “hand over 넘겨주다”]는 영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betray 배반하다”로 번역된다(역자 주: 영어성경처럼 현대어성경은 “배반당하시던”으로 번역함).¹⁷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다른 곳에서 동일한 [파라디도미] 동사를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것임을 명시하고 게제니우스 문법 93ss(singular; Ges^s 93ss)를 참고하라고 한다. 개역개정을 제외하고 새번역을 비롯한 한글 성경과 ESV 를 비롯한 영어성경은 단수로 번역하고 있다.

새번역: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ESV: And I will take your wives before your eyes and give them to **your neighbor**, and **he** shall lie with your wives in the sight of this sun.

¹⁷ C. K. Barrett, *A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Harper's New Testament Commentaries (New York: Harper & Row, 1968), 266 그리고 F. F. Bruce, *1 and 2 Corinthian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0), 111을 보라.

사용한다. 바울은 롬 8:32 에서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라고 묘사한다. 한편으로는 유다가 악랄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넘겨주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넘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비롭게도, 유다의 계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굴욕이 될 것이다. 이 진리는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분명하다. 사무엘하 16 장의 말씀은 배신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적들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위안이 될 수 있다.¹⁸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다윗은 개인이 아니라 그의 직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원수를 멀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편의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2. 순간의 압박으로 인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도 느헤미야서의 여러 구절들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4. (나의 주해가 설명한 “죄악”과 “선으로 갚으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삼하 16:12 과 호 11:8-9 을 비교하며 특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5. 때때로 사탄의 활동은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 바울의 삶에서 이것에 대한 예로 고후 12:7-10 을 살펴보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예들을 볼 수 있는가?

¹⁸ 어떤 사람들은 삼하 11:3의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와 삼하 23:34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에 근거하여 밋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이고(삼하 11:3과 23:34에서 추론) 다윗에 대한 아히도벨의 적개심이 다윗이 밋세바를 범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엘리암이 한 명만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어설프다. 삼하 11:3의 “엘리암”과 삼하 23:34의 “엘리암”이 동일 인물이라는 추론은 사실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빈약하다.

19. 그분의 나라는 실패할 수 없다 (삼하 17장 His Kingdom Cannot Fail)

찰스 웨슬리의 "기뻐하라, 주님은 왕이시다[새찬송가 22 장, 만유의 주 앞에]"의 세 번째 연은 "그의 나라는 실패할 수 없다. 그는 땅과 하늘을 다스린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가 우리 예수님께 주어졌다."라고 시작한다. 한편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새찬송가 585 장]"의 마지막 구절은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독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웨슬리의 즐거운 리듬을 좋아하든, 루터의 더 묵직한 위엄을 좋아하든, 그 가사들이 천명하는 확신은 동일하다. 그것은 아무도, 아무것도, 여호와와 그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뒤엎거나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호와와 그의 나라의 안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불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왕국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날뛰는 온갖 종류의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독자들은 사무엘하 17 장에 이를 때 삼상 28:17; 삼하 3:18; 5:2; 7:12-16 의 약속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인물 연구나 개인적인 비극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사무엘하 17 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에 대한 위협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루터와 웨슬리의 말이 옳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다음 말도 역시 옳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단 2:44)." 이 말씀은 사무엘하 17 장 위에 걸 수 있다. 사무엘하 17 장은 공격을 받고 있는 여호와와 그의 나라와 그러한 때에 그분의 백성이 여전히 갖고 있는 위안을 동시에 보여준다.

I. 여호와와 그의 주권의 은밀성 (삼하 17:1-14 The Hiddenness of Yahweh's Sovereignty)

첫 번째 위안은 여호와와 그의 주권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여호와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성도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분의 주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들은 그 주권과 함께 살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인간의 조작이 왕국을 통제할 것처럼 보인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참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다(삼하 17:1-4). 내가 참 중요한 조언이라고 한 것은 삼하 16:23 때문이다. 우리는 삼하 17:1-4 를 이해하기 위해 장 구분을 무시해야 한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여쭙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는 삼하 16:23 에서 곧바로 삼하 17:1-4 로 넘어가면, 우리는 압살롬의 성공에 아히도벨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감지할 수 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주요 위험을 떠맡는 4 단계 계획을 제안한다.

1. 아히도벨은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선발하여 즉시("오늘 밤") 다윗을 추격할 것이다(삼하 17:1).
2. 아히도벨은 다윗이 피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두렵게 함으로써 그와 함께 한 백성이 떨어져 도망하게 할 것이다(삼하 17:2a).
3. 아히도벨은 다윗만 쳐죽일 것이다(삼하 17:2b).
4. 다윗이 제거되면 다윗의 지지자들이 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들의 충성을 얻게 될 것이다(삼하 17:3).¹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감명을 받는다(삼하 17:4). 항상 가장 잘 아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압살롬이 그랬을까? 왜 그가 삼하 17:5-6 에서 그런 치명적인 질문을 했을까? 왜 그가 구덩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런 첫 걸음을 떼었을까? 어쨌든 압살롬은 후사를 불러 그의 말도 들어보기로 결정한다. 후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는 후세에게 엄청난 이점을 주었다. 그는 후세에게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지만 않고, 그에게 아히도벨의 전체 계략을 공개하고 그의 의견과 심사와 논평을 구했다. 이리하여 후사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이 그의 의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² 아히도벨의 계략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후사는 유리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그것들에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후사가 그의 장황한 말(삼하 17:7-23) 중 바로 첫 마디의 말(직역하면, "안 좋습니다. 아히도벨이 제시한 조언이 [좋지 않습니다].")을 할 때, 그는 제 발등을 찍는 것처럼 보인다.³ 강심장이다. 그것은 교황이 천주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다. 그러나

¹ 삼하 17:3 이 갖는 본문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아히도벨의 주안점을 흐리게 하지는 않는다.

²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1,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214.

³ 알터(Robert Alter, in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74)는 아히도벨의 시급한 간결성과 후세의 의도적인 다변을 이렇게 대조한다.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에서 군사적으로 올바른 아히도벨의 조언은 히브리어로 약 4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주로 일련의 청유형 동사들, 즉 '나로 선택하게 하소서 ... 나로 일어나게 하소서 ... 나로 오늘밤 다윗을 추적하게 하소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조언의 내용과 분위기를 완벽하게 표현한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유일한 길은 다윗이 그의 군대를 재편성하기 전에 다윗을 세계 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진술 자체도 화려한 수사학적인 책략을 위한 시간이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세의 조언은 세 배 반이나 길고, 거의 모든 지점에서 뛰어난 수사학적인 기교가 느껴지고, 설득력 있는 직유들이 풍부하다. ..."

후새는 충격을 주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는 즉시 자신의 흑평에 “이번에는”이란 어구를 추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후새는 아히도벨의 일관된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현재의 제안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의 최선조차도 종종 기차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후새가 사용하는 다양한 호소들을 들음으로써 그의 숨씨를 잘 감상할 수 있다. 그는 **논리**에 호소한다(삼하 17:8b-9a). 누구도 자명한 사실, 곧 다윗이 “전쟁에 익숙한” 백전노장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군대와 함께 밤을 보내지 않고(삼하 17:8b)” 혼자서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후새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다. 아히도벨의 뜻은 좋다. 그렇지만 그가 이 문제를 철저히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다윗만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좋게 들린다. 그러나 정신 차려라! 다윗만 죽일 수 있는 길이 없다. 당신은 그를 찾을 수조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에 호소하는 것과 더불어 후새는 **조심**에도 호소한다(삼하 17:9b-10). 후새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압살롬이여, 상상해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자신이 뽑은 이 특공대를 이끌고 당신의 아버지를 치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먼저 특공대의 멧을 엮드리지게 하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용감한 군대를 공포로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신은 이 위협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람들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고 있기(삼하 17:10b)” 때문입니다. 단지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큰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운에 맡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대담함과 어리석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새의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허영심**에 대한 그의 호소일 것이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이길 방법을 알았지만, 후새는 압살롬을 이길 방법을 알았다. 후새는 맨처음부터 부드럽게 압살롬의 허영심에 호소하였다. “**당신은**(히브리어 본문에서 강조)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라는 것을 압니다(삼하 17:8a).”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아히도벨 포함)이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떤 근시안적 평가를 내리더라도, 당신은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후새가 명백하게 허영심에 호소하는 것은 삼하 17:11 에서 다윗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기 시작할 때 나온다. “징병제를 부활시켜 바닷가의 모레 같이 많은 군대를 모으십시오. 온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모으시고, 친히 그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십시오(삼하 17:11b).⁴ 삼하 17:1-3 에 나오는 아히도벨의 제안을 잠깐 살펴보면 대조가 두드러진다. 우리는 거기에서 (역자 주: 7 개의) 1 인칭 단수 동사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본다.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에브하라]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아쿠마]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에르드파]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아보] 그를 **무섭게 하면**[브하하라드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처죽이고**[브히케티]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브아시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삼하 17:1-3a).

아히도벨은 반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후새는 목마른 자아를 어루만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친히 진짜 군대를 이끌게 하라. 그로 하여금 전장에서 으스스대고 뿔내도록 하라. 후새는 압살롬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이는 압살롬 자신의 삶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다. 후새는 압살롬에게 초점을 맞춘 후에 미묘하게 압살롬의 대의와 자신을 동일시했다(삼하 17:12-13 의 동사들이 나타내는 주어가 1 인칭 복수 “우리”인 것을 참고하라).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영특하지만, 후새는 교활하다. 아히도벨은 지시하지만, 후새는 소중히 보살핀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승리하게 할 수 있지만, 후새는 압살롬이 더 오만하도록 할 수 있다. 아히도벨은 더 나은 조언을 하지만, 후새는 더 설득력 있는 조언을 한다.

마지막으로, 후새는 **복수심**에 호소하는 것을 포함한다(삼하 17:12-13). 후새는 다윗과 그의 충신들을 완전히 말살할 것을 제안한다. 아히도벨이 선호하는 대로 다윗만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반쪽짜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왜 친 다윗적 요소들을 남겨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반대측의 응석을 받아주는 대신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린다면 새 정권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⁴ Shimon Bar-Efrat, *Narrative Art in the Bible*, JSOT Supplement Series (Sheffield: Almond, 1989), 233에 나오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그러나 압살롬을 돋보이게 하려는 노력은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직역: 당신의 얼굴/당신의 임재가 전장에 나가십시오, וּפָנָיְךָ הֵלָכִים בַּקָּרֶב, 우파네하 홀림 바크라브]’라는 엄숙한 선언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동일한 표현, 즉 동일한 동사를 가진 동일한 제유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출 33:14, 15의 ‘내가 친히 가리라[וְאֶנִּי יֵלְכֵנּוּ] 파나이 엘레후’ 그리고 ‘주께서 친히 저와 함께 가지 아니시려거든[임-엔 파네하 홀림]’에 나온다. 이것은 압살롬 자신이 그의 모든 영광 가운데 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후새는 압살롬의 열망과 포부를 가지고 놀며 그의 말이 야심 찬 왕자의 과대망상과 과도한 자기애로 향하게 한다.”

명백한 근거와 생생한 이미지가 결합된 후세의 제안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은 개정된 판단을 한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약은 아히도벨의 계약보다 낫다(삼하 17:14a; 비교, 삼하 17:4).” 그러나 후세의 숨씨는 이 반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반전의 배후에 비밀이 있는데, 저자는 그것을 삼하 17:14b 에서 이렇게 밝힌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약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다.⁵

그것이 바로 전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다. 그것이 바로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자유롭게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작정하셨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와 주권은 여러분에게 철학적인 문제들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삼하 17:14 에 나오는 그분의 주권의 주된 특징은 그것의 은밀성이다. 나팔도 없고, 소란도 없고, 광고판도 없고, 범퍼스티커도 없다. 자동차 중개인들이 텔레비전에서 뿜어내는 현란하고 열광적인 광고도 없다. 이 조용한 본문만 있고, 이 신중한 방백(傍白)만 있다. 여호와와 택하신 왕을 대적하는 음모는 물거품이 되었다.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식인 경우가 흔하다. 그분의 홀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주권은 우리 삶의 대화, 결정, 활동, 위기 뒤에 숨겨 있다. 우리는 식료품점, 기저귀 교체, 학교 숙제 등만 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그 모든 것 위에서, 그 모든 것 배후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분이 부재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백하신 것도 아니다. 우리가 후세와 같은 사람들에게

⁵ [바도나이 치바 르하페르 에트-아차트 아히토펬 하토바 르바아부르 하비 아도나이 엘-아브살롬 에트-하라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여호와”는 강조적이다. (역자 주: 개역개정이 [치바]에 대하여 개역의 “작정하다” 대신 “명령하다”로 고친 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본문이 아히도벨의 계약을 “[하토바] 좋은” 것이라고 묘사할 때, 그것은 도덕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잘 작동되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좋은 것이었다. 사무엘하 17장에서 14절은 분명히 신학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음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삼하 17:14은 또한 삼하 17:1-23의 문학적 중심일 수 있다.

아히도벨의 조언, 삼하 17:1-4

압살롬의 질문, 삼하 17:5-6

후세의 조언, 삼하 17:7-13

여호와와 비밀, 삼하 17:14

후세의 전언, 삼하 17:15-16

다윗의 정보원들, 삼하 17:17-22

아히도벨의 최후, 삼하 17:23

너무 매혹되지 않도록 때때로 우리는 그것(여호와와의 작정에 대해 진술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II. 여호와와의 섭리의 감동 (삼하 17:15-22 The Excitement of Yahweh's Providence)

여러분은 삼하 17:14b 에 진술된 비밀을 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 대해 어떤 작정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파멸을 내리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저자는 이것을 알고 있고, 그가 말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삼하 17:14b 은 독자인 여러분을 위한 저자의 방백이다. 이야기 속의 등장 인물들은 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후새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 그는 압살롬과 그의 간부들이 그 자신의 조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삼하 17:14a) 전혀 몰랐다. 그들이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났었다.⁶ 단지 후새는 다윗에게 자신과 아히도벨이 무슨 조언을 했는지 말할 수 있었고 아히도벨의 조언이 채택될 것을 가정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었다(삼하 17:15-16). 그렇다면 이야기 속의 모든 인물은 어둠 속에 있고, 여호와의 주권적 목적은 실제로 숨겨 있다. 그래서 삼하 17:15-22 은 하나님 백성에게 미묘한 위안이 된다. 이 구절들은 여호와와의 섭리에 대한 작은 에피소드, 곧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 경우에서 다윗)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권은 숨겨져 있지만 섭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주권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삼하 17:14 에서 국면이 전환되었지만, 우리는 자주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삼하 17:15-22 과 같은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준다. 우리가 조마조마함이 없는 것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후새의 전언이 마침내 다윗에게 도달했는지를 말해주는 이 조마조마한 단락을 갖는다. 이 소식은 필수적이었다. 설명한 바와 같이 후새는 아히도벨의 조언과 자기 자신의 조언을 전하며 다윗에게 최악의 상황, 곧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비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 뿐이다(삼하 17:16). 그러나 다윗은 후새의 조언도 알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어떤 이유에서든 후새의 조언을 선호했다면 다윗은 엄청난 공격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이야기의 중앙(삼하 17:18-19)에서 가장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간결하고 질서정연하게 언급되어 있다. 다음 구조에 유의하라.⁷

후새의 첩보: 전달, 삼하 17:15-16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 대기, 삼하 17:17a

⁶ 이것은 매튜 헨리(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534)가 오래 전에 지적한 요점이다.

⁷ 삼하 17:15-22에 대한 이 구조를 작성한 후 얼마 지나서 나는 우연히 Fokkelman, *King David*, 224에 나오는 구조가 이와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여종 – 통신, 삼하 17:17b

청년 – 폭로, 삼하 17:18a

우물, 삼하 17:18b

여인 – 은폐, 삼하 17:19

종들 – 좌절, 삼하 17:20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 출발, 삼하 17:21a

후세의 첩보: 수신, 삼하 17:21b-22

구조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우물은 이 내러티브의 가장 낮은 지점이다!

한 여종이 엔로겔로 나갈 때 긴장이 고조된다. 엔로겔은⁸ 다윗 성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샘터/우물인데 거기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삼하 17:17a). 다윗의 비밀 첩보망은 성공할 것인가? 여인이 물을 구하러 우물에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측근 중 하나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보고한다(삼하 17:18a).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자기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루살렘 바로 동쪽 바후림(삼하 16:5)에서 그들은 우호적인 시민의 집에 슬그머니 들어가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간다. 그 시민의 친절함 아내는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낸다. 모든 것이 일상처럼 보인다. 이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삼하 17:18-19). 그러나 압살롬의 종들이 도착하여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행방을 물을 때, 그 여인은 그들을 위해 이야기를 꾸며 낸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 두 사람이 벌써 지나갔다고 확신시킨다(삼하 17:20a).⁹ 압살롬의 앞잡이들은 추적을 계속하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우물에서 나와 다윗에게로 달려간다(삼하 17:20b-21).

이 에피소드는 구사일생의 탈출이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조그만

⁸ 엔로겔에 대해서는 ISBE 2:104, 1007 을 보라.

[역자 주] 개역/개역개정/현대어성경은 [엔로겔]로(?일본식), 새번역/쉬운성경/우리말성경은 [엔로겔]로 음역했는데 후자가 옳은 음역이다. [엔로겔]은 “로겔/여행자의 샘/우물; BDB: fountain of a traveller”이란 뜻이다. 이것은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엔학고레[음역: 엔-하코레]처럼 “샘, 우물”을 뜻하는 [엔]을 갖고 있다.

⁹ “[아브루 미할 하마임] 그들이 물의 시내를 건너갔다.”라는 그 여인의 말은 우리에게 다소 모호하다. 그녀는 근처의 시내나 개울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그 여인의 윤리 문제로 수렁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녀는 압살롬의 부하들을 속였다. 내러티브는 단지 그것을 전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에 관한 어떤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저자는 멈추어 도덕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서둘러 아슬아슬한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한다.

신호이다. 그것은 박해자들로부터 도망쳐 건초 더미를 발견하고 건초 아래로 뛰어드는 경건한 목사에 대해 스펀전이 말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군인들이 곧 뒤따라와서 칼과 총검으로 “악당”을 찾기 위해 건초를 찢어 보았다. 그 주님의 종은 발바닥에 차가운 강철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 흔적은 수년 동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추격자들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 암탉이 그가 숨어있는 곳 바로 근처에 매일 와서 알을 낳았고, “그래서 그는 자기 은신처를 안전하게 떠날 때까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지탱되었다.”¹⁰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여러분은 날달걀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잊지 않으셨다는 얼마나 분명한 징조인가! 그리고 이것은 건초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작은 섭리들은 커다란 격려가 될 수 있다.

III. 여호와와 원수의 종말 (삼하 17:23 The End of Yahweh's Enemy)

갑자기 우리는 아히도벨의 부고를 접하게 된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삼하 17:23)

이것은 매우 사실적인 묘사이다. 저자는 어떤 문학적인 히스테리나 선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단계적인 전언은 아마도 아히도벨 자신의 사고 방식, 곧 계산적이고 신중한 사고 방식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아마도 일부 고향 주민들은 그날 오후 아히도벨이 길로(삼하 15:12 참조)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¹¹ 그의 가족은 급히 처리할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그가 곧장 책상으로 향했던 것을 기억했다. 나중에 그들은 그가 자살한 것을 발견했다. 자살은 아히도벨다운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무엇이 자살 동기인가? 본문은 오직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말할 뿐이다. 이것은 아히도벨이 왕좌 배후의 실세가 되길 계획했음을 암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압살롬이 그의 계략을 명령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여겼을 때, 아히도벨은 새 정권에서 “낙오자”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매우 실망하여 거기서 빠져나오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더 그럴듯한 것은 본문이 (단 5:5의 벨사살처럼) 아히도벨이 벽에 쓰인 글씨를 볼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참주(僭主) 압살롬이 그의 조언을 거절하자마자 아히도벨은

¹⁰ C.H. Spurgeon, *Lectures to My Students*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2), 403.

¹¹ Gary A. Herion, “Giloh (Place)”, ABD, 2:1027. 길로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남/남서쪽으로 20-25 마일 떨어져 있고, 아마도 헤브론의 남쪽과 서쪽에 있었을 것이다.

압살롬의 대업 위에 파멸이란 글자가 쓰여지는 것을 보았다.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면 다윗의 진격군은 압살롬의 군대를 전멸시킬 것이고 그 후에 아히도벨은 반역자란 이유로 처형될 것이다. 그것은 아히도벨에게 아주 분명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적어도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말이다.

아히도벨의 종말에 대한 전언은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믿음과 소망을 강화시켜준다. 사무엘상 16 장의 서론적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아히도벨은 정치적인 어리석음을 저지른 정부 관리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의 대적이며, 따라서 여호와와 그분의 나라의 원수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아히도벨을 매장하려고 메고 가고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의 최후는 그 왕(하나님)과 나라(하나님 나라)의 모든 적들에게 일어날 일의 징표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조만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짓밟힐 것이다. 아히도벨들과 아돌프들, 하만들과 힘러들, 산헤립들과 스탈린들은 모두 역사의 쓰레기장에서 썩고 죽는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나라와 그 신하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IV. 여호와의 종들의 견실함 (삼하 17:24-29 The Steadfastness of Yahweh's Servants)

여호와의 택하신 왕에게 원수들과 반역자들이 있다면, 그에게는 또한 친구들과 지지자들도 있다. 그것이 사무엘하 17 장의 마지막 부분(24-29 절)의 증언이다.

사실, 삼하 17:24-29 은 사무엘하 18 장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장면이 요단 동편으로 바뀌고 다윗의 충신들과 압살롬의 반란군 사이의 대결 장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들의 증언을 왜곡하지 않고 사무엘하 17 장과 함께 다룰 수도 있다.

삼하 17:24 은 삼하 17:22 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른다. 마하나임은 이스보셋의 옛 수도였고(삼하 2:8), 아마도 압복강 북쪽 기슭에 있었고, 다윗이 요단 강을 건넌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30 마일 그리고 동쪽으로 약간 더 나간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저자는 압살롬과 그의 군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들은 요단을 건넜고(삼하 17:24b),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았고(삼하 17:25),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삼하 17:26). 압살롬에 관련된 진술을 마치고 저자는 우리를 다시 마하나임으로 인도하여 다윗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준다(삼하 17:27-29).

저자는 이 부분을 누가?(삼하 17:27), 무엇을?(삼하 17:28-29a), 그리고 왜?(삼하 17:29b)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누가?" 부분은 세 명으로 이루어진 매혹적인 콜라주이다. 첫 번째 인물 소비는 랍바 출신의 암몬 사람이었고 아마도 어리석었던 하논(삼하 10 장)의 형제였을 것이다.

다윗은 하늘 대신 소비를 그의 봉신으로 임명했던 것 같다. 두 번째 인물은 로드발¹²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었다. 그는 므비보셋에게 안식처를 제공한 것(삼하 9:4-5)으로 보아 사울 가문에 매우 동조적인 것 같다. 세 번째 인물은 로글림¹³ 출신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이었다. 그는 부유하지만 쇠퇴해가는 80 세 노인이었다(삼하 19:31-37). 이들은 인상적인 물품들을 가지고 왔다. 무엇을 가져왔는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였다(삼하 17:28-29a).¹⁴ 이들은 투명한 동정심을 보였다.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삼하 17:29b).

이들 중 한 사람은 이방인(소비)이고, 또 한 사람은 전직 사울 신봉자(마길)이고, 또 다른 사람은 매우 늙은 노인(바르실래)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여호와와 종들이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고, 사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실 압살롬이 다윗을 상대로 압도적인 수를 확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다윗의 편에 서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택한다. 그들 모두는 틀림없이 부유한 지주였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잃을 것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충성해야 할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던 것 같다.

멕시코와의 전쟁 중 차풀테펙에 대한 공격 당시에 토마스 J (나중에 스톤웰) 잭슨 중위가 지휘하는 포대가 가혹한 사격을 받고 있었다. 일부 말들이 죽임을 당했고 사수들이 총을 버리고 제방 뒤에 있는 피난처로 피신했다. 그러나 잭슨 중위는 포열에 남아 있으면서 부하들에게 후퇴를 촉구했다. 몇 년 후 버지니아 렉싱턴에서 잭슨의 제자들이 이 에피소드에 관해 질문하고 있었다.

¹² [역자 주] 한글 성경은 삼하 9:4-5 에 나오는 לֹדְבָאֵל은 모두 로드발로 음역했지만, 삼하 17:27 에 나오는 לֹדְבָאֵל은 (공동번역만 로드발로 음역하고 나머지는) 로데발로 음역했다. 공동번역처럼 로드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성경은 이 세 구절에서 Lo-debar 혹은 Lo Debar 로 통일해 음역하고 있다.

¹³ 머리 속에 그려볼 지도를 위해 말하면, 랍바는 요단 강에서 동쪽으로 약 22 마일,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남동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로드발은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9 마일 떨어진 곳(물론, 요단 강 동편)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C. E. DeVries, "Lo-debar", ISBE, 3:151을 참고하라. 로글림의 정확한 위치는 알 길이 없다.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The Macmillan Bible Atlas*, 3rd ed. (New York: Macmillan, 1993), 84을 보라.

¹⁴ 본동사 [히기슈]("가까이 가져오다, 선물하다")는 삼하 17:29의 중반에 이르러서야 나온다. 사람들과 공급품들의 목록이 본동사 앞에 나온다. 포켈만(Fokkelman, *King David*, 235)은 "삼하 17:28[그리고 29]은 동지들의 충성의 정도와 깊이를 표현한다."라고 지적한다.

그들 중 한 명이 깜짝 놀라며 “소령님, 소령님의 지휘가 아주 망쳤을 때, 왜 소령님은 후퇴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잭슨의 조용한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후퇴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면, 나는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내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을 포기할 권리가 없었다.”¹⁵

그것이 소비, 마길, 바르실래가 처한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은 한 명의 언약 왕이 있었고 그들은 그를 포기할 권리가 없었다. 그들은 그 언약 왕을 포기하지 않았다. 언약적으로 기독교인 제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관계에 서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분의 권위와 통치에 대한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분이 아무리 많이 비하되고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시인하고(마 10:32-33) 그의 백성을 지지하라는 명령 아래 있다.¹⁶

사무엘하 17 장은 공격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 백성을 위한 위안이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개인적인 재난으로부터의 면제나 우리 자신의 나라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보증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고 그것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어난 사건들 중 일부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주권을 식별할 수 있는가?
2. 만일 하나님과 사탄이 욥기 1 장과 2 장에서 자신을 주인공 삼아 대화하는 천상 장면을 욥이 알았다고 가정하면, 그의 믿음의 시련은 시험이 되었을까? 욥이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욥기의 교훈은 강력했을까?
3. 어떤 작은 섭리들이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되어왔는가?

¹⁵ Mary Anna Jackson, *Life and Letters of General Thomas J Jackson* (1892; reprint ed., Harrisonburg, VA: Sprinkle, 1995), 42-45

¹⁶ 소비, 마길, 바르실래에 대한 채프만(C. Chapman, // *Samuel*, The Pulpit Commentary [London: Funk and Wagnalls, n.d.], 426)의 암시적인 논평에 유의하라. “의심할 여지없이 성경 역사가는 영원히 남을 책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삽입할 때 선택의 원리를 따랐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그들의 존경을 승인하신 것을 드러내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께서도 향유를 자기에게 쏟아 부은 여인의 동정심을 인정하시며 그녀가 행한 일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그녀가 기억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마 26:13).”

4. "아히도벨들과 아돌프들"로 시작하는 문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이름들을 최대한 많이 추가하라. 적절하게 추가된 모든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5.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은 어떤 방식으로 시험될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러한 시험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20. 슬픈 승리 (삼하 18:1-19:8 The Sad Triumph)

1864 년 5 월 6 일 광야 전투에서 연방군이 남군 전선을 돌파했지만, 그들의 성공은 남군의 근거리 대포 사격으로 인해 잠시 지연되었다. 남군 포병들이 연방군 대열을 향해 포격을 퍼부을 때 리 장군 자신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리 장군은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으면 이 포격이 곧 끝나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때 그는 지원군, 곧 텍사스 군대의 수석 여단을 보았다. 리 장군은 황홀했다. 그들이 반격을 준비할 때 리 장군은 트레블러를 그들 사이의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스스로 반격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군대는 멈춰 서서, 전진하는 것을 거부하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리 장군은 뒤로 물러나십시오! 리 장군은 뒤로 물러나십시오!”¹ 그들은 그들의 장군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소중히 여겼고, 그의 목숨이 그들의 대의에 너무 귀중해서 그로 하여금 치열한 전투에서 위험을 무릅쓰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마하나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윗의 군대는 다윗이 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압살롬의 군대가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할 경우 의심할 여지없이 왕에게 집중하여 그를 노릴 것이다. 백성들은 다윗이 그들 만 명보다 귀중하므로 그는 반드시 성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I. 문학적 특징들 (Literary Features)

강해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이 내러티브의 몇 가지 문학적인 특징들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들은 저자가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러티브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다.²

¹ Shelby Foote, *The Civil War, A Narrative*, vol. 3, *Red River to Appomattox* (New York: Vintage Books, 1974), 166-70.

² 흥미롭게도, 우리는 삼하 16:15-18:33이 병행되는 패턴으로 분해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음 패턴에 유의하라.

- A. “왕”이 예루살렘에 오다, 삼하 16:15-23
- B. 아히도벨의 지시, 삼하 17:1-4
- C. 아히도벨의 패배, 삼하 17:5-14
- D. 두 메신저의 드라마, 삼하 17:15-22
- E. 자살, 삼하 17:23
- A. 왕이 마하나임에 오다, 삼하 17:24-29
- B. 다윗의 지시, 삼하 18:1-5
- C. 압살롬의 패배, 삼하 18:6-18
- D. 두 메신저의 드라마, 삼하 18:19-32

준비, 삼하 18:1-5

묘사:

요약, 삼하 18:6-8

세부사항, 삼하 18:9-18

전언, 삼하 18:19-32

반응, 삼하 18:33-19:8

그러나 저자가 그의 이야기를 말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첫째로, 우리는 전투에 대해 전반적으로 거의 무시하는 저자의 방식을 통해 그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감지할 수 있다. 삼하 18:6-8 에서 그는 전투 자체(장소, 패자들과 전사자들, 상황)에 대한 매우 간략한 개요를 준 다음에 10 개의 절(삼하 18:9-18)을 할애하여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비참한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³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삼하 18:9a).”고 시작되는 에피소드가 저자를 사로잡는다. 그는 여러분에게 전투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압살롬이 어떻게 그의 최후를 맞았는지에 대해 말하기를 원한다. 지면의 할애가 관심의 기준이라면, 그는 또한 압살롬에 관한 소식에 대한 다윗의 불안감과 그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을 강조하기를 원한다(삼하 18:24-19:8).⁴

E. 슬픔, 삼하 18:33

A 부분들(삼하 16:15-23; 17:24-29)은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들(삼하 16:15-19; 17:24-26)은 반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단락들(삼하 16:20-23; 17:27-29)은 지지에 관한 것이다. C 부분들의 마지막 문들은 흥미로운 조합을 이룬다. 두 문 모두 주어들(여호와, 압살롬)이 먼저 나오는데, 전자(삼하 17:14b)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고, 후자(삼하 18:18)는 인간적인 아이러니를 밝힌다. 나는 이 병행되는 패턴을 강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구조적 패턴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패턴들이 암시하는 것은 이 이야기들이 조잡하게 편집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공들여 쓰여진 것이라는 점이다.

³ 아무도 전투 장소인 “에브라임의 수풀”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요단 강 동편에 있었고 마하나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카일이 주장했던 것처럼, 에브라임의 수풀이 요단 강 서쪽 에브라임의 영토에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체 이야기를 지리적인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다.

⁴ 참조, Charles Conroy, *Absalom Absalom!*, Analecta Biblica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45-46: “독자는 이미 삼하 17:14b에서 압살롬의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이러한 기대는 내레이터가 압살롬의 최후를 갈등과 지연과 해결의 순간들이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을 막지 못한다.

둘째로, 이야기 속의 **등장 인물들에 대한 묘사**에 유의하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압살롬은 중심적이다.

요압은 지배적이다.

다윗은 수동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압살롬은 삼하 13:1 이후로 오랫동안 중심이 되어 왔다. 그의 존재는 사무엘하 13-14 장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고 삼하 15:12 까지 줄곧 계속된다. 삼하 15:13-16:14에서는 초점이 다윗에게 맞추어 있지만, 삼하 16:15 이하에서는 압살롬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이야기에 다윗은 그의 세 지휘관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⁵ 너그러이 대우하라(삼하 18:5)”는 요청을 통해 압살롬이 중심이 되게 한다. 이 감정은 한 병사에 의하여 기억되고 다윗이 전령들에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서 반복된다(삼하 18:29, 32). “젊은 압살롬.” 그러므로 내레이터가 압살롬의 운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삼하 18:9-18)은 다윗 자신의 관심을 강화시킬 뿐이다(삼하 18:5, 12, 29, 32). 그러나 압살롬이 중심적일지라도 그가 통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음에 유의하라. 그는 결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이다. 그는 중심적이지만 말이 없다.

그러나 요압이 통제하고 있다. 어떤 등장 인물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다. 요압은 압살롬을 제거한다(삼하 18:14-17). 요압은 전령을 보내며 지시한다(삼하 18:19-23). 요압은 왕에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파악한다(삼하 19:1-7). 앞을 미리 보면, 요압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또 다른 반역을 진압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삼하 20:4-22). 요압은 행동을 하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수동적이다. 그가 명령을 내리지만(삼하 18:5),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다. 그는 기다리며 바란다(삼하 18:24-27). 그는 질문하고 슬퍼한다(삼하 18:29-33). 다윗은 왕이지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담긴 **아이러니**, 곧 이야기 상황의 예상 밖의 전환을 의식해야 한다. 전체 에피소드가 뒤틀리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따로따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모든 일이

내레이터의 관심은 분명히 압살롬의 최후에 있고 이것이 다윗에게 주는 영향에 훨씬 더 많이 있다. 이에 비하여 두 군대 사이의 전투는 아주 간략하게 전해지고 있다(삼하 18:6-8)."

⁵ [역자 주] 삼하 18:5, 29, 32 에 나오는 לְנֶעֱר לְאַבְשָׁלוֹם [라나아르 르아브살롬]에 대하여 데이비스는 NJPS 의 "my boy Absalom 내 아들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 ESV/NIV/NASB 는 "the young man Absalom 젊은 압살롬"으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은 "소년 압살롬", 개역개정은 "젊은 압살롬", 새번역은 "저/그 어린 압살롬", 공동번역은 "철부지 압살롬", 현대어성경은 "나의 어린 자식 압살롬", 쉬운성경과 우리말성경은 "어린 압살롬"으로 번역하고 있다.

일어난다. 다윗은 요청을 한다(삼하 18:5). 그러나 아무리 비현실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그만 무참히 무시되어 버린다(삼하 18:14-15). 이스라엘의 출중한 대표 소년(삼하 14:25-27)이 가장 품위 없는 딜렘마에 빠지게 된다(삼하 18:9).⁶ 압살롬이 자기 명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비석, 삼하 18:18)는 그의 불명예를 영속시키는 기념비(매우 큰 돌 무더기, 삼하 18:17)에 의해 가려진다.⁷ 구스인이 다윗에게 먼저 도달하게 하려는 요압의 의도는 아히마아스가 좀 더 우회하지만 빠른 길을 택해 구스인을 앞지를 때 좌절된다(삼하 18:19-32). 승리의 소식은 슬픔과 애통을 가져온다(삼하 18:33-19:4). 승리한 군대는 허둥지둥 퇴각하며 도망치듯이 부끄러워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난다(삼하 19:2-3). 모든 것이 과녁을 빗나간다. 의도들은 올바른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참으로 슬픈 승리이다.

II. 실용적 강해 (Practical Exposition)

이렇게 뒤튼린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에게 무슨 유용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결국 엉뚱하게 끝나는 것 같다. 전체 이야기에서 여호와에 대한 언급은 4 번 나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전투 보고에 3 번 언급되고(삼하 18:19, 28, 31), 맹세하는 데 1 번 언급된다(삼하 19:7). 더 큰 맥락은 우리가 이것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이야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며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일련의 관찰을 통해 이 이야기의 교훈을 얻기를 제안한다.

i.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 (압살롬, 삼하 18:9-18 *The One Who Meets the Crudest End, Absalom*)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다(삼하 18:9). 그가 그런 출현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관목과 숲이 정상적인 군사 행동을 고통스럽게 만들고(삼하 18:6) 예상하지 못한 온갖 종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계획에 없는 재앙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였다. 그런데 그것은 압살롬이 (지원군을 찾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다. 그가

⁶ 노새는 다윗 시대에 왕족들이 타는 동물이었던 것 같다(삼하 13:29; 왕상 1:33, 38, 44). 그러므로 압살롬이 탔던 노새가 빠져나가 버린 것은 어떤 상징성을 내포할 수 있다. 콘로이(Conroy, *Absalom Absalom!*, 60)는 이렇게 설명한다. "노새는 왕이 타는 것이었다. 그의 노새를 잃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의 왕국을 잃었다." 또한 P. Kyle McCarter,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406도 참고하라.

⁷ (압살롬에게 세 아들과 다말이란 딸이 있었다는) 삼하 14:27과 (압살롬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삼하 18:18으로 조화시킬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 아들들은 압살롬보다 먼저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삼하 14:27에 딸의 이름은 주어질지라도 아들들의 이름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듯한 제안으로 보인다(참조,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285). 앞서 다룬 16강의 각주 11을 보라. 삼하 18:18의 기념비는 오늘날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 동쪽에 있는 전통적인 압살롬의 무덤과 동일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혹은 참나무) 아래로 지날 때에, (그가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압살롬의 머리가 크고 낮은 나뭇가지들의 갈래에 부딪혀 걸려버리고 노새만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삼하 18:9b).

그가 얼마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그는 요압이 올 때까지 무사히 매달려 있었다. 요압은 작은 창 (혹은 화살) 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삼하 18:14). 상처는 분명히 치명적이었지만 최후의 일격은 요압의 부관들에게 남겨졌다(삼하 18:15).⁸ 그들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삼하 18:17).”

삼하 18:17 에 나오는 압살롬의 무덤에 대한 해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 맥카터의 다음 논평은 요점을 짚는다.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매장이다. 다음 사례들과 비교해보라. 첫째로, 수 7:26 에서 아간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신성모독으로 인해(수 7:15) 돌에 맞아 죽은 후 “큰 돌 무더기” 아래 묻혔다. 둘째로, 수 8:29 에서 아이 왕은 나무에 매달린 후 구덩이에 던져지고(칠십인역) “큰 돌 무더기”로 덮였다. 셋째로, 수 10:27 에서 다섯 명의 적국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린 후 그들의 시체가 굴 안으로 던져지고 그 굴의 어귀가 큰 돌로 덮였다. 아비살롬[맥카터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옮김]은 형제 살해와 반란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그도 역시 나무에 매달렸다(참조, 신 21:23).⁹

이것이 압살롬의 종말이다. 그는 언론이 사랑하는 자였고(삼하 14:25-27), 뛰어난 기교와 재주로 군중을 조종할 수 있는 떠오르는 왕자였고(삼하 15:1-6), 경멸과 오만으로 자기 분비샘[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통해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할 말을 전한 [반역자] 왕이었다(삼하 16:20-22). 이것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파멸시키려 했던 자의 종말이다.

⁸ (맥카터를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요압이 압살롬을 나무에서 쓰러뜨리는 데만 창들을 사용했고 (그러기 위해 세 개의 창이 필요했을까?) 그 후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들이 쳐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헤르츠버그(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359)의 설명을 따르고 있다. 콘로이(Conroy, *Absalom Absalom!*, 49)는 압살롬의 최후가 묘사되는 임상적 방식을 이렇게 설명한다. “압살롬 자신은 완전히 비인격적 방식으로 이야기된다. 그 자신의 어떤 말도 언급되지 않고, 자비를 구하는 간청들도 언급되지 않으며, 다만 그가 나무에 걸렸다는 물리적인 사실만 언급되어 있다.”

⁹ McCarter, *II Samuel*, 407. 그리고 나의 책 *No Falling Words: Expositions of the Book of Joshua* (Grand Rapids: Baker, 1988), 68-69[= **여호수아 주해**, 54-56(7장 III.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에 나오는 수 8:29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라.

전에 우리는 이러한 패턴, 곧 악인들이 꼭대기에서 밑 구덩이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1945 년 4 월 20 일 히틀러의 생일날, 제국 원수라고 불린 헤르만 괴링은 베를린에서 북서쪽으로 50 마일 떨어진 자신의 성 밖에 서 있었다. 이곳은 카린홀(괴링의 첫 번째 부인 카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그녀를 기념하기 위한 이름)이었고 풍요로움과 사치에 대한 괴링의 식을 줄 모르는 욕망의 보고였다. 누가 봐도 나치 독일(제 3 제국)이 역사적 하수구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괴링은 빠져나오고 있었다. 24 대의 공군 트럭이 카린홀 외곽 도로에 늘어서 있었고, 그것들은 괴링이 회수하기를 바라는 골동품, 그림, 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송대는 남쪽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괴링은 그의 거대한 성의 날개와 버팀목 너머로 마지막 경치를 둘러보았다. 공병 장교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괴링은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 기폭장치 손잡이를 잡고 플런저를 밀었다. 카린홀은 폭발해서 잔해 덩어리가 되었다.¹⁰ 그것은 모든 교만, 오만, 허세, 탐욕이 끝나는 곳이었다. 그것은 기폭 장치의 플런저에서 끝났다. 말하자면 그것은 에브라임 숲의 구덩이에서 끝났다.

압살롬의 종말은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죽음은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 그분이 택하신 왕, 그리고/혹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맞이할 운명이 무엇일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이다. 이것은 암울한 진실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호와의 참된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호와여, 주께서 훈육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절이 좋지 않을지라도 평안합니다. 그의 마음은 악인들을 위한 구덩이가 파지고 있을 동안에도 평안합니다. (시 94:12-13, JB 번역)

ii. 가장 분명한 현실주의를 갖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 (요압, 삼하 18:11-16; 19:1-8 The One Who Acts with the Clearest Realism, Joab)

“나를 위해 나의 아들 압살롬을 부드럽게 대하라(삼하 18:4, NJPS 번역).” 이 명령은 압살롬이 전쟁이 아니라 치료에 들어간다면 타당할 것이다. 그 명령은 분명하고 공개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했지만 현명하지는 못했다. 아다르가 지적한 것처럼, 다윗의 명령은

전투 전부터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고려하여 군사적, 도덕적 고려를 기꺼이 포기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그는 백성을 보내어 자신과 자신의 왕좌를 위해 목숨을 걸게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그는 모든 악의 근원인 그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¹⁰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402-3.

분명하게 부탁할 각오를 하고 있다.¹¹

그러나 사람들은 평소의 전투에서는 압살롬에게 관용을 베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노새를 잃어버렸을 때(삼하 18:9)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한 병사가 요압에게 상황을 보고했는데, 요압은 그 병사가 압살롬을 바로 쳐서 죽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삼하 18:11). 그러나 그 병사는 다윗의 말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요압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처형할 수 없었다(삼하 18:12-13). 요압은 그러한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다.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렸다(삼하 18:14-15).

전형적으로 이 내러티브는 요압의 행동을 말해주지만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의 행동은 반역적이면서도 이성적이다. 다윗의 명령에 비추어 보면 반역적이지만, 다윗의 정권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성적이었다. 적어도 이것이 요압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가 압살롬을 제거한 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란의 수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자의 목숨을 살리는 것과 관련된 어떤 선택이 여전히 가능한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반쪽짜리 조치나 다름없다. 요압은 다윗이 이 절박한 사건이 절박한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 부인할 것을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의 정치적 판단은 다윗 왕국이 근본적으로 그러한 조짐을 차단해야만 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제 불능의 왕자를 최종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그는 의식적으로 국가에 대한 왕의 책임을 떠맡는다. 그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감상적인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¹²

다윗은 암을 사탕으로 치료하곤 했다. 요압은 그것이 수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외과 의사로 지명했다.

요압의 현실주의는 승리 후 다윗에게 한 말에서도 나타난다. 요압은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삼하 19:1).”라는 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다윗의 슬픔은 군대에 수치심을 안겨주었다(삼하 19:2-3). 많은 군대가 다윗의 외침과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삼하 19:4). 마치 압살롬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들렸다. 오늘 밤 마하나임에서는 파티가 없다.

¹¹ Zvi Adar, *The Biblical Narrative* (Jerusalem, 1959), 171.

¹²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1,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246.

요압은 다윗에게 현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끼어들어 맹렬한 포화를 퍼부었다.¹³

(삼하 19:5-7) 5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7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¹⁴

요압이 맨주먹으로 편치를 날리고 있다. 그는 거칠고 냉소적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과장한다(예: 삼하 19:6b). 그러나 요압은 절박하다. 그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어리석음, 곧 전쟁에서 이겼지만 왕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다윗이 나중에 연민의 파티를 열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는 휴지를 잡아 눈을 닦고 나가서 군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다.

요압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다. 여기 삼하 19:1-8 에서 요압은 옳아 보이지만 삼하 18:14-15 에서 그는 복종하지 않았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다윗의 끊임없는 슬픔이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요압은 틀리기도 하고 옳기도 하다. 그는 반역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는 복종의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감각의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

성경 저자는 요압을 수수께끼 같은 사람으로 남겨 둔다. 저자는 요압이 행하고 말한 것을 전하지만 그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저자는 그 베일이 벗겨지게 한다. 일반적으로 그는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우리에게 등장 인물들의 대화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삼하 19:2-3 의 자료를 줄 때 그는 묘사를 넘어 평가로 나아가는 것 같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¹³ 참조, Fokkelman, *King David*, 271: "요압의 위대한 말은 히브리어 본문에 7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절반'은 지독한 비난(46개의 단어)이다. ... 처음부터 요압은 2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극도로 긴 문으로... 다윗을 압도한다. 그것은 사무엘상하에서 등장인물이 한 말 중 제일 긴 문이다. 이렇게 그는 말로 왕에게 기관총을 쏜다."

¹⁴ 이 마지막 절에 감동적인 통렬함이 있다. 다른 사람들도 다윗의 일생이 실질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삼하 19:2-3)

물론 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여기서 저자는 단순한 묘사를
넘어선 것 같다. 그는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다윗의 상황에
공감할지 모르지만 요압의 지성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요압의 말은 불쾌하지만 필요하다.

하나님 백성은 때때로 강한 현실주의를 필요로 한다. 1800년대 초에 아사헬 네틀턴은
코네티컷주 브리지워터에 있는 목회자가 없는 회중 교회에서 일을 해오고 있었다. 교회는 갈등과
적대감, 다툼과 언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틀턴은 설교와 토론에서 그 문제를 날카롭게
공격했다. 그는 그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룰 때까지 어떠한 부흥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중은 편리한 청각장애를 보였다. 그 당시의 관례대로 1816년 봄에도, 주 정부는
특정한 날을 주의 연례 금식일로 선포했다. 이 날은 기도, 금식, 특별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날이었다. 그 행사는 브리지워터에서 열기로 되어 있었다. 그 행사에 그들의 유명한 임시 전도
목사인 아사헬 네틀턴의 설교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잘 계획되었다. 만남의 시간이 왔다.
그러나 설교자가 없었다. 그들은 기다렸다. 그러나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망한 나머지,
그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갔다. 네틀턴은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그는 그 특별한 금식일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 공동체를 이미 떠나버렸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네틀턴이 나타나지 않은 일로 인해 사람들은 요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들은 기도와 고백을 위한 한 진짜 날을 정했고, 굼아 터진 상처를 치료했고, 평화가 지배하기
시작했다.¹⁵ 그것은 이상적인 조치가 아니라 과감한 조치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¹⁶

iii. 가장 많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 (구스인, 삼하 18:19-32 The One Who Speaks the Most Truth, the
Cushite)

요압의 면전에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해 달라며 자신을 전령으로
지명하고 있었다(삼하 18:19).¹⁷ 요압은 거절하며 대신 구스인(누비아인 혹은 수단인)을

¹⁵ J. F. Thornbury, *God Sent Revival: The Story of Asahel Nettleton and the Second Great Awakening* (Durham: Evangelical Press, 1988), 73-74.

¹⁶ 기독교인 부모들은 구제 불능의 십대 아들이나 딸을 집에서 내쫓아야 할 때 이런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John White, *Parents in Pain*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9), 200-207에 나오는 훌륭한 논의를
참고하라.

¹⁷ 어근 [바싸르](동사로 “좋은 소식을 알리다”)는 구약에 30번 나온다. 그 중 9번이 우리가 다루는 삼하
18:19-32에 나온다(삼하 18:19, 20[3번], 22, 25, 26, 27, 31). 동사나 명사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을 내포한다. TDOT, 2:313-316의 논의를 참고하라.

지명했다(삼하 18:21).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요압을 조르며 “자기도 달러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다. 결국 요압은 그 짜증스러운 아히마아스의 등을 떠밀며 가라고 허락했다(삼하 18:22-23a). 우리는 아히마아스의 강렬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처음부터 다윗을 지지하는 일의 위험과 전율의 일부였었다(삼하 15:27-28; 17:17-22). 한때 그는 다윗에게 경고해야 했지만(삼하 17:21-22), 이제 그는 다윗을 안심시키기를 갈망했다. 왕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일로 인해 아히마아스는 전체 시나리오에 기득권을 얻었다. 때는 후식 시간이었고 아히마아스는 그것을 즐기고 싶었다.

우리는 아히마아스가 구스인을 앞지르면서 취한 길을 정확히 추적할 수는 없다(삼하 18:23b). 이 길은 그가 요압에게 허락을 구할 때 분명히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히마아스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맥밀란 성경 지도는 매우 그럴듯한 설명을 제안한다.

압복 강 깊은 협곡에 있는 마하나임의 위치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구스인을 앞지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스인은 “에브라임 숲”이라는 험한 지형을 지나가는 보다 직선적인 길을 택했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평야를 따라 압복 강줄기 위에 있는 더 길지만 훨씬 쉬운 길로 달렸다.¹⁸

한편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발견된 주자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삼하 18:24-27). 다윗에게 그것은 전투의 승리 이상의 것을 포함했음이 틀림없다. 경주는 초박빙처럼 보였고 아히마아스가 구스인보다 조금 앞서 도착했다. 경주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평강하옵소서[shalom, NJPS: 만사가 잘 되었습니다]”라고 외쳤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 그는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라고 외쳤다(삼하 18:28). 그러나 다윗의 최우선 과제인 압살롬이 무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잘 된 것은 아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묻자 아히마아스는 얼버무린다. 그는 자신이 보냄을 받고 있을 때 큰 소동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한다(삼하 18:29). 여기서 아히마아스는 꾸며댄다. 요압은 분명히 왕의 아들이 죽었다고 그에게 말했다(삼하

¹⁸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3rd ed. (New York: Macmillan, 1993), 84. 지도 110에 나오는 그들의 재구성에 유의하라.

18:20).¹⁹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나쁜 소식을 자신이 직접 전할 수가 없었다. 삼하 18:28 에서 그가 다윗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모든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구스인은 모든 사실을 전한다. 그러므로 이 내러티브의 경우 주된 사실은 단역을 맡은 한 등장 인물에게서 나온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삼하 18:31b).” 그것은 다윗의 전투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구스인은 대답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삼하 18:32).” 상황이 그러했다. 그 모든 것이 있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다. 모든 사실이 있었다.

우리는 줄곧 그것을 알고 있었다. 세부 사항들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말이다. 왜냐하면 삼하 17:14b 이 삼하 18:1-19:8 의 전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지배하는 신학적 통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삼하 18:5 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반역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데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다윗의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할” 수 있단 말인가? 누구의 의지가 이길 것인가? 여호와와 주권인가 아니면 다윗의 감상성인가? 구스인은 우리에게 다윗을 위한 구원에는 압살롬에 대한 재앙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준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 알렉산더 화이트가 소년이었을 때 탈곡기에 그의 팔이 끼였다. 모두가 팔을 건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치료에 정통한 이웃은 사람들이 수술을 위해 그 소년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통증은 심해졌고 화이트의 어머니는 그 이웃을 다시 오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 팔을 살펴보고 “전 통증이 좋아요. 전 통증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옳았다. 팔이 나았다. 그 고통은 그 치유의 한 요소였다.²⁰ 그들은 함께 갔다.

그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구원되려면 그 나라를 공격하는 적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의 적들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면 그분은 자기 교회에 확실한 구원을 주시지 못한다. 우리가 악의 멸망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참조, 요일 3:8).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암 수술을 앞에 두고 의사에게 “나의 암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간청하는 환자와 같고, 외과 의사에게 암의 대부분을 제거하지만 “그것이 나의 일부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¹⁹ 맥카터(McCarter, *II Samuel*, 408)는 삼하 18:20의 마지막 절이 요압의 말의 일부가 아니라 내레이터가 삽입한 논평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아히마아스는 얼버무린 것에 대해 결백하다. 그러나 맥카터의 제안이 본문을 더 자연스럽게 읽는 방법은 아니다.

²⁰ Warren W. Wiersbe, *Living With the Giants* (Grand Rapids: Baker, 1993), 125.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은 남겨두라고 촉구하는 환자와 같다. 내가 생각하기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통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구스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보존(삼하 18:31)은 그 원수들의 멸망을 수반한다(삼하 18:32).

iv. 가장 무거운 고뇌를 지니고 있는 사람 (다윗, 삼하 18:33-19:8 The One Who Carries the Heaviest Anguish, David)

저자는 거의 처음부터 우리로 다윗의 머리 속을 들여다보게 했다. 그가 군지휘관들에게 내린 지시(삼하 18:5)는 그들이 아주 승리할 가능성을 전제로 그가 하고 있는 걱정을 반영한다. 그의 불안은 마하나임의 문에서 기다리며 자신이 완전히 이상적인 소식을 들을 것이라고 말할 때 노골적으로 드러난다(삼하 18:24-32).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다윗은 망연자실한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삼하 18:33)

분명히 저자는 우리가 다윗의 고뇌를 보고 듣기를 원한다. 포켈만은 저자가 역사가에 불과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훨씬 더 간결하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압은 왕에게 전투 소식을 보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다.” 그러나 본문(삼하 18:19, 24-33)은 이것보다 20 배나 더 길다. 본문은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내면에서 묘사하며 점점 다윗의 애도의 가장 깊은 부분에 다다르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²¹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윗의 불쌍하고 참지 못하는 통곡을 듣는다. 저자는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한다.

임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다윗의 통곡 배후에 있는 이유에 대해 묻고 싶다. (애정이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다윗이 보여주었을지라도, 삼하 14:21-24) 나는 깊은 자연적 애정이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요압이 “호되게 꾸짖는” 말(삼하 19:5-8)로 준 무서운 위협 외에는 억제되기를 거부하는 슬픔에 대한 유일한 설명인가?

나는 다윗의 슬픔에 더 깊은 차원이 있다고 제안한다. 삼하 18:1-19:8 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견해를 통제하기 위해 삼하 17:14b 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삼하 12:10-12 이 다윗의 슬픔을 조명하도록 해야 한다. 삼하 12:10-12 에서 나단이 한 말은 다윗의 양심에 정말로 크게

²¹ Fokkelman, *King David*, 265.

울려 퍼졌을 것이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삼하 12:10).”²² 그의 슬픔을 불타오르게 한 것은 바로 다윗의 죄책감이다. 다윗에게 나단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지만 그의 갓난아기는 죽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삼하 12:14).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다(삼하 12:19). 그 다음 암논은 살해되었고(삼하 13 장), 이제 압살롬은 멸망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집안에 칼이 휘둘러졌다는 것을 알았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죄를 지은 당사자는 다윗이지만 압살롬이 다윗의 죄책의 결과를 감내한다. (이것은 압살롬 자신의 죄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므비보셋(삼하 9 장)과 하논(삼하 10 장)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과 달리 다윗은 인애와 동정심 없이(삼하 12:6) 왕 노릇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는 그가 밋세바와 동침하기를 원했고 고용된 도살자들이 남편 우리아를 제거하도록 하는 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이 압살롬 대신 죽기를 바랐던 것은 아마도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죄책감은 슬픔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는 역설로 끝난다. 안전한 왕국, 슬픈 왕이라는 역설말이다. 어쩌면 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참조, 사 25:8; 계 21:4).

사무엘상하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이 고통을 겪는 왕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슬픔과 자기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우리는 그의 자손, 곧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할(사 53:4)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시는 분(사 53:3)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다윗의 군대가 다윗이 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지 못하게 하였다면, 마 16:22 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것에는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두 상황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라.
2. 압살롬의 이야기에 아이러니, 곧 상황의 예상 밖의 전환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이야기에는 훨씬 더 많은 아이러니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마가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고,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적들이 비록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증명했는지 보라.
3.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형벌은 전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묵상하라.

²² 삼하 12:10에 대해서는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390을 보라. 다윗의 이전의 죄책감과 현재의 슬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C. Chapman, *II. Samuel*, The Pulpit Commentary (London: Funk and Wagnalls, n.d.), 470-471의 설교를 위한 유용한 말을 보라.

4.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날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죄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전적으로 성경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가?

5.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서 우리는 죄책감이 얼마나 슬픔을 가중시켰는지를 본다. 여러분은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분께 그러한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 것이 바로 그분의 죄책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인 것을 얼마나 분명히 보는가?

21. 환영받는 환궁일까 (삼하 19:9-43 Welcome Home – Maybe)

집에 오니 좋았다. 나는 교회 야영을 돕기 위해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내 기억으로 그때 아내는 친정 부모님을 방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캔자스 북동쪽에 있는 즐거운 작은 마을에 있는 장로교 목사관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섰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났다. 더 들어가 보니 거실과 침실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천장은 망가지고, 바닥과 가구는 젖었고, 책들은 흠뻑 젖어 있었다. 2층 화장실 변기 탱크에 (일설은 번개가 쳤기 때문에 생긴) 균열이 있었고 탱크가 계속 새고 있었다. 물이 계속 펌핑되었지만 탱크가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던 것이었다. 말리기 위해 사진 앨범들과 온갖 종류의 비슷한 것들은 마르게 하려고 피크닉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이 재앙을 통제하려는 다른 헛된 시도들도 있었다. 차라리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것은 다윗 왕이 망명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 사무엘하 19 장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과 거의 비슷하다. 그것은 “귀국 환영—어쩌면” 상황 중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 다윗은 왕으로 환궁하지만 왕국은 그의 손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내러티브는 질서정연한 패턴을 따른다. 다음에 나오는 구조는 그것을 잘 요약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다시 모셔오기로 결정, 삼하 19:9-15

시므이의 고백과 용서, 삼하 19:16-23

므비보셋의 해명과 진실, 삼하 19:24-30

바르실래의 신실과 거절, 삼하 19:31-39

유다와 이스라엘: 왕을 다시 모셔오는 것에 대한 논쟁, 삼하 19:40-43

I. 왕국 내의 분쟁 (삼하 19:9-15, 40-43 The Strife in the Kingdom)

먼저 이 이야기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환궁에 대한 문제로 지파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엿들을 수 있다.

온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삼하 19:9a). 저자는 백성이 그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삼하 19:9b-10, 볼드체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에 강조된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임)

다윗은 이런 정서를 알아차렸다.¹ 그는 그의 측근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그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삼하 19:11b)?”고 하며 그들의 자존심에 호소했다. 그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삼하 19:12a)”라고 하며 그들의 관계에 호소했다. 그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² 요압을 대신하여 그의 군대를 통솔하도록 임명하고 맹세함으로써 그들의 염려를 덜어주려고 했다(삼하 19:13). 이 마지막 조치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사람들이 신 다윗 정권의 어떤 보복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였다. 다윗은 여전히 옛 마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였다(삼하 19:14).”

다윗이 여기서 일급 정치적 실수를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³ 자신의 지파에 이러한 전갈을 보냄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을 통합하기보다는 양극화하고 삼하 19:40-43 의 적대감과 분열에 대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견해가 순진하다고 생각한다. 다윗이 그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유다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했다. 그는 유다의 지원을 확인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었다. 사실, 유다는 다윗 자신의 지파이므로 어떤 제안도 편파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은 유다의 심장부인 헤브론에서

¹ 이것은 삼하 19:10의 끝에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이르렀다.”라는 절을 갖고 있는 칠십인역에 명시되어 있다. 어쨌든,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그들이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왜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삼하 19:11)고 질문한 것으로 보아 그가 정치적인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² 아마사는 요압처럼 다윗의 조카였다(참조, 삼하 17:25; 대상 2:13-17). 삼하 17:25이 일으키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Nola J. Opperwall, “Zeruiah”, ISBE, 4:1194을 참고하라.

[역자 주] Opperwall은 대상 2:16에서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다윗의 자매로 언급되지만 삼하 17:25에서 스루야와 아비같이 [이새가 아닌] 나하스의 딸로 언급되므로 다윗의 이복 자매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스루야와 아비갈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은 후 나하스의 아내가 이새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에 대한 히브리어 표기는 대개 אַבִּיגַיִל / אַבִּיגַיִל [아비가일]이고, 삼상 25:32에서 אַבִּיגַיִל [아비갈] 이다. 다윗의 이복 누이인 아비가일에 대한 히브리어 표기는 대상 2:16, 17에서 אַבִּיגַיִל / אַבִּיגַיִל [아비가일]이고, 삼하 17:25에서 אַבִּיגַיִל [아비갈]이다. 영어 성경은 모두 Abigail로 통일해서 표기한다. 그러나 한글 성경은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은 히브리어 표기와 상관없이 모두 아비가일로 표기하지만, 다윗의 이복 누이는 히브리어 표기 그대로 삼하 17:25에서 아비갈로, 대상 2:16-17에서 아비가일로 음역한다.

³ 예를 들어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1,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290-92을 보라.

일어났다(삼하 15:7-10). 그것은 유다 지파의 지원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다윗의 변절한 모사 아히도벨도 유다 사람이었고(삼하 15:12),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도 유다 사람이었다(삼하 17:25). 압살롬은 유다 지파 안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다윗이 돌아오면 삶이 그들을 위한 경기와 인터뷰만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유다 지파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윗에게 아무런 전갈도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 중 다수는 다윗이 홀이 아니라 도끼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두려워했을 법하다. 그러므로 다윗의 호소와 안심시키는 말은 정확히 필요한 것이었다.

분쟁의 책임을 북부 지파들에게 돌릴 수 있는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삼하 19:40b)” 그러나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삼하 19:41)?” 유다 사람들은 왕과의 관계(“왕은 우리의 종친이라”)와 그 관계를 악용하지 않은 사실(“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세금 면제]이⁴ 있느냐?” 삼하 19:42)에 호소한다. 유다 사람의 말이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무절제(강경)했기 때문에(삼하 19:43b) 아무도 그들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말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는 것이었고 숫자가 우세해도(“우리는 왕에 대해 열 몫을 가졌으나”)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했기(“어찌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삼하 19:43)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져 짜증을 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집단적 과민성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였느냐?”). 북쪽 지파들이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삿 8:1-3; 12:1-6).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기죽이는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삼하 19:43).

이 대실패는 다윗의 정치 실책이 아니라 다윗의 귀환 방식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유다의 반응의 결과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분명하다. “정치적인 일은, 왕에 대한 반대 때문이든 헌신 때문이든, 마치 다툼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다.”⁵ 합법적인 왕이 돌아왔지만 왕국에는 평화가 없다. 신하들 사이의 적개심과 시기심은 왕국의 안정을 위협한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상황은 긍정적인 증언을 제공한다. 그 증언은 바로 이

⁴ 여기 “Has he ever lifted away tax obligations for us?”라는 번역은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0), 587을 따른 것이다.

⁵ Zvi Adar, *The Biblical Narrative* (Jerusalem, 1959), 182-83.

왕국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임에 틀림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전에 자멸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점을 잘 체험하고 있다. 나는 어느 주간이든 회중이 사소한 다툼과 명백한 죄악 사이에서, 상처받은 감정과 완고한 고집 사이에서, 사소한 우선 순위 다툼과 비극적인 무관심 사이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매우 자주 놀라곤 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분열적 경향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접착제로 극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분명코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 분명코 나라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윗의 더 위대한 자손이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것은 역사의 하수도로 휩쓸려 가버렸을 것이다.

II. 왕국의 신하들 (삼하 19:16-39 The Subjects of the Kingdom)

저자는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망명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삼하 15:13-16:14, 잇대, 사독, 후새, 시바, 시므이)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이와 상응되도록 이제 그는 다윗이 환궁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곧 시므이(삼하 19:16-23), 므비보셋(삼하 19:24-30), 바르실래(삼하 19:31-39)에 대한 언급을 한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저자가 그들 모두가 했던 말(삼하 19:19-20; 26-28, 30; 34-37)을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이다. 독자로서 우리는 시므이와 므비보셋에 대한 장면 묘사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무엘하 16 장에서부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윗은 환궁하는 과정에 있고 저자는 그의 신하들 중 이 세 명의 카메오(단역 담당 인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i. 정치, 시므이의 책략 (삼하 19:16-23 Policy, the Strategy of Shimei)

시므이는 전에 말한 적이 있고(삼하 16:5-8) 지금 다시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뱀 같은 존재라는 뚜렷한 인상을 갖는다. 그러나 뱀 같은 존재들도 살아남기를 원한다.

세부 사항에 있어서 본문상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전반적인 그림은 분명하다. 시므이는 재빨리 유다 사람들과 함께 왕을 맞으러 요단으로 내려온다(삼하 19:16). 분명히 그는, 아마도 시바의 가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삼하 19:18)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삼하 19:19-20)

시므이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그 밖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만 그는 또한 자기의 주장도 꺼낸다. 왕을 맞이하러 나오는 데 있어서, 결국 그가 요셉의 온 족속(곧 북쪽 지파들) 중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점수를 따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의 가시적인 주장은 말로만 하는 주장보다 더 무게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시므이는 그와 함께 베냐민 사람 천 명(문자적인 수 혹은 군대 단위)을 데리고 나왔다(삼하 19:17). 그는 자기 지파의 상당히 많은 사람을 다시 다윗의 편에 서도록 설득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는 다윗의 입장을 옹호하며 시므이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고 싶어했다(삼하 19:21).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 그런 종류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참조, 왕상 2:8-9). 시므이가 참수되어야 한다는 아비새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그는 예리하지는 못했다(참조, 삼하 19:23). 만일 다윗이 시므이를 참수한다면 다른 베냐민 사람들과 북쪽 지파들은 숙청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더 많은 머리들이 구르기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만나 관용을 베풀었다.

시므이가 마음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그는 반역이라는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을 구해야 한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정치 때문에 다윗에게 복종하고 있다. 그는 권력과 정치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적응하고 있다. 그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해외로 휴가를 떠나서 요트에서 여인들과 즐기고 있는 상원의원과 같다. 사산한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후, 그는 정말로 아내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의 동료의 그의 파탄난 결혼이 정치 경력을 망칠 것이라고 설득했기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사랑이나 정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말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리사욕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백성과 일치시키는 시므이 같은 사람과 마주칠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연로한 부모님을 달래거나 배우자를 진정시키는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징표로 보이겠지만 확신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 그저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ii. 신실, 므비보셋의 특징 (삼하 19:24-30 Sincerity, the Mark of Mephibosheth)

우리는 삼하 16:1-4 이후로 므비보셋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거기서도 우리는 그에 관하여 들었을 뿐이다. 그것은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 시바는 므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권이 자기에게로 넘어올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라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었다(삼하 16:3). 시바에 의하면 그 무기력한 장애인 므비보셋은 반역을 눈감아 주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 므비보셋은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왕을 맞이하기” 위해, 아마도 요단

강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삼하 19:24a).⁶

다윗은 아마도 적잖은 의심을 품고서 므비보셋에게 왜 망명을 함께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삼하 19:25b). 므비보셋의 변명은 징표와 말로 구성되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삼하 19:24b).” 이러한 므비보셋을 한번만 보아도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자제력을 잃고 “되는 대로 두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며, 압살롬이 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그의 망명에 대한 슬픔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흐트러진 외모는 자신을 강요하여 영적으로 다윗의 망명을 함께 나누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므비보셋의 말(삼하 19:26-28)은 그 징표를 설명하지만 특별히 다윗이 망명할 때 그가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삼하 19:26).”⁷ 므비보셋은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주의 종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삼하 19:26c)”라는 말은 그가 온갖 종류의 도움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함을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경우에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종(시바)은 므비보셋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그를 모함했다(삼하 19:27a). 그것들은 사실이다. 시바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자기 변호를 갑자기 끝내며 다윗에게 왕이 원하는 대로 처분하라고 말한다(삼하 19:27b). 므비보셋은 이전에 적대 관계에 있던 정권의 일원으로서 다윗의 친절은 고사하고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권리가 없었다(삼하 19:28; 참조, 삼하 9 장). 정말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다(삼하 19:30).

다윗은 이해할 만한 하나 그래도 부당한 결정을 내리며 므비보셋과 시바가 발을 나누라고 말했다. 분명히 그는 므비보셋의 설명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삼하 16:4 의 그의 무신경한 결정은 뒤집혀야 한다. 왜냐하면 시바는 탐욕스러운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도움이 되는 탐욕스러운 거짓말쟁이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이전 결정을 반만 뒤집었을 뿐이다. 나는 다윗이 시바 식구들을 불필요하게 소외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5 명의 아들과 20 명의 종을 가진(삼하 19:17) 사람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⁶ 삼하 19:25a은 실제로 “그(므비보셋)가 왕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삼하 19:24a에 근거하여 삼하 19:25a이 “예루살렘으로부터”라고 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있는 그대로의 본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위해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431을 보라.

⁷ 히브리어 본문은 주어인 “내 종”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영향력이 있었다. 사실 다윗은 복구된 정권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지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자기를 먹여살린 그 더러운 거짓말쟁이의 손을 물어뜯을 여유가 없었다. 다윗이 시므이의 경우에 관용적으로 행동했다면, 므비보셋의 경우에 그는 편의적으로 행동했다. 정의보다는 실용주의가 우세하게 작용했다.⁸

므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다. 그의 종이 그를 속였다. 그러나 그의 발과 수염과 냄새나는 옷은 정통성 있는 왕에 대한 그의 충성을 증언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하여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였다(막 14:8).”라고 말씀하신 것이 떠오른다. 수단에 있는 아코보 선교 본부 근처에 살았던 소년 오롭도 마찬가지였다. 돈 맥클루어 선교사는 오롭이 학교에 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들려준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이름의 글자들도 올바른 순서로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아이를 위해 학교 자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와서 성경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교 창문 밖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무리의 소년들을 모아서 성경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모두 섞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맥클루어는 오롭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때 오롭은 그의 부름을 받았다. 맥클루어 박사는 오롭에게 자기가 설교하러 마을에 나갈 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책(맥클루어의 성경)을 들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매일 해가 뜨면 오롭은 맥클루어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책을 들고 마을로 향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어느 날 많은 어린 소년들이 강에서 놀고 있을 때 악어 한 마리가 그들 중 한 명을 물었다. 모두 다 달아났다. 하지만 오롭은 악어와 싸우기 위해 뛰어들었다. 그는 소년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악어는 대신 오롭을 물었다. 사람들은 그의 팔 하나와 다리 하나만을 되찾아 땅에 묻을 수 있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오롭은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었다. 그가 죽은 후, 이 간증이 그의 어머니를 감동시켜 예수님을 믿게 했다.⁹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므비보셋이 그러했다. 그는 다리를 절고 제한적이었지만 충성스러웠다.

그의 충성심은 생존(시므이)이나 탐욕(시바)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다. 그는 부유한 농부 바르실래처럼 풍부한 식량으로 다윗을 공궤할 수 없었다(삼하 17:27-29; 19:31-32). 이상하게도

⁸ 볼드윈(Joyce G. Baldwin, *1 & 2 Samu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8], 277)은 므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처분에 대하여 정확하고 민감한 평가를 내린다.

⁹ Charles Partee, *Adventure in Africa: The Story of Don McClure* (Grand Rapids: Zondervan, 1990), 209-210.

발톱과 수염과 더러운 옷이 그의 신실함의 표징이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iii. 만족, 바르실래의 복 (삼하 19:31-39 Contentment, the Blessing of Barzillai)

우리는 이미 삼하 17:27-29 에서 바르실래를 만났다(거기서 다룬 강해를 참조하라). 그는 매우 늙은 부유한 길르앗 농부로서 다윗 왕이 망명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왕을 공궤하였다.” 이제 바르실래는 로글림에서 내려와 환궁하는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한다. 바르실래가 다윗을 따라 요단을 건너 조금 동행했는지(NIV 와 NKJV 의 삼하 19:31, 36 을 보라) 아니면 요단 동편에서 작별 인사를 했는지(NJPS)¹⁰ 확실히 알 수 없다. 어쨌든, 다윗은 바르실래를 궁정에서 살도록 초청함으로써 감사를 표시한다. 바르실래가 다윗을 공궤한 것처럼 이제 다윗은 그의 오랜 친구를 공궤하려고 한다(삼하 19:33). 그러나 바르실래는 4 개의 절이나 되는 말을 통해 정중하게 거절한다.

바르실래는 거절의 근거로 자기의 나이 많음(삼하 19:34-35a)과 나이 많음이 주는 한계(삼하 19:35b)를 든다. 그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즐거움이나 남자나 여자의 노래 소리와 같은 특별한 여흥을 즐길 수 없다. 그러나 바르실래는 다윗이 자기 대신에 자기 아들 김함(삼하 19:37b)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왕의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청한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삼하 19:37a).” 그것이 바르실래가 청한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가 이 구절들을 통해 바르실래의 자족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바르실래에 대한 커다란 진실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왕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다(삼하 17:27-29).¹¹ 그는 자신의 부를 잘 사용했다(눅 16:9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래의 작별 인사는 (단순히 사양이 아닌) 자족의 분위기를 흠뻑 풍긴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의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봉사가 되는 일을 했을 때가 그의 나이 팔십 세였다. 바르실래는 여호와와의 언약 아래 세움을 받은 왕에게 신실하게 행해 왔었다. 그것 말고 또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 이상으로 원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자유롭다. 그런

¹⁰ NJPS는 삼하 19:31을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로갈림에서 내려와 왕이 계신 요단에 이르러 요단에서 그를 배웅하려고 한다.”라고 번역하고, 삼하 19:36을 “당신의 종은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기는 힘들 것입니다!”라고 번역한다. 본문은 어렵다. 특히 삼하 19:31이 그렇다. 그러나 NJPS는 그럴듯하게 본문을 번역하고 있다.

¹¹ 포켈만(Fokkelman, *King David*, 308)은 삼하 19:37a에 나오는 바르실래의 요청이 삼하 17:23에 나오는 아히도벨의 최후와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주목한다. “대조는 뚜렷하다. 다윗의 대적은 패배했고, 그의 마지막 여정은 고독했고, 그의 죽음은 자연스럽지 못했다. 왕의 친구는 따뜻함을 주고받았고, 그의 죽음은 조화와 성취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화로울 것이다.”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자족한다.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다윗 시대의 지파간 다툼과 바울이 고린도전서 1-4 장에서 책망한 고린도 교회의 파당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가?
2.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복종은 단지 정치의 문제일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복종은 얼마나 철저한가?
3. 므비보셋이 아리마대 요셉(눅 23:51-54)과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상황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4. 경건한 자족과 경건한 불만족? 여러분의 삶에 이 둘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는가?
5.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사무엘하의 이 부분에서 지혜, 아니면 그 반대(아니면, 어쩌면 둘 다)를 보였다고 생각하는가?

22. 깜짝 놀랄 일들이 아니다 (삼하 20 장 No Surprises)

대학 시절에 두 해 여름 동안 나는 펜실베이니아 주립 공원에서 일했다. 주로 공원 사무실에서 저녁 시간 동안 텐트와 트레일러에 대한 1 박 캠핑 허가증을 발급하는 일을 했다. 애완 동물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캠핑 예정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반려 동물을 가지고 있습니까?”였다. 만약 그들이 없다고 대답하면 나는 영수증 상단에 “NP”라고 적었다. 하지만 어떤 남자들은 애교를 떨며 “내 아내뿐입니다!”라고 대답하곤 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보통 웃으며 자기들의 영리한 대꾸에 즐거워했다. 나의 무응답은 어쩌면 그들을 당황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그런 말을 이전에 이미 27 번, 아니 42 번이나 들었다는 사실이다. 어찌된 일인지 반복은 그 모든 것의 즐거움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런 말을 계속 듣는 것은 지루함만 더해줄 뿐이었다.

사무엘하 20 장이 그렇다.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음을 안다. 깜짝 놀랄 일들은 없다. 그저 더 많은 반란, 더 많은 비극 등이 있을 뿐이다. 삼하 20:19 에서 여인이 “여호와와 기업”이라고 한 말을 제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어떤 명백한 표시도 없다. 전체 이야기는 전과 똑같이 계속되는 인간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 등장 인물들은 이야기의 초점 역할을 한다.¹

세바의 반란, 삼하 20:1-2

별실에 갇힌 후궁 열 명, 삼하 20:3

아마사를 죽인 도살자 요압, 삼하 20:4-13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삼하 20:14-22

I. 인간의 반란 (삼하 20:1-2 Human Rebellion)

사무엘하 20 장의 거의 모든 내용은 세바에 관한 것이다. 세바를 소개하고(1-2 절), 세바를 추격하고(4-13 절; “추격하다”는 뜻의 [라다프]가 네 번(6, 7, 10, 13 절) 나오는 것을 주목하라), 세바를 제거한다(14-22 절). 세바는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출신으로 아마도 구 정권에 대한

¹ 사무엘하 20장에서 1절과 22절은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감싸는 역할을 한다. 세바와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백성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부름을 받거나 실제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다. Ronald F. Youngblood, “1,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1042을 참고하라.

애정이 있었을 것이다.² 적어도 처음에는 그의 반란은 반란보다 분리 독립에 가깝다.³ 그러나 저자는 세바를 불량배(직역: 벨리알의 아들)라고 소개함으로써(삼하 20:1) 여러분이 그를 어떻게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세바가 불량배였다는 것은 해석할 때 약간의 추측이 필요하다.

이 불량배는 도대체 왜 그러한 불량배인가?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름을 받은 왕에 대항하여 반역을 하고 있고 북쪽 지파들로 반역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는 왕과 북부 지파들을 상호 충성으로 묶었던 언약(삼하 3:21; 5:3)을 파기하고 있다.⁴ 어쩌면 세바는 유다 지파의 불쾌한 말(삼하 19:43b)이 그에게 감정적인 고통을 주었고 다윗의 정치적 행보(삼하 19:11-15)에 심한 편애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그의 행위를 정당화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범죄, 곧 언약의 왕권에 대한 반역과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란 범죄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무엘하의 독자들에게 다소 피곤한 일이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15-18 장에 나오는 압살롬 반역을 통해 이런 문제를 보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동일한 반역이 소위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높은 관점”을 가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가 남편보다 선호하는 다른 남자를 찾거나 남편이 직장에서 다른 여자와 친해져서 아내를 버리고 싶어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성경의 권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억울함을 당해 왔다. 그것은 너무 심한 것이었고, 상처가 너무 깊었고, 그 범죄가 너무 사악했다. 가해자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결코 화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니, 화해는 아예 불가능하다. 상처받은 자에게 다시는 주기도문(마 6:12)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해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화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주지 않으셨다(마 6:14-15; 눅 17:3-4)고 지적해보라. 주기도문에 너무 안된 일이고 예수님께 너무 안된 일이다. 그의 분노는 그에게 너무 소중하다. 정당한 권위는 간단히 무너질 수 있다. 교회에는 세바들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더 엄격한 종류의

² 본문은 항상(8번이나) 세바를 “비그리의 아들”로 언급한다(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370-371). 여기 비그리(Bichri)와 삼상 9:1(사울의 조상들)에 나오는 베고랏(Becorath)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세바는 사울의 가문에 속하였을지도 모른다.

³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1,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319.

⁴ T. N. D. Mettinger, *King and Messiah*, Coniectanea Biblica (Lund: CWK Gleerup, 1976), 138-39, 227-29, 그리고 Gerard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0), 26-28을 참조하라.

복음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정당한 권위에 반항하고, 제멋대로 행하며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로 결심하며, 그들의 손을 들어 왕되신 주님을 대적한다.

II. 인간의 슬픔 (삼하 20:3 Human Sadness)

저자는 세바에 대한 묘사를 잠시 보류하고 다음과 같이 전한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삼하 20:3)

우리는 이 첩들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전체 이야기를 주려고 단지 채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자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취한 행동들 중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음을 암시한다. 그가 자료를 제공하는 일만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삼하 20:3 의 내용을 삼하 20:22 다음에 넣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라는 도입부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선두에 그것을 놓고서 우리가 정면으로 그것을 마주치도록 하고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이 작은 해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삼하 12:11-12; 15:16; 16:20-22 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다윗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는 압살롬이 이 첩들과 함께 했던 오후에 대해 들었다(삼하 16:20-22). 그가 후궁 열 명을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도록 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삼하 12:11)"라는 여호와의 위협의 끊임없는 메아리가 그의 머리 속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이 여인들의 불행은 다윗이 밋세바-우리아 사건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 야기되었다. 그들에게 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다윗은 그들을 별실에 가두었다. 그들은 굶주리거나 궁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금되고, 고립되고, 혼자였다. 그들은 사실상의 과부로서 재미없는 나날을 보냈다. 블레이키는 다음과 같이 이 분위기를 잘 포착했다.

그들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별실에 가두고 감금하여 그들로 남은 여생을 쓸쓸하고 기쁨이 없이 보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삶에서 모든 기쁨과 밝음이 사라졌고, 개인의 자유도 박탈당했다.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들의 지루한 운명에 처해졌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궁전으로 데려온 날을 저주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가장 비천한 자매들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랐을 것이다.⁵

삼하 20:3 에는 강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슬픈 것이 있다.

하지만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말의 비극(삼하 13 장)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다.⁶ 암논이 그녀를 탐하여(삼하 13:1-11), 유린하고(삼하 13:14), 멸시하고(삼하 13:15) 인간 쓰레기처럼 내쫓았다(삼하 13:17-19). 그는 “그녀를 강간했고(he had laid her, 삼하 13:14),” 그녀는 남은 여생 동안 “처량하게 지냈다(she was laid waste, 삼하 13:20).” 죄는 암논이 지었는데 고통은 다말이 당했다. 그의 분비선이 그녀를 처량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슬픔을 계속 만나고 있다.⁷ 수많은 그리스도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삶이 회색으로 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뭐니 뭐니 해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사 61:1)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하는 손(사 25:8)을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도움이 없다.

III. 인간의 배신 (삼하 20:4-14 Human Treachery)

다윗은 세바의 반란이 확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 임명된 군대 장관에게 3 일 이내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라고 명령했다(삼하 20:4). 아마사는 속도가 느렸거나 할당된 시간 내에 소집을 완수할 수 없었다(삼하 20:5).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왕의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없애라고 명령한다(삼하 20:6). 세바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그가 야기할 혼란은 줄어들 것이다.⁸

⁵ W. G. Blaikie,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 Graham, n.d.), 319. 블레이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의 모든 영적 감각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제도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제도였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볼 수 없었다.”

⁶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231.

⁷ 가슴 아픈 예를 위해 Arnold A. Dallimore, *A Heart Set Free: The Life of Charles Wesley* (Westchester, IL: Crossway, 1988), 175-82에 나오는 찰스와 존의 자매들 중 한 명인 헤티 웨슬리에 관한 이야기를 보라.

⁸ 삼하 20:6의 마지막 절인 [브히칠 에네누]의 의미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직역하면, 그것은 “그리고 그가 우리의 눈을 찢을(tear out → gouge out)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해를 끼칠(do us serious injury) 것이다.” Youngbloo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3:1044을 보라. [역자 주: [2 Samuel 20 Keil and Delitzsch OT Commentary \(biblehub.com\)](#): “... David said to Abishai, 'Now will Sheba the son of Bichri be more injurious (more dangerous) to us than Absalom. Take thou the servants (soldiers) of thy lord and pursue after him, lest he reach fortified cities, **and tear out our eye,**' i.e., **do us a serious injury.** This is the correct explanation given by Bttcher, who refers to [Deuteronomy 32:10](#) and [Zechariah](#)”

삼하 20:7 은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이 아비새 뒤를 따라 나갔다.”라고 시작한다. 다윗은 여전히 요압을 제외시키고, 아비새를 임시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그 군대가 요압의 부하들”로 불리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늦은(그리고 곧 여러 방식으로 늦을) 아마사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6 마일 떨어진 기브온에서 아비새의 군대를 따라잡는다(삼하 20:8). 거기서 요압은 다시 앞으로 이동한다. 삼하 20:7-10 은 아마사와 요압의 만남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잔인하고 흥미로운 장면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다, 삼하 20:7

아마사가 나타나다, 삼하 20:8a

요압의 복장, 삼하 20:8b

칼에 대한 약간의 세부 사항, 삼하 20:8c

요압의 인사, 삼하 20:9

칼에 대한 약간의 세부 사항, 삼하 20:10a

요압의 일격, 삼하 20:10b

아마사가 죽다, 삼하 20:10c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다, 삼하 20:10d

저자는 이 만남에 줌 렌즈를 장착하고 항목별 설명을 제공한다.⁹ 삼하 20:8bc 의 상당히 문자적인 NRSV 번역(“요압은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꽃은 칼을 허리에 댔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다.”)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요압은 친절한 말(삼하 20:9a)과 명백한 애정(삼하 20:9b)을 가지고 아마사에게 다가갔다. 저자는 요압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고 명시한다.

오른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의도적이다. 오른손은 전투를 하는 손이다. 여기서 오른손은 비어 있으므로 위협이 암시되어 있지 않다. 사실 오른손은 친척이나 친구들

[2:12](#) ... ; for the general explanation, "and withdraw from our eye," cannot be grammatically sustained."]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가 (그로부터) 우리의 눈을 제거하게 할(cause to remove our eye [from him])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우리를 피할(escape us) 것이다.” TWOT, 2:594을 보라. [역자 주: 이 두 번째 해석을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따르고 있다.]

⁹ 이러한 자료는 목격자로부터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종류의 세부 사항은 쉽게 지어낼 수 없다.

사이에서 매우 흔한 입 맞추는 인사의 일부로 수염을 잡는 데 사용된다.¹⁰

그래서 아마사는 정신적으로 무장 해제되어 있었다. 그는 “요압의 손에 있는(삼하 20:10a)” 칼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기서 저자는 여러분이 독자로서 지성이 있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가 이미 여러분에게 요압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이 칼은 요압의 왼손에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요압이 아마사에게 다가갔을 때 그 왼손으로 떨어뜨린 칼을 집었다고 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찌르는 일만 남았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삼하 20:10b).” 요압은 너무 잔인하고 철저해서 두 번째 공격이 필요하지 않았다. 저자는 한 히브리어 동사를 써서 명백한 사실을 덧붙인다. “[바야모트] 그래서 그가 죽었다(삼하 20:10c).”라고 말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삼하 20:10d).” 그것은 평상적인 업무였다. 흘린 피에 대해 울 필요가 없었다. 요압은 그것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므로 그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다.¹¹

거의 다 제거되었는데, 아마사는 여전히 장애물이다. 그는 한 장 전체를 차지해 왔다. 첫째로, 아마사의 지연은 다윗이 시급히 세바를 격파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삼하 20:4-6). 그런 다음 아마사의 지도력은 요압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다(삼하 20:8-10). 이제 아마사의 시체는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삼하 20:11-13). “아마사는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었고(삼하 20:12a),”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요압의 심복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마사의 시신을 큰 길에서 밭으로 옮긴 후 그 위에 옷을 덮음으로써 군사들이 다시 원활하게 지나가게 했다.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슬프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전에 본 적이 있다. 요압은 아브넬(삼하 3:27)과 압살롬(삼하 18:14-15)을 도륙했다. 이제 그는 아마사를 도륙했다. 요압은 배신과 피흘림을 전문으로 한다. 그리고 그는 성공한다.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고(삼하 20:22b)” 분명 아무런 보복도 당하지 않았다.

¹⁰ Edward A. Neiderhiser, “2 Samuel 20:8-10: a Note for a Commentar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4 (1981): 210.

¹¹ 참조,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331: “요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한 발자국도 헛디디지 않았다. 그는 즉시 북부 전투로 이동한다. 신속하고, 조용하고, 무자비하게, 요압은 그의 경쟁자를 제거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요압은 “성공이 성공한다”는 원칙을 믿었고, 세바의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반란의 모든 흔적이 말소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윗이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결점에도 불구하고 야전에서 그렇게 잘했던 장군의 지위를 조용히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¹²

요압은 도박을 해서 이겼다.¹³ “다윗은 두 팔을 벌려 그를 환영하기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는 나라를 구했다.”¹⁴ 요압은 매우 충성스럽긴 하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세바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반기를 들지도 않고, 압살롬처럼 다윗의 왕좌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실하다.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으나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다윗에게 극도로 충성스러우나 본질적으로 다윗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20 장은 이중의 반란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윗 왕국을 영원히 뒤로 하고 싶은 세바가 있다. 그리고 왕국 안에서 통제되지 않고 자기 위치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위해 공격하고 잘라내는 요압이 있다. 원리상 비슷한 말씀이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왕의 주권을 인정하나 왕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 나라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교회들의 교인 명부에 수많은 요압들이 있다.

IV. 인간의 영리함 (삼하 20:15-22 Human Cleverness)

세바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기 시작한다. 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랐다(삼하 20:14).”¹⁵ 아벨 벳마아가는 갈릴리(즉, 긴네렛)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25 마일, 단에서 서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이스라엘

¹² W. G. Blaikie, *The Second Book of Samuel*, 321.

¹³ 여전히 우리는 다윗이 임종 직전 솔로몬에게 충고하는 대신(왕상 2:5-6) 훨씬 그 이전에 왜 그를 심판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다윗은 요압이 왕실 군대에 너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그를 대적하는 조치를 취하는 모험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가?

¹⁴ Joyce G. Baldwin, *1 & 2 Samu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8), 281.

¹⁵ 삼하 15:14의 본문은 어렵다. NRSV의 “Sheba passed through all the tribes of Israel to Abel of Bethmaacah; and all the Bichrites assembled, and followed him inside.”라는 번역은 최소한의 정정을 한 합리적인 번역이다. 이 구절에 대한 논의를 위해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2nd ed. (1913; reprint ed., Winona Lake, Ind.: Alpha, 1984), 344-45을 보라.

최북단에 있었다. 세바가 그렇게 멀리 북쪽으로 갔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지나 그의 분리 독립 운동에 대한 지지를 거의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⁶ 그의 옹호자들은 그 자신의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것 같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즉시 포위 작전을 시작했다. 삼하 20:15 에 묘사된 것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요압의 부하들이 성벽([호마]) 외부의 완만한 경사면([헬])으로 지나가기 위해 토성을 쌓은 후 성벽을 때리거나 헐고 있었던 것 같다.¹⁷ 그 때 한 여인의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그 여인은 요압과 대화하기를 원했다. 그 인터뷰에는 재미있는 면이 있다. 처음 주고받은 짧은 대화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다(삼하 20:17). 그 여인은 자기 마을의 명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녀가 “요압 장군님, 우리 상공회의소 책자를 본 적이 없습니까?”라고 묻는 것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녀는 요압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 하고 “여호와와 기업을 삼키려고” 한다고 그를 비난한다(삼하 20:19). 요압은 “내가 삼키거나 멸하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변호한다(삼하 20:20). (요압의 말에는 최고의 아이러니가 들어 있다.) 요압은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고 말한다.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약속을 하고(삼하 20:21b) 돌아가서 자기 주민들을 설득한다(삼하 20:22a). 그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바의 머리가 베어져 요압에게 던져진다. 요압은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으로 간다(삼하 20:22).

이 에피소드는 인간의 영리함을 강조한다. 아벨을 구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삼하 20:16)”이라고 불린다. 그녀는 “그녀의 지혜를 가지고(삼하 20:22)” 자기 주민들에게 간다 그녀는 예리하고 영리하며 통찰력이 있다. 그녀의 날카로운 생각이 그녀의 성을 구했다(참조, 전 9:13-16).

그러나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전에 본 적이 있다. 사실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너무 많은 “지혜”를 보아서 오히려 그것을 경계한다. 자연스럽게 사무엘하 14 장의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삼하 14:2 참조)”이 떠오른다. 그러나 사무엘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든 없든 지혜로 우리를 계속 때린다. 밋세바와의 관계를 은폐하고 우리아를 제거하려는 다윗의 이중 계획(삼하 11 장), 암양 일화를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하는 나단의 소박함(삼하 12:1-7a), 여성의

¹⁶ Gutbrod, *Das Buch vom Reich*, 232-33.

¹⁷ K.N. Schoville, “Fortification”, ISBE, 2:347-49을 보라.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Amihai Mazar, “The Fortification of Cities in the Ancient Near East”,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4 vol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95), 3:1523-37을 참고하라.

육체를 얻는 데 사용된 요나답의 저주스러운 기술(삼하 13:1-22), 살인을 위해 암논을 깔끔하게 속이는 압살롬의 기술(삼하 13:23-39), 요압의 관심을 끌기 위한 압살롬의 교묘한 책략(삼하 14:28-33),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흠치는 압살롬의 노골적인 수작(삼하 15:1-6), 사독, 아비아달, 후새를 압살롬의 도시에서 그의 제 오열로 세운 다윗의 기술(삼하 15:24-37), 자기 소유를 살찌우려고 므비보셋을 험담하는 시바의 음모(삼하 16:1-4), 압살롬을 섬기는 데 사용된 아히도벨의 “하나님께 여쭙어서 받은 말씀 같은” 지혜(삼하 16:20-17:4),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모든 꿈을 방해하기 위한 후새의 현혹될 만큼 합리적인 조언(삼하 17:5-14) 등등. 이렇게 쉽게 십여개를 모을 수 있다. 어떤 지혜는 합법적이나, 어떤 지혜는 부패했다. 나는 아벨 벤 마아가에서 세바를 반대하도록 여론을 바꾼 그녀의 기술은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녀는 도시는 물론이고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지혜를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립적인 의미에서 지혜는 단순히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기술은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성화와 함께 하지 않는 지혜는 치명적이다. 여기 사무엘하 20 장에서 지혜는 유익하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다.

우리는 사무엘하 20 장을 마감하는 관리들의 명단(삼하 20:23-26)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대로,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된다. 삼하 20:23-26 은 사무엘하 9-20 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룬다. (이것은 삼하 8:15-18 에 나오는 관리 명단이 사무엘하 15 장에서 사무엘하 8 장을 마무리하는 것과 같다.)¹⁸ 이 구절들은 그 나라의 방식으로 다윗 왕국이 여전히 온전하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다. 왕국은 다윗 왕의 범죄와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으로 약해졌다. 그러나 내부의 모든 부패와 외부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왕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 왕국의 관리들이 모두 일하고 있다.

다윗의 자손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연약해 보이지만 항상 건재하다. 바로 어제 저녁에 나는 종교 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부 테네시에서 한 형제와 그의 회중과 함께 있었다. 그러한 예배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우리는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송했다. 그 찬송의 마지막 네 단어(“His Kingdom is forever.” 그 나라 영원하리라)는 늘 내게 감동을 주는 것 같다. 어제 저녁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는 변함없는 사실, 즉 “그 나라 영원하리라”로 그 예배를 마쳤다.

¹⁸ 사무엘서 자료들에 대한 구조적인 구분에 대해서는 이 주해의 서론 부분을 보라.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우리가 사무엘하 20 장에 와서 만나는 반복의 요소는 아마도 사사기 2 장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과 인간 사회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2. 여러분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3. 요압은 다윗에게 극도로 충성스러우나 본질적으로 다윗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 7:21 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사무엘하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비추어 여러분은 세속적인 지혜와 경건한 지혜를 어떻게 구별하겠는가?
5. “연약해 보이지만 항상 건재하다.” 여러분은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개개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가?

제 3 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왕국
(A Kingdom in God's Hands)

사무엘하 21-24 장

23. 언약 파기의 대가 (삼하 21:1-14 The Cost of Covenant-breaking)

스코틀랜드 목사 케네스 맥레이는 킬뮤어에 있는 자기 회중을 보고 당황했다. 1920년대 중반, 그가 섬겼던 다른 두 회중은 부흥의 징후를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킬뮤어는 아니었다. 맥레이는 부흥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매우 인간적인 장애물도 보았다. 킬뮤어는 부흥을 기대하지 않았다. 사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언의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지도자 중 한 명이 피비린내 나는 박해의 물결이 오기 전까지는 부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1924년에는 박해가 없었으므로, 분명히 부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¹ 수년 전에 누군가 행하거나 말했던 것이 지금의 청중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삼하 21:1-14의 상황이다. 사울이 수년 전에 한 일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 아래 놓이게 했다. 그러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예비적인 관찰을 하기로 하자.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하 자료의 또 다른 주요 부분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 주요 부분(삼하 21-24장)의 일반적인 것과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단락(삼하 21:1-14)의 특별한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I. 예비 관찰들 (Preliminaries)

사무엘하 21-24장은 자주 사무엘상하의 “부록” 혹은 “다윗 전승의 다양한 보충 자료”라고 불린다.²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하 9-20장과 열왕기상 1-2장이 승계 내려티브, 즉 어떻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무엘하 21-24장이 승계 내려티브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삽입 자료라고 생각한다.³ 왜 저자 혹은 편집자들은 완벽하게 훌륭한 이야기가 그 절정에 이르기 전에 잡동사니 파일을 찾은 후 이 단편 자료들을 덧붙여야 했는가? 적어도 한동안 승계 내려티브라는 가설은 성우(聖牛: 지나치게 신성시되어 비판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지위를 가졌던 것 같다. 이 때문에 사무엘하 21-24장이 과소 평가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것들(삼하 21-24장)이 거룩한 암소의

¹ Iain H. Murray ed., *Diary of Kenneth A. MacRae*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0), 194-95, 220.

² John H. Hayes, *An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Study* (Nashville: Abingdon, 1979), 230.

³ 사무엘하 21-24장에 있는 다양한 부분의 기원과 조합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Otto Eissfeldt,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65), 277-79에 있는 방대한 분량의 추측을 참고할 수 있다.

자리를 밀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한 가설이 너무 지배적이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억누를 수 있다. 만일 열왕기상 1-2 장이 내러티브의 다른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되는가? 사무엘하 21-24 장이 어떤 사람의 이론에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주장의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에 그것들을 두었다면 어찌되는가? 저자가 우리에게 현재 다윗의 왕국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최종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가?⁴ 나는 사무엘하 21-24 장이 부록이나 삽입 자료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 전체에 대한 의도된 요약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저자가 이 마지막 장들을 통해 다윗이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사무엘하 21-24 장이 때때로 단편들의 모음으로 간주되지만, 그것들이 세심하게 잘 정리된 단편들의 모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여섯 개의 주요 부분들은 명백하게 의도적인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저자가 이 장들을 포함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 틀림없다.) 고트발트의 개요를⁵ 약간 수정하여 제시하는 다음 개요에 주목하라.

- A.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한 사울의 속죄 이야기, 삼하 21:1-14 [사울의 죄]
- B.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다윗의 용사들의 연대기적 보고, 삼하 21:15-22
- C. 다윗의 노래, 삼하 22:1-51 [회고]
- C¹ 다윗의 마지막 말, 삼하 23:1-7 [전망]
- B¹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다윗의 용사들의 연대기적 보고, 삼하, 23:8-39
- A¹ 인구 조사를 한 다윗의 속죄 이야기, 삼하 24:1-25 [다윗의 죄]

사무엘하 21-24 장은 잡동사니가 아니라 세심하게 구성된 작품을 이룬다. 본문을 살필 때 이 문학적 패턴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흥미로운 비평적이고 문학적인 언급들에 덧붙여 나는 연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⁴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273-75에 나오는 훌륭한 요약을 참고하라.

⁵ Norman K. Gottwald, *Encyclopedia Judaica*, 14:796. 나는 누가 처음으로 이 문학적 패턴을 인식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오래 전 어드만(1973)과 카일(1975)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C. F. D. Erdmann, *The Books of Samuel*,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77;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21-24에 나오는 구조에 주목하라.

설명을 하려고 한다. 여기서 나는 이번 강해에서 다루는 삼하 21:1-14 에 대해서만 언급할 것이다.

이 단락은 “다윗의 시대에”, 곧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어느 때에 있었던 기근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삼하 24:1). 이 매우 일반적인 시간 언급을 통해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삼하 21:1-14 의 에피소드가 연대적으로 사무엘하 20 장의 사건들 뒤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는 이 기근을 어떤 뻘뻘한 시간 순서를 따라 배치하지 않았다. 그는 이 기근이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어느 때에 일어났다고만 말한다.

저자는 하나의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 삼하 21:7 은 다윗이 이 기근 그리고/또는 여기 보고된 처형 이전에 이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삼하 21:1-14 은 사무엘하 9 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살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문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⁶ 우리는 이 이상한 본문을 이해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II. 강해 (Exposition)

나는 이 본문에서 네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교훈은 쉽게 간과된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자비로 시작한다.

i. 명확하게 알려 주시는 자비 (삼하 21:1-2 The Mercy of Clarity)

무언가 확실히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평범한 기근이 아니었다. 이것은 3 년 동안 계속된 기근이었다. 이 기근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인해 저주(레 26:19-20; 신 28:23-24)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다윗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삼하 21:1b).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항상 빛이 주어진다. 여호와께서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삼하 21:1c)”고 응답하신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자는 짧은 각주를 삽입해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여호수아 9 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추겨 새우며 속여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도록 만들었던 가나안 땅의 주민이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거주지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⁶ Eugene H. Merrill,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252-54에 나오는 명쾌한 논의를 보라. 그리고 M. H. Segal, *The Pentateuch: Its Composition and Authorship and Other Biblical Studies* (Jerusalem: Magnes, 1967), 193-94도 보라. 다른 견해를 위해 R. A. Carlson, *David, the Chosen King*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64), 199-200을 참고하라.

속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살려주겠다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정말 맹세했으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면책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⁷

그러나 사울이 친이스라엘적인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했다고 저자는 덧붙인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했던 맹세를 어겼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고서 그것을 어기는 것은 여호와와 명성을 실추시킨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와는 의지할 수 없는 신이 되어 버리고 그분의 이름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출 20:7)”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와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또한 맹세하는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사울의 열심은 언약을 어긴 것이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기근은 그 언약 위반에 대해 내리신 저주이다. “사무엘하 21 장의 문제는 단순히 피의 복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사울의 자손에게 임한 저주가 있었다.”⁸

우리가 잔인한 이야기를 듣게 될 상황인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바로 그분의 자비를 이야기 전반에 걸쳐 쏟아 부으시는지를 보고 있지 않는가? 그분은 다윗이 모르는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그에게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신다. 그분은 잔인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다윗이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지 궁리하며 영원한 혼란에 빠져 있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죄책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그런 다음 죄책을 마주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속을 바랄 수 있다. 이렇게 자비는 죄책을 분명히 드러나게 한다.

나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프리차드가 편집한 *Ancient Near Eastern Texts*(고대근동 문헌)에 실린 바벨론 시대 후기의 감동적이고 애처로운 작품이 있다. 번역자는 그것은 “모든 신에게 드리는 기도”라고 불렀다.⁹ 그 예배자는 모든 남신들과 여신들, 곧 그가 아는 신들과 그가 모르는 신들에게 기도한다. 어떤 남신이나 여신이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었다. 그는 자기가 어떤 남신이나 여신을 화나게 했는지 모른다. 그는 그의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사실 그는 이 비참한 불가지론이 인류 전체를 괴롭히고

⁷ 더 자세한 강해를 위해 나의 책 *No Falling Words: Expositions of the Book of Joshua* (Grand Rapids: Baker, 1988), 75-80/2014년 판, 77-82[= **여호수아 주해**, 61-66(8장 상식으로 인한 걱정거리)]을 참고하라.

⁸ S. G. De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Paideia, 1978), 2:182.

⁹ Ferris J. Stephans in James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3r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69), 391-92.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교도적 사고 방식이다. 그것은 모호하고, 소망이 없고, 잔인하다.¹⁰ 그러나 여호와와는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신다. 그것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명료함의) 자비이다.

ii. 속죄의 피 (삼하 21:3-9 The Gore of Atonement)

문제는 분명하다. 하지만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이 다윗이 면담을 시작할 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와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삼하 21:3 b)?” 기브온 사람의 답변(삼하 21:4)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나는 그들이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결할 사건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누구를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다.¹¹ 그것은 분명한 암시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분명하게 밝힌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요점을 말하라고 요청한다(삼하 21:4c).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하 21:5-6)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impale).¹²

¹⁰ 이와 동일한 대조를 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음에 유의하라. James I. Packer *et al.*, *The Bible Almanac* (Nashville: Thomas Nelson, 1980), 382: “성경의 법은 공적인 법이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이교도 법들과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였다.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에서 왕은 자기 머리 속에 그 법들을 지니고 다녔다. 그것들이 그의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양위를 하려고 할 때까지 그는 그것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될 수 있었다. 어떤 법들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때조차도 그 법들은 비밀에 부쳐졌다. (법정 소송에서 누군가 왕의 법전을 인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리고 Joe M. Sprinkle, “Law”, *Evangelic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96), 468도 참고하라.

¹¹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합니다(삼하 21:4a)”에서 사울의 집에 대한 그들의 의미심장한 언급에 유의하라. 이것은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다.

¹² 삼하 21:5의 본문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3,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0), 279을 참고하라. 여기서 내가 “to impale, 뿔죽한 것으로 찌르다/꿇다”로 번역한 동사는 어근 𐤏𐤕[야카]의 사역 어간형이다(삼하 21:6, 9, 13; 민 25:4). [한글 성경은 “목매어 달다”로 번역한다.] 이 동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아니고 죽은 후에 가해지는 행위였다. 신 21:22-23과 비슷하게,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후 뿔죽한 것에 꿇혀 기둥 위에 올려져 보이게 했다. Jacob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왕은 이에 동의하고(삼하 21:6c) 후보자를 선택하여(삼하 21:8) 넘겨준다(삼하 21:9a).¹³ 섬뜩한 일이지는 하지만 기브온 자손은 “산 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다(삼하 21:9b).”

이 모든 것은 현대 서양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의 생각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좋은 기독교인들처럼 왜 그들의 차이점을 해결할 수 없었느냐고 묻는 의원과 같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렇다. 왜 누군가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길고 지루하고 피곤한 정치적 토론을 시작할 수 없었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압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해서 입맛에 맞는 타협을 하도록 할 수 없었는가? 한 선의의 예돔 사람은 어쩌면 중립적인 당사자가 협상 팀을 이끌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제안이 갖는 문제점은 선의의 예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깔끔한 해결이 불가능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피와 분노이다.

첫째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도살한 것은 그들의 피로 그 땅을 더럽힌 것이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민 35:33).” 둘째로, 사울의 범죄는 언약의 맹세를 어긴 것이었다. 관습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맹세를 했을 때, 그들은 약속을 어기면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시도록 요청하는 것과 같았다(참조, 수 9:15,19). 그 진노는 치명적일 것이다. 여호수아 9 장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다([카라트] “to cut, 자르다,” 수 9:15, 16; 참조, 수 9:6, 11)고 알려 준다. 한 동물이 잘리고, 그 조각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언약의 의무를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그 조각 사이로 걸어가곤 했다. 이 행위를 통해 그들은 “이 짐승이 잘려 조각이 난 것처럼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잘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¹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저주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브온의 요구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자비스러우시게도 여호와께서는 이미 기근을 통해 이것을 알려 주셨다(삼하 21:1). 그렇다면 여호와의 진노는 달래지거나, 만족되거나, 또는 옛 말을 사용하여 말하면, 화해되어야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213, 478 을 참고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사지를 자르다, to dismember(NJB)”라고 번역하는 것을 선호한다.

¹³ 희생자들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삼하 3:7)과 사울의 다섯 손자들 곧 사울의 큰 딸 메랍의 자녀들이었다. 대부분의 사본은 삼하 21:8을 “미갈”로 읽는다. 그러나 삼상 18:19을 참조하면 여기 삼하 21:8에서 미갈이 아니라 메랍이 올바른 독법인 것이 드러난다.

¹⁴ 렘 34:8-20에 나오는 예를 참고하라. 특히 렘 34:18-20에 주목하라. 자세한 논의를 위해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0), 7-10 그리고 J. Arthur Thompson, “Covenant (OT)”, ISBE, 1:790-91을 참고하라.

한다.¹⁵ 언약의 저주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문들이 일어난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는 신 24:16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정의인가 아니면 불의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윌터 브루게만은 자기 나름대로 본문을 다시 씀으로써 이것을 다룬다. 그는 삼하 21:1에 언급된 대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는 또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삼하 21:1은 “다윗을 위한 날조의 일부”로서 다윗에게 사울의 후손 중 일부를 제거하기를 바라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¹⁶ 이렇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본문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주장을 그저 부인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브루게만의 환원주의는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브루게만에 의한 복음을 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 백성에 포함되었을지라도 사울 집안의 일곱 아들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원래 이교도적인 그들의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인식을 통해 이 본문을 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땅의 풍요를 보장받는 수단으로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대한 함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¹⁷ 이 에피소드가 그러한 이교도적인 사고 방식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¹⁵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444. 히타이트 왕인 무르실리스 2세(주전 1340-1310년경)의 역병 기도는 그가 일종의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나타낸다. 그의 땅은 수년간 재앙을 겪었다. 무르실리스는 그의 아버지가 이집트와의 맹세를 어기고 이집트 영토를 공격했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A. Malamat, “Doctrines of causality in Hittite and Biblical Historiography: A Parallel,” *Vetus Testamentum* 5 (1955): 1-12을 보라. 보다 간결한 요약을 위해 Johan De Roos, “Hittite Prayers,”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4 vol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95), 3:2003을 보라.

¹⁶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336-37. 나는 여기서 브루게만의 접근 방식을 언급할 뿐 그의 주장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허점들이 있다. 지각이 있는 독자라면 그것들을 알아차릴 것이다.

¹⁷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243-44는 풍요 보장의 수단들에 대한 그레스만의 설명에 근거하여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죽음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사법적인 처형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의 진리는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견해의 문제점은 본문이 그것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정되거나 행간을 읽어서 꼬집어 내야만 가능하다. 기브온 사람들은 스스로 여호와와 개입의 관점에서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삼하 21:6; 참조, 삼하 21:9) 그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증언에 회의적일지라도, 우리는 삼하 21:1 과 함께 이 에피소드의 신학적인 틀을 이루는 삼하 21:14b 의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는 말씀에 여전히 직면해야 한다. 이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 위반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한 조치를 승인하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근에서 벗어나 그분의 호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여기 일곱 사람의 처형은 신 24:16 에 명시된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율법은 개별 형사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사울은 단지 개인 자격으로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짓밟은 것이 아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왕으로서 그의 직무는 그의 행위에 공식적인 성격을 갖게 한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을 대표했다. 따라서 그의 범죄는 개인적이 아니라 대표적인 성격을 띠었고, 대표로서 그의 죄책에는 이스라엘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범죄 자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기브온과의 언약(수 9 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온 백성을 대신하여 맹세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언약이 파기되면, 한 사람(사울)이 주된 선동자라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자녀들에 대한 처형이 법적으로 허가된 소수의 사례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 국가적 서약의 위반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관련된 사례이었다.”¹⁸

아무도 이 장면의 생생한 공포를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쓸 뿐이다. 사울 왕은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는 지금 이 현장에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언약을 깨뜨리는 자의 저주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대리인이 된다. 말하자면, 그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언약 파기자들이 된다.¹⁹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썼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단락에 대해 의문이 있다. 나는 그것의 모든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자는 이 에피소드의 끔찍한 공포에 경악한다. 나는

¹⁸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227.

¹⁹ 일반적으로 이 전체 구절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집단적 연대에 대하여 Walter C. Kaiser, Jr., *More Hard Sayings of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2), 174-78을 보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차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한다. 독자들은 경악해야 한다. 본문은 속죄가 무시무시하고 피투성이라고 말한다. 속죄는 결코 즐겁지 않고 항상 끔찍하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죄를 단지 하나의 교리, 하나의 개념, 설명해야 할 추상적 관념, 분석해야 할 신학의 원리로 간주하는 함정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조금 낮기는 하지만, 우리는 속죄를 고난 주간에 재연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예배자가 어린 수소를 성막으로 끌고 가서 목을 베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으로 자르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야 했을 때 이것을 깨달았을 것임이 분명하다(레 1:3-9). 그 과정은 온통 어질러지고 피투성이었다. 레위기 1 장에 나오는 수소의 목을 베는 것에서부터 갈보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속죄가 고약하고 메스꺼운 것이라고 말씀해 오셨다. 기독교인들은 지나치게 세련되어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운 믿음을 갈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골고다에 너무 익숙하게 되었다면, 아마도 여기 기브아(삼하 21:6)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여 속죄란 피가 뚝뚝 떨어지고, 피로 얼룩지고, 피 비린내 나는 일이라는 진리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곳마다 죽음의 악취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iii. 언약의 안전 보장 (삼하 21:7 The Safety of Covenant)

삼하 21:7 은 거의 방백(傍白), 삽입 어구와 같은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 일곱 사람을 넘겨주어야 했고(삼하 21:6) 실제로 그렇게 한다(삼하 21:8).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중간에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꼈다(삼하 21:7).²⁰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는 사무엘하 9 장과 사무엘상 20 장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에 한결 같은 인애를 베풀기로 약속했던(삼상 20:15)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을 가리킨다. 사무엘하 9 장에서 다윗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여기 사무엘하 21 장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서 면제함으로써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

삼하 21:7 은 삽입 어구와 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저자에게 중요하다. 그는 대조를 보여주려고 한다. 여기서 그가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라. 그런 다음 그가 삼하 21:2 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하였다”는 사실(수 9 장)을 언급한 것에 유의하라.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어겼다(삼하 21:2). 그렇지만

²⁰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삼하 21:7)은 희생자들 중 하나인 리스바의 아들 므비보셋(삼하 21:8)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켰다(삼하 21:7). 이렇게 저자는 언약을 어긴 자 사울과 대조해서 다윗을 언약을 지키는 자로 부각시킨다. 이 단락은 언약 위반의 사례와 그 비극적인 결과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대하는 일을 통해 언약을 지키고 있는 모습도 포함하고 있다. 언약을 지키는 왕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므비보셋은 끔찍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다윗은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 므비보셋 설명은 독일어 선생님인 게르트 부흐발트의 지락을 떠올리게 한다. 약탈과 강간을 일삼던 러시아군은 1945 년 그의 지역 베를린을 점령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러시아인 몇 명이 부흐발트의 아파트에 나타나 “프라우! 프라우! (부인! 부인!)”라고 외쳤다. 부스스한 머리와 이틀 동안 기른 수염을 한 부흐발트는 친근한 미소를 지었고 체념의 몸짓으로 “프라우 카푸트(아내는 죽었어요).”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그의 아내가 죽었다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지 않은 이유는 아니다. (적군[Red Army]의 여자 군인들이 이미 그의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었다.) 그들이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부흐발트는 소파 위에서 기지개를 켜다. 그들은 그의 멜빵을 가지고 나갔고 이내 사라졌다. 그들이 나간 후 부흐발트는 문을 잠그고 소파를 옮긴 뒤 콘크리트 바닥에 파 놓은 3x3 피트 크기의 구멍에서 그의 아내 엘사가 나오도록 도왔다.²¹ 그가 분명히 그녀의 안전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녀는 피신할 수 있었다.

그것이 다윗이 므비보셋을 위하여 한 일이다. 다윗의 언약은 요나단의 아들 주위에 안전 보장이란 원을 그려주었다. 그러나 다윗의 헌신은 그 자체를 넘어서 다윗 계보의 마지막 왕이신 분의 불타는 충절을 가리킨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을 책임을 갖고 계신다(요 6:39). 그분의 거룩한 염려는 악한 자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다(요 17:11-12, 15). 그분은 아무도 자기 양들을 자기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맹세하신다(요 10:28). 이 다윗 계보의 왕은 우리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셨다

iv. 사랑의 비통(삼하 21:10-14 The Pathos of Love)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수행한다. 처형이 일어나고 시체들이 나무에 달린다. 이 모든 일은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에 일어났다(삼하 21:9).

이제 우리는 감동적이고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된다. 리스바가 기브아에서 굶은 베를 가지고 시신들이 있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온다. 그녀는 그곳에 진을 치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시체를

²¹ Cornelius Ryan, *The Last Battl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6), 486.

훼손하지 못하게 한다(삼하 21:10). 그녀는 죽임당한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모성애와 사울의 온 집안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녀가 그들의 처형이나 노출은 막을 수 없었다. 그녀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주 많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한다. 낮에는 경계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으며 그녀의 소중한 사람들의 썩어가는 시신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녀가 처한 상황의 세부적인 것들을 숙고하는 순간, 우리는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 거기 시신들이 매달려 있고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다.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인도 썩어가는 냄새와 모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리스바는 어머니로서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그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 그 공포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내레이터는 그것을 묘사하지 않는다.²²

리스바의 지칠 줄 모르는 경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²³ 어쨌든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는” 날이 왔다(삼하 21:10a). 그것은 땅에 기근이 끝나고 여호와의 진노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누군가 다윗에게 리스바의 헌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한다(삼하 21:11). 분명 이에 감동한 다윗은 찬사의 일환으로 리스바가 보호한 뼈와 함께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온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모아서 그들의 고향 베냐민 땅에 모두 명예롭게 장사되도록 했다(삼하 21:12-14).

나는 저자가 리스바에 대한 설명을 빼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수정하고 그녀를 본문에서 삭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 여자의 애정 어린 감정, 집요한 의지,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인내를 보여주는 이 애절한 설명이 들어 있는 것인가?

아마도 우리의 즉각적인 충동은 이 본문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몇 가지 적용을 찾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죄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친절을

²² J. P. Fokkelman, *Throne and City*, 285-86. 신 21:22-23에 나오는 율법은 처형된 범죄자의 매달린 시신은 그날이 끝나기 전에 끌어내려서 매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신명기의 저작 연대를 모세 시대로 본다면, 이 규정이 사무엘하 21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대답은 매튜 헨리가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특별한 경우였다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²³ 예를 들어 포켈만 같은 사람들은 리스바의 시련이 보리 수확기인 4월 중순에서 이른 비가 오는 10월/11월 초순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헤르츠버그 같은 사람들은 수확기 동안 때때로 내리기도 하는 추가적인 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베풀려고 하는 리스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본문이 하찮아 보이도록 만드는 꼴이 되지 않는가?

물론 나는 저자의 의도를 정신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저자가 여러분에게 이 매우 엄숙한 이야기—특히 리스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엄숙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이 매우 슬픈 에피소드를 묘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슬퍼하고 그 슬픔에 잠기며 그로부터 어떤 적용을 이끌어 내보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나는 서쪽 벽에 서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기도가 적힌 두루마리 종이가 벽 틈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특권에 편승하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기억한다. 나는 쉽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지만, 거기에 서 있는 동안 로마서 9-11 장 모두가 내 마음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곳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나도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것에 대하여(롬 11:25) 곰곰이 생각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들은 우울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될 순간들이었다. 유대인 메시아를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다. 나는 슬프고, 엄숙하고, 조용하고, 생각에 잠겨 있기를 원했다. 순식간에 우리 그룹의 리더 중 한 명이 내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고고학광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보스의 기질을 발휘해 서두르라고 말하며 근처에 문 닫기 전에 보여주고 싶은 고고학 유적지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때려주고 싶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헌신적인 행동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옮겨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에 대해 공평하게 말한다면, 그는 자신이 나의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망쳤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그의 거침없는 방해가 아주 부적절한 것처럼 느꼈던 것 같다. 그것은 내가 갖고 싶었던 슬픔을 파괴했다. 나는 이 본문의 저자가 여러분이 리스바 장면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제안한다. “이 본문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서두르지 말라. 그냥 기브아에 머물러 있으라. 리스바의 정력을 다 소모하는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광경들, 소리들, 냄새들이 여러분의 오감에 스며들게 하라. 그것은 극히 슬픈 것이었다. 저자는 여러분이 슬프고 엄숙한 상태로 남아 있게하기를 원한다. 그는 여러분이 해석학을 연습하러 달려가거나 여러분의 다음 기독교 활동으로 서둘러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광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픈 것이 있다. 흔히 그렇듯이(전 7:2-4), 그 슬픔에도 선한 것이 있다. 여기에 가슴이 찢어지고 오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있다. 저자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오감을 채울 것이다. 마치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삼하 21:1-2)를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시 90:11 이 떠오른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누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시편 90 편은 거의 아무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저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브아에 머물러라. 그것이 여러분의 모공 속으로 스며들게 하라. 비극을 공유하라.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²⁴

여러분은 다시 이상하게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대낮에 땅 위에 어두움이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막 15:33).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버림받은 분의 절규를 들을 것이다(막 15:34). 달아나지 마라. 골고다에 머무르라. 그 슬픔이 스며들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고 사랑의 비통을 숙고하라(요일 4:10).

III.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실제로 맹세를 하지 않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비성경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가?
2. 그것이 아무리 오래 전에 한 것일지라도, 아니면 지금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아무리 불편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약속은 항상 중요한가?
3.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은 매우 어려운 단락이다. 어떤 성경 교사가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 계속 빛을 찾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내가 정말 이해하는 구절들에도 나를 위한 아주 충분한 도전이 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4. 여러분은 목에 두른 십자가나 성찬상 위에 놓인 아름답고 윤이 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갈보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경이로움과 공포를 결합할 수 있는가?
5. 여러분은 우리가 서신서들에 나오는 십자가의 신학에 대하여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복음서들에서 묘사된 실제 장면에 대하여 생각하는 데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²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을 위해 J. I. Packer, *Knowing God*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3)의 15장(“하나님의 진노”)과 18장(“복음의 핵심”)을 보라.

24. 크면 클수록 더 힘들게 넘어진다 (삼하 21:15-22 The Bigger They Are, The Harder They Fall)

매년 나의 아버지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연례 공동 의회를 위한 목회 보고서를 작성하셨다. 그의 보고서는 예측 가능한 형식을 따라 일상적인 일들을 포함했다. 거기에는 그의 설교 횟수, 심방 횟수, 장례식 집례, 외부 설교 약속 등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보고서들은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읽으면서 자주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나 부언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나를 즐겁게 하거나 아연실색하게 했다. 그 중 한 설명에서 그가 “보고하기를” 지난 해 다른 두 교회에서 그들의 목회자가 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간청했으나 당시 가정 형편으로 인해 “그들이 생활비를 더 많이 드리겠다고 제안했을지라도!” 그 제안들을 거절했다고 하셨다. 그는 일상적인 항목을 흥미롭게 하는 버릇이 있으셨다.

삼하 21:15-22 에 이른 독자는 지루한 마을에 도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한 군대 보고서에서 뽑은 발췌문들을 모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용사의 이름들, 장소들, 무기들, 결과들이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야기의 흐름이나 복잡한 플롯이 없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것의 보고서 형식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전투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무시무시한 순간들을 암시하므로 그 나름대로의 흥미를 유발한다. 나는 그것이 그 나름대로의 증언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 증언을 듣기 위해 나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며 필수적인 것, 적절한 것, 성취된 것, 분명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¹

I. 필수적인 것: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보존하는 것 (삼하 21:15-17 What is Essential: Preserving God's King)

우리가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을 겨냥하여 공격한 블레셋 군인이 이시비브놈이었다는 것이다. 삼하 21:16 은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시비브놈의 무기의 일부는 무게가 300 세겔(7 파운드 이상, 참조, 삼상 17:7) 되는 놋으로 만든 것이었다. 대부분의 번역들은 그것이 그의 창 혹은 창머리라고 추측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카인]이란 단어는 여기에서만 사용된다. 그는 이 전투를 위해 새로운 것을 착용했다. 아마도 그것은 칼, 투구, 혹은 갑옷이었을 것이다. 본문이 말해주지 않으므로 번역자들은 추측해야 한다. 어쨌든 그는

¹ 삼하 21:15-22의 구조와 배열에 대해서는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3,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0), 297-98 그리고 Ronald F. Youngblood, “1,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1058을 보라. 삼하 21:1-14과 삼하 21:15-22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전자는 내부 위협을 다루고 후자는 외부 위협을 다룬다.

강력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계획에 대하여 추측할 필요가 없다. 본문은 이시비브눔이 다윗이 지쳐 있는 것(삼하 21:15c)을 보고 입맛을 다시며 죽이려고 달려들었다(삼하 21:16d)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아비새가 다윗을 도우러 달려와 이시비브눔과 싸우며 그를 죽여버린다(삼하 21:17a). 이것은 영화가 아니고 보고일 뿐이다. 따라서 긴장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극적인 타격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시비브눔은 죽임을 당해 이제 그의 강화된 무기와 아주 새로운 장비와 함께 옆드려져 있다.

이 아슬아슬한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부하들은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새로운 전쟁 정책을 세우고 엄숙한 맹세를 하며 다윗에게 건의했다. “당신(=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당신(=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삼하 21:17b).”³ 내기의 밀전이 너무 많고,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전쟁에서 다윗의 목숨이 끊어지면, 이스라엘은 흑암과 혼란 속에 허우적거릴 것이다. 다윗 왕의 목숨은 이스라엘의 빛이었다. 그의 죽음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이다.

너무 많은 것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최근에 우리 신학교 가족 몇 명이 (자신들의 잘못은 없을지라도) 치명적인 자동차 충돌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모두 무사했다. 이것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나는 관련된 학생 중 한 명, 곧 그의 재능, 학업, 지도력이 그의 나라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 매우 중요했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한 유학생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목숨이 우리의 고속도로에서 끊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조국에 있는 교회에 어떤 빛이 꺼져버렸을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때는 대림절 기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한 사람의 위태로운 상황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위기들을 떠올린다. 이삭이 끊어졌다면(창 22 장) 언약의 씨는 없었을 것이다. 애굽의 공주가 그 해방자(=모세)를 해저에 빠뜨렸다면(출 2:1-10) 이스라엘은 결코 해방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시비브눔이 그의 삼백 세겔이 되는 것(그 무기가 무엇이든)을 가지고 달려와 다윗을 죽였다면(삼하 21 장) 이스라엘은 재앙으로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신 분이 적그리스도 헤롯의 손아귀에서 구세주를

² 우리는 이 에피소드의 연대를 추정할 방법이 없다. 다윗의 피곤(삼하 21:15c)은 반드시 그가 나이 들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군과 전투가 격하므로 그의 기운이 빠진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³ 등불([네르])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한다(예: 렘 25:10; 앞의 문맥과 함께 욥 21:17 참조). 여기 삼하 21:17에서는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다른 구절들(왕상 11:36; 15:4; 왕하 8:19)은 다윗 계보의 계속되는 왕들이 다윗에게 등불([네르])이 되는 것을 암시하는 반면, 시 132:17은 다윗 계보의 마지막 왕을 언급하는 데 등불([네르])을 사용한다.

구하지 않으셨다면(마 2:13-33) 하나님의 양떼 중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여하튼 하늘의 하나님은 그 도전에 응해 오셨다. 그분은 씨, 혹은 구원자, 혹은 왕을 항상 보존하신다.

II. 적절한 것: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는 것 (삼하 21:17, 18, 19, 21 What is Proper: Honoring God's Servants)

여기서 아비새, 십브개, 엘하난, 요나단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언급할 때, 내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직감으로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 백성을 위해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아래서 싸웠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군사 발췌문에 이들 용사들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후사 사람 십브개,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처럼 각각 자기 성명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흥미롭다. 그리고 그렇게 언급된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웅적 업적은 유전적으로 기이한 거인족을 상대로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용사들은 이런 비범한 일을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용하신 도구들도 영예롭게 언급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 바울의 서신들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인사말과 칭찬의 작은 목록들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롬 16:4).”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생각한다. 자세한 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골리앗의 아우를 상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의 변덕스러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눅 22:28)”이란 감사의 말로 그들을 예우하셨다. 물론 그리스도의 종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상황과 위험의 관점에서 거인족과 싸운 다윗의 용사들과 견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절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 나의 목회 기간에 내 곁에서 풍랑을 이겨낸 장로님들과 예배의 사역과 상처를 주고 잘못을 범한 양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 나와 함께 해준 경건한

⁴ 엘하난이 나오는 삼하 21:19b는 난해한 부분이다. NASB처럼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가 된다. 병행 본문인 대상 20:5은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무엘하 본문에 혼란이 일어난 것은 삼하 21:19의 끝에 나오는 “-오르김(직공들)”이 고유명사 “야레” 다음에 잘못 베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나온 “오르김”은 적절하지만 “야레오르김”처럼 고유 명사 안에 나온 첫 번째 “오르김”은 의심스럽다. 길고 흥미로운 두 쪽의 각주를 피하기 위해 나는 독자들에게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704의 논의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 야이리의 아들(the son of Jairi)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라고 읽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Youngbloo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3:1060-61도 참고하라.

여성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다고 말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들을 존경하는 것은 적절하기 때문이다.

III. 성취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What is Accomplished: Fulfilling God's Promise)

이 네 명의 블레셋 전사들은 모두 “거인족([알리드/올라드 하라파, ‘라파의 후예’], 삼하 21: 16, 18, 20, 22)”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명시적으로 이시비브눔(삼하 21:16), 삽(삼하 21:18), 손가락과 발가락이 24 개가 있는 인물(삼하 21:20)에게 사용된다. 그리고 삼하 21:22 의 요약적 진술은 엘하난이 죽인 블레셋 전사(삼하 21:9)도 분명하게 거인족에 포함시킨다. 사실, [라파]는 이 전사들의 실제 조상 혹은 추정되는 조상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르바임 그룹에 속했을 것이다. 르바임/르바 족속(Rephaim)은 주로 요단의 동쪽에 살았고(창 14:5 “르바 족속”; 신 2:10-11, 20-21; 3:11 “르바임”) 가나안 정복 이전에 요단의 서쪽에도 살았으며(수 17:15; 참조, 창 15:20) 그들의 거대한 크기로 유명했다(참조, 삼하 21:16, 19b, 20).⁵ 블레셋을 위해 섬기는 이 네 르바임/르바 족속은 그들 계보의 마지막으로 간주되는가?⁶ 그렇다면, 다윗의 부하들의 대담함에 의한 그들의 제거는 여호와와 옛 약속의 신빙성을 강화시킨다(창 15:18-21, “르바 족속”).

그러나 여호와와 신임성에 대한 요점은 우리가 찾기 힘든 르바임/르바 족속을 추적하는 데 달려있지 않다. 이 네 명의 표본이 단지 블레셋 용병인지 블레셋 형통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죽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승리를 나타냈다(삼하 21:15, 17, 18, 19 에서 보는 것처럼 네 번 언급됨).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에피소드들이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어느 시기에 속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멸망시킨 것(삼상 17 장)보다 늦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 확실하다. 이제 나머지 블레셋 양아치들이 꺼져버렸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삼하 3:18).”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 사울 정권이 하지 못한 일을 다윗 정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⁷ 그러므로 간결한 영웅 보고서는 여호와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에 이루신다고 증언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삼상

⁵ 르바임에 대해서는 B. K. Waltke, “Rephaim,” ZPEB, 5:64-66 그리고 Youngbloo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3:863, 1059을 보라.

⁶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247을 보라.

⁷ Gutbrod, *Das Buch vom Reich*, 249-50.

17 장)처럼 지금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나온 모든 세월과 등장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과 그분의 손의 힘을 바꾸지 못했다.

여기 왕국의 역사에 적용되는 것이 개인의 역사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에딘버러에 있는 자유 성 조지즈의 목사였던 알렉산더 와이트의 편지 중 한 구절이 생각난다. 1918 년 10 월, 82 세의 와이트는 친구이자 전 교구 신자인 미스 이네스에게 메모를 써 보냈다. 그는 이 메모의 내용이 자신의 내면의 삶을 많이 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여기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설교한 것이 이제 나의 삶의 유일한 거처요 힘이라고 말할 뿐입니다.”⁸ 신학은 이 본문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곧 하나님의 이전 약속들은 끝에 가서조차도 굳건함이 증명된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그 끝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그 확신이 필요하다.

IV. 분명한 것: 하나님의 원수들을 침묵시키는 것 (삼하 21:20-21 What is Clear: Silencing God's Enemies)

나는 이제 네 번째 거인족(라파) 에피소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 전사에 대한 묘사를 주지만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는 이례적으로 인상적이었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 개씩 모두 24 개가 있는 거인이었다(삼하 21:20). 나는 저자가 이 친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습을 묘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각 손에 6 개의 손가락과 각 발에 6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셀 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5 개씩 모두 20 개가 있었다. 이 야수 같은 자의 사지는 흥미롭지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의 해부학이 아니라 그의 태도이다. 문제는 그의 손이나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 있고, 손가락 여섯 개와 발가락 여섯 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혀 하나에 있다. 그는 더 잘 알았어야 했다. 그러한 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히 똑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그것을 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능욕했다(삼하 21:21a).”

삼하 21:21a 에 나오는 그 동사는 [하라프]이고, “책망하다, 저항하다, 조롱하다, 능욕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그것은 사무엘상 17 장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된 동사 그리고/혹은 어근이다(참조, 삼상 17:10, 25, 26 [두 번], 36, 45).⁹ 우리는 골리앗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 그는 그의 머리를 잃었다. 그런데 이 우둔한 큰

⁸ G. F. Barbour, *The Life of Alexander Whyte, D.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23), 605.

⁹ 나의 책 *Looking on the Heart: Expositions of the Book of 1 Samuel*, 2 vols. (Grand Rapids: Baker, 1994), 2:37-38, 47-49에 나오는 논의를 참고하라.

덩치도 동일한 일, 곧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일을 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동일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그의 목소리를 잃었다.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영예스러운 일을 했다(삼하 21:21b). 주역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유명한 다윗이든, 손가락과 발가락이 여섯 개인 자를 쓰러뜨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요나단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요점은 동일하다. 곧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을 혈투는 자는 침묵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군대 연보 한 토막이 종말의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24 개인 자의 모습은 종말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의 죽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또 다른 할부금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또 다른 확신이고,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이다. 그의 생명 없는 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기 종말에 어떻게 될 일이 있다. 곧 여러분의 모든 원수들이 침묵하게 될 것이다.”라고 증언한다(참조, 사 54:17). 그가 여러분을 격려하게 하라. 그의 증언을 믿으라. 르바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적어도 죽은 르바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은 성경의 얼핏 지루해 보이는 구절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나 여러분의 삶의 관련성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빛으로 빛나기 시작한 때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2.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시비브놉이란 이름을 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3.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만 돌릴 영예를 주는 것과 그들의 봉사에 대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이 있을 수 있는가?
4. 물론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온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었는가?
5.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간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나 힘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대한 다른 어떤 예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가?

25. 수많은 위험과 고생과 올무를 지나 (삼하 22 장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나의 한 아들은 자기 차 내부를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유지한다. 껌 종이가 바닥과 좌석에 널려 있다. 각종 잔돈, 제반 영수증, 여러 자루의 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괴롭히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단지 사소한 것이고 자동차의 적절한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일만 정기적으로 갈아주면 되는데, 왜 다른 세부적인 것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가?

때때로 우리는 사무엘하 22 장과 같은 성경 본문에 대해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51 절이나 되는 매우 길고 시편 18 편과 병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사무엘하 22 장은 본문의 꽤 많은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우리는 신현적 언어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나안의 병행 본문들을 인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러 행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훨씬 더 말끔한 본문을 가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 전체를 거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정확성을 놓치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감사 노래에 대해 폭넓은 접근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 다윗의 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삼하 22:1)” 그 구원의 긴 사연을 되돌아보며 지은 반성적인 작품이다.¹ 이 표제는 독자들이 시편 전체를 볼 수 있는 렌즈이다. 헤르츠버그의 말이 옳다.

다윗의 역사는 위대하고 강력한 왕의 역사로 이야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장은 그것이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둔다.**²

그래서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사무엘하 22 장의 신학적 증언은 세 가지 초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나는 이것들을 표현할

¹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삼상 2:1-10)는 도래할 왕국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다윗의 시(삼하 22장)는 도래한 왕국에 대한 회고적 성찰을 제시한다.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272-75을 참고하라.

²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396(강조는 헤르츠버그의 것임). “사실, 시편 18편/삼하 22장은 다윗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인 주석이다. 다윗의 역사는 이 시편에 비추어 읽히고 들려야 한다. 그것이 최종 편집자의 의도이다.”라는 그의 서론적인 말(393쪽)도 참고하라.

때 우리가 다윗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1 인칭 복수를 사용한 것이다.

I. 우리의 찬양의 강도 (삼하 22:2-20 The Intensity of Our Praise)

다윗은 한 번의 찬양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놓는 찬양으로 시작한다.

여호와 –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 나는 그분 안에 피난을 한다.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안전한 망대, 피할 나의 장소;

나의 구원자 – 주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다. (삼하 22:2-3)

짧고 날카롭고 기관총 발사하듯이 터뜨리는 다윗의 무성한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필적할 만한 찬양을 펼칠 수 없는 그의 전적 무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는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은 말을 통해 표현하려고 한다. 그는 여호와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좌절감을 극복하려는 쓸모없는 탐구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찬사를 쌓아 올린다. 이삭 왓츠는 그의 찬송에서 같은 딜레마를 포착했다.

지혜, 사랑, 능력의 모든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합류시켜라.

이제껏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제껏 천사들이 지니고 있는 이름들을 합류시켜라.

모든 것이 그분의 가치를 말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모든 것이 나의 구세주를 진술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다윗의 바로 그러한 기품은 그의 찬양이 “너무 빈약하다”³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열정적이고 강렬하고 활기차다. 그러한 강렬함 뒤에는 분명 어떤 이유, 어떤 설명이 있을 것 같다.

분명코 있다. 다윗은 여러분이 그의 쏟아붓는 찬양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의 고난의 절망적인 극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5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악마의 급류가 나를 삼키려하고

6 스올의 울무가 나의 사면에 있고

³ 어드만(C. F. D. Erdmann, *The Books of Samuel*,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3 *Samuel-Kings* [1877;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579)은 삼하 22:2-4에 나오는 “용어들의 풍부한 집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소머(Sommer)의 말을 인용한다. “여기 서두에 이러한 엄청난 자비로운 행위들에 대한 회상이 그의 영혼에 압도적인 힘으로 몰려온다. 그는 그의 구원의 하나님을 부를 만족스러운 용어를 찾을 수 없어서 용어 위에 용어를 계속 쌓아 올린다.”

사망의 뒷이 내 앞에 놓여있다.

7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다.

내가 여기서 NJB(새예루살렘성경)의 번역을 사용한 것은 그것의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⁴ 그것의 생생함 때문이다. 그것은 다윗의 위험을 매우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다. 그의 굵은 상처들은 사망의 그림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끈적끈적한 손아귀에 의한 것이다. 이전에 다윗은 여기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나단에게 산문으로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삼상 20:3).”고 말했었다. 이 진술은 실제로 사울 시대(삼상 18-31 장) 전반에 걸친 다윗의 삶을 요약한다. 그의 고통은 담낭 수술을 받거나 망가진 자동 변속기를 교체하는 것 이상이었다. 매일 죽음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다녔다. 그는 사울의 공격 대상 명단에 지명 수배된 자였다.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스올을 여러분의 새 주소로 만들기 위해 일치 단결하여 끈질긴 추격을 벌인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구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해내셨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눅 7:47) 많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찬양한다.

둘째로, **그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삼하 22:8-16)은 다윗의 찬양의 활력을 설명해 준다.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들어주셨다(삼하 22:7).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세상이 휘청거렸다.

8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었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흔들렸다.

9 그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입에서 삼키는 불이 나왔다 ...

10 그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다.

그의 발 아래는 폭풍우 구름이 있었다 ...

12 그가 자신을 흑암으로 감쌌고

⁴ 사실, 삼하 22:5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왜냐하면”)로 시작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삼하 22:2-4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의 강렬함과 삼하 22:5-6에 나오는 다윗의 고난의 극심함을 연결한다. 아쉽게도 NJB는 이 연결을 반영하지 못했다.

비를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그의 장막을 만드셨다.

14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셨고

지존자가 그의 목소리를 내셨다.

15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흠으셨고,

그의 번개가 번쩍이며 그들을 무찔렀다. (삼하 22:8-9a, 10, 12, 14-15, NJB)

이것들은 우리가 보통 달콤한 기도 시간에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삼하 22:7) 강림하신다(삼하 22:8-16).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것은 마치 그분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출 19:9-25)이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다.⁵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종이 그러한 환난 중에 있는 것에 화가 나서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맹렬한 진노와 떨게 하는 위엄과 세상을 뒤흔드는 힘을 갖고 강림하신다.

여기서 다윗은 “간결하게 표현하는 법을 연마할” 수도 있었다. 그는 삼하 22:8-16 에서 69 개의 히브리어 단어나 NIV 의 141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개입하셨다”라는 5 개의 영어 단어로 쓸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시를 망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분명하지 않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러한 사실적 진술이 참된 사실일지라도 인상적인 사실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단지 여호와에 대한 사실만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다윗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왕의 구원을 위해 진노를 발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그분의 계속 빛나는 모든 광채 가운데서 말이다.

우리 중 다수는 산문적인 블레셋 사람들이다. 우리는 시를 깔보는 듯한 태도로 대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여기서 시로 말하고 있고 그가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그의 구세주를 묘사하는 데 재미를 느끼고 있다.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면, 글썄,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역사적 내러티브들을 보면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사실이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했을 때(삼상 18:10-11), 아무것도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리히터 척도(삼하 22:8)에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그분 자신의 구속복(拘束服)에 가둬두실 때조차도(삼상 19:23), 연기나 삼키는 불이 없었다(삼하 22:9). 사울이 다윗을 포위해 곧 잡아 죽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았을 때,

⁵ Jeffrey J. Niehaus, *God at Sinai* (Grand Rapids: Zondervan, 1995), 302-304 을 참고하라.

우리는 여호와와 우렛소리(삼하 2:14)를 듣지 못하고, 다만 블레셋 침공에 대해 외치는 전령의 음성만 들었다(삼상 23:26-28).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여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할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삼하 22:10)을 보지 못했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결코 블레셋 대열에 행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평하는 것(삼상 29:4)을 들었다. 그러나 왜 이 모든 일들은 정확히 그들이 했을 때 일어났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일어났는가? 왜 이 모든 구원들이 있었는가? 시는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 곧 이 모든 것이 여호와, 곧 하늘을 가르시고 세상을 흔드시고 적을 강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진실을 제공한다. 그러하신 하나님은 찬양을 불러일으키신다.

마지막으로, **그의 구원이 주는 반가운 안도감**(삼하 22:17-20)은 다윗의 찬양의 황홀함을 설명해 준다. 그는 이 구원을 **구출**(rescue)의 관점에서 묘사한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불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삼하 22:17).” 여호와께서는 그를 수많은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내셨다(삼하 22:5-6).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의 체험을 주셨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건져내다”는 뜻의 동사 [마샤]가 모세의 구출(출 2:10)과 여기(시 18:17)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의 구원을 **지원**(support)으로 묘사한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그 어두운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지원하기 위해 거기에 계셨다(삼하 22:19b NJB)”. 이것은 확실하고 장엄하며 단순한 진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구원을 **자유**(freedom)로 묘사한다. “그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삼하 22:20a).” 이것은 위험과 고난의 비좁고 협착한 감금과 정반대이다. 다윗의 안도는 삼하 22:17-20 에서 상당히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삼하 22:18b).” 다윗은 자신의 속수무책에 대해 솔직하다.

지금까지 나는 삼하 22:2-3 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이 왜 그토록 흘러 넘치는지 설명하려고 애썼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여러분이 정말로 삼하 22:4-20 을 들어보면, 삼하 22:2-3 에서 다윗의 찬양이 왜 그토록 흘러 넘치는지 이해할 것이다. 단어와 문들은 여러분이 다윗의 찬양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이 그의 찬양을 **느끼도록** 할 수는 없다. 이 딜레마는 (아마도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조지 헛필드에게 그의 설교를 인쇄해도 되는지 물었을 때를 생각나게 한다. 헛필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원하신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인쇄된 페이지에 번개와 천둥을 결코 실을 수 없을 것입니다.”⁶ 우리는 다윗의 찬양의 강도를 엿들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에

⁶ D. Marti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1971), 58에서 재인용함.

사로잡힐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열정까지 오를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의 진정성은 본받아야 한다. 삼하 22:2-3 에 나오는 분출은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삼하 22:4-20)에 대한 진정한 기쁨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강자들에게 주는 미리 준비된 경의 표시와는 거리가 멀다. 1930 년대 후반에 소련에서 스탈린 숭배가 척척 잘 진행되고 있었다. 한 지방 회의가 있었다. 스탈린의 이름이 언급되자 기립 박수가 시작되었다. 어떻게 박수를 멈추게 할 것인가 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감히 먼저 앉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던 한 노인이 그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당연히 그의 이름이 알려졌고 다음날 체포되었다.⁷ 그 도살자는 찬양을 강요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와 달리 여호와께서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감동시키신다. 여호와께서는 돌아다니면서 그분에 대하여 말하며 그분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찬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II. 우리의 의의 중요성 (삼하 22:21-31 The Importance of Our Righteousness)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어떤 독자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의롭게 행한 대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신다(삼하 22:21, JB).

다윗은 삼하 22:21-25 에서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산타 클로스 신학을 끌어들이고 있는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눈 먼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말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태도와 죄 의식에 대한 악화를 반영하는 것인가?⁸ 이 구절들은 사려 깊은 신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그의 손에 우리아의 피를 묻히고 그의 침상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삼하 11 장) 다윗이 어떻게 삼하 22:21-25 처럼 표현하는 것을 꿈꿀 수 있단 말인가?⁹

삼하 22:21-31 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⁷ Robert Conquest, *Stalin: Breaker of Nations* (New York: Viking, 1991), 212-213.

⁸ Walther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he Old Testament Library,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7). 2:392, 472.

⁹ (예를 들어, 블레이크와 커크패트릭, 아마도 볼드윈 같은) 몇몇 사람들은 이런 반대의 무게를 느끼며 이 시의 연대를 밋세바 사건 이전, 즉 다윗 통치의 (삼하 7:1의 상황 이후에 오는) 더 이른 시기로 추정한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삼하 22:21-25)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삼하 22:26-28)

그가 받고 있는 도움(삼하 22:29-31)

첫 번째 부분이 가장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부분에서 21 절과 25 절이 비슷한 것에 주목하라. 이 두 절은 22-24 절을 둘러싸는 틀 역할을 한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직역하면,) 나의 의를 따라”(삼하 22:21, 25; JB “내가 의롭게 행한 대로”) 자기를 다루셨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어떤 종류의 “의”를 주장한 것인가? 나는 삼하 22:22-24 이 다윗이 의미하는 것을 풀이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삼하 22:22 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완전함을 주장한 것이라고 밀어붙일 수 없다. 그가 정말로 주장하는 것, 특히 22 절 하반절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신실함이다. 결국 그는 배도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¹⁰ 삼하 22:23 은 또 다른 일반적인 진술이다. 여호와의 모든 법도가 다윗 “앞에” 있었고 그는 여호와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다윗은 삼하 22:24 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 대하여 온전함이 입증되었다(삼하 22:24a).” 히브리어 [타밈]은 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 완전함, 무결성을 의미한다. 다윗은 삶의 구체적인 일들에서 완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헌신에 있어서 전심으로 행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삼하 22:24b 에 나오는 “내가 내 죄악에서 나를 지켰다.”라는 말씀에 주목하라. 그는 그의 본성과 그의 경향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악이¹¹ 끄는 힘에 굽히고 굴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왔다. 다윗이 그의 의로움과 무결함에 대해 말할 때(삼하 22:21, 25), 그는 죄 없는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는 실수 없는 순종에 대해 바리새인적인 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¹⁰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d.), 2:563는 이렇게 설명한다. “때때로 그가 **악하므로** 그의 의무로부터 떠난 적은 있었을지라도, 그가 **악하므로**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적은 없었다.”

¹¹ J. A. Alexander, *The Psalms, Translated and Explained*, 3 vols. [New York: Charles Scribner & Co., 1865], 1:141: “**나의 죄악**은 내가 선천적으로 빠지기 쉽고 굴복하는 죄성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삼하 22:24a에서 주장하는 완전함이 죄로부터 절대적인 면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올바른 목적과 소원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얻는다.”

일관된 순종을 통한 신실한 충성을 표현하고 있다.¹² 이 모든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길 기뻐하시는(삼하 22:26-28) 사람은 바로 그러한 신실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전심을 다하는 종들이다. 구원받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제공하신 능력과 안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삼하 22:29-31).

삼하 22:21-31 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성경 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이상한 새로운 주름이 아니다. 그것은 줄곧 거기에 있어 왔다. 그것은 주류 교리이다. 여호와를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복을 기대할 수 없다(참고, 레위기 26 장과 신명기 28 장). 우리는 사 10:6-14 혹은 시 50:16-23 혹은 렘 2:26-29 에서 삼하 22:21-31 의 이면을 볼 수 있다. 여호와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분의 법을 무시하는(그러므로 그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분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 대한 지속적인 헌신은 없고 다만 그분에 대한 일시적인 필요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해 주는 일을 위해 그분이 개입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방공호를 찾는다.

신학교 일학년이나 이학년 때 한번 나는 우리 교수님과 한 반 친구 사이에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수업이 끝난 후 강당에서 교수님을 따라잡았고 강당은 붐볐다. 내 생각에 그 학생은 보충 시험을 치르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는 시험 당일 결석했다. 왜 그랬는가? 그는 수업에 없었다. 왜 수업에 없었는가? 그는 보통 수업에 오지 않았다. 왜 오지 않았는가? 그는 그 수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바로 그 교수님께 말이다. 그 교수님이 지루하거나 무능했다면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교수님은 지루하거나 무능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 교수님의 첫 논평, 곧 “이것은 나를 화나게 합니다.”라고 한 첫 마디를 기억한다. (갈등을 혐오해서 나는 그 지점에서 해맸다.) 화가 났다고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하셨다. 그 학생은 대담하게 자기 생각으로는 그 교수님이 수업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그 교수를 멸시하면서도 동시에 그 강좌에서 낙제하는 것만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윗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삼하 22:21-25). 아마도 그는 사무엘상 24 장과 26 장과 같은 에피소드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때 사울은 무거운 인간의 발 앞에

¹² 키드너는 시편에 나오는 의로움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몇 가지 훌륭한 설명을 한다. Derek Kidner, *Psalms 1-72*,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InterVarsity, 1973), 58-59, 87, 93을 보라.

달팽이처럼 무방비 상태였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으로 가는 지름길을 거부했다. 우리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대체로 이야기했다(삼하 22:22-24).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이렇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그분의 규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변명으로 감히 여러 가지 고난과 압박을 사용할 수 없다. 여러분의 소명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시 37:34a)” 것이다.

III. 우리 왕국의 무적 (삼하 22:32-51 The Invincibility of Our Kingdom)

삼하 22:32-51 은 대체로 삼하 22:2-20 과 상응한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은 왕의 구원에 있지 않고 왕의 통치에 있다. 삼하 22:32-51 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의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어떻게 그의 왕권에 복종하는지를 추적한다.

다윗은 그의 찬양에서 왕국을 세우는 능력을 기린다(삼하 22:32-43). 다윗은 여호와의 행위를 강조하며 (NJKV 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3 인칭으로 묘사하거나(삼하 22:34-35) 2 인칭으로 부른다(삼하 22:36-37).

34 **그분은**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35 **그분이** 나의 손을 가르치사 싸우게 하시므로
나의 팔이 늦 활을 당긴다.

36 **당신님이 당신님의**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셨고,
당신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37 **당신님이**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삼하 22:34-37 NKJV)¹³

¹³ [역자 주] 개역이나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3 인칭 대명사나 2 인칭 대명사를 번역하는 경우 “주”를 사용한다.

(개역개정 삼하 22:36)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NKJV: **You** have also given me the shield of **your** salvation, And **your** gentleness has made me great.]

(개역개정 미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NKJV: **He** has shown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But to do justly,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삼하 22:34-38 에 나오는 대명사 번역에 대하여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삼하 22:38-43 에서 다윗은 “내가” 이를 수 있었던 것을 1 인칭으로 말한다.

38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39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

43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 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 같이 밟아 헤쳤나이다(삼하 22:38-39a, 43 개역개정)

분명히, 이 일인칭 진술(삼하 22:38-43)은 그 앞에 있는 삼인칭/이인칭 진술(삼하 22:32-37)에 기초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리석을지라도, 다윗은 주의 깊게 이 일인칭 진술 부분에 이인칭 진술을 섞어 넣는다(삼하 22:40-41). 다윗은 아주 분명하다.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전쟁하게 하셨습니다(삼하 22:40a).” 다윗의 왕국은 여호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 요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윗은 또한 주변을 둘러보며 그의 왕국을 섬기는 민족들을 본다(삼하 22:44-50). 그의 왕국은 참으로 국제적이다.

NKJV: 34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deer, and sets me on my high places. 35 **He** teaches my hands to make war, so that my arms can bend a bow of bronze. 36 "**You** have also given me the shield of **Your** salvation; **your** gentleness has made me great. 37 **You** enlarged my path under me; so my feet did not slip.

개역개정: 34 [3 인칭 대명사 생략]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 [3 인칭 대명사 생략]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36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7 [2 인칭 대명사 생략] 내 걸음을 넓게 하였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새번역: 34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신다. 35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36 주님/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 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 주셨습니다. 37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어져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대명사를 명사로 밝혀 번역함; 호격 “주님”은 원문에 없음]

우리말성경: 34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35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36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37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원문의 대명사 인칭 구별 불가]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어져 나오리로다(삼하 22:44b-46 개역개정)

그것 또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왜냐하면 “민족들이 내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삼하 22:48b)”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찬양은 국제적임이 틀림없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삼하 22:50a).” 여기에 왕국의 범위에 대한 조망이 있다. 다윗은 더 이상 유다 지파의 조그만 땅을 다스리는 블레셋의 봉신이 아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언약 왕이고, 주변 나라들이 이제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왕이 다윗 자손으로 오실 왕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분을 섬길(시 72:11) 날에 대한 예고와 보증을 본다.

다윗은 그의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왕국을 보장하는 약속을 암시한다. 이 때 그는 여호와를

그분의 왕을 위한 구원의 탑,
 그분의 기름 부은 자에게 한결 같은 인애를 베푸시는 분,
 곧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한결 같은 인애를 베푸시는 분(삼하 22:51)

이라고 찬양한다.

“한결 같은 인애[헤세드]”와 다윗의 후손 그리고 “영원히[아드-올람]”라는 어구들은 여호와께서 삼하 7:12-16 에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마지막 절(삼하 22:51)은 다윗의 왕국과 그것의 웅장한 대단원(참고, 시 72:8-11; 욥 9:9-10)이 역사의 행운이 아니라 역사를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작정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러한 확실성은 자주 구타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긴급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중 대부분은 그들의 왕국이 무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한 많은 위험과 수고와 울무를 계속해서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능력이 왕국을 세운다는 요점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것은 이 부분 전체의 지배적인 기조이다. 여호와의 약속(삼하 22:51)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것이 확실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블레이키는 영국 역사의 한 사건을 언급한다. 영국이 아쟁쿠르 전투(1415)에서 승리한 후 영국의 헨리 5 세는 시편

115 편을 부르도록 명령했다. 헨리는 땅에 엎드리며 그의 모든 군대도 엎드리게 했다. 그 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시 115:1).”라는 말이 울려 퍼졌다.¹⁴ 나는 이 기조가 오늘날의 교회, 적어도 낙관적인 서구 교회에 없어진 것은 아닌지 두렵다. 나는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세미나, 우리의 행동 등이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종 기독교인의 오만이란 모순된 상태에 빠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배우는 데 느리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우리는 헨리 5 세와 함께 내려와야 한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왕국과 영광을 보증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이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사무엘하 22 장에서 여호와께서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신” 것을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는가?
2. 여러분이 이 시의 언어를 통해 다윗을 위해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시내산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 이것은 “그들이 모세의 노래 ...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라는 계 15:3 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역사에서 그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전부 보여주셨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주시는 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4.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무적이고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많은 증거들에 관하여 생각하며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5.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여러분의 계획이든 다른 사람들의 계획이든 어떤 인간의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던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¹⁴ W. G. Blaikie,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 Graham, n.d.), 353.

26. 마지막 말은 앞을 내다본다 (삼하 23:1-7 Last Words Look Forward)

토마스 호그가 1692 년에 죽기 전에, 그 스코틀랜드인은 킬턴에 있는 자기 회중에게 교회 건물 입구에 자기 무덤을 파라고 지시했다. 거기서 그는 어떤 합당하지 않은 목회자가 임무를 수행하러 오는 것을 막는 침묵의 보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혀 있다.

이 비석은 증언하리라
킬턴의 교구민을 대항하여
그들이 불경건한 목회자를 데려오면
여기에서.¹

이것은 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며 기록으로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삼하 23:1-7 에서 갖고 있는 것이다. 삼하 23:1-7 은 기록상 다윗의 마지막 말이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마지막 말이다. 그것은 토마스 호그의 것보다 더 확신에 차 있고 덜 불길하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축복(창 27:2-4; 49:1, 28; 신 33:1)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 축복의 틀에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축복이 아니라 왕국에 대한 예언이다. 이 단락(삼하 23:1-7)은 사무엘하 22 장과 함께 사무엘하 21-24 장의 중심에 있다. 사무엘하 22 장에 나오는 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왕국을 세우셨는지를 되돌아본다. 삼하 23:1-7 의 예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왕국을 완성하실 것인지를 내다본다.²

삼하 23:1-7 의 가르침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이 본문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번역을 제공하고 싶다. 히브리어 본문은 때때로 표현에 있어서 간결하고 선택에 있어서 까다롭다. 본문이 짧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영어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일을 피하고 싶어서, 나는 여기에 참고용으로 상당히 문자적인 번역을 제시한다.

¹ Donald Beaton, *Some Noted Ministers of the Northern Highlands* (Glasgow: Free Presbyterian, 1985), 10.

² 분명히 삼하 23:1은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다윗이 죽을 때 한 마지막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말, 혹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록상” 그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삼하 23:1-7

1.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신탁이다.
그렇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의 신탁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신탁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르는 자(의 신탁이다).
2. 여호와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에 있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말씀하셨다.
인류의 통치자—의로운 자!
통치자—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4. 해가 떠오를 때 아침의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밝음 때문에, 비 때문에
—땅에서 돋는 풀 (같다.)
5. 사실, 나의 집이 하나님께 이와 같지 아니한가?
그가 나를 위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위해
완전히 명시되고 확보된 언약(을 위해)
나의 모든 복지와 (그분의) 모든 기쁨을 위해
—사실, 그분께서 그것이 벌떡 일어서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6.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가시 나무와 같다.
그것들 모두가 다 버려질 것이다.
확실히 사람들은 그것들을 손으로 잡지 않는다.
7. 그러나 그것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자신을 무장한다.
철이나 나무 창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완전히 태워질 것이다.³

이 본문의 주제는 다가울 왕국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준다.

³ 문법과 번역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독자들은 Driver, Gordon, Keil, and Kirkpatrick 등의 주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I. 왕국은 확실하다 (삼하 23:1-3a, 5 The Kingdom Is Certain)

다윗은 우리로 그의 실제 예언을 기다리게 한다. 그것은 삼하 23:3b-4 에 나온다. 이보다 먼저 우리는 8 개 혹은 9 개의 행으로 된 긴 서론을 만난다. 본문은 매우 의도적이어서 특별히 서두르지 않는다.

이 서론(삼하 23:1-3a)은 적절한 서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소개하는 것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알려준다. 앞으로 주어질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곧 "신탁"이다(삼하 23:1).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말씀하셨으므로 다윗의 혀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삼하 23:2). 다윗이 전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선포하신 것이다(삼하 23:3a). 이러한 반복은 "보라! 내가 오리라!"는 그의 본문을 선언한 젊은 설교자의 진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머리가 멍해졌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계획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본문을 반복했다. "보라! 내가 오리라!" 여전히 빛이 없었다. 자포자기한 나머지 그는 강단에 기대어 더욱 큰 목소리로 "보라! 내가 오리라!"고 본문을 선언했다. 그 시점에서 강단이 무너지고 그 청년은 맨 앞자리에 있는 여성의 무릎으로 굴러떨어졌다. 당황한 설교자는 연거푸 사과했지만 그 여성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세 번이나 당신이 온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집요한 반복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윗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그가 선언하는 것이 그 자신의 추측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교리이고, 인간의 통찰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확실한 말씀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윗은 이 계시 자체(삼하 23:3b-4)를 말한 후 바로 이어서 삼하 23:5a 에서 다시 이러한 확신의 음조를 들려준다. 그는 미래 통치자의 소망(삼하 23:3b-4)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와 맺으신(삼하 7:12-16) "영원한 언약," 곧 "완전히 명시되고 확보된 언약"의 성취에 있음(삼하 23:5b-e)을 알고 있다.

이런 확신의 음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반가운 것인가!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보며 인류를 다스릴 한 의로운 통치자가 다스리기 위해 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없다. 우리의 세상은 문명으로 상승하기보다는 혼돈으로 곤두박질치고, 정의를 찾기보다는 억압에 뒹굴고 있는 것 같다. 주님 자신의 많은 백성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개인 생활을 겪으며 그들의 무의미해 보이는 상황들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우리는 결코 개인적인 경험에서 왕국의 소망을 추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왕국은 정치적인 제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다.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들에 대한 확실성을 거의 갖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왕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그것 없이는 계속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왕국은 매력적이다 (삼하 23:3b-4 The Kingdom Is Attractive)

삼하 23:3b-4 은 다윗의 예언적 계시의 핵심이다. 본문은 매우 단축되고 톱 잘라낸 꼴이다. 다윗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를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통치자를 보고 있다. 그는 의롭고 합법적이다. 하나님의 경외가 그의 통치에 영향을 준다(삼하 23:3b). 삼하 23:4 은 절망할 정도로 모호하지는 않다. 그것은 빛, 태양, 비, 그리고 풀의 이미지를 통해 이 통치자의 통치가 소생시키고 신선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효과를 묘사한다. 삼하 23:4 은 어떻게 번역을 할지라도 신선함과 활력이 배어 나온다. 다윗은 다가올 우주적인 통치자를 우리에게 가리킨다. 그분은 의롭게 다스리신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이 다스리는 사물과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신선하게 하신다.

나는 다윗이 말하는 "통치자"가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다윗은 (삼하 23:5 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그 통치자가 "다윗 계보"의 왕, 곧 다윗의 "집"(왕조)에서 나오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다윗이 삼하 23:3b-4 에서 다윗 계보의 왕들을 위한 이상을 천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예언적으로 그의 왕조의 최종적인 대표자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삼하 23:1-3a 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뚜렷한 강조는 왕이 어떠한 행하는지에 대한 다소 단조로운 진술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⁵

그렇다면 다윗은 마지막 다윗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인류의 통치자—의로운 자!

통치자—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기 백성을 짓밟거나 쥐어짜지 않고 상쾌하게 하고 양육하는 통치자(삼하 23:4)! 그 왕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의 왕국도 매력적이다!

⁴ 나는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 이미 왕국을 개시하셨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재림을 통해 그것을 완성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삼하 23:1-7의 미래적 지향은 여전히 하나님의 현재 백성과 관련이 있다.

⁵ 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1875;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50), 487 그리고 Gerard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0), 304-308을 참고하라.

우리가 이 왕에게 끌리는 것은 바로 이런 부류의 왕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어린 시절에 교회가 끝나고 일요일 저녁마다 저녁 식탁에 앉았던 것을 기억한다. 어떤 형태로든 치즈는 항상 일요일 저녁 식사的一部分였다. 나는 식탁의 중앙에 놓인 접시에 남은 마지막 치즈 조각을 본 기억이 난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의 습관대로 그 치즈 조각을 어떻게 “내려다보셨는지” 기억한다. 그는 충동적으로 그것을 집지 않으셨다. 아니, 그것은 사려 깊은 숙고의 과정을 거쳐 집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시곤 했다. 마침내 몹시 힘든 미식에 대한 논쟁의 절정인 것처럼, 그는 손을 뻗어 치즈를 집으시곤 했다. 그 드문 계시적인 순간들 중 한 순간에, 아버지께서 치즈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설명하신 적이 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치즈를 충분히 먹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결핍이 욕망을 자극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느끼는 매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 왕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왕국은 매력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류의 통치자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왕은 매력적이다. 민주 정부에서 독재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와 개인의 의에 의해 통제되므로 그의 재임 기간의 통치가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통치자를 발견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다. 선출되었든 물려받았든 그들은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압제적이고 권력욕에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백성을 구원하기보다는 학살한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그 예로 리베리아를 생각한다. 거기서 전쟁 중인 지도자들과 파벌들이 땅을 살살이 뒤지고 심하게 훼손시키므로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이주를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다윗과 그의 통치의 실행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자극해야 한다.⁶

III. 왕국은 배타적이다 (삼하 23:6-7 The Kingdom Is Exclusive)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왕국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통치자의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에 매료되거나 매혹되거나 끌리지 않는다. 이들은 “불경건한 자(직역: 벨리알)”이다. 메시아적 왕이 “빛과 같다면(삼하 23:4),” 그 불경건한 자들은 “가시 나무와 같다(삼하 23:6).” 그가 신선함을 가져온다면(삼하 23:4), 그들은 고통을 준다(삼하 23:6-7a). 그들은 그들이 멸시하는 정권에서 배제될 것이다. 그들은 다 “버려질” 것이고 “그

⁶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주장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 자체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매력적이다(마 11:29-30).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자주 우리의 빈약한 이상주의와 근거 없는 소망이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그 매력을 보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절망을 마시도록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목마르게 하신다.

자리에서 완전히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왕국은 회복과 파괴, 구원과 심판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는 의로운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 의로우신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종말에 아주 분명해질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마 13:41-42)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을 개시하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은 이미 그렇게 말했다(마 3:12).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의 왕국은 경계선이 있다. 불경건한 자들은 그 왕국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왕국은 배타적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인기가 없다. 관용과 평등주의라는 현대적 교리는 모든 이를 포함한다는 복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간주한다.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조차도 때때로 그리스도의 종들과 벨리알의 추종자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한다. 몇 년 전에 한 미국 교단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있는 선교 단체에 합류시키기 위해 새로운 선교사 후보를 보내고 있었다. (이 선교 단체가 자금 부족으로 전담 선교사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개혁 인턴"으로 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장 선교사는 그 후보자가 서면으로 자기는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으로 분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는 일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직원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 완강한 현장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젊은 세대에 속합니다. 그의 헌신은 진짜이지만 그의 어휘와 사고방식은 전통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기를 꺼리는 것을 포함한) "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인턴이 기여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성경의 왕국 교리는 그러한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을 거부한다. 다윗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들의 말은 동일하다. 곧 종말에 불경건한 자들은 메시아 왕국의 밖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약 성경의 끝 부분에서도 요한은 이 점에 대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계 21:8, 27; 22:15). 위대한 "복음적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그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독자가 깊은 구렁의 가장 자리에서 그 안의 재앙을 바라보며 떨게 한다(사 66:24). 의심할 여지없이 이유가 있다. 아마도 그 광경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곳간(참조, 마 13:30)으로 달려갈 것이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은 삼하 23:1-7 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구절은 그렇게 중요한가?
2. 미래가 하나님의 계시의 주제이므로 지식인의 깊은 생각으로부터 운세의 진부한 예측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분별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3. 다윗처럼 이사야도 미래의 위대한 왕에 대한 예언들을 받았다. 그는 불완전한 왕에서 아주 사악한 왕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의 치세에 살았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포함한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경험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을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키는가?
4. 그 왕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왕국은 매력적이다. 여러분이 이 왕의 나라에서 그분의 종이라면,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인가?
5.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외부인들이란 그들이 실제로는 내부인이라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러분은 이 관점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가?

27. 용사들 만세 (삼하 23:8-39 Hail to the Chiefs)

이 단락의 분해는 꽤 간단하다. 나는 포켈만을 따르며¹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선호한다.

이름이 알려진 세 용사, 삼하 23:8-12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세 용사, 삼하 23:13-17

두 우두머리 용사, 삼하 23:18-23

기타 용사들의 명단, 삼하 23:24-39

이 개요는 우리에게 땅의 모습을 알려준다. 그러나 “땅”은 본문 문제의 지뢰밭이다. 영어 성경들(그리고/혹은 그것들의 각주들)을 비교해 보는 독자들은 삼하 23:8, 18-19, 32-33의 원문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번역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난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임무는 복잡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증언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증언은 충분히 명확하다. 본문상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다른 참고 문헌을 살피기를 바란다.²

내가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실 동쪽 벽에 일련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이 컬러 초상화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신학교에서 봉사한 과거 또는 현재 교수들의 초상화이다. 그것은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신학교를 충실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섬겨온 사람들을 기리는 학교의 방식이다. 삼하 23:8-39이 이와 같다. 그것은 주로 목록이지만 수년간 다윗과 그의 왕국을 충실히 섬긴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왕국의 종들에 대한 명예로운 명단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삼하 23:26-27a)”을 읽을 때 희열을 느끼며 헌신을 다짐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건덕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힘들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름들과 한 문으로 된 이야기들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된다. 인내를 가지고 보면 처음에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비밀 (삼하 23:8-12 The Secret That May Escape Us)

삼하 23:8-12은 요셉밧세벳(삼하 23:8; 혹은 야소브암, 대상 11:11)과 엘르아살(삼하 23:9-10)과

¹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3,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0), 301.

² 영블러드의 설명을 자세히 읽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Ronald F. Youngblood, “1,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 1085-94을 보라.

삼마(삼하 23:11-12)로 구성된 엘리트 용사 그룹(분명히, 그 세 용사)을 묘사한다. 요셉밧세벳은 한 싸움(삼하 23:8b, “단번에”)에서 800 명을 쳐 죽였다. 엘르아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갈 때 끝까지 맞서 싸우며 피곤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쳐 죽였다(삼하 23:9-10).³ 삼마는 약탈하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녹두 밭을 보호함으로써 어떤 이스라엘 농부를 매우 즐겁게 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지만, 삼마는 그 녹두 밭에 서서 달려드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삼하 23:11-12). 이 모든 에피소드들은 개인적인 위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들은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홀로 서서 전세를 뒤집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에피소드들이 인간의 배짱의 순전한 대담성을 기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삼하 23:10, 12 은 그 모든 것(적어도 엘르아살과 삼마의 시나리오) 배후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있다. 그 비밀은 “여호와께서 큰 승리(직역: 구원)를 이루셨다.”는 것이다.

1948 년 6 월 아랍의 포격이 유대인의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탄약 공급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강도로 응전할 수 없었다. 아랍의 사령관 에밀 주메안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 두 개의 포탄이 성묘 교회(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와 바위의 돔(the Dome of the Rock)을 강타한 것은 바로 이 기간에 일어났다. 그 사실을 숙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유대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다. 분명코, 그들 말고 누가 바위의 돔을 포격하고 싶어할 것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주메안은 아랍인들에게 포격을 명령했고, 이스라엘군이 그 분노에 대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유대인들에 대한 전세계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다. 이 경우에 사건들은 보이는 것과 달랐다. 사람들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그것들 배후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했다.⁴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처음 세 용사의 원초적인 대담하고 투철한 용기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러한 공격을 하는 동안 “다만 통로들뿐(Channels Only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이란 곡을 흥얼거리지 않았다!)

³ 엘르아살의 손과 유사한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1) W. G. Blaikie,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incinnati: Jennings & Graham, n.d.), 346: “워털루에서 한 하일랜드 상사는 바구니 손잡이가 있는 칼로 그러한 처형을 했고 너무 많은 피가 그의 손에 응고되어 대장장이가 그것을 풀어야 했다. 그럴 만큼 서로 단단히 붙어 있었다.” 2) A. F. Kirkpatrick,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UP, 1897), 216: “1860년 드루즈에 의한 레바논 산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셰이크 알리 아마드의 손은 그의 칼 자루에 매우 꼭 들러붙어서 뜨거운 물로 찜질하여 근육이 이완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⁴ Larry Collins and Dominique Lapierre, *O Jerusalem!* (New York: Pocket Books, 1972), 6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담한 용기와 끈질긴 전투의 배후에는 승리가 야훼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이 있다. 그분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의 용기와 담대함을 사용하셨지만, 결국 그 구원은 그분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선물로 보며 성공이나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II. 우리를 압도해야 하는 경외 (삼하 23:13-17 The Awe That Should Overcome Us)

다윗은 당황했다. 압도되었다. 그는 세 명의 자기 용사가 자기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깨달았을 때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소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라고 했었다(삼하 23:15). 그것은 지나가는 희망 사항이고 순간적인 향수의 폭발이었다. 그러자 그 물이 다윗 앞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고개 젖는 것을 멈출 수 없었는가?

삼하 23:13-17 을 통해 전해지는 사건은 사울의 통치 기간에 다윗이 아둘람 굴을 자주 드나들며(삼하 23:13; 삼상 22:1-2) 도망다니던 시기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어떤 이들은 삼하 5:17-21 을 배경으로 제안한다). 어쨌든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다.⁵ 한 블레셋 분견대가 예루살렘 남서쪽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삼하 23:13),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6 마일 떨어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있었다. 다윗이 향수에 젖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마시고 싶다고 토로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였다. 그는 세 명의 부하가 그의 소원을 그들의 임무로 받아들일 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큰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을 틈타 몰래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을 뚫고⁶ 지나갔다가 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회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워 그들의 목표를 이루었다. 물론 승산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들이 용사라고 괜히 불리는 것은 아니다. 왕복 여정이 25 마일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지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쨌든 여기 그 물이 있다. 여기 베들레헴의 영약이 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 마시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삼하 23:16b).”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⁵ 아둘람은 베들레헴에서 서쪽/남서쪽으로 약 12.5마일 떨어져 있었다. W.S. LaSor, “Adullam,” ISBE, 1:58을 보라.

⁶ 포켈만(Fokkelman, *Throne and City*, 305)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삼하 23:16a에 나오는 동사 [바카]의 의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비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삼하 23:17a).”라고 외치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라고 덧붙인다. 그는 자기 부하들이 무릅쓴 위험이 믿기지 않았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물이지만, 다윗에게는 자기 부하들의 피를 상징한다. “피”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실 엄두를 못 낸다. 그는 그것을 쏟아 부었다. 그것이 쓰레기여서가 아니라 보물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⁷

현대 신자들은 언약의 왕 다윗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때때로 비슷한 경험을 즐기며 그에 따른 비슷한 반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86 년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던 날, 우리 가족은 부모님이 사셨던 펜실베이니아 서부 마을에 있는 교회에 모였다. 장의사는 우리 가족을 교회당 안에 예약된 좌석으로 인도하려고 했다. 그곳으로 입장하기 전에 나는 언뜻 청중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놀랐다. 왜냐하면 내가 메릴랜드에서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셨기 때문이다. 분명 유령이 아니었다. 이것은—그가 참여한 것은—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나는 거기서 그를 보고 느낀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겉보기에는 그의 참석이 그런 시기에 적절한 친절과 존경의 행위를 의미할 뿐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이상이었다.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300 마일을 운전해서 온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적어도 하루는 휴가를 내야만 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 나와 내 가족을 그렇게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소름이 돋는 상황이었다. 그것은 누군가 베들레헴에서 물을 길어 온 것과 같았다. 이런 경외심으로 가득 찬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종으로 섬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 드려야” 한다. 그분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녹이신다.

III. 우리를 격려할 수 있는 명예 (삼하 23:18-39 The Honor That Might Encourage Us)

(삼하 23:18a 에 나오는) 아비새는 우리를 혼란 속으로 인도하며 삼하 23:18-19 까지 이르게 한다. 영어 성경들을 비교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이 본문의 불확실성을 감지할 수 있다. 아비새는

⁷ 볼드윈(Joyce Baldwin, *1 & 2 Samu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88], 293)이 지적한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만이 그러한 희생을 받으실 만한 분”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헤르츠버그(H. W.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405)의 “다윗의 행위는 왜 그의 부하들이 그를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썼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설명도 참고하라.

삼십인의 우두머리인가(NASB: chief of the thirty), 아니면 첫째 삼인의 우두머리인가(NIV: chief of the Three), 아니면 둘째 삼인의 우두머리인가(NJPS: head of another three)? 본문은 어렵고 아주 소수의 히브리어 사본들이 대체 독법을 제공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페이지의 글을 썼으나 여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가 NASB 가 옳다고 간주하고 아비새(삼하 23:18)와 브나야(삼하 23:20)가 삼십인 중의 우두머리였다고 가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깔끔한 사람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의 항목이다. 첫 번째 유형의 항목은 아비새(삼하 23:18-19)와 브나야(삼하 23:20-23)에 대한 일화적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비새의 창은 300 명의 전사자를 땀으로써 그에게 월계관을 주었다(삼하 23:18).⁸ 브나야의 첫 번째 업적(삼하 23:20b)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⁹ 그의 다음 두 가지 업적은 분명히 우리의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브나야의 사전에는 “위협”이란 단어가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이 브나야 자신이 준 위협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는 사자에게 몰래 접근했다. 그 반대가 아니었다. 내리는 눈을 뚫고 구렁이에 내려가서 그 사자를 죽였다. 브나야는 나왔으나 사자는 나오지 못했다(삼하 23:20c). 이것은 다윗(삼상 17:34-37)도 이해할 수 있는 업적이다. 그 후에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서 창으로 무장한 장대한 애굽 사람과 일대일 대결을 벌였다.¹⁰ 브나야는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았다. 후자는 그가 잡고 있던 것과 그의 목숨을 모두 잃었다(삼하 23:21).

두 번째 유형의 항목은 삼십인 용사에 대한 훨씬 덜 흥미로운 목록이다(삼하 23:24-29). 업적의 묘사는 없고, 다윗의 엘리트 용사들의 명예로운 명단으로 이름과 혈통 그리고/혹은 고향이 밝혀져 있다.¹¹ 여기 “삼십인”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범주에 가깝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⁸ 포켈만(Fokkelman, *Throne and City*, 306)은 그 업적이 단 한번에 이루어진 요셉밧세벳과 대조적으로 아비새의 업적이 누적 집계되었음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⁹ 문제는 단어 [아리엘]이다. 그것은 복수로 정정되어 브나야가 모압의 두 영웅을 쳐 죽였다고 읽어야 하는가(David J.A. Clines,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1:365)? 아니면 우리는 칠십인역을 따라 그가 아리엘이란 이름을 가진 모압 사람의 두 아들을 쳐 죽였다고 가정해야 하는가?

[역자 주] 개역개정: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 새번역: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 공동번역: “모압의 두 장사; 쉬운성경: “모압의 최고 군인 두 사람”; 우리말성경: “모압의 장수 두 명”; 현대어성경: “모압의 사자라고 소문난 장수 두 사람”

¹⁰ 창은 던지는 무기가 아니라 찌르는 무기이고 백병전에서 보병에 의해 사용되었음에 유의하라. Yigael Yadin, *The Art of Warfare in Biblical Lands*, 2 vols. (New York: McGraw-Hill, 1963), 1:80 그리고 Mark J. Fretz, “Weapons and Implements of Warfare,” ABD, 6:894을 보라.

¹¹ 사람들은 이 목록을 통해 역사적인 추론을 하기도 한다. 참고,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314: “엘링거는 이 절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기 언급된

어떤 이들은 전투에서 죽고(예: 아사헬, 삼하 23:24; 삼하 2:18-23 참조), 다른 이들이 추가되었을 것이다.¹²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각자 가장 존경받고 충성된 다윗의 용사이다.

그들의 이름에 여기에 있는 것은 그들이 다윗 왕국을 위해 싸우는 소명에 있어서 뛰어났기 때문이다. 사자를 쳐죽이고 애굽인을 제거하는 실화들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가족 관계나 고향과 함께 언급된 이름만 있다(삼하 23:24-39). 이름이 목록에 있다. 그것은 그들이 왕을 위해 싸우고 충성하는 데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들의 소명에 대해 배 아파하거나 다윗의 무자비한 힘과 폭력적인 힘의 심복이라고 그들을 조롱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그들은 싸웠다. 그들은 잘 싸웠다. 다윗이 여호와와의 언약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되었다. 그들의 팔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삼하 7:1, 10-11).”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왕국의 종이었다. 그들은 잘 싸웠기 때문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들의 일은 잊히지 않았다.

우리는 또한 신약 성경의 “왕국 목록들”에도 익숙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제국 아래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군사 엘리트들의 명단이 아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목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성경이 목록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이름들을 거명하는 것을 결코 지겨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에바브라(골 4:12-13)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롬 16:3-5a)에 관한 짧은 글을 보게 된다. 이것은 아비새-브나야 장르의 작은 표본이다. 가끔 이름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로마서 수신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롬 16:6),” 혹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롬 16:13)”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성경의

개인들이 다윗과 관계를 맺었던 대략적인 순서를 따라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면, 첫 12 명 중 대부분은 유다 사람들이다. 사실상, 전반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마자르는 이 목록이 다윗의 통치가 주로 유다에 국한되었던 시기를 반영한다고 추론한다.”

¹² 삼하 23:39은 8-39절에 나오는 용사들의 총수가 37명이라고 알려준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설명할 때 8-12절의 3 명, 18-23절의 2명, 그리고 (카일처럼, 본문을 정정할 경우) 24-39절의 32명을 더해 총 37명이라고 한다. 다른 이들은 삼십인의 목록(24-39절)에서 31명만 계산하지만 요압을 추가한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집계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말이다(참조, 볼드윈; 참고, 삼하 23:37). 술리(D. G. Schley, “David’s Champions,” ABD, 2:49-52)는 삼하 23:13, 23, 24 등에 나오는 [실로심] 대신에 [샬리심](BDB, 1026에 의하면, “부관, 장교”를 의미하는 [샬리시]의 복수형)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그는 [샬리심]을 “3인 분대로 조직되고, 왕에게 직접 소속되고, 왕을 위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간부 용사들(ABD, 2:51),” 혹은 더 간단히 “왕을 위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신뢰받는 용사들(ABD, 2:52)”로 이해한다. 제안은 매력적이지만, 잘 납득되지 않는다(참고, Fokkelman, *Throne and City*, 300-301).

현상(롬 16 장; 빌 2:19-30; 골 4 장; 딤후 1:16-18; 몬 23-24)은 성경의 주님을 반영하고 있다. 주님은 종들이 자신을 위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을 지켜보신다(막 9:41).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그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IV.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기억들 (삼하 23:39 The Memories That Can Haunt Us)

아버지께서 나에게(혹은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화를 내실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너는 월터 xx 와 같다. 어디서든 문제만 일으키는구나!” (여기서 나는 그분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성을 밝히지 않는다.) 월터 xx 는 아버지의 설교자 친구였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월터는 그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분란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꾸중이 “너는 꼭 월터 xx 와 같다. ...”는 것이었다.

다른 이름을 시도해보라. 헛 사람 우리아(삼하 23:39). 어떤 추억들, 어떤 연관된 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가? 글썄, 사무엘하 11-12 장 전부; 다윗의 정욕, 무자비, 배신, 잔인함에 관한 추잡한 이야기 전체가 떠오를 것이다. “삼십인”의 명단 마지막에 나오는 한 이름은 재생 버튼을 눌러 우리로 다시 그 난장판을 보고 듣게 한다. 피할 길이 없는가?

사무엘하에서는 없다. 대상 11:26-47 에 나오는 (갱신된?) 목록에는 약 16 명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다. 거기에 나오는 목록에서 우리아는 다소 흐려진다. 그러나 사무엘하에서 저자는 그 명단의 이른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삼하 23:24 에 나오는 아사헬에 주목하고 삼하 2:12-32 을 참고하면) 그 명단은 적어도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만큼 이르고 그때까지 기록한 마지막 이름으로 우리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삼십인의 명단은 쿵 하는 소리로 끝난다. 그것은 마치 저자가 우리아의 이름에 밝은 노란색을 칠하며 부각시키는 것과 같다. 어떤 독자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자가 우리로 사무엘하 11-12 장의 공포를 다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신호로 우리아의 이름을 마지막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가 우리로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헤르트버그는 이러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아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순전히 우연일 수 있다. 말하자면 초보자인 우리아가 그 삼십인으로 받아들여진 시점까지의 목록을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최종 편집자와 청중은 이런 관점에서 그 목록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목록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아라는 이름은 우리로 그의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다윗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목록은 왕을 배반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 배신당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난다. 이 목록의 끝은 우리에게 “다윗의 용사들 중 마지막

용사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영웅으로 삼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에서도 역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다윗과 그의 시대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필요로 했다.¹³

“헛 사람 우리아(삼하 23:39).” 그 마지막 이름은 가장 지저분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헤르츠버그는 다윗의 악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분의 제목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기억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면 우리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이것이 고전 15:9-10에 나오는 죄인의 괴수의 증언이다. 거기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헛 사람 우리아”란 어구처럼 끔찍하고 불길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라는 절이 있다. 지울 수 없는 기억이지만, 바울은 그것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 이는 그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현재 시제에 유의할 것)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겸손함 가운데 그는 그 기억의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다(고전 15:10a).¹⁴ 이것은 왕들과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끔찍한 기억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때, 여전히 거룩한 슬픔, 경건한 비통, 상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사무엘하 23 장은 전형적인 성경이 아닌가? 용사들의 한 목록에서도 우리는 은혜 속으로 달려간다!

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힘으로만 직면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직면할

¹³ Hertzberg, *I & II Samuel*, 408.

¹⁴ 이것에 대하여 나의 동료 챔블린(Knox Chamblin, *Paul and the Self*, [Grand Rapids, Baker, 1993], 24-25)은 고전 15:9-10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고전 15:9은 자신의 과거 죄의 무게에 짓눌려 여전히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고 ... 자격이 없다.’ 사도로서 바울의 효율성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가 박해자로 살았던 날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억이 그를 마비된 상태로 머물게 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고전 15:10은 그의 탁월한 업적을 증언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그의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사도로서 봉사할 활력을 얻었다.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은 바울로 자신이 구원받은 끔찍한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은 바울로 계속 은혜에 의존하게 한다.”

수 있는 보통 이상의 용기가 주어졌던 때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2.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만큼 그를 사랑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외적인 행동을 고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의무들에도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3. 주일의 예배가 낭비요 시간의 낭비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4. 로마서 16 장에 나오는 "왕국 목록"을 읽어보라. 여기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비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잊지 않으신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 여러분을 슬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용서했고 여전히 여러분을 격려하는 놀라운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우리아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

28. 물지각한 인구 조사 (삼하 24 장 Senseless Census)

내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아버지께서는 이상한 집안 규칙을 하나를 시행하셨다. 아무도 집 안에서 휘파람을 불어서는 안 되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아주 즐거워서 그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즐거움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집안에서 휘파람을 불지 말라!"는 법을 되풀이하는 높은 목소리를 듣곤 했다. 그런 규칙은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심리적인 질문을 했다. 왜 집에서는 휘파람을 불 수 없어요? 집안의 생동감을 덮어버리는 이 뚜껑이 왜 있어야 해요? 어머니는 모르셨다. (사실, 어머니가 왜 신경을 써야 하는가? 어머니는 휘파람을 불지도 않으셨고 휘파람을 불고 싶지도 않으셨다.) 어머니는 혹시 우리 친 할아버지께서 그의 가족이 집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사실, 나는 알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가 집 안에서 휘파람을 불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건 법이었다. 나는 순종만 하면 되었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휘파람을 불 수 있었다.

사무엘하 24 장의 인구 조사는 우리 집의 당혹스러움과 비슷하다. 인구 조사는 물지각한 행위처럼 보인다. 적어도 그것이 요압의 관점이다(삼하 24:3). 다윗이 믿게 된 것(삼하 24:10)처럼 인구 조사는 물지각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행위이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것(삼하 24:15)처럼 인구 조사는 죄를 짓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다. 인구 조사는 물지각하고 죄를 짓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것이 왜 물지각한 행위인가? 그것이 왜 죄를 짓는 행위인가? 그것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수를 세는 것이 왜 과실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 있다. 첫 번째 답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답은 네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이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두 번째 답을 살펴보자.

요세푸스(**유대인 고대사**, 7.13.1)는 유대인 전통을 반영하며 출 30:11-16(특히 12 절 주목)에 근거하여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요구되는 개인당 속전을 지불하는 것을 게을리했다고 주장한다.¹ 그러나 출애굽기 30 장의 속전이 일회성 요구이고 다윗 이후 오래 지나도록 선례가 되지 않았다면,² 속전과 관련된 잘못은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추론하며 인구 조사가 죄가 된 것은 그것에 대한 다윗의 동기에 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¹ Robert P. Gordon, *I & II Samuel: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6), 316에 나오는 유용한 논의를 보라.

² Nahu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195; W. H. Gispen, *Exodus*,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2), 283.

그래서 “비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다윗의 열망이다.”³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듯이) 인구 조사의 군사적 성격(참조, 삼하 24:9)에 주목하며, 인구 조사가 잘못된 생각된, 혹은 하나님의 승인의 한계를 넘어서, 추가적인 군사 정복을 위한 준비였다고 주장한다.⁴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상 27:23-24 이 암시하는 것처럼 처음에 다윗이 요압에게 아직 소집 대상이 아닌, 즉 20 세 이하의 사람들도 인구 조사에 포함시키라고 명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마도 다윗은 향후 몇 년 동안 가능한 군사 능력을 알고 싶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암묵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했다.⁵

이러한 설명 중 어느 것도 결정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다. 사무엘하 24 장은 우리에게 왜 인구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명시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⁶ 다만 내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잘못되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 나의 아버지께서 정하셨던 “집 안에서 휘파람을 불지 말라.”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사무엘하 24 장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보자.

사무엘하 24 장은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서 다윗이 상대하는 주요 등장 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다윗과 요압, 삼하 24:2-9

³ Gordon, *I & II Samuel*, 316. 참조, Claus Schedl,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5 vols. (Staten Island: Alba House, 1972), 3:262: “고대 셈족의 전 세계에서, 안다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권력이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았다. ‘그 수를 알기 위해’ 양이나 사람을 세는 것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지배권은 오직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께만 고유의 것이었다. 따라서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고유 지배 특권에 대한 월권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고 신성 모독의 행위로 비난되어야 한다.”

⁴ R. Laird Harris in TWOT, 2:731(표제 *pāqad* [파카드])의 주장을 보라. 그리고 Raymond B. Dillard, “David’s Census: Perspectives on II Samuel 24 and I Chronicles 21,” in *Through Christ’s Word: A Festschrift for Dr. Philip E. Hughes*, ed. W. Robert Godfrey and Jesse L. Boyd III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85), 105-106도 참고하라.

⁵ 매튜 헨리(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 vols. [New York: Revell, n. d]. 2:570)는 그의 시대에 이러한 견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Dillard, “David’s Census”, 105도 참고하라. 역대상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군사 조직에 대해서는 Yigael Yadin, *The Art of Warfare in Biblical Lands*, 2 vols. [New York: McGraw-Hill, 1963], 2:279-84을 참고하라.

⁶ 인구 조사가 요압을 괴롭혔다면(삼하 24:3), 거기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요압은 민감한 양심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윗과 하나님, 삼하 24:10-19

다윗과 아라우나, 삼하 24:20-25

이 개요는 본문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본문의 신학적 증언에 집중된다. 위에 제시한 부분들은 각각 그 증언의 한 요소를 강조한다.

1. 진노의 신비 (삼하 24:1-9 The Mystery of Wrath)

우리는 삼하 24:1 에서 이 신비의 깊숙한 곳으로 바로 들어간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⁷ 여기에 나오는 "다시"는 삼하 21:1-4 의 에피소드를 가리킬 수 있다. 어쨌든 다윗은 명령했고(삼하 24:2), 요압은 반대했고(삼하 24:3), 다윗은 그 반대를 묵살했고(삼하 24:4),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은 국내를 두루 돌아다녔다(삼하 24:5-9).⁸

그러나 삼하 24:1 을 인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발하시는 진노의 신비보다는 진노의 방법에 신경을 쓴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나중에 유죄가 되는 행동을 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상황은 내가 식사를 보는 관점과 비슷하다. 수수하지만 진정한 나의 견해로는, 식사는 후식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후식이 정말 식사라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사회적 관습(그리고 어떤 이들이 말하는 대로, 영양학적 지혜)에 따르면, 식사를 하는 그 유일한 이유(후식)에 참여하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샐러드나 채소 혹은 어떤 종류의 고기, 즉 내 생각에 "메인 코스"라고 잘못 불리는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삼하 24:1 에 대해 느끼는 신학적

⁷ 어떤 이들은 히브리어 구문([바요세프 ... 라하로트] = 어근 [야싸프]의 히프일 동사 + [하라]의 부정사의존형)이 "다시 진노하다"가 아니라 "계속 진노하다"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Robert 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93), 210, 232-33, 그리고 Robert G. Boling, *Judges,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Doubleday, 1975), 85, 그리고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Sheffield: JSOT, 1987), 221 을 보라.

⁸ 삼하 24:5-7 에 나오는 요압의 순회 길을 추적하려면 Yohanan Aharoni and Michael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3rd ed. (New York: Macmillan, 1993), 81 에 나오는 편리한 지도와 설명을 보라. 삼하 24:9 의 집계(이스라엘 80 만+유다 50 만)와 대상 21:5 의 집계(이스라엘 140 만+유다 47 만)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특히 Ronald F. Youngblood, "1, 2 Samuel,"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2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1098-99 을 보라.

[역자 주: 영블러드는 페인이 제안한 것을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받아들인다. 페인은 삼하 24:9 의 "이스라엘"과 대상 21:5 의 "온 이스라엘"에 유의하며 대상 27:1-15 의 정규 군대 28 만 8 천명이 포함되었기에 대상 21:5 의 수치가 더 크며, 유다의 경우 삼하 24:9 은 어림수이고 대상 21:5 은 더 정확한 수라고 설명한다.]

어려움이 사무엘하 24 장에서 관심의 “메인 코스”가 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삼하 24:1 이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하 24 장의 진짜 어려운 문제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그것을 다루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삼하 24:1 이 제안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상 21:1 의 병행 구절에 호소한다. 대상 21:1 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⁹ 우리가 두 본문을 나란히 함께 놓고 삼하 24:1 과 대상 21:1 을 읽어 보면, 대상 21:1 이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삼하 24:1 에서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의지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탄이 진짜 악당이고 여호와만 단지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 된다. 나는 두 본문이 사실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의지에 호소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더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사탄을 이용할 수는 없다.

삼하 24:1 에서 여호와의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Modern Language Bible(현대어성경)은 비인칭 구문을 사용해 동사 [쑤트](선동하다, 충동하다, 일으키다)의 주어를 일반인으로 보는 “One aroused David against them. 누군가 다윗을 자극해 그들에 대항하게 했다.”라는 번역을 제시한다. 가능한 번역이지만 자연스러운 번역은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동사 [쑤트]의 주어가 선행하는 동사절의 주어와 같은 것으로 보며 여호와 혹은 여호와의 진노라고 가정할 것이다.

NASB(1995)의 “[Now again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and] it incited David against them to say, ‘Go, number Israel and Judah.’ [다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붙고] 그것이 다윗으로 그들에 대항하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하였다.”라는 번역은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을 누그러뜨린다. 여기서 대명사 “it,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옳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호와는 그 동사의 본질적인 주어로 남아 있다. 그분의 진노는 그분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 3 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NASB 가 [아마르]의 부정사 [레모르]를 “to

⁹ 나는 대상 21:1에 나오는 [싸탄]을 고유 명사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죄를 짓도록 충동한 것은 군사적 대적이나 어쩌면 속이 컴컴한 내부 고문의 등장일 것이다. (특히 세일하머에 의해 주장된)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David M. Howard, Jr.,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Chicago: Moody, 1993), 245-48의 요약을 참고하고, Youngbloo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3:1096의 설득력 있는 반대도 참고하라.

say"라고 번역한 것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는 명령의 주체가 여호와가 아니라 다윗인 것을 암시한다.¹⁰ 이것 또한 가능한 번역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부정사[레모르]를 "saying"으로 번역하여 뒤따라 나오는 말들이 선행 주어(삼하 24:1의 경우, 여호와)가 말한 것임을 암시한다. 부정사 [레모르]는 우리가 가끔 쓰는 "...을 나는 인용한다(And I quote ...)"에 해당한다. (역자 주: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부정사 [레모르]는 우리의 인용 부호, 즉 큰 따옴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나에게 여전히 문법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것은 부정사 뒤에 인용된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윗이 행한 것에 대해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신학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문을 조작하고 싶지는 않다. 삼하 24:10을 보면, 분명히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명령의 형식으로 여호와의 역할을 묘사하고 전개되는 내러티브를 통해 실체가 무엇인지(즉, 다윗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누그러뜨린다. 부분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또한 그러한 일들에 대한 히브리인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삼하 21:1과 대상 21:1의 연관성을 논의하면서 월터 카이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히브리인 사고 방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인구 조사를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행위를 일으키신 것으로 간주된다. 히브리인들은 이차적인 원인들을 결정하는 것과 적절히 그것들을 정확한 원인으로 돌리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탓으로 돌려졌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분이 그것을 하셨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¹¹

이제 우리는 삼하 24:1(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과 그것의 주된 요점, 즉 진노의 신비로 돌아간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보는 명백한 어려움보다 더 깊은 신비가 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타오르며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죄를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신다.¹² 그러나 왜

¹⁰ [역자 주] NASB는 1971년에 완역된 후 1977, 1995, 2020에 개정되었다. NSAB 2020에는 "Now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again, and **He** incited David against them to say, 'Go, count Israel and Judah.'"라고 번역되어 있다. 여기서 "He"는 여호와를 가리킨다.

¹¹ Walter C. Kaiser, Jr., *Hard Sayings of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88), 131.

¹² Karl Gutbrod, *Das Buch vom Reich*,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2nd ed. (Stuttgart: Calwer, 1973), 282: "승리한 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그의 불경건하고 고압적인 행위로 인해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시게 하는 도구가 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듣지 못한다. 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은 아직 벌을 받지 않은 백성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압살롬을 위해 그리고 그 다음에 세바를 위해 다윗을 거부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언약의 머리를 거부했고, 따라서 여호와와 언약 자체를 거부했다. 이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셨다.¹³

이것은 이전 장들에서 추론한 것으로 그럴듯한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른다. 본문 자체는 침묵한다. 여호와와 진노에 대한 사실을 묘사할 뿐이고 그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설명하시고 그분의 길을 정당화하셔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본문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하지만 왜 진노하셨는지를 말해주지 않는 본문에 대해 우리 마음이 상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분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안에 신비들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요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실 빛이 있으시다고 미묘하게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경배하지 않는 오만함, 곧 지존자의 존전에 고개 숙이는 대신 거만하게 걸어 나오는 오만함을 쉽게 휘두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투명하지 않으셔서 화를 내는가?¹⁴ 우리가 신비를 가지고 살며 경배할 수는 없는가?

II. 자비의 온기 (삼하 24:10-19 The Warmth of Mercy)

다윗은 어떤 예언적인 개입과는 별도로 자책을 느꼈던 것 같다. 선지자 갓이 왔지만 왕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윗 왕이 이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한 후에(삼하 24:10) 여호와와 지시를 전하기 위해 왔다. 갓은 왕에게 여호와께서 세 가지 선택을 제시하셨고 왕이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삼하 24:11-12). 그 세 가지는

¹³ S. G. De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erines: Paideia, 1978), 2:188 (강조는 드 그래프의 것임). 카일도 비슷한 설명을 한다.

¹⁴ 브루게만(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351)은 이 절에 대하여 아마도 과장된 것일지라도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다.

3년¹⁵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 대적 앞에서 도망,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다(삼하 24:13).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 두 번째 선택지는 버리고 나머지 선택지는 여호와께 맡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⁶ 여호와께서는 전염병을 내리셔서 백성 칠 만명을 죽이셨다(삼하 24:15).¹⁷ 이것은 삼하 24:9의 자랑스러운 수치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자비에 대해 말한 것은 옳았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그 손을 거두라고 명하셨다(삼하 24:16). 여호와의 진노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그쳤다.

다윗은 여호와의 자비에 대하여 꽤 좋은 지적을 했다. 잠시 우리가 본문의 세부 사항에서 물러나 사무엘하 24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의 요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무엘하 24장의 구조

진노와 명령, 삼하 24:1-2

요압의 반대와 다윗의 고집, 삼하 24:3-4

여정과 집계, 삼하 24:5-9

다윗의 회개와 갓의 지시, 삼하 24:10-13

¹⁵ 삼하 24:13의 히브리어 본문은 “7년의 기근”으로 읽는다. 이것은 자주 칠십인역과 대상 21:12을 따라 “3년의 기근”으로 수정된다. 또한 삼하 21:1에 나오는 3년의 기근도 주목하라. 그러나 창 41:27에서 바로는 7년의 기근에 직면했다. 요세푸스(**유대인 고대사**, 7.13.2)는 여기서 7년의 기근을 선택했다.

[역자 주] 공동번역과 현대여성경과 우리말성경은 “3년”으로 읽지만,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맛소라 본문 그대로 “7년”으로 읽는다.

¹⁶ 이 입장을 위해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4), 413을 보라. 다른 입장을 위해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511을 참고하라. 헤르츠버그는 또한 세 가지 가능한 형벌 중에서 “기간 단축(3년, 3개월, 3일)은 그 내용의 강화와 일치한다.”라고 말한다. 히브리어 본문과 달리 칠십인역은 다윗이 선택을 여호와께 맡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친히 재앙을 선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S. R. 드라이버는 여기서 칠십인역의 본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번역자들이 긴장감을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이 자기를 위해 결정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¹⁷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라는 삼하 24:15 말씀에 들어있는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는 어구는 많이 논의되어 왔다. 이 어구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시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포켈만(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vol. 3,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Assen/Maastricht: Van Gorcum, 1990], 317, 323)에 내가 동의한다고만 말해 둔다. 삼하 24:16의 암시는 정해진 시간이 3일을 꽉 채운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신뢰받는 자비, 삼하 24:14

가해진 진노, 삼하 24:15

드러난 자비, 삼하 24:16

다윗의 회개와 갓의 지시, 삼하 24:17-18

여정과 목적, 삼하 24:19-21

아라우나의 반대와 다윗의 고집, 삼하 24:22-24

제사와 진노, 삼하 24:25

나는 우리가 모든 본문에서 잘 짜인 구조를 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론의 금송아지처럼(출 32:24) 그냥 이렇게 나왔다면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없지 않는가? 어쨌든 이 장의 핵심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주목하라(삼하 24:15). 그러나 삼하 24:15 바로 앞과 뒤의 부분들(삼하 24:14, 16)이 여호와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 구조를 통해 나는 자비로 둘러싸인 진노가 전체 장의 분위기를 사로잡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삼하 24:14 에 나오는 다윗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다윗이 이런 종류의 진술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적어도 이번이 세 번째이다(삼하 12:22 와 16:12 에 대한 나의 설명 참조). 다윗은 “내가 곤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외친다. 다윗은 곧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자비를 확신한다. 어쨌든 그는 자기를 치는 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상상한다. 다윗의 가정은 놀랍다! 삼하 24:14 에 나오는 그의 말은 필연적인 체념뿐만 아니라 무한한 위로를 담고 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라! 그의 위기들에서 그의 신학이 거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것이 믿음의 경험에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가장 암울한 순간을 위해 가장 좋은 신학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삶의 재앙과 죄악 속에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얼마 전 신문들에 (일리노이) 브룩필드 동물원의 일화가 실렸다. 세 살짜리 꼬마가 18 피트 아래 일곱 마리의 고릴라가 있는 곳으로 떨어졌다. 그 꼬마는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여길 병원으로 이송될 때 여전히 정신이 초롱초롱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고릴라가 있는 곳에서 빠져나왔는가? 일곱 살된 암컷 고릴라인 빈티가 그 꼬마를 집어들어 팔에 안고 사육사들이 데려갈 수 있는 문 근처에 내려놓았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고릴라를 친절과 연관짓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빈티에게 감사할 수는 있어도 다른 아이를 빈티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고릴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도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의 성품으로 보지 않고 예외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다윗은 자기가 고릴라 같은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와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삼하 24:14).” 여기에 자비를 꼭 붙잡는 신앙인이 있다. 아니, 내가 틀렸다. 자비가 그를 꼭 붙잡고 있었다.

III. 속죄의 필요성 (삼하 24:20-25 The Necessity of Atonement)

우리가 다윗 그리고 그 일행과 함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가기 전에 삼하 24:16 로 돌아가 이야기를 다시 계속할 필요가 있다. 다윗은 여호와와 자비에 대해 옳게 생각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 그것은 진노를 억누르는 자비였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고 하셨다(삼하 24:16).¹⁸

재앙을 그치게 할 때 여호와와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있었다. 그때 갓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했다(삼하 24:18). 다윗은 갓의 명령에 순종했다. 사실, 갓의 지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었다(삼하 24:19).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있는 제단이 여호와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삼하 24:19), 그 곳에서 바치는 제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삼하 24:16 의 끝에서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진노는 가라앉았지만 만족되지 못했다. 재앙은 삼하 24:16 에서

¹⁸ 삼하 24:17은 여호와께서 재앙을 그치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을 보고하는 회상문이다. 우리가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를 따라 삼하 24:17을 번역하면, 첫 동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과거 완료로 번역해야 한다. “다윗은 여호와께 말씀드렸었다(had said), 천사가 백성을 멸하는 것을 보았을(saw) 때—그는 말했(었)다. ‘보소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접니다. 악을 행한 사람을 바로 접니다. 이 양들—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신님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다윗은 자기에게 죄책이 있다고 고백하고 백성에게는 죄책이 없다고 가정한다. 여기에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다(Fokkelman, *Throne and City*, 326). 왜냐하면 우리가 삼하 24:1에 비추어 이스라엘이 무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의 고뇌는 완전히 적절하지만 충분히 알고 있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독자들 또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같은 질문을 갖는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삼하 24:1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멈추지만, 재앙 뒤의 진노는 단순히 줄어들거나 “보류”될 것이 아니라 처리되거나 신학적으로 달래야 했다. 그래서 삼하 24:25 의 제단과 제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라우나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다윗과 그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를 맞으러 나가서 적절한 격식을 차린 후, 왕께서 왜 자기 타작 마당에 오셨는지를 묻는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한다. “네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삼하 24:21b).” 예상되는 희생 제사와 여호와의 진노의 표시인 재앙의 결정적인 억제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제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아직 타작 마당 자체는 아니지만?)를 무료로 제공한¹⁹ 것처럼 보인다(삼하 24:22-23). 그러나 다윗은 온전하고 공정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고집하며 은 오십 세겔을 달아서 준다(삼하 24:24).²⁰ 그리고 거기서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런 다음 상황은 바뀐다.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다(삼하 24:25; 참조, 삼하 21:14).” 그런 다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삼하 24:25; 여기서 삼하 24:21 에 나온 동사 [아싸르]가 동일하게 사용됨). 찰스 웨슬리가 노래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자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 가운데 진노를 억제하신다(삼하 24:16). 하나님은 자비 가운데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통해 자신의 진노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다(삼하 24:21, 25).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로 깨닫고 있는가? 1944 년 10 월 일본의 태양은 태평양 전쟁에서 빠르게 지고 있었다. 곤도쿄 해군 참모 차장이 되기로 되어 있는 다키지로 오니시 제독은 필사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왔음을 인식했다. 필리핀 루손섬의 마발라카트 필드에서 그는 전쟁의 흐름을 뒤집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공개했다. “내 생각에 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250 킬로그램의 폭탄을 실은 제로 전투기를 가지고 그들의 항공모함 비행 갑판에 충돌 다이빙하는 것이다.” 자살 공습.

¹⁹ 그러나 우리는 고대 근동에서 동사 “주다(히브리어 [나탄], 삼하 24:23a)”가 정말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세기 23장의 거래 논의에서 그것은 분명 “제시하다” 혹은 “팔다”를 의미했다.

²⁰ 대상 21:25에서 다윗은 금 육백 세겔을 지불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전체 부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별도의 거래였을 것이다. A. F. Kirkpatrick, *The Second Book of Samuel*, The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Cambridge: CUP, 1897), 232을 참고하라. 역대기에 나오는 병행 이야기에는 다른 강조점이 있다. 여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일어난 일(진노를 물러가게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만, 역대상 21장에서는 그것이 일어난 장소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미래의 성전의 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상 21:20-22:1).

가미가제(죽게 될 것을 알면서 적을 향해 돌진하는) 조종사들. 이러한 공습은 재래식 공습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오니시 제독은 그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전술을 계속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오니시 제독의 계획은 일본 제국 해군의 병사와 장교 2519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45 년 8 월 15 일에 전쟁의 즉각적인 종단을 촉구하는 제국 포고령이 나왔다. 그날 저녁 오니시 제독은 전사한 부하들의 용맹한 행동에 감사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죽음으로써 나는 이 용감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썼다. 그러고는 바로 그는 사무라이 검을 복부에 꽂았다. 그는 어떤 의료 지원도 거절했고, 아무도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저녁 6 시까지 고통에 잠겨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장시간의 고통을 견디기로 한 그의 선택은 분명히 이 세상이 보았던 가장 사악한 전술을 펼치게 한 그의 역할에 대한 속죄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짓는다.²¹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책에 대한 답인가? 아니면 그의 진노가 가라앉고 우리의 죄책이 속함을 받을 수 있는 **제단을 마련하는 신**이 있는가? 본문의 증언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러한 신이라는 것이다. 제단은 범죄한 다윗과 죄 많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히 13:10). 그것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그리 멀지 않다. 우리는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가 풀린 곳임을 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이 그의 심판의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고(막 15:33)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어두움을 꿰뚫기 때문이다(막 15:34). 오니시 제독이 그것을 알았기를 바란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그분의 자비가 많으심을 알게 된다.

IV. 연구를 위한 질문 (Study Questions)

1. 개개인의 속전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마 17:24-27 을 보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가 그것을 낼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낼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임하는 진노를 "도덕적 우주에서 인과법칙의 불가피한 작용," 곧 비인격적인 것으로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 견해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아는가?
3. "자비에 둘러싸인 진노." 갈 3:13 에 나오는 바울의 심오한 말은 이것을 가장 놀라운 의미로

²¹ Rikihei Inoguchi and Tadashi Nakajima, 'Death on the Wing,' *Secrets and Spies: Behind-the-Scenes Stories of World War II* (Pleasantville, NY: Reader's Digest Association, 1964), 447-51(인용문들은 447쪽과 451쪽에 나옴).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므로 그것이 자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여러분을 감사로 가득 채우는가?

4.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로 갈보리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상기시키는가?
5. 사무엘하로부터 여러분이 배운 주요 교훈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 적어본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묵상하라.